

25

대한위암학회 25년사

1 9 9 6 — 2 0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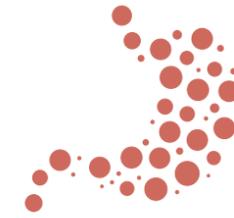
도전과 성취의
사반세기



대한위암학회

**대한위암학회
25년사**

1996 - 2021



도전과 성취의
사반세기



대한위암학회

대한 위암 학회 25년사

발간사·기념사·축사

25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배님들의 업적을 기리며, 후학들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배재문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한위암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위암학회 제5대 이사장 배재문입니다.

1년 이상 진행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우리 학회도 정상적인 학회 활동이 이뤄질 수가 없었고 진료, 연구, 교육 등 회원님들의 활동에도 많은 불편과 사회적 생활의 어려움을 체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와 변화가 새로운 표준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코로나19의 창궐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는 1993년 대한위암연구회를 중심으로 위암 관련 학술 활동이 시작되었고, 1996년 대한위암학회가 대한외과학회 산하 학회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학술 잡지도 정기적으로 발간했으며, 위암 교과서,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했고, 2014년부터는 국내 개최 국제대회로 변모해 이제는 국제위암학술대회(IGCC)에 버금가는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술지도 활성화되어 2010년에 영문으로 바뀌었고, SCI급 학술지로 성장했고, 2021년에는 impact factor가 3.72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회도 대한외과학회 산하 학회로 소속되어 있지만, 소화기내과, 항암 관련 학회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고, 다학제 학회를 지향해 위암을 진단, 치료, 연구하는 모든 임상,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회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제위암학회, 일본위암학회, 중국항암협회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위암학술대

회를 두 번이나 개최한 위암에 관해서는 세계 중심 국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회가 창립 이후 훌륭한 선생님, 선배님들께서 발전시켜 온 우리 학회의 발자취를 2021년을 맞이해 4반세기 25주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학회 내실화 작업의 하나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학회 창립 초기부터 학회 활동을 해오신 선생님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이제는 기억이나 자료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삶의 순환이 안타까워 그 추억과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백서 발간을 기획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 발간을 하고자 했고, 앞으로 이러한 역사의 정리가 학회에도 도움이 되고, 후학들에게도 조그만 지침이 될 수 있다면 저의 소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회의 역사를 통해 미래의 학회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했고, 좋은 전통은 이어가면서 시대에 따른 변화를 통해 계승,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복잡하고 일이 많은 백서 발간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정재호 편찬위원장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서 발간의 일정과 내용을 마련하고,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이고 뜨거운 열정과 땀이 없었다면 백서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서의 자료 제공이나 면담 등으로 협조해 주신 많은 분의 수고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백서 편찬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학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가 사실에 입각해 가능한 완전한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하거나 시각에 따라서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백서 준비를 위해 불편함을 끼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학회를 위한 충정으로 넓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수정하겠습니다.

또 이 번 백서 발간은 종이 인쇄본이 아닌 전자 출간의 형태로 발간됩니다. 이런 시도도 변화와 혁신의 하나이며, 회원 여러분들이 소장하기에도 간편하고 오류의 정정, 보완도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가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생님, 선배님들의 업적을 기리며, 후학들에게 조그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대한위암학회 회장
정호영

수많은 업적을 가능하게 도와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위암학회의 25주년사 발간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제가 학회장으로 있는 시기에 완성하게 되어 더 한층 영광스럽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COVID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아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학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각종 회의를 가능한 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학술대회 역시 온라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애타게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팬데믹 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달라진 일상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때맞춰 우리 학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해 후학들에게 남기는 일은 우리 각자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기에, 이번 25주년사 발간은 이러한 재난의 상황속에서도 학회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일이라 하겠습니다. 준비에 애쓰신 배재문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들,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님들,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큰일을 맡아서 하신 정재호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위암학회는 1993년 11월에 만들어진 대한위암연구회를 거쳐서 1996년 11월에 출범했으니 어느덧 4반세기를 맞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외과학회 산하의 작은 연구회로 시작해 다학제의 학회로, 또 나아가 국제적인 학회로 변모와 발전을 거듭했으니 25년이라는 세월을 매

우 숨가쁘게 지내왔다는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을 상대로 싸워오면서 힘겨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학회가 회원님들과 함께 이룩해낸 빛나는 업적들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암 발생률 1위의 국가에서 위암 환자의 치료 성과와 생존율을 세계에서 1위로 올려놓았고, 국민들이 지난 시절 동안 불치의 병으로 여기던 위암을 이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수명을 늘렸고 삶의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전국 위암 등록사업과 함께 국가적 규모의 조사를 시행해 위암 기재사항을 위한 설명서와 위암진료권고안을 마련했고, 『위암과 위장관 질환』이라는 교과서를 편찬했습니다. 2001년 창간되어 편집자가 일일이 부탁하며 투고자를 힘들게 불러 모으던 학회의 학술지가 이제는 전체 투고의 20% 정도만이 게재되는 IF 3.72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한위암학회가 지나온 25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이뤄졌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업적을 하나하나 모두 나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도와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서서 학회를 만들고 이끌어 주신 여러 선배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미 고인이 되신 김진복 교수님과 민진식 교수님의 영전에 머리 숙여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옛말을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처럼 되뇌이면서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목청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위암학회 만세!

2021년 9월



대한외과학회 회장
서경석

대한위암학회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대한위암학회 여러분, 대한위암학회 창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1993년 11월 대한위암연구회 창립을 시작으로 1996년 11월 대한 위암학회가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으로는 김진복 교수가 선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위암학회는 창립된 지 3년 만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회 국제위암학회(3rd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학회의 연혁을 보니 2001년에 대한위암학회지를 창간했고 전국 위암등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암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위암에 관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는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를 창립되었고, 2006년 KLASS 01 trial을 시작으로 그 후 여러 연구를 시행해 우수한 결과를 유명 의학 학술지에 많이 게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0년에 학회지를 Journal of Gastric Cancer 영문학술지로 변경을 했고, 2012년 SCOPUS, 2017년 SCI(E)에

등재된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위암학회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학회지의 Impact Factor가 3.720으로 상승된 것은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위암학회는 25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그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져놓으신 많은 선배 외과의사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 제작되는 대한위암학회 25주년 기념 백서가 대한위암학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빠짐없이 기록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사의 소중한 사료가 되어 앞으로 후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위암학회가 헌신적인 학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위암 질환의 정복에 큰 역할을 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며 전 세계를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기념 백서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외과학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대한의학회 회장
정지태

사반세기 전통의 대한위암학회, 눈부신 성장을 축하합니다

학회 창립 사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위암학회의 눈부신 성장을 축하합니다.

연구회로 시작한 역사를 포함하면 3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학회고, 학회 창립 3년째인 1999년 제3회 국제위암학회(3rd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단단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04년 학회 창립 10년도 안 되어 그 활동의 탁월함과 연구 업적으로 대한의학회 회원으로 인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그간 발행 하고 있던 대한위암학회지를 영문학회지로 변경해 Journal of Gastric Cancer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학회지가 2012년 SCOPUS에 등재되고, 2017년에는 SCIE 등재되어 2021년 현재 IF 3.720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간의 학회 활동을 살펴봐도 대한외과학회의 산하 단체인 위암연구회가 1996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위암공동연구회 제12차 위암국제회의 및 6차 총회를 개최해 학회의 국제적 위상과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

아 대한위암학회로 발전했고, 2005년 북강경위장관연구회를 창립하며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2014년 이후 매년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를 개최해 우리 의학의 수월성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의학회의 우수 회원 학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조기 위암 발견이 많아지면서 EMR, ESD 등의 시술이 널리 행해지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학회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환자에게는 큰 의학적 도움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학회에서도 폭넓은 학술 활동과 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학회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드리며, 대한의학회의 우수한 파트너 학회로 함께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25년 세월 동안 많이 헌신해 오신 학회의 이사장, 회장, 이사, 각 위원회의 위원, 회원과 학회 사무원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끊임없는 국제화를 통해 우수한 우리 의료기술을 개발도상국에도 전파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크게 기여하는 학회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대한암학회 회장
박근철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대한위암학회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학회 활동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일찍이 1996년 창립되어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인 위암의 예방, 조기 검진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대한위암학회의 창립 25주년을 맞아 모든 암학회 회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암학회는 활발한 연구 활동, 학술행사 개최와 학술지 발간뿐 아니라 국내 위암 진료 현황 조사 및 위암 등록 사업, 위암 교과서 출간, 치료 지침 개발, 나아가 대한 의학회 산하 위장관 분과 교육, 관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빈도 암인 위암의 극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차례에 걸쳐 국제 위암학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몽골 위암학회와의 협력 강화, 국제 학술행사인 KINGCA Week를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등 국내 위암 진료 및 연구 수준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대한의학회 우수 학회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착실하게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지면을 빌려 축하 드립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발전은 오롯이 학회 여러분들께서 흘린 귀한 땀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의 발간은 여러 선배님과 더불어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발전시켜 온 위암 학회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귀중한 사업이자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내실을 다지고 보다 융성하는 내일을 기약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의학은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서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빈도 암인 위암의 정복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과 공동연구 등에 배전의 노력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의 글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위암학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I 1996~2021 대한위암학회 25년사

발간사 6
 기념사 8
 축사 10

序 국내 위암 진단과 치료의 시작 20
 1장 대한위암학회의 태동과 창립 (1996~1998) 26
 2장 학회 조직의 정비 및 도약 (1999~2004) 48
 3장 미래를 내다본 성장 (2005~2011) 70
 4장 아시아의 리더, KGCA (2012~2016) 100
 5장 대한위암학회의 현재와 미래 (2017~) 130

II 1996~2021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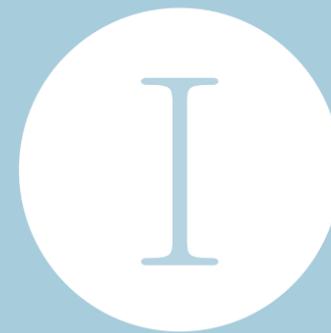
1. 대한위암학회 미션·비전 152
 2. 대한위암학회 회칙 154
 3. 조직 & 임원 163
 4. 산하 연구회 166
 5. 로고 변천 172
 6. 학술지 변천 173
 7.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174
 8.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6
 9. 회원 통계 248
 10. 회원 명부 249
 11. 위암 관련 전국 통계 252

화보 260
 대한위암학회 연표 300
 편찬후기 302



胃癌研究

1993.11.6



1996~2021

대한위암학회 25년사

- 序 국내 위암 진단과 치료의 시작
- 1장 대한위암학회의 태동과 창립
(1996~1998)
- 2장 학회 조직의 정비 및 도약
(1999~2004)
- 3장 미래를 내다본 성장
(2005~2011)
- 4장 아시아의 리더, KGCA
(2012~2016)
- 5장 대한위암학회의 현재와 미래
(2017~)

序

국내 위암 진단과

치료의 시작

한국에서 이뤄진 위암에 대한 수술 기록은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독부의원연보에 따르면 1911년에 위암에 대한 시험적 개복술이 1회 시행되었으며, 위암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는 1명, 입원환자 역시 1명이었다. 이 시험적 개복술에서 위절제술이 시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과학의 역사를 다룬 종래 연구에 따르면 1910년대 후반 무렵부터 국내에서 위절제술이 간혹 시행되었다고 한다.¹ 조선총독부의원에서는 1922년에 위암 수술이 6건 시행되었으며, 1923년에는 10건, 1924년과 1925년에는 23건이 시행되는 등 분명 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² 그러나 수술 환자의 성별을 제외하고는 연령이나 병기, 수술의 방법, 수술 후 생존율 등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시행 건수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진단과 치료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 위암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A. I. Ludlow 교수가 1929년 The China

1911년 조선총독부의원 수술 환자 기록표. 위암 수술 1건 기록.

1925년 조선총독부의원 수술 환자 기록표. 위암 수술 23건 기록.

1925년 조선총독부의원 수술 환자

1911년 조선총독부의원 수술 환자

Medical Journal에 발표했던 'Carcinoma in the Korean'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세브란스병원의 한국인 입원환자 1만 명 중에서 암 환자는 150명이었는데, 그중 위암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환자가 75명으로 가장 많았다.³ 이처럼 서양 의학의 보급이 불안전했던 시절에도 위암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는 물론 사회적 관심의 환기도 필요했다.

1930년을 전후로 위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잡지인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 1930년 3월호에는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 오가와 시게루(小川番) 교수와의 대담 '위암문답(胃癌問答)'이 게재된 바 있었다. 이 대담에서 오가와 교수는 위암의 증상으로 식욕 감퇴와 소화 불량 등을 들면서 조기 발견과 수술적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⁴ 또 동아일보에서는 1936년 4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위암 이야기,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사형 선고 받는 위암'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통해 질환에 대한 정보와 성격, 치료법을 다뤘다. 1~2회에서는 위암이 고령자뿐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과 그 원인, 그중에서도 유전적 요인도 존재한

470 The China Medical Journal

TABLE No. 4. OCCURRENCE OF CARCINOMA. Severance Hospital, 10,000 Inpatients (6800 male—3700 female) April 1922 to April 1927.

Anatomical Distribution	Sex	Total	Age in Years						Cured, on 1/26/27	
			25-30	31-40	41-50	51-60	61-70	Imp.	Dis.	
1. Stomach	17	75	2	14	17	21	2	15	27	6
2. Ovary	15	15	1	5	6	2	1	9	2	4
3. Penis	13	13	0	4	5	3	1	13	0	0
4. Mammary Gland	1	1	0	0	0	0	0	1	0	0
5. Skin	2	6	0	0	1	2	0	1	4	0
6. Intestines	1	5	0	1	2	0	0	1	0	0
7. Liver	1	4	0	1	2	0	1	0	3	1
8. Rectum	1	3	0	1	0	0	0	0	0	1
9. Ovary	2	3	1	0	1	1	0	3	0	0
10. Thyroid Gland	1	2	0	0	0	1	0	1	0	1
11. Antrum Highmore	1	3	0	0	1	0	0	1	0	0
12. Vagina	2	2	1	1	0	0	0	1	1	0
13. Oesophagus	2	2	0	0	2	0	0	2	0	0
14. Lower Jaw	2	2	0	0	0	2	0	2	0	0
15. Urinary Bladder	1	1	0	0	0	0	1	0	1	0
16. Kidney	1	1	0	0	0	1	0	0	1	0
17. Orbit	1	1	0	0	1	0	0	0	1	0
18. Mammary	1	1	0	0	0	0	0	1	0	0
19. Hair-Perfolical	1	1	0	1	0	0	0	0	1	0
20. Nasal cav.	1	1	0	1	0	0	0	0	1	0
21. Multiple	1	1	0	1	0	0	0	0	1	0
Grand Total	77	100	3	24	23	20	7	27	51	14

한국의 위암에 관한 최초의 보고

1 전세일·예병일, 1999 「한국 외과학의 지난 100년」, 『의사학』제8권2호, pp.151-152.

2 朝鮮總督府醫院, 1913 『朝鮮總督府醫院第一回年報』, p.49, 59, 71; 朝鮮總督府醫院, 1924 『朝鮮總督府醫院第十回年報』, p.49; 朝鮮總督府醫院, 1925 『朝鮮總督府醫院第十一回年報』, p.49; 朝鮮總督府醫院, 1926 『朝鮮總督府醫院第十二回年報』, p.49.

3 A. I. Ludlow. 'Carcinoma in the Korean', The China Medical Journal vol.43 no.5, pp.470-471, 1929.

4 「胃癌問答」, 『朝鮮及滿洲』 1930년 3월 제268호, pp.85-87.



1936년 4월 동아일보 연재 중 1회

다는 것을 설명했다.⁵ 제3~4회는 위암의 병기와 그에 따른 증상, 제5~7회는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중 7회에서는 조기 발견과 수술적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년마다 X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특히 위암 수술에 대해서는 ‘위암 수술은 비

교적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면이 아닌, 깊은 곳이므로 내장외과 중에서는 제일 곤란한 수술’이라고 하면서도 ‘이 수술도 해마다 진보되고 개량된’ 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수술 후 생존율 등의 통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기사 말미에는 ‘위암 환자를 수술하는 일은 생사를 분별하는 경계’이며, ‘죽으면 얼른 죽는 것이 행복, 살자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수술적 치료의 생존율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⁶

한국인으로서 위암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던 초창기 인물로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시절의 백인제 교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이용설 교수 등이 언급된다. 이용설 교수의 경우 1920년대 초반 외과 조수 시절부터 러들로 교수가 단독으로 수술을 집도하기 어려워지면서 여러 외과 수술을 담당했다고 전해진다.⁷ 따라서 그가 세브란스병원에서 1920년대 이후 시행된 위암 수술을 집도, 혹은 참여했을 확률이 높다. 백인제 교수는 그의 제자 장기려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일본과 만주에서도 그

의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으며 위장, 특히 위궤양, 위암, 간담관, 유방암, 갑상선 등의 수술을 많이 시행했다고 한다.⁸ 한국전쟁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의 민광식 교수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귀국, 미국식 의학과 외과술을 도입하는 등 위암과 대장암 분야의 수술 및 연구로 활약했다.⁹

해방 이후 위암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955년 처음으로 나타난다. 김창송 등에 의하면 1955년에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 입원해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5명이었다.¹⁰ 해당 연구에서는 도별, 직업별 환자의 수와 혈액형별 분석을 제시했는데,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위암으로 입원한 278명 중 경기도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서울이 61명, 충남과 충북이 각각 35명, 21명이었다. 또 직업별로는 농업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혈액형은 A형이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 방법의 경우, X선 검사를 통한 진단율이 높았는데, 수술 전 진단이 위암인 비율이 64.4%였다. 278명의 환자 중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31명이었고, 수술을 받은 247명 중에서 근치적 혹은 고식적인 절제가 가능했던 케이스는 55.8%였다. 수술 후 사망은 7건이었으며, 5년 생존율은 구하지 못했다.¹¹ 이후 민광식 교수가 대한외과학회지에 1961년 ‘최근 6년간의 위암의 통계적 관찰’과 1963년 ‘위암의 위절제 후 5년 생존율’을 발표했다.¹² 1965년에는 이창주 등이 1959년 7월부터 1964년 12월까지 위암으로 수술한 62례의 환자에 대한 5년 생

⁷ 서울대학교 한국학인물사 편찬위원회, 2008 『한국학인물사』, 태학사, p.331.

⁸ 위의 책, p.342; 학교법인 인제학원, 1999 『선각자 백인제』, 창작과 비평사, p.93.

⁹ 위의 책, pp.392-393.

¹⁰ 김창송 · 최병무 · 진병호, 1961 『위암 278예에 대한 통계적 관찰』, 『대한외과학회잡지』, 제3권4호, pp.47-53.

¹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0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사』, 진기획, p.129

¹² 이외에도 민광식 교수는 ‘위암의 외과적 요법’(1961, 『최신의학』, 4권8호), ‘분문부 위암의 근치수술법’(1966, 『대한외과학회지』, 8권8호), ‘한국인 위암의 시기적 고찰’(1970, 『대한외과학회지』, 12권6호) 등의 연구를 발표했다.

존율을 보고했다. 이창주 등에 따르면 당시 위암 환자의 전체 5년 생존율은 22.2%였는데, 그중 영역입파 절전이가 양성인 예에서는 20%, 음성인 예에서는 50%, 위아전절제 예에서의 5년 생존율을 28.5%, 위전 절제 예에서는 0%, 평균 생존 기간은 11개월이었다.¹³

1960년대에는 정부의 의료 균점 정책에 따라 각 지방에 거점 병원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차관을 통한 의료기기의 도입으로 내시경, 초음파 등이 점차 진단에 필수적인 장비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 suction pump, Levin tube, urinary catheter 등의 사용과 기관절개술, 수액 요법, 비구강 영양법과 전신마취제 halothane의 도입으로 수술 과정 및 환자 회복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아울러 미국에서 수련이나 연수를 마친 의료 인력들이 귀국해 국내 의과대학에 정착, 후진 양성에 공헌하면서 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의학계 전반의 학술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조기 위암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인식된 시기로, 이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김진복 등이 1973년 발표한 것으로 이들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4년 동안 9예의 조기 위암 환자를 경험했다고 했다. 위암의 병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병기에 따른 분석은 이뤄지지 못했으나,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진행성 위암의 수술 성적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 증상이 촉진되는 종류였으며, 80% 이상에서 임파절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진행성 위암의 수술 후 생존율이 불량했기 때문에 위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수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아울러 예후를 호전시키고자 Cytoreductive Surgery 후 면역요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주로 상처 감염이 많았다. 당시 수술기법에 대한 논문들은 수술 후 합병증이 많았던 위전절제술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전절제술 후 재건 방법으로 주로 end to side esophagojejunostomy를 많이 이용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약 40%였고 수술 사망률은 6%에서 9.4%로 상당히 높았으며, 그 원인은 주로 문합부 합병증이어서 수술 시 feeding jejunostomy를 추가하는 경우

¹³ 이창주, 진병호, 1965 「위암의 원격성적」, 『대한외과학회 제17차 학술대회초록집』, p.446(서울대학교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0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사』, 진기희, p.129에서 재인용).

가 흔했다.¹⁴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터 컴퓨터 단층촬영을 비롯해 초음파, 혈관 촬영, 내시경, 자기공명장치 등 첨단 진단장치가 도입되면서 암의 조기 또는 잠재병변의 발견이 한층 용이해졌다. 이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위암의 조기암 발견율과 수술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술기의 측면에서는 복강동맥근부 및 주변 림프절 광청을 시행하는 Appleby 수술이 정립되는 단계에 있었다. 또 내과적 약물, 즉 히스타민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히스타민 길항제인 싸이메티딘 등의 보급으로 십이지장 천공이나 상부위장관 출혈이 감소하면서 궤양 수술이 줄어든 반면, 내시경의 발달로 인한 내시경적 용종 제거술이 증가했으며 내시경적 식도정맥류의 지혈 등으로 보존적 치료 또는 저침습적 치료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⁵

1980년대에는 의과대학의 신설이 러시를 이루고 병원의 대형화가 시작되는 한편, 경제성장에 발맞춰 국내 의학계도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각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외 연수와 해외 학회 참석이 빈번해지면서 선진 의학과와의 접촉 속도도 하루가 다르게 빨라졌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학회의 국내 유치도 증가했다. 1983년 9월 제15차 아시아·태평양 국제범외과학회(대회장 문병기, 조직위원장 이용각)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87년 9월, 제8차 아시아태평양 암학회 학술대회(대회장 및 조직위원장 김진복)에는 ‘암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암면역생물학적 연구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50개국에서 1,200명 내외의 학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989년 8월에는 제2회 동아시아 소화기외과학회(대회장 김진복, 조직위원장 주흥재)가 한·중·일 3국의 소화기외과 의사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같은 국제화의 흐름은 이후 한국 외과학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의 역할을 했다. 대한위암학회는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 위에서 미국 의학을 받아들이고 의료 전반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30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국내 의학의 발전적 토대 위에서 그 창립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¹⁴ 대한외과학회, 1999 『대한외과학회 50년사』, 의학문화사, pp.97-112; 김응규·이용우, 1988 『한국외과학발전사』, 수문서관, pp.128-169.

¹⁵ 대한외과학회, 위의 책, pp.120-127; 권성준, 2005 「위암수술의 역사」, 『대한소화기학회지』, 제45권 1호, pp.17-18.

제1장

대한위암학회의 태동과 창립 (1996~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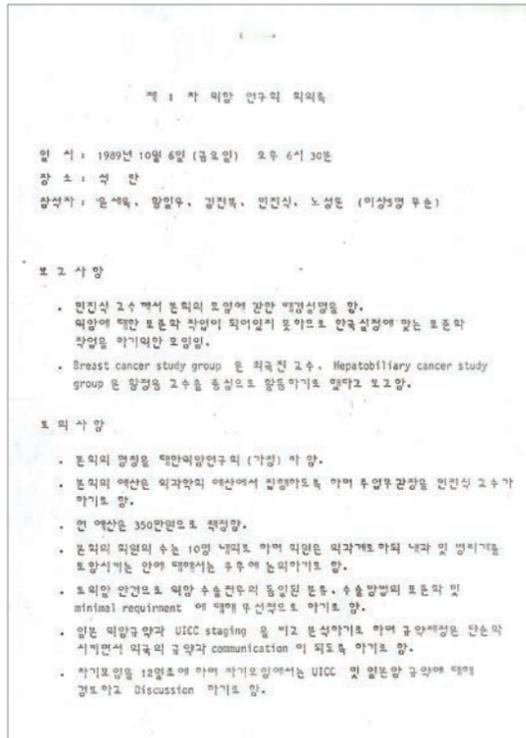
1. 대한위암연구회 창립(1993~1996)

국내 의학계는 1950년대부터 암을 한국인의 중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인식했다. 물론 서구와 비교했을 때 당시 한국은 암 진단율이 낮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주요 사망원인에 들기 어려웠으나 서구는 전염병, 결핵 등에 대한 치료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의 국내 암 관련 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암, 그중에서도 발생률이 유독 높았던 위암의 치료 성적이 좋지 못했음은 사실이었다. 이에 국내 의료계 선각자들은 일찍이 암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연구를 목적으로 1958년 대한암연구회를 창립한 바 있었다. 이후 병원의 증가 및 진단 장비의 발전에 힘입어 암이 의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73년에는 기초와 임상 분야를 아우르는 대한암학회가 창립되었다.

위암은 과거부터 치료의 과정에서 수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질환이었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외과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외과학의 분과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였다. 대장항문병학회(1968년 4월 20일, 회장 진병호)와 이식학회(1969년 12월 13일, 회장 기용숙)가 창립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맥관외과학회(1984년 7월 4일, 회장 이용각), 두경부종양학회(1984년 11월 3일, 회장 설대위), 소아외과학회(1985년 1월 18일, 회장 황의호), 외상학회(1985년 5월 3일, 회장 이한구), 응급의학학회(1989년 12월 1일, 회장 황의호) 등이 연이어 창립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점차 일반외과에서도 위장외과, 대장항문외과, 간담도외과, 유방 및 내분비외과, 혈관, 이식외과 등 기관 및 질환에 따른 전문 분과화가 시작되었다.

1989년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주홍재)는 한국에서 발생률이 높은 대장, 유방, 간담췌, 그리고 위암 등의 치료지침을 작성할 목적으로 각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¹ 이에 그해 10월에 김진복, 민진식, 주홍재, 윤세욱, 황일우, 서재관, 박재갑, 김충배, 조용관, 노성훈 교수 등이 참여한 대한외과

¹ 김진복 교수는 '대한위암학회 역사'(2001, 『대한위암학회지』 제1권1호, p.1)에서 대한외과학회의 연구비가 300만 원이었다고 밝혔는데, 당시 제1차 연구회 회의록에서는 외과학회에서 지급하는 연간 예산이 35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89년 10월 6일 제1차 연구회 회의록(유완식 교수 제공)

학회 산하 위암연구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모임의 소집 책임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민진식 교수였으며, 노성훈 교수가 간사 역할을 했다. 첫 번째 모임은 1989년 10월 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대신동에 위치한 석란에서 열렸다.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민진식 교수는 회원들에게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은 관계로 한국 실정에 맞는 지침의 작성이 해당 모임을 조직하게 된 배경임을 설명했다.

제1차 연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모임은 외과계 인사 10명 내외로 유지할 것이나 내과 및 병리과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당 모임의 구체적인 목적은 위암 수술 전후의 분류 기준과 수술 방법의 표준화, 그리고 처치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사

항을 담은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1차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본의 위암 규약과 UICC(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 국제암학회)의 병기 분류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규약은 간략하되 해외의 규약과 상호성 있게 제정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회원들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제는 다음 모임까지 UICC 및 일본의 규약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회에서 총 16회에 걸친 회의 끝에 1992년 7월 무렵 한국에 적용할 위암의 기재규약안 초안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 대한병리학회 산하 소화기병리학회(회장 김용일)에서도 '위암의 병리학적 취급규정 시안'을 발표하는 등 당시 의학계 전반이 위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²

16회에 걸쳐 개최되었던 대한외과학회 산하 위암연구회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특히 일본 기재규약

²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학 연구회, 1992 「위암의 병리학적 취급규정 시안」, 『대한병리학회지』84권2호, pp.154-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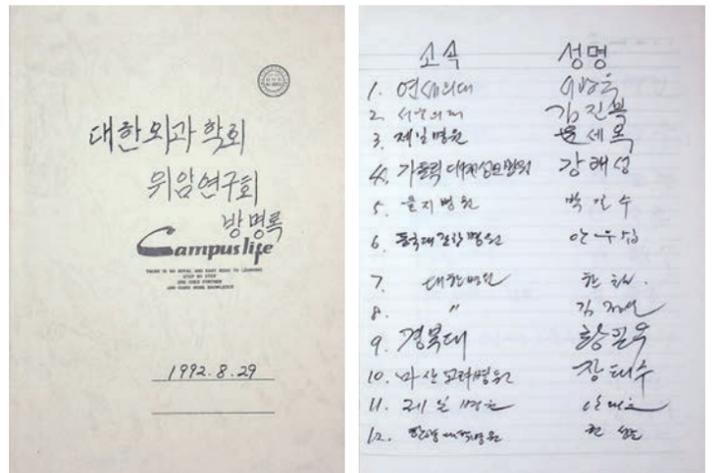
³ 김진복, 2004 『仁峰 金鎮福의 외길』, 송죽문화사, pp.87-88.

을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이는 위암의 병기 구분 때문이었다. 1960년대 일본 위암연구회에 의해 작성된 위암취급규약안은 병변의 크기와 전이에 따른 UICC의 병기 구분과는 다른 기준을 채택했다. 암의 병변을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개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연구회에서는 UICC와 일본의 규약을 함께 비교·검토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였는데, 일찍이 1960년대부터 위암연구회를 결성하고 이후 학회를 창립시키면서 위암의 진단과 치료, 연구 수준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 이에 한국에서는 김진복 교수가 1969년 도쿄에서 시행된 제1회 국제 조기위암연구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일본 암연구회병원의 니시 미쓰마사(西滿正) 박사, 그리고 위암 수술의 일인자로 알려져 있었던 가지다니(梶谷) 박사와 인연을 맺은 바 있었다.³ 김진복 교수는 이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한위암연구회, 나아가 학회의 창립을 계획, 도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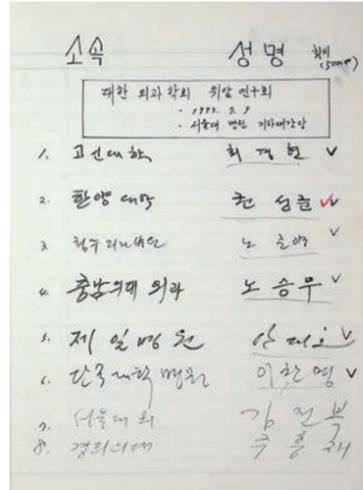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의학계가 본격적으로 국제화를 도모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초반 무렵에는 외과의들을 중심으로 위암 수술의 술기를 익히기 위한 일본 연수가 매우 활성화되었다. 다수의 대학병원 의료진이 도쿄암센터로 장단기 연수를 떠났는데, 그곳을 다녀온 의료진을 중심으로 학술적 교류와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암연구동우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이처럼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조직되는 현상은 전국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외과에서 내부적으로 위장관, 간담도, 대장·항문 등으로 세부 전문 분야를 구분하기 시작한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위장관 분야에서는 단연 위암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질환이었고, 이에 1990년대 초부터 위암의 진단과 치료를 공부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들이 대구·경북, 광주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무렵 김진복 교수는 조용관 교수와 더불어 전국 병원의 위장관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대한외과학회 산하 위암연구회 모임에서 작성된 기재규약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1992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A강의실에서 위암의 기재규약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여러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한국의 첫 위암기재규약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크고 작은 개별 모임을 통해 교류하던 전국의 위장관 분야 의료진



위암의 기재규약안 공청회 방명록(199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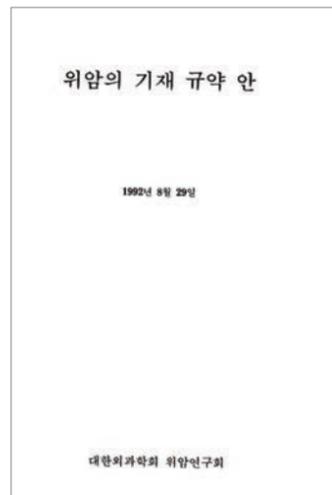


대한외과학회 위암연구회 방명록(1993.7)

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위암의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견해를 나누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공청회에서 기재규약이 통과된 이후 그것의 배포와 사용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노준양, 유환영, 권성준, 목영재 교수 등이 기재규약의 전산화 사용을 위해 Stomach Exever 1.0 디스켓을 제작했고, 1992년 11월 5일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를 70명의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그리고 각 병원에서 약 6개월간 기재규약을 활용한 이후인 1993년 7월 다시 서울대학교병원 A강의실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거쳐 기재규약의 부분 개정이 확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위암 통계를 컴퓨터로 분석할 것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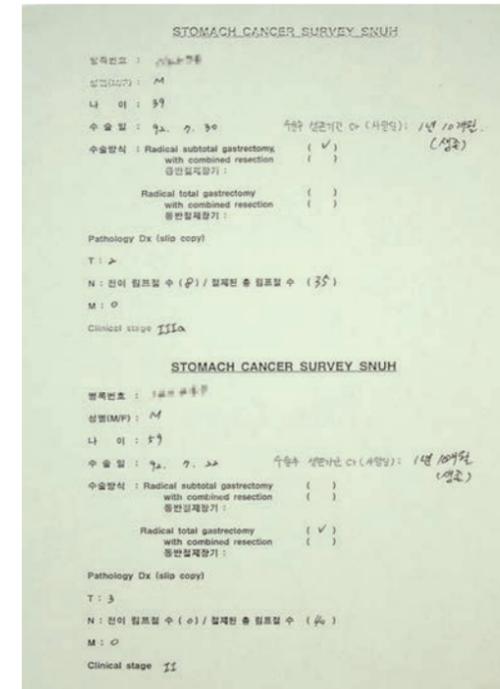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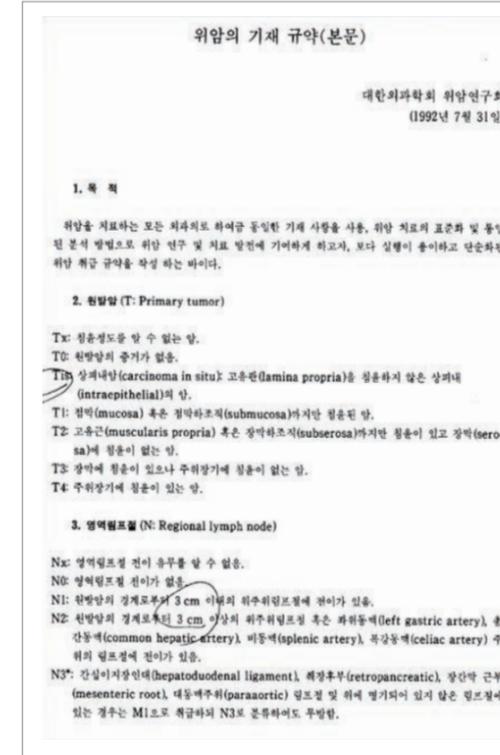
이상의 활동을 위해 김진복 교수의 추천에 따라 민진식, 윤세옥, 황일우, 주홍재, 조용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권성준, 양대현, 목영재(이상 서울), 송영진(충북), 노승무(충남), 양두현(전북), 박기호, 손수상(대구경북), 서재관(부산) 등의 지역위원과 전산위원(노준양)도 선출했다. 이처럼 기재규약의 작성과 공청회, 그리고 배포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지의 개별적 연구모임들을 통합한 전국 규모의 연구회, 대한위암연구회의 정식 창립이 임박했다.

김진복 교수는 1993년 9월 독일 뮌헨에서 대한위암연구회, 나아가 위암학회의 창립에 대한 포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당시 뮌헨에서 개최되었던 'WHO 위암 예방, 진단, 및 치료 공동연구회 제5차 총회 및 제14회 워크숍'에는 조용관, 이종인, 목영재, 노성훈 교수 등을 비롯해 다수의 국내 의료진이 참가했다.⁴ 김진복 교수는 학회에서 '위암환자의 면역화학수술요법' 강의를 마친 후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국내 의료진에게 연구회 창립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뮌헨에서 형성된 연구회 창립의 공감대 위에서 1993년 11월 6일 대한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정이 종료된 이후 롯데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56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위암연구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개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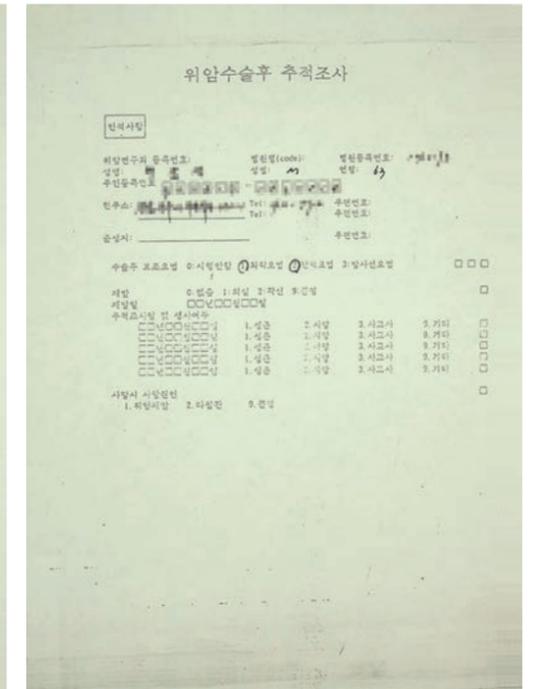


공청회에서 공개한 위암 기재규약안(목영재 교수 제공)

⁴ 위의 책, pp.272.



위암수술 기재사항



다.⁵ 당시 창립총회 개최 안내문에는 60명에 이르는 발기인 명단과 더불어 대한위암연구회 회칙안을 지참해 달라는 공지가 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대학병원 및 거점 병원의 의료진이 발기인으로 고루 참여했는데, 이로써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대한위암연구회의 창립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기인대회에서는 김진복 임시회장의 경과보고와 회칙 설명에 이어 회칙안이 통과되었으며, 곧바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대한위암연구회 회장으로 김진복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민진식, 김세민 교수가, 간사로는 조용관, 노성훈, 유환영, 노준양 교수 등이 임명되었다.

곧이어 창립을 기념하는 제1차 대한위암연구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권성준 교수가 진행성 위암, 조용관·유환영·목영재 교수가 위암기재규약에 따른 5년 생존율, 유완식 교수가 위암에 관한 WHO-CC의 보고서에 대해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대한위암연구회는 연간 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결정한바, 다음해인 1994년 5월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정에 맞춰 대한위암연구회의 제2차 학술대회 및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대구가톨릭대병원의 박기호 교수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완식 교수 등 대구 지역의 의료인들

소속 성명
 34 대한 위암 연구회 발기인 대회
 35 1993. 11. 6.
 36 잠원 롯데월드호텔 Jade-동
 37 충북의대 노승무
 38 국립의대 조몽남
 39 한양대 권오중
 40 서울대김영진 김영진
 41(생)인성대 김진식
 42 계명대 손득상
 43 중앙대유환영 유환영

대한위암연구회발기인대회 방명록(199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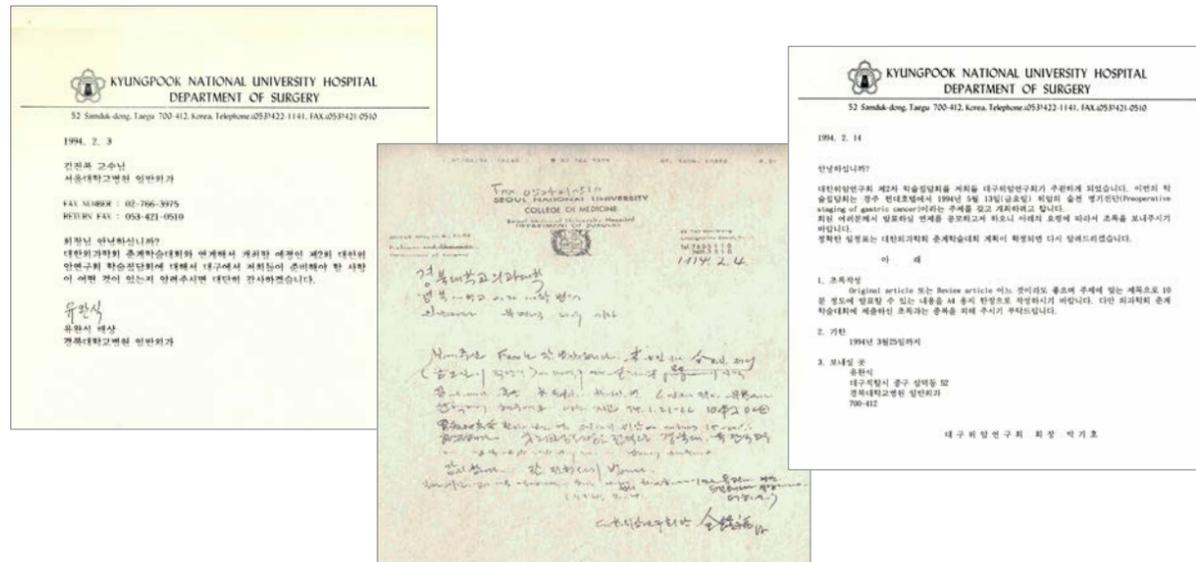


대한위암연구회 창립 총회(1993.11.6)

로 조직되었던 대구위암연구회가 대한위암연구회 제2차 학술대회 개최를 주관하게 되었다.

제2차 학술대회는 ‘위암의 술전 병기진단(Preoperative staging of gastric cancer)’이라는 주제로 1994년 5월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총회도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총회 당시 추후로 미뤘던 지역이사와 직능이사를 선임하고, 감사 및 간사를 새로 임명했다. 이때 선임된 이사·간사진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울	민진식, 주흥재, 목영재, 권오중, 권성준, 양대현, 이종인
	충북	송영진
지역이사	충남	노승무
	전북	양두현
	전남	김영진
	경북	유완식, 박기호, 송선교
직능이사	김용일, 박찬일, 최규원, 박인서, 최병인	
감사	김세민	
간사	조용관, 노성훈, 노준양, 양한광 ⁶	



대구위암학회-김진복 회장 간 왕복 서한(유완식 교수 제공)

⁵ 김진복, 2001 「대한위암학회 역사」, 『대한위암학회지』제1권1호, pp.1-2.

⁶ 위의 논문, p.2.

대한위암연구회는 김진복 회장의 활발한 국제 학술 교류 활동에 힘입어 국제 학술대회를 활발하게 유치했다. 특히 1990년에 국제암학회(UICC) 이사로 선출되었던 김진복 회장이 연구회 창립 이전에 1994년에 개최가 예정된 위암 치료를 위한 UICC 워크숍을 서울로 유치했던바, 대한위암연구회가 해당 워크숍을 주관하게 되었다.⁷ 1994년 7월 UICC Workshop on Gastric Cancer Treatment가 서울대학교병원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위암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였던 일본 국립암센터의 마루야마, 기타지마, 나카지마 타하라 박사 등이 내한했고, 독일 뮌헨대학의 Siewert, 영국 버밍엄대학의 Fielding과 더불어 대한위암학회의 김진복, 민진식 교수 등이 위암 수술에 관한 최신 지견을 강의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는 6개 수술장에서 6인의 위암 환자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Live surgery demonstration이 진행되었다. 이때 김진복 교수가 일본 게이오대학의 기타지마 교수와 함께 조기 위암 환자에게 Laparoscopic Wedge Resection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국내 최초의 복강경 위절제술이었다.⁸ 워크숍에 등록된 120명의 국내외 외과의 중 희망자는 수술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강당에서 집도 의료진과의 Q&A가 진행되었다.⁹

두 번째로 주관했던 국제 학술행사는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Gastric Cancer(세계보건기구 위암공동연구회, 이하 'WHO 위암공동 연구회'로 표기)의 제12차 국제 세미나 및 6차 총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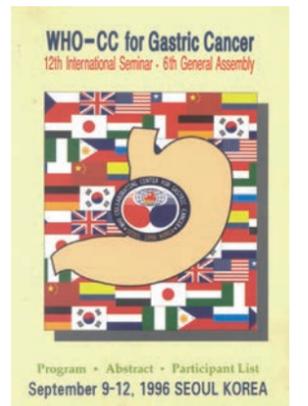
UICC Workshop on Gastric Cancer Treatment(목영재 교수 제공)



WHO 위암 공동연구회 제12차 국제 세미나 및 6차 총회(박조현 교수 제공)

WHO 위암공동연구회는 일찍이 1990년 6월 도쿄에서 개최한 제4차 총회 및 9차 워크숍에 한국 대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만청(영상의학)·김진복 교수를 초청한 일이 있었다. 당시 워크숍에서 김진복 교수는 '위암의 합리적 수술법으로서의 면역화학수술요법'과 '한국 고유음식의 위암발생에 관여하는 실험적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일본 국립암센터의 스에마스 원장, 그리고 마루야마 박사를 만나 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⁰

마루야마 박사가 1994년 UICC 서울 워크숍 당시 내한했던 것 역시 이때의 만남 이후 양측 학술 교류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진복 회장이 참여하는 WHO 위암공동연구회의 국제 세미나는 2년 주기로 개최되었는데, 제12차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됨에 따라 대한위암연구회가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1996년 9월 9~12일 국내외의 위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WHO 위암공동연구회 제12차 국제 세미나 및 6차 총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¹¹



WHO-CC 포스터(1996)

⁷ 김진복, 2004, 앞의 책, p.233, 269.

¹⁰ 김진복, 2004, 앞의 책, p.221.

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010, 앞의 책, p.174.

¹¹ 김진복, 2001, 앞의 논문, p.2.

⁹ 김진복, 2001, 앞의 논문, p.2.

1994년과 1996년에 두 차례의 국제 학술행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대한위암연구회의 춘·추계 국내 학술대회도 정기적으로 치러졌다. 1994년에는 5월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학술대회에 이어 7월과 11월 서울에서 제3, 4차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어진 1995년에도 5월과 11월에 각각 경주와 서울에서 제5, 6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996년에는 9월 WHO 위암공동연구회 제12차 국제 세미나로 춘계 학술대회를 대체했지만, 그해 11월에는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대한위암연구회는 1993년 11월 창립 이후 총 8회의 국내 정기 학술대회와 2회의 국제 학술행사를 치르면서 단일 기관이자 단일 질환을 연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역량 있는 학술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 대한위암학회 발족 및 초기 활동(1996~1998)

대한위암학회를 발족하는 것은 대한위암연구회가 1996년 9월 WHO 위암공동연구회 제12차 국제 세미나 및 6차 총회의 개최를 준비하던 시점에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미 제3회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위암연구회 김진복 회장은 앞서 1995년에 창립된 국제위암학회(International Gastric Cancer Association, IGCA)의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상황이었다. 초창기 국제위암학회는 학술대회와 총회를 겸해 개최했는데 총회에서 회장의 이·취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최지가 대체로 신임 회장의 국적에 따라 정해졌다. 국제위암학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는데, 초대 회장은 일본의 니시 교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제2대, 3대 회장이 함께 선출되었는데, 제2대 회장으로 독일의 Siewert 교수가 선출됨에 따라 제2회 학술대회 개최지는 뮌헨으로, 제3대 회장으로는 김진복 교수가 선출됨에 따라 제3회 학술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었다.¹² 이처럼 종래 치렀던 UICC 워크숍이나 WHO 국제 세미나보다 큰 규모의 학술행사인 국제위암학회를 유치함에 따라 대한위암연구회는 그것의 개최를 주관하기 위한 대표성과 격식을 갖춘 조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996년 11월 제8차 학술대회를 겸해 개최된 총회에서 새로운 회칙의 통과와 더불어 대한위암학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학술대회 차수는 대한위암연구회 학술대회 차수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새롭게 통과된 회칙에 따라 초대 회장으로 김진복 교수가, 부회장으로는 민진식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사에는 대한위암연구회 이사들이 유임되었으며, 간사는 조용관, 노성훈, 양한광, 노준양 교수 등으로 결정되

¹² 김진복, 2004, 앞의 책, p.290, 308.

었다.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의 가입을 위한 준비 절차도 시작했다. 당시 학회에서는 총 359명의 회원 명단과 10여 차례에 걸친 학술대회 초록집 합본을 준비해 우선 대한의학회 준회원 가입 절차에 들어갔다.¹³

창립 직후의 학회 활동은 사실상 대한의학회 준회원 가입 업무와 국제 학술대회 준비가 중심이 되었다. 학회의 창립이 사실상 제3회 국제위암학회의 개최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곧 제3회 국제위암학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무총장 민진식 교수를 필두로, 목영재 교수가 총무위원을, 노성훈, 양한광 교수가 학술위원을 담당해 국제 학술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국제위암학회는 2년 주기로 학술대회와 더불어 총회가 치러졌기 때문에, 뮌헨에서 제2차 국제위암학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이었다. 국제위암학회의 차기 회장이자 학술대회 특강 연사로도 초청받은 김진복 회장을 포함해 대한위암학회 구성원 다수가 뮌헨에서 열린 제2차 국제위암학회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1999년으로 예정된 서울의 제3차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홍보에 힘썼다.¹⁴ 1989년 외과학회 산하의 연구회와 전국의 크고 작은 위암 연구모임들이 통합되면서 탄생했던 대한위암연구회는 대한위암학회의 창립 및 제3회 국제위암학회 개최를 계기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¹³ 김진복, 2001, 앞의 논문, pp.2-3.

¹⁴ 김진복, 2004, 앞의 책, p.308.

기초적인 위암 연구의 적극적인 훌륭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손수상 (제3대 회장)



세부분과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어떻게 키우게 되셨는지요?

제가 1982년 서울대학교의 김진복 교수님과 함께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암학회에 갔었습니다. 간켄이라고 불리는 일본 암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 가즈다니 교수가 위암 수술의 권위자셨습니다. 고(故) 이병철 회장도 이 가즈다니 교수에게서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가즈다니 교수를 만나 간켄에 총 3번을 갔는데, 거기서 그분의 해부학적인 위절제술을 보면서 제가 있는 동산의료원에서도 저렇게 수술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때는 외과이라면 모든 부위의 수술을 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앞선 술기를 접하고 경험하면서 관심을 키웠습니다. 또 제가 군의원 시절부터도 연구논문에 관심이 많았고 제대 후에도 마찬가지로여서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외과학회에서 한국인의 위암에 관한 발표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당시 미국 외과학회에서는 매년 5명을 선정해서 상금과 연수 지원을 해줬었는데, 제가 그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메모리얼슬로운케터링병원, 클리블랜드클리닉 등을 비롯해 4개 기관을 돌면서 단기 연수도 받았지요. 단기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곳 연구 기반이 워낙 좋았으니까 다시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비로 해외 파견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

에 지원해 예머리대학으로 또 2년간 연수를 떠났지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은 1년인데, 예머리대학 측에서 1년 더 제가 있을 수 있게 조치해 줬습니다. 그때 암과 위암이라는 질환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위암학회에는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1993년에 대한위암연구회가 발족했을 때부터 일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대구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경북의대, 영남의대, 파티마병원 등에서 위암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 5명이 모여 위암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경북의대 동창, 동산의료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작은 모임이었지요. 이렇게 대구위암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기재규약안처럼 위암 환자의 진단 및 수술 기록을 통일시키고, 서로 진단이나 술기에 관한 사항도 공유하고 그랬답니다. 케이스 스터디도 해가면서. 그러던 중 1990년대 초에 전국 단위로 크게 연구회가 조직된다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대구 지역 멤버들은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요.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위암연구회 제2차 학술대회는 대구위암연구회가 주관해 준비했었습니다.

학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주로 행사들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참여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땐 새마을호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으니 물론 힘들었지요. 그래도 외과학회나 위암학회 일에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빠짐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김진복 교수님이나 민진식 교수님께서 상당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항상 저를 많이 아껴 주셨지요. 그렇게 꾸준히 참여한 덕분인지 2000년에 민진식 교수님께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저를 부회장으로 지목하시더군요.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총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회장 임기가 시작되실 때 학회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한의학회 가입을 위한 변화였다고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2000년에 민진식 교수님이 신임 회장이 되시면서 제가 부회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상임이사제도를 채택했지요. 부회장으로 있을 때 학회가 가장 주력했던 것 중 하나가 대한의학회

가입이었습니다. 회원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수도 중요하지만, 학회지나 학술대회 등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권성준, 노성훈, 목영재, 양한광 교수가 굉장히 많이 애썼는데,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가입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학회지를 만들긴 했지만 내실 있는 연구가 많이 게재되어야 했고, 학술대회 개최 숫자도 처음에는 부족했거든요. 이런 평가 요소들을 착실하게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세 분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2004년 3월에 회원학회가 되었습니다. 회장 임기 중이셨을 때인데, 모두가 큰 보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마치 어려운 대학입시에 합격한 기분이었지요. 명예회장이셨던 김진복 교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제게 자랑스럽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을 때가 2001년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회 임원들이 3~4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회원 수가 적은 학회는 아니었지만, 학회지를 발행하고 학술대회도 꾸준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원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도 꾸준히 내고, 임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길지 않은 기간 안에 회원학회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 저 뿐 아니라 학회 전체가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세부전문의제도 시행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위장관외과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명칭은 어떻게 정해지고 쓰이게 되었나요?

2002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외과학교실에서 내부적으로 세부분과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때 분과명을 위장관으로 정했어요. 말하자면 제가 우리나라 첫 ‘위장관외과 교수’가 된 셈이지요. 2004년에는 제가 대한외과학회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때 외과학회에서 위장관외과라는 명칭으로 세부전문의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위암학회에 보냈습니다. 부르는 이름을 정하는 것은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진단과 치료의 영역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부위장관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제한적이예요. 위암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수술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소장과 같은 연결 기관도 다루기 때문에 위장관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하는 일을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으로 재임하실 당시에 첫 번째 산하 연구회인 복강경위장관 연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기를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양한광 교수가 복강경위장관연구회 KLASS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전부터 복강경의 기초가 되는 스테플 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하 연구회의 창립을 지지했습니다. 외과의라면 테크닉의 발전 속도를 항상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1970년대 군의관 시절에 이미 수도병원에서 내시경을 다뤘었습니다. 지금은 내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다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맞아요. 2005년 3월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복강경 위장관 창립총회를 겸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는데, 로봇 수술로 유명한 미국 하켄섹대학의 발렌타인 교수와 일본에서 복강경 수술로 유명한 기타노 교수도 초청해 하이테크닉 일렉트로닉 머신의 도입과 활용,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외과의들이 이런 부분에 빨리 눈을 뜨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양한광 교수, 김형호, 형우진 교수 등이 복강경위장관연구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나라 위암 수술의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시던 2001년부터 학회 정보전산위원회에서 전국 위암등록사업을 시작으로 위암 진료 현황, 위암 환자 데이터에 관한 조사, 2004년에는 복강경 수술 현황 조사 등을 계속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 활동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지요?

2001년 3월에 시행했던 위암등록사업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1995년과 1999년에도 전국의 데이터를 수집했었는데, 2002년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등록사업을 시행했지요. 데이터가 모이면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암등록사업을 시작하고 약 1년 후인 2002년 1월에 보건복지부 후원을 받아서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제1회 위암 표준검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했었습니다. 저도 위암의 조기검진 현황 세션의 좌장으로 참석하고, 소화기학회에서도 참석해 조기 검진 방법에 대한 세션도 진행되었지요. 제일 마지막 세션에서는 위암의 조기 검진 권고안이라는 것을 두고 토론했는데, 검진을 시작하는 연령과 방법, 검진의 주체와 장소, 주기 등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이 필수적인 검진 항목으로 자리 잡았고, 또 보건복지부와 우리 위암학회에서도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많이 홍보했었지요. 학회가 전국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주관함으로써 위암이라는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위암학회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꼽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보다도 대한위암연구회라는 조직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회를 창립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해 오기 위해 학회를 창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IGCC를 개최하기 위한 협력 조직으로는 학회가 더 적합했으니까요. 순서가 약간 역전된 느낌이 들 수는 있어도 1999년 김진복 교수의 공로로 제3회 IGCC를 서울에서 개최한 덕분에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일찍부터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역시 대한의학회 가입이 중요했습니다. 가입 그 자체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지만, 가입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술지의 발간과 학술대회의 개최에 그만큼 우리가 공을 들였거든요. 이는 그 기간 동안 학회의 내실이 다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용관, 이종인, 김동현, 김인호, 노성훈, 목영재, 권성준, 양한광, 박조현 교수 등 모든 초창기 임원들께 교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이십니다. 대한위암학회와 오랜 세월 함께 해오신 분으로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대한위암학회는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학회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대한위암학회가 매년 KINGCA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학회 구성원들이 무추열한 교육과 교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 성적만으로는 세계를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에서 더욱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임상 연구는 많이 생산하는 편이지만, 그보다는 생화학·병리학 분야 등과의 협동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확실히 위암 환자 수도 줄고 위암을 전공하는 의사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위장관 질환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기 질환 중에서는 여전히 위가 가장 질환이 많은 기관이고요. 특히 위과의 위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앞으로는 위암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②

학회 활성화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

조용관(제4대 회장)



대한외과학회 산하 위암연구회 모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민진식 교수님께서 외과학회 학술위원장이셨는데, 외과학회는 학술위원장이 차기 이사장이 되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외과학회에서 대장, 유방, 간담체, 위암 이렇게 파트별로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암연구회라는 모임이 꾸려졌고, 아시다시피 주흥재, 김진복, 민진식, 윤세옥, 황일우, 서재관, 박재갑, 김충배 교수님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젊은 축은 노성훈 교수 정도였어요. 그때 그 모임에서 공부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위암기재 규약, 즉 일본에서 작성된 위암취급규약이었습니다. 원래 국제 위암규약이라고 UICC와 AJCC라는 것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 일본 위암연구회에서 위암취급규약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JGCC라고 부르는데, 병변의 깊이에 따라 위암의 병기를 구분했다는 점이 기존의 UICC나 AJCC와 달랐습니다. 그때 UICC나 AJCC는 단순히 병변에 크기와 전이에 따라 위암의 병기를 구분했거든요. 때마침 내시경이 도입, 보편화 되면서 병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던 점도 JGCC의 작성에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본의 위암취급규약은 위암 진단 및 치료의 개념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JGCC는 위 내부 림프절에 위치에 따라 절제 부위를 구분하는, 말하자면 치료 가이드라

인 역할도 했습니다. 이 JGCC를 요약한 영문판이 곧 유포되었는데, 1989년에 조직된 위암 연구 모임에서도 기재규약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JGCC를 살펴보고 공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본 오사카 성인병센터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당시에 JGCC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기회도 있으셨는지요?

제가 1986년에 연수를 갔는데, 오사카 성인병 센터에 위암취급규약 작성에 참여하신 이와나가 선생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보다 약간 젊은 친구들이, 특히 도쿄 국립암센터에 많이 있는데, 다들 가는 똑같은 곳에 가면 뭐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마음먹은 것도 있어서 저는 오사카를 갔습니다. 그때는 연수 지원금이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어느 정도는 자비 연수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도 변하고 해 저는 당직의로 근무하면서 연수 비용을 충당했어요. 당직 근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바쁘지는 않으니까, 그때 틈틈이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했던 이유는 번역본이 아닌, 위암취급규약 원문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당직 근무하면서 공부한 일본어로 나중에 논문도 냈으니까, 목표했던 바는 달성했다고 봐야지요. 일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1989년 4월에 나왔는데, 김진복 교수님께서 제게 연락하시더군요. 일본어가 능숙하고 위암취급규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 모임에 같이 참여하라고요. 그렇게 그해 10월 시작된 대한외과학회 산하 위암연구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이 그래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한두 달 간격으로 모두 16번 정도를 만났는데, 목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위암의 기재규약안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1992년 7월 모임을 마지막으로 그 연구회는 해산되었고, 그때부터는 김진복 교수님과 제가 둘이서 공식적인 위암연구회를 조직하기 위한 회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8월에는 연구회 모임에서 만든 기재규약안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준비할 때 김진복 교수님께 말씀드렸지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위암 공부하는 모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모임들을 흡수해야 한다고요. 김진복 교수님께서도 이를 흔쾌히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이 모인 가운데 1993년에 대한위암연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암기재규약안의 활용 성적이랄까, 평가는 어땠습니까?

처음 만든 것이었으니까 완성도가 높고 세밀한 기재규약안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암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위암취급규약을 토대로 한 측면도 많았

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했을 당시에도 기재규약안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재규약안이 통과되었고, 또 젊은 의사들이 그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대한위암연구회를 창립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간략한 연구도 발표했습니다. '위암기재규약에 의한 수술후 5년 생존율(조용관, 유환영, 목영재)'은 기존에 각자 가지고 있었던 병원 데이터를 기재규약안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Stomach Exever 1.0으로 돌려본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4월 상임이사제도가 채택되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학회 조직에서 교수님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1993년에 대한위암연구회를 조직하는 준비 작업을 김진복 교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1989년부터 모임을 지속한 끝에 작성했던 기재규약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도 도와드렸으니까요. 1990년대 초반 무렵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 위암을 전공하는 김진복 교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한광 교수는 그때 마침 연수 중이었고요. 그래서인지 그때 도와드렸던 일을 두고 김진복 교수님께서는 늘 제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나중에 꼭 잊지 않고 보답하겠노라고 하셨지요. 이후 양한광 교수가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고, 그때부터는 양한광 교수가 분주한 학회 일들을 거의 도맡아서 했습니다. 학회 살림을 꾸리는 일은 목영재 교수가 담당했고요. 학술대회 준비부터 팸플릿 제작까지 목영재·양한광 교수가 일일이 직접 알아보면서 학회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UICC 워크숍이나 WHO-CC 국제 세미나 같은 굵직한 행사들이 연달아 개최되었는데, 목영재·양한광 교수 두 사람이 주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해서 해냈고 저는 의견을 내는 정도였습니다. 김진복 교수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지요. 그래서 2000년에 민진식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제가 연구회 모임 시절부터 일했던 것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 직책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부회장, 회장 재임 기간 중 산하 연구회 KLASS가 발족했습니다. 학회 리더로서 지켜보신 KLASS의 창립과 성장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KLASS는 정말로 우리 학회의 복덩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새로 복강경을 배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지만 젊은 의사들은 금방 배워서 익히니까, 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KLASS를 대한위암학회 산하 연구회로 이끈 장본인은 양한광 교수였어요. 김형호 교수나 한상욱 교수, 형우진 교수 같은 젊은 세대들을 대한위암학회로 이끈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때 양한광 교수가 위암학회를 수익사업을 하는 기

관으로 변경시키고 제안했습니다. 스폰서십을 뚝뚝하게 맺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수익사업으로 돌리려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면 가서 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KLASS로 연구비도 많이 땀기 때문에 그렇게 학회에 발생한 수입은 다시 KLASS를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암의 병리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외과학 교수로서 느끼는 위암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제가 참여했던 연구는 임상병리학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대이지요. 그만큼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으니까요. 지금은 암이라는 병이 진행되는 양상을 더 가까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의 전파 경로도 예측해서 치료하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암 환자에 대한 추적도 더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제가 연구하던 시절부터 5년 생존율을 추적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재발하는 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 추적 연한을 더 길게 가져가면서 재발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근치적이고 광범위한 절제와 청소의 술기는 빠르게 발전한 것에 비해 재건은 사실상 1970년대 이후로 술기에서 괄목할 만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은 환자의 회복은 물론이고 이후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래 암 환자가 빠르게 고령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재건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고민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2005년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제1 부회장, 제2 부회장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어떻게, 왜 시작된 것이었습니까?

학회가 너무 외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제 개발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항암제는 자꾸 새로 개발되고, 암에 대한 내과적 치료가 점점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과만의 학회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외과학회 산하로 위암 연구회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대한위암연구회를 조직하면서부터는 줄곧 다학제를 지향해 왔습니다. 김진복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2000년대 중반에도 학회 전체 구성에서 내과 회원의 수가 적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여율에서 차이가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의 학회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제2 부회장 자리를 새로 만들고, 전남대병원의 유종선 교수라고 젊은 분

을 부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위암학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연 KLASS였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학회가 좀 정체되었달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학회지도 발간하고,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는 등 학회로서의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기는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의학회에 가입하는 성과도 거뒀지요. 그러나 학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KLASS는 우리 학회가 학술적으로 앞서 나가게 해준 보배 같은 존재였어요. 실제로 KLASS trial에 참여한 회원들이 수많은 연구 성과를 배출해냈고, 복강경 수술의 우수한 성적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그리고 임상연구 결과를 주시하기 시작했지요.

향후 대한위암학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도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중반에 학회가 다소 정체된 느낌이었듯이, 지금 대한위암학회는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위암은 여전히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이제는 조기 위암의 치료 수준이 상당히 발전했지만, 고령 환자가 증가했지요. 지금까지 수술과 연구의 발전을 바탕으로 이룩했던 성과를 앞으로는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회의 활로를 비만 대사나 역류성 질환 등에서 찾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양성 질환들은 수술도 쉬우니까요. 그러나 비만 대사와 역류성 질환에 대한 수술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학회도 세대교체가 있었는데, 그때 젊은 세대의 중심축이었던 노성훈, 박조현 교수가 이제는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로를 찾는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겠지요.

제2장

학회 조직의 정비 및 도약

(1999~2004)



●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정보 기술 산업의 발달, 인터넷의 전국적인 보급 등으로 의료계 전반의 전산화가 급격하게 정착되었으며, 2003년 고속철도 KTX의 개통으로 전국 일일생활권화가 진전되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첨단 진단 장비의 도입과 더불어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암, 심혈관 질환 등의 발생률이 증가했다.

위암 수술과 관련해서는 점차 위장관의 기능 보전을 중요시해 과거의 확대 절제술에 비해 필요한 만큼만 절제하고, 신경 지배와 혈관 지배를 보존하는 축소 수술이 증가했다. 위암 절제술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위 의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 림프절 절제술도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림프절 제2군 이하만 절제하게 되었다.¹ 또 수술기구의 발달로 자동문합기를 사용한 위-공장문합술이 1986년에 도입된 이래 1990년대에 보편화된 술기로 자리 잡았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서는 위아전절제술 후 위-공장문합술의 63%가 자동문합기를 이용해 시행되었다. 이후 1998년 4월 위아전절제술 후 위-십이지장문합술을 Double-stapling method로 시행하는 이른바 Tornado법이 도입되었다.²

위암 관련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위암 환자 데이터를 정리해 치료 결과 및 임상 양상을 분석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위암 환자의 병기별 생존율을 보여주는 임상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이외에도 위전절제술 후 영양 상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나 위암의 발생 기전, 위암의 예후 인자에 대한 분석 등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대한위암학회는 제1대 회장 김진복 교수 체제에서 1999년 9월 제3회 IGCC를 성공리에

1

변재철·이주호·유형중·김수진·이건욱·김진복, 1998 위암환자에서의 헤·십이지장 절제술, 대한암학회지 제20권 1호, pp.72-79 전세일·예병일, 1999 「한국 외과학의 지난 100년」, 『의사학』, 제8권2호, pp.151-152.

2

조삼제·이현국·이건욱·최국진·김진복·양한광, 2000 근치적 위아전 절제 후 위십이지장 문합술의 비교- Double Stapling Method의 안전성-, 대한외과학회지 제58권4호, pp.531-537.



대한위암학회 1, 2, 3대 회장(순수상 교수 제공)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회의 활성화
를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학회는 2000년에 제2대 회장 민진
식 교수의 취임과 더불어 회칙을 개정해 학
술, 편집, 총무, 재무, 보험, 홍보, 정보전산
의 7개 분과를 구성하고, 상임이사제도를 도
입했다. 제3회 IGCC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토대로 학회지 발간과 위암전국등록사업,

표준화 사업, 홈페이지 구축과 연구회 운영 등이 추진되었으며, 제1대 회장 김진복 교수는 학술 연구의
진작을 위한 연구기금을 학회에 기부했다. 회칙 개정 및 운영체제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회 사업을
체계화함으로써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을 받는 것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사업의 추진
속도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지만, 각 분과에서 사업 목표를 차레로 달성해감에 따라 제3대 손수장 회장
재임기(2003~2005)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 제3회 IGCC 개최(1999)

전술했듯이 제3회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 개최는 김진복 교수가 1995년 창립된 국제위암학회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association, IGCA)의 3대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한위암학회는 사실상 창립과 동시에 제3회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제3회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는 1999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에 공동으로 개최된 WHO 위암 공동연구회 총회 및 워크숍으로 시작되었다. WHO 위암 공동연구
회는 위암 치료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4월 27일 오전 김진복 회장과 더불어 미국과 독
일, 네덜란드 등의 의료진을 포함해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암의 차기 치료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전자투표까지 진행되었다. 공동연구회 워크숍을 마친 이후에는 국제위암
학회 이사회가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학술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환영 만찬회가 열렸다. 28일 정
오에 개최된 국제위암학회 학술지 Gastric Cancer의 편집회의에서는 김진복 교수가 편집위원회 부위원
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김세민 교수와 민진식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추가되었으며, 저녁 6시에는 김진복
교수의 취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³

제3회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의 대표 주제는 'Current status of gastric cancer management and



1999년 4월 제3회 IGCC 개최(목영재, 이종인 교수 사진 제공)

its future perspective'였다. 이에 따라 29일에는 '위암 1만1,946례의
수술 성적'에 대한 김진복 회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각 초청 연사의 주
제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당일 저녁에는 국제위암학회 초대회
장을 지낸 고(故), 니시 교수에게 수여하는 감사장을 미망인에게 전달



제3회 IGCC 공식 연회 축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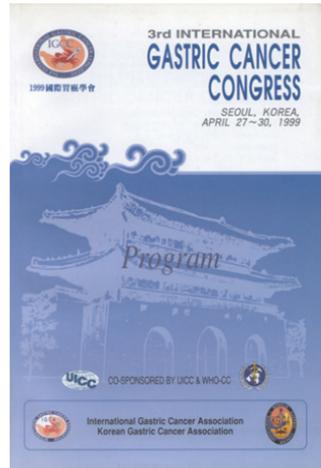
했으며, 학회 공식 연회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국제위암학회
총회를 개최한 후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학술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대한
위암학회의 창립부터 약 3년의 준비를 거친 끝에 개최된 제3회 국제위
암학회는 32개국에서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원이 함께하는 컨센
서스 회의와 더불어 3회의 특강, 14개 세션의 심포지엄과 5개 세션의 세
미나가 진행되었다. 또 모두 210명의 연구자가 3개 비디오 발표를 포함
해 총 24점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253인의 연구자가 25개의 포스
터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제3회 IGCC 포스터

³ 김진복, 2004 『仁峰 金鎭福의 외길』, 송죽문화사, pp.325-326.



제3회 IGCC 프로그램과 초청연자 및 발표 통계(목영재 교수 제공)

Scientific Program

Session	No. of Session	No. of Speaker	No. of Chairman
Plenary Lecture	3	3	3
Symposia	14	71	28
Consensus Conference	1	7	3
Luncheon Seminar	5	5	5
Total	23	86	39

Presentation

Session	No. of Session	No. of Speaker	No. of Chairman
Free Paper	24	193	48
Free Video	3	17	6
Poster	25	253	50
Total	52	463	104

제3회 IGCC 초청 연자 및 발표 통계

2. 회칙 개정 및 분과위원회 구성(2000)

제3회 IGCC를 성공리에 마친 이후 대한위암학회는 체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대한위암연구회 시절부터 주요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학술 교류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고 회원 수도 증가한 만큼 의학 전문 학회로서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다. 1999년 11월 5일 개최된 임원 회의에서는 회원 가입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논의되었으며, 정기 학술대회의 개최와 학술지의 창간 등 대한위암학회 준회원 인준을 위한 요건들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학회는 전문 의학회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2000년 4월 22일 제10회 정기 학술대회에 맞춰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대한위암학회 회칙이 개정되었다. 회칙의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학술, 편집, 총무, 재무, 보험, 홍보, 정보전산으로 구성된 7개 분과체제로의 전환과 상임이사제의 도입이었다. 이날 개정된 회칙에 의해 지역 이사와 직능 이사로 이뤄져 있었던 이사회도 분과별로 재구성되었다. 제3회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학회로 기부하는 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으며, 김진복 회장이 조성한 연구기금의 기부도 발표되었다. 이사회에 이어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민진식 교수가 제2대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같은 해 5월 12일, 대한위암학회의 중장기 목표와 그것의 실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당일 회의록에 따르면 학회 발전을 및 대한위암학회 가입을 위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정보전산위원회는

1999년 11월 5일 회의록
학회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의 증대 ✓ 분과위원회 구성 ▶ 대한위암학회 준회원 인준을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의 창간

1999년 11월 대한위암학회 사업계획

2000년 5월 12일
대한위암학회 체계화 및 사업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위암학회 가입 2) 학회지 발간 (편집위원회) 3) 등록사업 (정보전산위원회) 4) 표준화 사업 및 위암취급 규약집 개정 (학술위원회) 5) 학회소식지 (홍보위원회) 6) 기 타: 연구회 운영, 홈페이지 오픈

2000년 5월 대한위암학회 사업계획

등록사업, 학술위원회는 표준화 사업과 기재규약의 개정, 홍보위원회는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⁴ 앞서 1999년 11월에 계획했던 대한위암학회 준회원 가입이 중장기 목표인 회원학회 인준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위암학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는 것은 정부나 사회로부터 학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원 수와 구성, 정기 학술대회의 개최 여부, 그리고 학술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⁵

그렇다면 2000년대 초 분과체제로의 전환과 상임이사제도의 도입은 학회 사업의 안정과 체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정기학술대회의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은 학술과 편집, 그리고 총무, 재무, 홍보 등의 역할 분담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회 운영체제

⁴ 2000년 5월 12일 대한위암학회 회의록, pp.1-2.

⁵ 대한위암학회가 인준사업을 시작한 후 회원학회의 수는 점차 증가해 2016년 현재 165개 회원학회가 가입한 상태다. 회원인준 활동은 분과학회협의회 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각 의학 연구 단체가 운영을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대한위암학회는 2001년 회원 분류를 개정하기 이전까지 인준 조건을 충족시킨 학회에 분과학회협의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 자격을 부여했고, 학회 조성금을 지급했다. 대한위암학회의 회원인준 심사 과정은 3차에 걸쳐 이뤄지며, 1차는 학술대회 개최 실적, 학회지 발간 실적, 학술 활동 평가 점수가 반영되며, 2차는 대한위암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의뢰해 학술지 평가로 진행된다. 최종 3차는 타 과에 문호를 개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회칙의 타당성, 기존 학회와의 중복성, 학문의 독자성을 평가한다. 회원인준 심사에서 고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학회 분류 체계상의 소속 및 관련 학회 의견, 둘째, 회원의 타 학회 참여 상황(회칙상, 회원 구성의 타 과 문호 개방 여부), 셋째, 최근 3년 동안의 국내외 학술 활동 평가 결과로서 1) 최근 3년간의 학술대회 개최 횟수 3회 이상(1회 이상/년) 여부, 2) 최근 3년간의 학회지 발간 횟수 6회 이상(2회 이상/년) 여부 및 논문(총설, 원저) 편수 8편 이상/년 여부, 3) 최근 3년간의 학술활동 평가 기본 항목 점수 평균 60%(120점) 이상 여부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다.(대한위암학회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 2016 『대한위암학회 50년사, 의학 발전과 함께한 대한위암학회 오십년』,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pp.34-35)

의 전환은 국제 학술대회의 개최처럼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학회의 외연을 넓히는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대한위암학회가 장차 전문 의학회로서의 도약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3. 대한의학회 가입(2001~2004)

학회가 추진하고자 했던 새로운 사업들은 2000년 6월 의약분업 사태로 잠시 진행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지만, 2001년부터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우선 총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회 로고를 변경했다. 창립 당시 제작했던 로고에는 학회의 창립연도가 1996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처음 기재규약을 작성하기 위해 모임이 개최되었던 1989년으로 변경하자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한위암학회 로고

가장 빠른 성과를 드러냈던 것은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였던 학술지의 발간이었다. 2001년 3월 대한위암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제1호가 창간되었다. 대한위암학회지는 계간지로 연 4회 발간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 모집과 게재 심사가 업무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신생 학술지인 만큼 저절로 투고가 활발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편집위원회와 임원진들이 학회지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 한국 로슈로부터 학술 기금을 유치하게 되면서 학회지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 발표자 3명을 정해 수상하기로 했다(한국 로슈 중앙학술상). 이외에도 2002년부터는 아벤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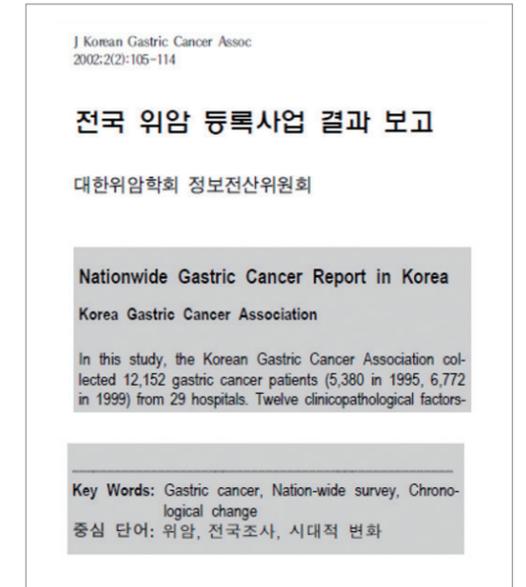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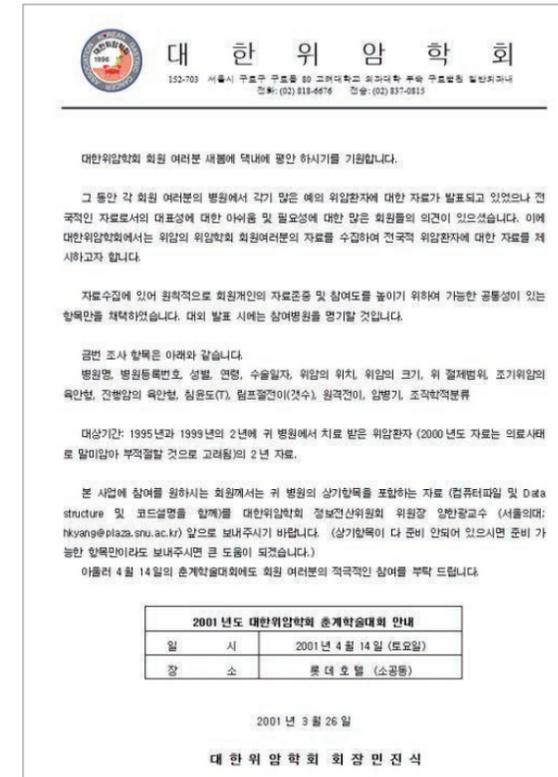
발전기금으로 학술대회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하고(아벤티스 학술상), 수상자는 반드시 대한위암학회지에 해당 논문을 게재하도록 하거나, 대한외과학회로부터 전문의 자격 심사에서 대한위암학회지 게재 논문이 인정받도록 조치하고, 투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학회지 발간뿐 아니라 이 시기 대한위암학회의 사업 대부분이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정보전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01년 3월 위암등록사업을 시작,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1995년과 1999년 위암 환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당시 정보전산이사였던 서울대학교 양한광 교수에 따르



대한위암학회지 제1권 제1호 표지



대한위암학회지에 게재된 전국 위암 등록사업 결과 보고

전국 위암등록사업 협조 요청 공문

면 1990년대까지도 위암 환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시행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자료 자체가 무척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학회의 요청에 전국 29개 병원이 참여했고,⁶ 이를 통해 1995년과 1999년 위암 환자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해 병변의 위치와 크기, 절제 범위, 병기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에 대해 총 1만2,152명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조사 사업은 다른 학회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국내의 위암 발생 현황과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정보전산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2002년 2월 대한위암학회지 제2권 2호에 '전국 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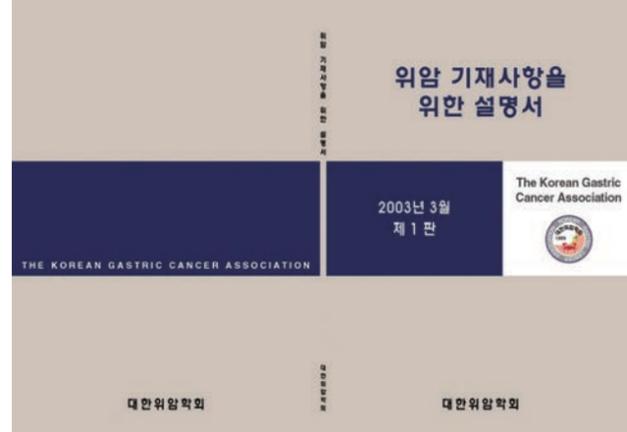
⁶ 2001년 시행한 전국위암등록 사업에 참여한 29개 병원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계명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신의료원, 국립경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재단 강릉병원, 연세의료원, 원광의료원, 원자력병원, 연세대학교 원주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중앙대학교 필동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등록사업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⁷

학술위원회에서는 표준화 사업의 출발점으로 우선 1993년에 제정된 '위암의 기재규약'을 재검토해 개정했다. 당시 학술이사를 담당했던 노성훈 교수는 대한외과학회 산하 위암연구회 시절에 일본의 것을 모델로 한 위암의 기재규약안을 작성해 배포했지만, 2000년대로 접어든 시점에서는 국내 병원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2001년에 시행된 전국 위암등록사업으로 국내 병원 실정에 맞는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준해 위암의 기재규약을 개정·배포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갖춰졌다. 학술위원회는 위암 등록사업 결과가 발표되고 한 달 후인 2002년 3월에 『위암 기재사항을 위한 설명서』를 발간했다. 이는 표준화사업뿐 아니라 학회가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행보였다고 하겠다.

학술위원회는 곧이어 2002년 10월부터 위암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지침, 즉 위암 가이드라인을 학회 차원에서 제시할 목적으로 위암진료권고안의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제정위원 28인과 검정위원 9인, 그리고 간사 2인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에서는 권고안에서 다뤄질 사항 중 특히 진단과 관련해 유관학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설문 조사도 시행했다. 제정위원회 및 검정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암진료권고안의 제정에 참여한 유관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핵의학회,



위암 기재사항을 위한 설명서

제정위원회

위원장	노성훈(연세의대)
위원	김병식(울산의대), 김시영(경희의대), 김열홍(고려의대), 김영진(전남의대), 김용일(이화의대), 김인호(계명의대), 김홍태(국립암센터), 노승무(충남의대), 류창학(성균관의대), 목영재(고려의대), 민영돈(조선의대), 박조현(가톨릭의대), 방영주(서울의대), 방호윤(원자력병원), 배재문(국립암센터), 손태성(성균관의대), 송선교(영남의대), 양한광(서울의대), 유완식(경북의대), 유종선(전남의대), 이경희(영남의대), 이준호(국립암센터), 이종인(원자력병원), 이혁준(서울의대), 최석렬(동아의대), 최승호(연세의대), 한상욱(이주의대)
간사	형우진(연세의대)

검정위원회

위원장	이종인(원자력병원)
위원	권성준(한양의대), 김승주(고려의대), 김욱(가톨릭의대), 안대호(중문의대), 양대현(한림의대), 이상호(고신의대), 이주호(이화의대), 조주영(순천향의대)
간사	형우진(연세의대)



대한위암학회지에 게재한 위암진료권고안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으로, 진단은 물론이고 치료에서도 수술적 치료와 항암 요법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학회에서는 진료권고안 초안을 바탕으로 2003년 4월에 심포지엄

을 개최했으며, 심포지엄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권고안은 검정위원회를 거쳐 2004년 11월 대한위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발표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위암진료권고안이 2004년 12월 대한위암학회지 제4권 4호에 게재되었다.⁸

전국 위암등록사업이나 위암 진료권고안은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 학회지 발간을 포함해, 당시 학회가 추진했던 사업들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질수록 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홍보위원회에서는

⁷ 양한광, 2002 전국 위암 등록사업 결과 보고, Journal of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v.2 no.2, pp.105-114.

⁸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2004 Korean Guideline for Gastric Cancer, Journal of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v.4 no.4, pp.286-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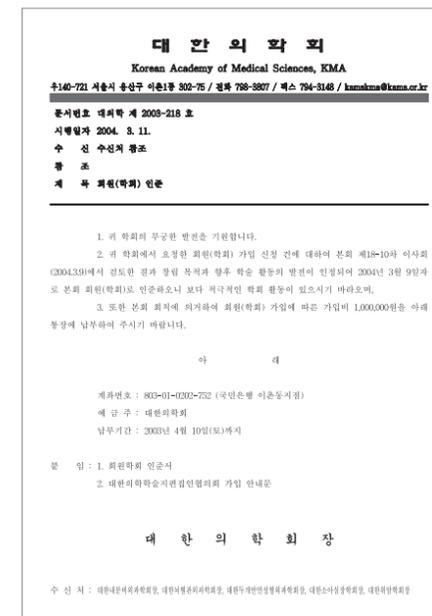
초기 홈페이지 메인화면 시안

뉴스레터를 이용해 학회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었지만, 소통의 창구를 넓히기 위해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했다. 2003년 2월 개설된 대한위암학회 홈페이지에는 학회 간행물과 논문 검색 등의 서비스는 물론 회원들 간의 교류를 위한 게시판과 학회 내·외부의 소식을 전달하는 게시판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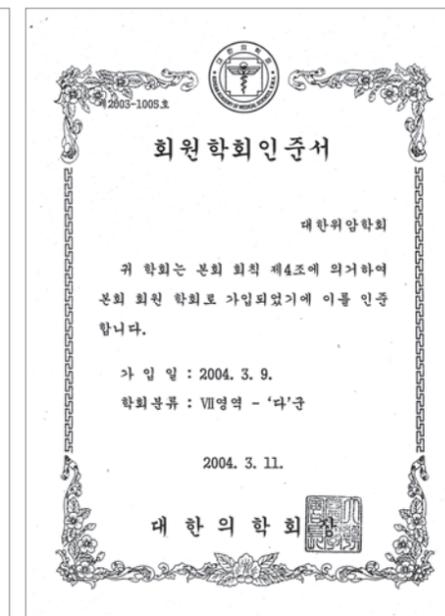
전국 조사나 가이드라인 제정, 학회지 발간 등의 사업, 그리고 홍보 및 소통 창구의 확대는 회원 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학회의 활성화'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달성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003년 4월 개최된 대한위암학회 제15회 총회의 집계에 따르면, 대한위암학회 회원은 500여 명을 넘어섰으며 당시 학술대회에 등록된 인원만 200명 이상이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계명대학교 손수상 교수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함께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54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대한위암학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의제, 특히 위암의 수술적 치료가 이뤄지는 의료 현장과 관련된 의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위전절제술 및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림프절 청소를 하는 경우 50%를 가산한다는 항목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으며,⁹ 대한외과학회에서 추진하는 세부전문의제도 시행에 '위장관외과'라는 명칭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에 힘입어 2004년 3월에 2000년부터 목표하고 있었던 대한외과학회

회원학회로 인준받게 되었다. 대한위암학회는 대한외과학회 영역 분류상 영역 1~6에 해당하는 학회에 대해 연합적인 성격의 학회로서 외과 분과학회에 해당하는 영역 7에 속하게 되었으며, 전공세분화별 분류상으로는 단일 의료술기, 단일 질환, 단일 장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군 초세부전문화회였다. 대한외과학회 회원학회 인준은 2001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3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특히 역량 있는 학술지의 발간과 학술대회의 정기적인 개최, 그리고 기존 이상의 회원 수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만큼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촉진했던 학회 사업의 방향성이 회원학회 인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져진 회원 간 유대와 소통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연구자의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00년대 초는 대한위암학회의 인적 역량이 크게 상승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제 대한위암학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의 의료 환경과 기술적·인적 토대 위에서 전문성의 확장에 앞장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의학 제2003-218호(2004.3.11) 회원(학회) 인준



⁹ 보험위원회는 2000년 6월 의약분업 사태 이후 대한외과학회 보험분과위원회로부터 상대가치개발에 대한 수정안 제시 요청을 받았다.

인구가 적은 한국 상황을 고려하며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목영재(초대 이사장)



일반 외과에서 위암 수술에 더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1987년 군에서 제대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펠로우 생활을 했습니다. 외과에서 세부 분야라는 개념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을 때 이기는 했지만, 대학병원 외과에서는 교수님에 따라 주력하시는 수술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지요. 고려대학병원 외과에서는 김세민 교수님께서 위암 수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펠로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암 수술을 많이 접했고, 그래서 이후 연수도 위암 수술을 많이 하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한위암연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듣고 싶습니다.

일반 외과에서 세부 분야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서울대학교병원 김진복 교수님은 위암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김세민교수님께서 저를 김진복교수님께 추천을 하여 대한위암연구회의 일을 하게되었는데 김진복교수님께서 일을 잘 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제 선친께서 외과원로이셨기에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는 1993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본에서 연수 중이었는데, 귀국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위암연구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회 로고도 김진복 교수님 의뢰로 만들었지요. 제 처형께서 산업디자인 전

공이셨거든요. 그래서 처형 근무지로 찾아가 그래픽 작업을 부탁해 로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대한위암연구회 학술집담회에서 ‘위암기재규약에 의한 수술 후 5년 생존율’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발표였는지요? 기재규약안 공청회 개최가 1992년인데, 이 발표를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암기재규약의 전산화 작업은 당시 노준량 교수가 주도했었습니다. 노준량 교수가 컴퓨터에 아주 능숙했어요. 당시의 기재규약안 초안은 1985년 일본 위암연구회에서 만든 것을 많이 참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술집담회에서 한 발표는 공동 발표였는데, 저는 구로병원에서 수집해 왔던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1999년 4월에 개최된 제3회 국제위암학회(3rd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를 유치하게 된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995년 3월 제1회 국제위암학회가 일본교토에서 열렸는데 당시에는 사전 개최지에 대한 신청 등의 과정은 없었고 제1회 대회는 아시아에서 개최하였기에 1997년 제2회대회는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김진복 교수님께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계시어서 제3회 대회는 1999년 서울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상을 높이고자 대한위암연구회도 1996년 11월에 대한위암학회로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대한위암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임원 명단을 보면, 김진복, 김세민 교수님을 필두로 지역이사, 직능이사, 감사, 간사 등의 직책들이 꾸려졌는데, 임원진은 어떻게 결정된 것이었습니까?

사실상 김진복, 김세민 교수님께서 의논하셔서 결정한 임원진이이었지요. 우리나라 위암 수술의 인적 계보를 살펴보면 김진복, 김세민 교수님께서 1세대, 그리고 손수상 교수님 등 몇몇 분이 1.5세대이시고, 그 밑으로 저를 포함해 50년대생들이 사실상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분 교수님을 정점으로 위암을 주력으로 하겠다고 나선 다음 세대가 학회 임원진을 담당하게 된 것이지요.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는 외과뿐 아니라 내과, 방사선과, 병리과 등의 전공이 함께하니, 각 전공 선생님들도 학회의 직능이사로 모셨습니다.

드디어 1999년 4월에 제3회 국제위암학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였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참가 인원이 800여 명이나 되었으니까요. 이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서 이후 대한위암학회 운영이 상당히 안정화되었습니다. 학회가 풍족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김진복 교수님도 저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만찬 때 부채춤 공연도 하고. 그때는 학술행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일일이 제가 다 알아보고, 상의드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롯데호텔 측에서도 협조를 잘 해줬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기에도 교통이 좋아서 이전부터도 김진복 선생님께서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선호하셨거든요. 그 행사가 흑자를 내면서 잉여금을 학회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에 상임이사제도를 채택했는데, 기존의 지역이사, 직능이사 체제와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그 사안이 결정된 것이 1999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회 국제위암학회를 치른 직후이지요. 그때 학회 회원도 많이 늘었어요. 다음 목표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회 시절에는 외과학회에 활동 보고를 했었고, 학회를 창립한 이후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운영했습니다. 1999년에는 사실상 회원학회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학술, 편집, 총무, 재무, 보험, 홍보, 정보전산 등으로 분과를 구성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10년간 학회 총무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사 결정보다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준비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대한의학회 가입은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2001년에 학회지를 창간한 것도, 그것이 회원학회 가입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학회지 출간은 권성준 교수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여러 가지 요건을 채우고도 몇 번 떨어지다가 2004년에 회원학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9~2000년에 학회 업무와 운영 계획이 체계적으로 세워지면서 김진복 교수님께서도 마음 놓고 회장직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이사로 활동하신 기간 중 대한위암학회 역사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꼽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순서대로 꼽자면 우선 2001년도에 시행했던 전국 위암등록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양한광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 추진했었던 것인데, 각 병원에 1995년과 1999년

도 위암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총 29개 병원에서 자료를 보내줘서 엄청난 데이터가 모이게 되었지요. 이 정도 데이터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위암 환자가 많으니까,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사업 결과를 양한광 교수가 춘계학술대회 때 발표도 하고, 학회지에 논문도 실었습니다. 이후 위암 진료 현황, 위암 환자 데이터 관리, 복강경 수술 현황, 항암요법 등에 관한 설문 등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사를 정보전산위원회에서 꾸준히 했습니다. 2002년 3월에는 위암 기재사항을 위한 설명서를 발행했습니다. 연구회 시절의 기재규약안보다 한발 나아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암 질환에 대한 자료가 좀 더 통일성 있게 축적된다면 결국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위원회도 역시 2000년대에 어려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수가 산정을 위한 상대가치 기준이라는 걸 수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래도 꾸준히 수정안을 제시했고, 2004년에는 위절제술에서 림프절 청소에 대한 수가 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또 2004년에는 노성훈 교수가 주도해서 위암진료권고안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질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학회로서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권고안은 제시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정하는 작업을 한 것이지요.

2011년 4월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동시에 서울에서 제9회 국제위암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999년에 개최했던 제3회 국제위암학술대회 이후 12년 만인데,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해 국제학회를 치러 봤습니다. 사실 2005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6회 국제위암학술대회에 가서 2009년 제8회를 서울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어야 하다 보니 그때는 폴란드가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7회 국제위암학술대회에 가서 2011년 개최가 예정된 제9회 학술대회를 유치해 왔지요. 오랜만에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여서 장소도 더 넓은 코엑스로 정하고 갈라 디너 때는 한복 패션쇼도 준비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그 잉여금으로 대한위암학회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사장 임기 시절에는 그 두 개가 제일 굵직한 사안이었고, 그렇게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 저도 학회 업무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이십니다. 대한위암학회와 오랜 세월 함께해 오신 분으로서 제언

을 해주신다면?

학회 역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학회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창립 이후부터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학회의 몸집을 키우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위암이 한국의 대표적인 암 질환이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한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④



질환 자체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먼저 캐치하고, 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권성준(제10대 회장)

1980~90년대는 일반 외과에서 세부 분야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교수님께서 위암 수술 및 연구에 주력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한국은 위암 환자가 매우 많은 나라인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서울대학교 김진복 교수님만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지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위절제술이 시행된 시기가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즈음이었는데, 사실상 1990년대까지도 술기의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림프절을 해부학적으로 절제하는 것에 대한 세부 지식이 부족했는데, 김진복 교수님 정도만이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었어요. 제가 1991년 5월 동경암센터로 연수받으러 갔다가 일본 위암학회에 참석했는데, 800여 명이 모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암에 있어서 일본의 학문적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들었지요. 그래서 당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터디 그룹을 꾸려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92년 5월에 귀국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해 6월 20일 한양대병원에 모여서 총남대 노승무 교수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대한위암연구동우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당시 국내에 위암 관련한 스터디라고는 외과학회 산하로 김진복 교수님께서 주도하셨던 위암연구회가 유일했습니다. 저희 모임이 연배가 더 어린 쪽이었는데

데, 자연스럽게 두 모임 간에 연결고리가 생겼지요.

1992년 대한위암연구회에서 위암기재규약안을 제정하는 작업에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위암기재규약안은 쉽게 말해서 대표성을 가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집에 앞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일원화된 원칙과 양식에 따라 기재하게끔 한 것이 바로 위암기재규약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국가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술기, 치료에 대한 계획이 가능해지지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살펴보니 그곳에서는 엑세스, 엑셀 등을 이용해서 모든 교수가 컴퓨터에 진단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더군요. 그래도 1990년대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암이 세부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암에 특화된 데이터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록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암기재규약안의 제정과 전산화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위암연구회 시절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당시 지역위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위원 선정은 일본 위암학회를 모델로 한 조직 구성이었습니다. 일본은 각 지역 주요 도시마다 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각 지역마다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있는 곳에서 돌아가면서 학술대회를 하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복 교수님께서 일본 위암학회의 운영 방식에 입각해 각 지역별로 대표를 선정하신 것이지요. 각 지역위원은 연구발표회가 개최될 때 장소를 물색하고 스폰서를 모으는 등의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대한위암연구회 시절부터 가입 회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990년대는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스페셜 필드라는 개념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위암이 대표적인 암 질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병원마다 환자도 많고. 그래서 초창기였지만, 위암연구회에 참여 의사를 보인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일 질환은커녕 단일 신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된 연구회나 학회가 거의 없었던 시절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연구회 시절부터 규모가 상당한 편이었고 활성화된 조직이었습니다.

1993년 11월 제1차 학술집담회에서 발표하신 Prognostic Factors & Clinical Review in Advanced Gastric Cancer는 어떤 연구였습니까?

제가 일본에 다녀온 후 한양대병원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살펴봤더니 병원을 찾은 위암 환자 중 조기 위암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을 받더라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이후 학회 차원에서 시민 강좌나 방송 등을 통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상당히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위암의 65%가 조기 진단을 통해 발견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지요.

1994년 7월 대한위암연구회에서 UICC workshop on Gastric cancer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6인이 동시에 위암 수술을 집도했는데, 이 워크숍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까?

당시 김진복 교수님께서 수술 집도인을 일일이 선정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하자면, 최신의 술기를 여러 사람이 접해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이었지요. 그런 기회는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계는 195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미국 의학을 선호하고, 일본 의학에 기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위암 수술은 그때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서구에 술기를 전달했을 정도로. 일본 국립암센터의 미츠로 사사코 교수는 네덜란드로 가서 확대림프관청술을 1년간 각 병원에서 가르쳐주었습니다. 위암은 독일을 제외하면 서양에서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4월 상임이사제도가 채택되고 편집이사가 되셨습니다. 학회지 창간, 그리고 출간 업무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1999년, 2000년은 학회로서의 조직과 업무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학술대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이 학회 업무의 중심이었다면, 2000년 무렵부터는 제대로 된 학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지요. 임원진도 지역보다는 업무를 중심으로 역할이 배분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편집이사였어요. 한 7~8년간은 학회지를 창간하고, 출간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대한의학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회지는 필요했습니다. 기간지로 출간하기로 결정한 것도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학회지라고 창간했어도 거기에 실을 연구논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들이 책임용이나 연구비 심사에서 SCI 연구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면서 그 실적을 채우는 일이 급하다 보니까, 원고 모집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금 걸고 최다논문게재상, 최우수논문상 같은 것도 제정하고 그랬지요. 편집이사로서 제 논문은 필수적으로 실었고요. 제가 편집이사를 지내면서 최다논문게재상을 6년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부회장을 지내실 당시학회에서 처음으로 KINGCA(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를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KINGCA는 사실상 제2대 박조현 이사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습니다. 위암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로는 일본이 주관하는 IGCC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니, 이제는 대한위암학회가 IGCC와 같은 역할도 해보자는 취지로 KINGCA를 추진하게 되었지요. 학술대회를 국제학회로 치르는 것이 아무래도 스폰서를 받기에 더 유리합니다. 게다가 국내 정기학술대회는 춘계, 추계로 나눠서 치렀는데, 추계학술대회가 2000년대 초부터 외과학회 통합학술대회로 치러지게 되면서 우리 위암학회 행사 자체가 아무래도 좀 왜소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춘계를 더 크게 국제학술대회로 치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지요.

회장 임기 중이실 때 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위장관외과연구회 같은 산하 연구회들이 발족했습니다. 이들 산하 연구회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학회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대한위암학회는 단일 질환에 대한 학회라서 그 자체로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회 산하 연구회였던 위장관외과연구회 같은 경우는 위장관 질환으로 영역을 조금 넓혀 보려는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위식도역류는 PPI 약을 쓰면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강경으로 구멍 하나만 뚫어서 위식도 사이 괄약근을 강화해 주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학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산하 연구회를 지원하는 것은 위암뿐 아니라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콘셉트, 즉 아이디어를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학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겠지요.

회장 임기 중인 2015년에 두 번째 KINGCA Week가 개최됩니다. 첫 개최 때와 다르게 하려고 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대한위암학회는 국제학술대회를 주로 서울에 유치했었기 때문에 일단 개최 장소를 휴양지인 제주도로 결정해 봤습니다. 우리 학회가 이미 2009년에 춘계학술대회를 제주에서 치렀던 경험도 있는데, 올 국제학술대회를 꼭 서울에서만 치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회에 참가해 심포지엄이나 강연 듣고 공부도 하지만,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장소에 따라서는 가족을 동반하는 문화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고. 그러니 외국인들도 서울이 아닌 다른 장소로 초청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대한위암학회와 함께 해오신 기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의미가 있고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11년에 이사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영재 교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인데, 학회 발전에 기여한 분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업무에 많은 책임이 따르는 회장을 하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학회 업무 추진을 위해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생겼다는 것보다 그만큼 학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또 KINGCA 개최로 학회의 위상을 높인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학회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대한위암학회지의 SCIE 등재도 꼽고 싶습니다. 학회로서의 학술적 위상과 근간이 탄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원으로서 대한위암학회의 향후 비전은 어디에 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환의 특성, 역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발생 빈도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미 4.9%가량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현상인데, 내시경의 보편화로 암이 되기도 전에 선종 단계에서 이미 병변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대장에 생기는 병변도 근래에는 용종 단계에서 이미 제거해버리지요. 즉, 환자들에게는 좋지만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케이스가 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시경 위절제술, 즉 위점막절제술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외과의들은 소화기내과 의사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과의들에게도 내시경을 다루는 공부가 필요해진 것이지요. 이처럼 의사로서 병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를 늘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위암학회도 이렇게 질환 자체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먼저 캐치하고, 그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장

미래를 내다본 성장 (2005~2011)



위암은 그 원인과 발생으로부터 병의 자연 경과, 임상 양상 등이 매우 다양하며, 병의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진단 방법의 발전과 Screening 프로그램의 일반화로 초기 진단이 가능하게 되면서 국소적인 단계의 병에 대한 치료 성적은 크게 향상되었다. 20세기 말 영상 기술의 발전은 작은 구경의 내시경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고화질로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주게 해 내시경 수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의학에서는 통증을 질병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졌다.

이러한 의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의 접목으로 최소 침습 수술이 등장했다. 20세기 말과 21세기의 기술은 재빠르게 최소 침습 수술에 부응해, 필요한 수술 기구와 영상 장비들이 개발되었고, 수술실에 신속히 투입되었다. 외과 의사들은 수술 비디오 회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술 술기를 전파하고 배울 수 있었다. 초기의 복강경 의사들은 과거의 도제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서로를 발전시켜 왔다.¹

위암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암 사망 1위를 차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기검진의 확대 및 전암병변에 대한 내시경적 절제술의 보편화로 인해 점차 사망률이 낮아졌다. 특히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외과 영역에서는 복강경을 통한 위절제술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에서는 Ohgami 등이 1992년부터 시행한 복강경 하 위 썬기 절제술 및 내시경 위점막절제술의 성적을 1999년 보고한 바 있으며, Kitano 등은 복강경 보조하에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Billroth I 문합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최승호(연세의대) 등이 6례의 위암 환자 치료 경험을 정리한 1996년의 발표가 최초의 보고라고 한다.²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복강경 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단기 성적뿐 아니라 장기 생존에 대한 보고

¹ 김영우, 2011 Laparoscopic & Robotic surgery, 제7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대한위암학회 공동 심포지엄, p.93.

² Choi SH, Yoon DS, Chi HS, Min JS. Laparoscopy-assisted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for early gastric carcinoma. Yonsei Med J 1996; 37: 174-180.

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1994년부터 시행된 1,294명의 조기위암의 복강경 수술 성적을 Kitano 등이 보고했다. 5년 무병 생존율은 IA 99.8%, IB 98.7%, II 85.7%로서 개복 수술과 동일한 성적을 발표했다.³

복강경 위절제술에 대한 국내외 의료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그 치료 성적이 이목을 끄는 흐름 속에서 대한위암학회에도 2004년 2월에 전국 복강경 위 수술 현황 조사에 착수했고, 2005년 3월에는 산하 연구회로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orean Laparoscopic Gastrointestinal Study Group, 이하 KLASS)를 발족, 복강경 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복강경 위 수술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처럼 대한위암학회는 초세부전문학회로서 국내외 의학계의 흐름이나 첨단 기술의 발전을 주시하는 가운데 언제나 한발 앞서서 미래의 발전 방향과 동력을 예측함으로써 저변의 확대를 꾀했다.

2005년 3월 조용관 제4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학회는 세부전문의 인증제도 시행에 대비한 프로그램 구상과 산하 연구회 설치, 국제위암학회 유치, 위암 도서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를 사업계획으로 결의했으며, 회원 수 증가 및 유관학회와의 관계 설정,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세부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고시수련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한 헬리코박터 및 상부위장관 연구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도 추진했다. 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산하 연구회를 매개로 한 연구 지원이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위장과 소장을 포함하는 상부위장관 질환 전체를 포괄하는 발전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종인 제5대 회장 재임기(2007~2009)에는 국제위암학회 유치가 다시 한번 추진되는 가운데 위암교과서 편찬 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발간 작업에 착수했으며,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 전략의 강화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노성훈 제6대 회장 재임기(2009~2011)에는 학회가 제9회 IGCC 개최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의료심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의 분과가 추가되었다. 또 연구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암 관련 학회 간의 상호 교류를 정례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한의학회에서는 학술활동의 향상을 위한 대한위암학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 2011년도 의학학회대상 장려상을 수여했다.

³ Norio Shiraiishi · Kazuhiro Yasuda · Seigo Kitano, Laparoscopic gastrectomy with lymph node dissection for gastric cancer, Gastric Cancer 9(3) 2006:167-176; Sang-Uk Han, Laparoscopic Surgery for Early Gastric Cancer, 대한의사협회지 53(4) 2010: 311-317.

1. 산하 연구회 KLASS 발족(2005)

KLASS는 2000년대 초반 무렵 위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물을 대상으로 복강경 위 수술을 실험하는 워크숍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의료계에 복강경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초였지만, 당시 외과 영역에서는 주로 담낭절제술과 충수돌기절제술, 대장절제술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복강경 수술이 개복술에 대해 갖는 장점은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개복술 이상의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만 수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기가 사용되는 만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술 시간은 술기가 익숙해짐에 따라 단축될 수 있는 것이었고, 비용의 문제 역시 최소 절개에 따른 월등한 회복속도로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환자로 하여금 조기에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수술 방식이라는 견해도 있었다.⁴

위암을 중심으로 한 위장관 질환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접한 국내외 외과의들은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기 시작했지만, 술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높은 학습 곡선이 요구되는 복강경 위장관 수술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처럼 당시 복강경을 사용한 위절제술은 새로운 테크닉이나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개복 술식의 술기가 닦여진 기초 위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한 시야 확보에 적응해 근치적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당시 위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은 잘 계획된 연구에 의한 수준 높은 근거(Level I evidence)가 없는 상태로 D2 림프절제술이 표준으로 시행되는 위암 분야에서는 보편화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복강경 위장관 수술에 대한 체계적인 술기 연구 및 표준화, 교육 및 보급, 그리고 전향적 다기관 연구를 위한 연구회의 필요성에 제기되었다.⁵

2000년대 초반에 복강경 위 수술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서울대학교 양한광 교수에 따르면 당시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많은 젊은 의료진이 동참해 복강경 술식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워크숍 장소도 각 지역 병원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위암 수술을 집도하는 젊은 의료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 순회 워크숍에 대한 호응과

⁴ 한상욱, 2012 Current Status of Laparoscopic Surgery for Early Gastric Cancer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Vol.12, No.1, p.14.

⁵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백서 준비 및 간행위원회, 2018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백서』, p.11.



KLASS



2005년 3월 26일 대한위암학회 복강경위장관연구회 제1회 학술집담회

참여가 지속됨에 따라 양한광 교수는 해당 모임이 조직적인 지원 아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당시 대한위암학회 손수상 회장(제3대)과 조용관 부회장(제4대)에게 산하 연구회 창립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KLASS 창립총회(KLASS 제공)

이에 2004년 11월 대한위암학회 산하 복강경위장관연구회 준비모임이 결성되었고, 2005년 3월 25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⁶ 다음 날인 26일 손수상 회장과 조용관 부회장, 목영재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진희홀에서 대한위암학회 산하 대한복강경위장관 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정기학술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양한광 교수가 연구회장에 취임했고, 학술집담회에서는 미국 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Valentine Stephenson 교수와 일본에서 복강경 수술로 유명한 Kitano 교수도 초청해 하이테크닉 일렉트로닉 머신의 도입과 활용과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산하 연구회 KLASS는 종래 학계에서 시도한 바가 없었던 전향적인 다기관 연구 KLASS trial 01을

⁶ KLASS 발기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민찬, 김영우, 김형호, 류승완, 민영돈, 양한광, 이혁준, 조규석, 최승호, 한상욱, 형우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위장관 분야의 연구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학회에서는 위암을 포함해 위장관 질환 전반에 대한 학술적 지원이 곧 학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차세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대한위암학회에 확장성을 부여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2007년에 내과 및 외과 그리고 병리과와 영상의학과가 함께하는 다학제적 성격의 대한위장관기질종양연구회(Korean GIST Study Group, 이하 GIST)가 대한위암학회의 산하 연구회로 가입하고, 양성 질환을 다루는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Korean Anti-Reflux Surgery Study Group, 이하 KARS)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것 역시 연구의 다양성과 확장성, 그리고 학회의 저변 확대라는 공감대 위에서 맺어진 결실이라 하겠다. 이는 대한위암학회가 단일 질환 중심의 초세부전문학회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위장관 분야의 다양한 학술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의 의학적 성장에 이바지했음을 방증한다.

2.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발간(2005)

앞서 대한위암학회는 정보전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01년에는 전국 위암등록사업을, 2003년에는 전국 위암 진료 현황에 관한 조사와 전국 위암 환자 데이터 관리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또 2002년 3월에는 위암 기재사항을 위한 설명서를 배포하고, 같은 해 위암 진료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정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은 최초로 1993년에 위암기재규약안을 배포한 이래로 2000년대 초에는 위암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국내 병원의 전국적으로 파악한 바탕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진단 및 치료 기준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표준화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다. 2005년의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은 2004년 12월 학회지에도 발표한 바 있었던 위암진료권고안 즉, Korean Guideline for Gastric Cancer를 정식 출간물로 제작해 작성·배포한 것이었다.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은 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해 왔던 장기적인 학회 사업의 첫 번째 성과물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의 발간이라는 성과는 비단 대한위암학회를 중심으로



2005년도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형성되었던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보건의로 정책에 대한 의학계 전반의 협력으로 맺어진 결실이었다. 제3대 회장 손수상 교수에 따르면 학회는 이미 2002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국립 암센터와 공동으로 위암 표준검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온 바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대한소화기 학회 측에서도 참여해 조기 검진의 방법을 논의했으며, 대한위암학회에서도 이에 호응해 조기 검진 권고 안을 제정하는 안을 두고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즉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주관했던 학회 사업의 방향성이 당시 보건의로 정책의 방향성과 조응했다고 하겠다. 그 결과, 조기 검진에 대한 권고와 같이 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큰 흐름을 대한위암학회가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3. 대한위암학회 추계 심포지엄 개최(2008)

대한위암학회는 1990년대 대한위암연구회 시절부터 봄과 가을에 연 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정기 학술대회의 회차 역시 대한위암연구회 정기 학술대회 회차를 승계해 왔다. 제3회 IGCC를 준비하던 1998년과 실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치른 1999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도부터는 정기 학술대회가 빠짐 없이 개최되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추계 학술대회가 대한외과학회 통합 학술대회로 치러지게 되면서 통합 학술대회를 치름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외과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게 된다거나, 위암에 관한 세부적인 주제들이 충분히 다루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학회에서는 학술적인 논의의 장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위암을 중심으로 하는 다학제적 발전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연 1회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심



2008년 대한위암학회 추계심포지엄과 추계심포지엄 포스터



2009년 대한위암학회 추계심포지엄 기념촬영과 추계심포지엄 포스터



포지엄에서는 내과, 영상의학과, 외과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임상 적용성이 높은 주제들이 선정되었다. 2008년 10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심포지엄의 경우 문합 부위의 누출, 합병증, 그리고 수술 후의 출혈 관리 등 실제 위암에 대한 임상 치료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가 주제로 선정되었다.

다양한 임상 케이스 위주의 심포지엄 개최는 회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회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학회에서는 심포지엄 개최 장소도 광주, 부산, 대전, 대구 경북 지역 등을 돌아가면서 치르도록 함으로써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를 통해 학회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이는 대한위암학회가 창립과 성장의 시기를 넘어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아우르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4. 위암 교과서 『위암과 위장관 질환』 발간

대한위암학회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학술 연구 측면에서는 2008년 시작된 한·일 공동 임상연구 REGATTA를 지원했다. REGATTA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내 44개 센터 혹은 병원에서 시행한 오픈 공개형, 무작위 3상 임상연구로,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단독 항암치료와 위절제술 후 항암 치료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항암 치료는 불치성 진행성 위암의 표준치료이나, 당시까지는 단일 완치-불가능 인자를 가진 진행성 위암 환자들에서 항암 치료에 위절제술의 추가가 생존율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대한위암학회가 공동으로 지원한 REGATTA 연구의 시행 과정과 결과가 국내외 의학계에



REGATTA trial 워크숍(박조현 교수 제공)

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처럼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통해 세계 의학계에서 대한위암학회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크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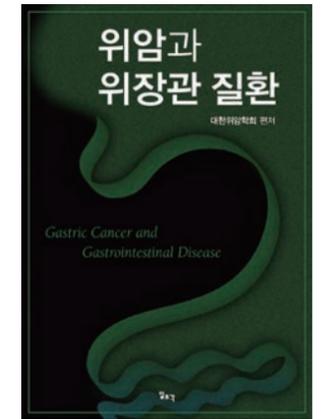
2010년대 초에는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꾸준히 축적된 학회의 내적 역량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 2010년 9월에는 2001년부터 출간을 지속해 오던 대한위암학회지가 영문학술지 Journal of Gastric Cancer로 탈바꿈했다. 이는 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목표로 한 것으로, 국제 학계와의 교류 및 해외 저널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꾀한 변화였다. 학회는 Journal of Gastric Cancer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내 연구의 국제 학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JGC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재 기준과 학술 논문 작성 및 심사 등에 발표를 토대로 JGC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 영문학술지로의 변경을 단행한 끝에 JGC는 2011년 1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의학학술지 데이터베이스 PMC와 MEDLINE 검색 엔진 PubMed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장차 SCI(E) 등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었다.

2011년 1월에 발간된 위암 교과서 『위암과 위장관 질환』은 2005년부터 구상이 시작되어 장기간의 집필, 검수, 편집 기간을 거친 끝에 탄생한 것이었다. 의학계에서 세부전문의 인증 제도 시행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학회에서는 2005년에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도서 편찬을 구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산하 연구회 설치와 학술지 발행과 등재 심사, 세부전문의 프로그램 구상 등의 업무로 인해 진전



영문학술지
Journal of Gastric Cancer 표지

을 보지 못하다가 2006년으로 접어들면서 위암 교과서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했다. 이에 교과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보전산위원회에서는 위암 및 상부위장관 질환 관련 학술 논문을 수합, 1,993편의 연구 논문(국내 논문 1,315편, 국제 논문 678편)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교과서 편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제5대 이종인 회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기로 결의되었지만 사실상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나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물론 그 당시까지도 널리 통용되던 서적으로 1999년 출간된 김진복 교수의 『위암』이 있었지만, 이는 상당히 초창기에 발간된 것으로 국내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작성되지는 못했다. 이에 교과서 편집위원들은 2000년대 초부터 학회에서 수집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써야만 했고, 그로 인해 오랜 작업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위암과 위장관 질환』 발간은 대한위암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위암 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임상 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위암 교과서
『위암과 위장관 질환』(2011)

5. 국제화를 향한 발돋움, 제9회 IGCC(2011)

2000년대 중반부터 학회는 다시 한번 IGCC를 유치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동안 IGCC를 비롯한 국제학술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회원들이 거둔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학회는 2005년 5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6회 IGCC에서 2009년 제8회 IGCC의 서울 개최를 신청했다. 그러나 IGCC는 지역별 순회 개최를 기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제8회 개최지는 폴란드 크라쿠프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에 학회는 다시 한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제7회 IGCC에서 2011년도 제9회 서울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2007년 5월 제7회 IGCC에 참가한 이종인 회장(제5대)과 노성훈 부회장, 목영재 총무이사, 양한광 교수, 한상욱 교수 등 대한위암학회 임원진은 IGCA 집행위원회 앞에서 제9회 서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했다. 이종인 당시 회장은 학회 임원진이 김진복 전 회장이 전수한 국제학술대회의 유치와 운영에 관한 노



제9회 IGCC 서울 대회 유치 성공(목영재 교수 제공)

하우가 빛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양한광 교수와 노성훈 교수 등이 IGCA 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점과 일본 위암학회의 지지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2011년으로 예정된 제9회 IGCC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대한위암학회는 약 10년 만에 다시 한번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제9회 IGCC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2000년대 후반에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학회 업무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9년 4월 제6대 회장에 취임한 노성훈 교수는 매일 오전 6시 목영재 교수와, 양한광 교수, 정재호 교수 등과 함께 청계천 문화옥에 모여서 개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검토·확인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었다고 회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학회 임원진과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가장 큰 공감대는 다학제였다. 대한위암학회는 위암연구회 시절부터 내과 계열이 참여해 왔으며,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도 2005년부터 제2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다학제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대한외과학회 산하 연구



브라질 국제위암학회 발표

회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외과 회원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학회 임원진은 제9회 IGCC의 개최가 다학제 학회로서의 면모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당시 학술위원장이었던 양한광 교수는 기초의학, 항암치료, 소화기 내과 등등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그에 알맞은 연자를 섭외하기 위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제9회 IGCC는 대한위암학회에서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해 치른 국제학술대회이기도 했다. 2000년대에 한국 위암 치료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대한위암학회가 주관하는 제9회 IGCC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행사가 되리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총무이사였던 목영재 교수는 더욱 넓은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코엑스를 개최 장소로 정하고, 참가 회원 모두가 자리하는 갈라디너에서 선보일 패션쇼를 기획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구상했다. 오랜 기간 여러 회원의 노고를 발판삼아 준비한 국제학술대회였기 때문에 노성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일본 위암학회를 방문해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는 등 흥행을 위한 홍보에도 특별히 힘썼다.

제9회 IGCC는 57개국 2,03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4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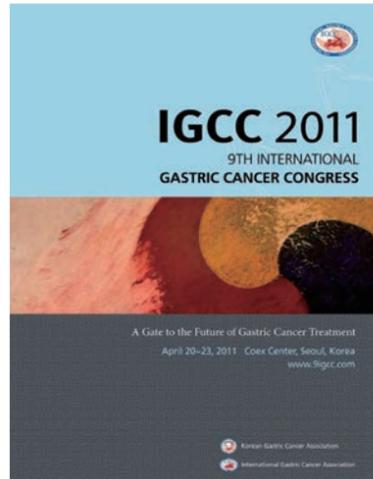


제9회 IGCC 개최식 및 기념사진(목영재 교수 제공)



IGCC 회의장 입구

제9회 IGCC 기념행사



Abstracts presented

1,192 Abstracts

- 167 Invited Speakers
- 268 Free Papers & Videos
- 757 Poster Presentations
- 6 Luncheon Symposia

제9회 IGCC 프로그램

Participants

2,035 from 57 Countries

Australia 16, Bangladesh 3, Belgium 6, Brazil 23, Bulgaria 2, Canada 4, Chile 6, China 266, Czech 1, Estonia 1, Finland 3, France 4, Germany 10, Greece 1, Hong Kong 15, Hungary 1, India 8, Indonesia 10, Iran 1, Israel 2, Italy 29, Japan 459, Kazakhstan 5, Kenya 1, Korea 952, Latvia 2, Lithuania 8, Malaysia 4, Mongolia 17, Nepal 1, Netherlands 3, New Zealand 2, Nigeria 1, Pakistan 1, Philippines 2, Poland 17, Portugal 2, Romania 1, Russia 14, Saudi Arabia 4, Singapore 25, Slovenia 1, Spain 2, Sweden 1, Switzerland 1, Taiwan 44, Thailand 7, Turkey 4, U.S.A 22, Ukraine 7, United Arab Emirates 2, UK 7, Uzbekistan 3, Venezuela 1, Viet Nam 2

제9회 IGCC 포스터



학회 사무실 개소식(목영재 교수 제공)

었다. 첫날 치러진 제31회 대한위암학회 총회에서는 김동헌 교수가 제7대 회장에, 그리고 목영재 교수가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제9회 IGCC의 슬로건은 A Gate to the Future of Gastric Cancer Treatment였다. 해당 학술대회에는 167명의 초청 연자가 참석했으며, 3일간 총 268점의 논문 및 비디오 발표와 757점의 포스터 발표가 선보여졌다. 또 학회 메인 프로그램 사이에는 총 6개 세션의 런칭 심포지엄도 준비되었다.

10년 만에 유치해 온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대한위암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반도 마련되었다. 2011년 5월 제9회 IGCC를 마무리하고 모인 김동헌 회장(제7대)과 목영재 초대 이사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은 학술대회 잉여금을 학회에 기부해, 사무실을 구입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은 학회 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공간 없었기 때문에 학회 관련 서류들은 각 임원진의 연구실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대학병원 회의실이나 식당 등을 전전하며 회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그런 의미에

서 학회 사무실은 제9회 IGCC의 성공이 가져다준 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무 공간의 매입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회의 안전자산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선택이었다. 학회 여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신중하게 물색한 끝에 마련한 학회 사무실이 바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 들어선 오피시아빌딩 1616호였다. 대한위암학회 사무실 개소식이 열린 2011년 6월 14일은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잔칫날이었다. 학회 임원진과 원로들은 들뜬 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여 현판식을 거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제9회 IGCC의 성공과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2000년대 중·후반 전향적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위암 교과서 발간,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 등을 거치면서 학회에는 위암 분야에서 해외 의학계를 선도하기 위한 내적 역량이 점차 축적되고 있었다.



현판식과 대한위암학회 현판 모습



대한위암학회 사무실이 있는 오피시아빌딩

임상연구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기초연구가 없다면 사상누각

이종인(제5대 회장)



대한위암학회 활동에 참여하신 시기와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1985년부터 원자력병원 외과에서 근무했었는데, 1993년 대한위암연구회가 발족할 무렵에는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위암학회와의 인연은 창립 과정에 제가 기여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도쿄 국립암센터에서 연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위암연구동우회의 멤버도 아니었어요. 그 모임에는 최동욱 교수가 저를 추천해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제가 있었던 원자력병원 외과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세부분과를 정했고, 그러면서 대한위암연구회 학술집담회가 한두 차례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에 권성준 교수의 연락을 받고 저도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92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었던 WHO 국제 위암 세미나에 저를 포함해 목영재 교수 등 몇 사람과 김진복 교수님께서 참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계위암학회가 창립되기도 전이었는데, 그곳에서 김진복 교수님이 세계위암학회 구성에도 힘을 보태고, 국제학술대회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뮌헨에서 귀국한 이후부터 대한위암연구회 발족 준비가 이뤄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연령대로 보면 김진복, 민진식 교수님께서 제일 연장자였고, 다음으로 손수상 교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조용관 교수님과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중간 세대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 메모리얼슬로운케터링 암센터에서 장기 연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어떤 연구에 참여 하셨나요?

제가 연수를 갔던 해가 1988년이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기간 중 저는 미국에 있었던 셈이지요. 당시 메모리얼슬로운케터링 암센터에 브래논이라고 종양학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김진복 교수님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김진복 교수님의 소개로 그곳을 가게 되었고요. 같은 외과학 교실의 이견욱 교수로부터도 그분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당시 임상 클리니컬 펠로우로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진료나 수술은 하지 않았고, 연구 펠로우로 종양대사학 연구에 참여해 실험을 했습니다. 종양이 포도당을 선호하여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연구에 무척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귀국 이후에도 연구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실험실을 차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는 연구비를 받을 만한 여건이 국내에 조성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임상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종양대사학 연구에 참여한 경험은 학술적 관심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일본 연수는 대개 술기를 위해 가는데, 위암에만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종양의 대사에 관한 연구를 경험했으니까요. 병원에 실험실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이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에 참여해 암 환자의 영양에 관한 공부도 계속했고, 아시아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2005년에 '위암에 대한 5-FU항암요법의 현황'을 발표하셨는데, 이 연구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암은 항암 치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습니까?

서울의대의 김노경 교수님께서 일찍이 FP요법의 항암 치료 효과를 증명하는 임상연구를 발표 하셨었는데, 이 연구가 사실 대조군이 없는 이상(二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포함한 삼상(三相) 연구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연구가 환자 모으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었지요. 위약군까지 대략 1,000명 정도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때 원자력병원 외과에서는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외과에서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 병원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혈액종양내과의 방영주 교수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방영주 교수는 외과 의사들의 항암 치료를 좀 불신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노성훈, 양한광 교수와 방영주 교수 등이 참여해서 연구했는데, 그때 방영주 교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철저함일까, 그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임상시험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것이지요. 또 워낙 방영주 교수가 중앙내과학으로 성과가 많으시다 보니 로슈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영주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의 수술 실력만큼은 매우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맞았던 것이지요. 이 연구가 성공하면서 이후 위암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보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는데, 당시 진행했었던 일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손수상 교수님과 함께 보험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보험위원회는 아무래도 수가 문제가 제일 컸지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외과의사들이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수가는 일본의 수가 체계를 빌려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책정된 수가 자체가 낮았어요. 위암 수술은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림프절 광청술과 재건술 등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각각의 단계를 모두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서 수가가 책정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해진 수가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준비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단계까지 가면 또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상대가치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고치지 못했고, 수술에 들어가는 인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수가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정해 전보다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술의 각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회장, 회장 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회 업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위암 교과서 편찬 작업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회장 시절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우리 학회도 그동안 전국 단위로 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랬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들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참고할 만한 기존의 서적이 거의 없으니까 했습니다. 1999년에 김진복 교수님께서 편찬하셨던 『위암』은 일본의 위암 교과서를 번역하다시피 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 만들어진 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학회에서 수집한 데이터 말고는 정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편집위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지요. 미안한 마음에 식사라도 좋은 곳에서 대접하려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는지, 제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 편찬이 지연되었고, 나중에야 교과서가 출간되었습니다.

2007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7회 IGCC 현장에서 제9회 IGCC를 유치했습니다.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초기에 국제 학술행사를 여러 번 치러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진복 교수님께서도 학술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상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람들이 당시 학회 임원진으로 포진해 있었어요. 게다가 양한광, 노성훈 교수 등이 IGCA council member로 활동 중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일본 위암학회와 교류가 활발했는데, 그 덕분에 일본 의사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가 여러모로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과 쪽의 참여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도 아주 잘 도와주셨지요. 유치를 해오는 데에도 성공했지만, 돌아보면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대한위암학회 추계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는데, 종래의 정기 학술대회와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심포지엄은 회원들의 학술적인 교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계 학술대회가 외과학회 통합 학술대회로 치러지다 보니까,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위암 치료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임상적인 주제들로 구성했습니다. 개최 장소도 광주, 부산, 대전, 대구 경북 지역 등을 돌아가면서 치르도록 함으로써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저변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대한위암학회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항암과 수술 등 위암 치료의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대 의학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는 해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법이 정립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림프절광청술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있었는데, 2000년 무렵이 되어서야 그와 관련된 임상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림프절광청술을 지지했던 것과 달리, 미국 쪽에서는 반대했거든요. 이에 일본 의사들이 광청술에 관한 임상 연구를 수행했고, 그게 낫다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

2000년 무렵이었습니다. 이후 유럽 쪽에서도 림프절확청술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위암의 복막 전이입니다. 복막으로 전이되면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성과가 빨리 나오지 못하는 와중에 위암의 조기 진단이 증가하면서 진행성 위암 케이스가 감소했지요. 저 역시 복막암 연구회에 참여해서 EPIC(Early Postoperative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연구를 함께 했는데,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복막 전이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은 예방치료 쪽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후 인자를 보고 전이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지요. 항암제 역시 종류가 많아졌고, 그것의 조합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과 의사들이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수술의 경우 조기 위암 수술은 점차 미니 멸한 수술로 발전하는 추세이고, 진행성 위암은 첨단 장비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요즘은 희석요법 연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암이든, 수술이든 사실 치료에 끝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약도 계속 개발되고 있지요. 위암은 항암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병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학제적 접근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대한위암학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한위암학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도 부탁드립니다.

연구의 발전이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항암 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 KLASS trial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학회가 학술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KLASS 같은 경우 지방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열었지요. 그 덕분에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조기 위암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내시경 치료가 발전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위암학회에 참여하는 젊은 의사들이 줄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리도 변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류질환수술연구회나 비만대사연구회처럼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위암이라는 단일 질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점차 양성 질환도 다루도록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기초연구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임상연구는 세계적 수준인데, 기초연구가 부족하니까 사상누각 같은 느낌도 듭니다. 현재 우리 의학 수준에서 새로운 술기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의 아이디어는 결국 기초연구라는 토대에서 나오거든요. 기초연구에도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요.

인터뷰⑥



학회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노성훈 (제6대 회장)

교수님께서 위암 수술을 주력 분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군 복무를 마친 후인 1986년 처음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펠로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펠로우로 있다가 1987년에 전임강사가 되었지요. 당시 외과학교실 내부적으로 세부분과를 결정하는데, 당시 주임교수께서 제게 내분비외과를 제안하더군요. 그런데 초임 교수인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제 나름대로 마음먹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병이었지만, 그때는 진단 방법이 별로 없어서 시험적 개복술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한번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4기 암처럼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환자도 6개월도 살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어 보니 환자 10명 중 1명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위암을 제 주력 분야로 삼고 싶은 이유였지요.

교수님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2년간 계시다가 일본 연수를 가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연수를 갔던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기초연구가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치료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곳으로 가

게 되었지요. 위암의 복막 전이는 치료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찾아보니 미국에 세계적인 암의 전이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그곳에서 연구에 참여했지요.

그런데 연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자, 그동안 임상을 떠나 있었던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리더군요. 돌아가면 바로 또 수술장에 들어가야 하니까, 귀국 전에 복막암에 대한 치료를 직접 더 경험해 보기 위해 리서치를 했습니다. 복막 전이를 치료하는 곳을 찾아서 편지를 직접 썼지요. 일본에 3개 병원과 접촉했는데, 복막암 치료를 활발하게 하고 계셨던 교수님 한 분은 공교롭게도 제가 편지를 보내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 제자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지막에 가나자와대학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자와대학에서 3개월간 임상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외과학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회 모임을 하던 당시에 교수님께서 감사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연구회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모임이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제가 연배가 낮은 축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장소 예약과 기록 등, 이른바 심부름꾼 역할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연수를 떠났는데 2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 명칭은 연구회였지만 어엿한 학회의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위암연구동우회 쪽도 참여했고, 외과외과가 아닌 다른 전공도 참여하는 등 다학제적 면모도 갖춰졌더군요. 초기에 지역별로 위원, 혹은 이사를 두었던 것도 일본의 위암연구회가 모델이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초창기였고, 연구회였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특별히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았고, 연락 돌리고, 장소 섭외하고, 회의 기록하는 등의 역할을 서로 돌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나온 연혁으로도 보셨겠지만, 연구회부터 학회 창립 초창기에 워낙 이런저런 학술 행사들을 연속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사실상 학회 조직을 재정비할 만한 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대한위암연구회 시절인 1994년에 UICC workshop on Gastric cancer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다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암 수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까?

그 행사야말로 우리나라 위암 수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위암 수술로 많이 알려진 분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김진복 교수님이었고, 세브란스에는 민진식, 이경식 교수님 등도 위암 수술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분들도 미국에서 연수하고 오셨었고, 그런

영향으로 수술 방법이 상당히 적극적이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체적인 수준은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UICC 워크숍 같은 행사를 경험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도 수술의 콘셉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수술 시간은 짧게,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또 출혈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한 결과였지요. 마취도 무통 마취를 해본다든가, 이런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그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을 내니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진짜로 그렇게 수술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외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4월에 정식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학회 체제를 변경하기 위한 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 이전과 이후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1999년에 제3회 IGCC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김진복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IGCC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학회 위상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 김진복 교수님께서 대한위암학회가 정식 학회로서의 조직을 갖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영재·양한광 교수와 더불어 저는 쪽 감사 역할을 했었는데,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저는 학술을 담당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는 학술대회 준비에 주력했었습니다. 주로 발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연자를 초청하는 일이었지요.

학술분과가 제일 바쁠 때는 아무래도 IGCC 유치를 준비할 때였고요.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추계 학술대회가 외과학회 통합학술대회로 개최되면서 우리 학술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과학회 산하에 여러 학회가 생기면서 외과학회는 껍데기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에서 추계를 통합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추계 학술대회의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회원들은 학회에 참가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는데, 학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이 외면하니깐요. 그래서 2008년부터 케이스 중심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학술 행사들은 학회 운영과도 직결됩니다.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스폰서도 잘 구해지고, 참가비를 통해 학회 수입도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2002년에 위암진료권고안 제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하셨는데, 연구회 시절 위암기재규약안이 만들어진 후 약 10년 만이었습니다. 이 위암진료권고안의 제정은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 그동안 봐왔던 일본식의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한국화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의 기재규약안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일본의 것을 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회가 전국 단위의 데이터 조사도 했고, 그러니 진료의 가이드라인도 좀 우리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병원 실정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었지요.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선뜻 제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2004년 11월 제19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위암진료권고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 학회지에 Korean Guideline for Gastric Cancer라는 제목으로 발표도 했지요. 2005년 학회에서 발간한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위암진료권고안의 출간물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학술분과 활동의 메인은 아무래도 제9회 IGCC의 유치와 개최 준비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9년에 제3회 IG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IGCC가 2년마다 개최되는데, 우리가 제3회를 개최한 이후 제4회는 뉴욕, 제5회는 로마, 제6회는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제6회 요코하마 IGCC 당시에 그 다다음인 2009년도 학술대회를 서울로 유치할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륙별로 번갈아 개최해야 하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 개최지는 폴란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브라질 대회에서 2011년도 제9회 IGCC를 유치할 계획으로 또 준비했고, 결국 유치가 성공했습니다. 유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국제학회 개최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날마다 오전 6시에 저와 목영재, 양한광, 정재호 교수까지 청계천 문화옥에 모여서 IGCC 개최를 위해 회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진 아이디어가 국제위암학회가 정말 활성화된 다학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위암학회가 더 이상 외과 중심의 학회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요. 우리는 상당히 일찍부터 다학제를 지향한 학회였으니까요. 당시 양한광 교수가 학술 담당이었는데, 기초의학, 항암치료, 소화기내과 등등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자들도 그에 맞춰서 섭외했고요. 제가 직접 일본 위암학회에 가서 프로모션도 하는 등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또 한국 외과학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명이 힘을 쏟은 덕분에 제9회 IGCC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참가 인원만 약 2,000명이었으니까요.

대한위암학회가 일찍부터 다학제를 지향해 왔는데, 그 안에서 외과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외과의는 수술하는 사람 아닙니까? 수술에 대한 것만큼은 다른 영역에서 침범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외과의인 제가 약을 쓰는 것과 관련된 영역은 함부로 침범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해야 하지요. 그럼 외과에서 갈 길은 무엇이나, 수술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외과의는 기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과의나 내과의 모두 끊임없이 위암이라는 병에 대해 더 공부해야만 합니다. 병의 기전에 대해 알아야 환자한테 설명도 하고 지침도 줄 수 있으니까요. 외과의라도 종양학과 기초의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고, 또 로봇 같은 기계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외과의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위암 치료의 메인 과정은 역시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임상연구가 증명하듯이 위암에서 항암 요법 등은 보조적인 치료일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는 수술이 메인 치료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따라서 외과의는 다학제적인 접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과의라면 당연히 위암이라는 병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위암학회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꼽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역시 위암연구회에서 학회로 발전시킨 초기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위치까지 도약할 수 있었던 동력은 역시 제3회와 9회 IGCC 개최였지요. 말씀드렸다시피 IGCC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치열하게 논의했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대한위암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내부적으로 역량도 축적되었습니다. 그런 역량이 우리 학회에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과감하게 KINGCA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정말 반목 없이 단결해서 학회에 헌신해 온 것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는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이십니다. 대한위암학회와 오랜 세월 함께 해오신 분이로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대위암학회는 단일 질환에 대한 학회입니다. 물론 근래에는 탐구의 영역을 위장관, 위식도 질환으로 넓혀가고 있고, 그런 시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는 당연한 행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활동들이 위암의 진단 및 치료라는 학회의 중심 의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메인 질환은 어디까지나 위암이라는 것이지요. 또 학회라는

것이 개인에게 당장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 교실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이득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러나 큰 틀 에서 볼 때 학회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바쁜 가 운데서도 학회의 회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인터뷰⑦



방향성을 재고하고 모학회 및 산하 연구회 관계 등을 새롭게 정립할 때

유완식(제10대 회장)

교수님께서 위암 수술에 새로운 시도를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이뤄진 시도들은 대체로 해외 연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미국, 일본 연수에서 접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치료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외과의사니까 환자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치료를 치열하게 찾아내야지요. 자신의 수술 비디오킵을 계속 돌려보고, 복기해 보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림프절 청소의 경우는 1988년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마루야마 교수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의 민진식 교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수술을 먼저 시작하셨지요. 저는 일본의 마루야마 교수님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난 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일본의 암연구회병원으로 연수를 갔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립암센터의 마루야마 교수가 국제화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연수를 받은 후부터 림프절 청소를 본격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수술에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거나, 복강 내 화학 치료 등은 이후 미국 연수 때 터득했습니다. 우리 세대 위암을 수술하는 사람들이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당시 저 역시도 암세포의 복막 전이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전기소작기의 사용도 결국 편하고 빠른 것보다는, 수술 중에 암세포가 번지

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대체로 복막 전이가 발생하면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그런데 미국에는 폴 슈가베이커 박사라고, 복막절제술, 복강내 화학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의사가 있더군요. 복강 내 화학요법은 그분에게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후 19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대구에서 위암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구위암연구회가 조직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대구위암연구회는 1993년 1월에 박기호, 송선교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는 배병조, 손수상 교수님께서 함께하신 가운데 대구위암연구회 발기인대회도 치렀지요. 박기호 교수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제가 총무 역할을 했어요. 이후에는 처음 모인 5인이 돌아가면서 회장도 했고요. 초창기에는 대구에 있는 5개 병원 공동 연구 방식으로 위암의 병리 조직에 대한 검사지의 기재 양식을 통일해 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구식 기재규약안이었지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병리와,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교수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구위암연구회는 지난 25년간 지금까지 1~2개월에 한 번씩 스터디 모임을 지속해 왔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스터디에서 진행한 연구를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무렵 호남과 부경 지역에서도 스터디 그룹이 조직되더군요. 물론 그에 앞서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한외과학회 산하에서 위암연구회가 그룹 스터디를 시작했고, 또 1990년대 초반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위암연구동우회라는 모임도 조직되었지요. 대구위암연구회는 소규모였지만 5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위암 수술을 참관하는 등 아주 굉장한 적극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교류가 이뤄지면 지역의 의료 수준이 균등하게 향상될 수 있거든요.

대한위암연구회의 창립이 1993년 11월이었으니까, 교수님께서도 한창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시기였습니다. 참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록으로 보셨겠지만, 대한외과학회 산하 연구회 모임이 시작된 것이 1989년 10월이었습니다. 김진복, 민진식, 윤세옥, 황일우 교수님 등 우리 윗세대, 그리고 거기에 민진식 교수님의 제자인 노성훈 교수도 함께 참여했지요. 그 구성원이 1990년 6월까지 총 6번 모였습니다. 황일우 교수님께서 서울에 그 연구회 모임을 다녀오시면 항상 제게 다음 모임의 안건을 알려주셨었는데, 제6차 모임의 안건은 위암 수술 시 기재사항의 미비점 및 보완할 사항이더군요. 그래서 그때까

지 만들어진 안을 제가 보고는 너무 간략하다고 참견 아닌 참견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럼 당신도 같이 참여해 만들자고 하시면서, 그렇게 위암연구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시간을 끌다가 1993년 11월에 대한위암연구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습니다.

1994년 5월 경주에서 대한위암연구회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당시 경북 지역이사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김진복 교수님께서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경주에서 열리니, 위암연구회 두 번째 학술행사는 대구 지역에서 주관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대구위암연구회가 사실상 대한위암연구회의 지역 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학술대회를 치를 시기와 방식, 그리고 주제를 김진복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주제가 위암의 수술전 병기진단(Preoperative staging of gastric cancer)이었지요. 그 주제에 맞는 발표를 신청하도록 회원들에게 공모하고, 그렇게 대구위암연구회가 두 번째 학술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렇게 창립 초기에는 학술행사의 개최가 대한위암학회 활동의 중심이었다면, 2000년에 학회 조직이 개편되면서 학회 업무 전반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느 분과에서 활동하셨는지요?

민진식 교수님께서 제2대 회장에 취임하시면서 학회지의 창간을 강력하게 추진하셨습니다. 학회의 이름을 건 학술지가 있어야만 대한의학회 가입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저는 편집위원회 소속으로 학회지 창간과 발행에 관계했습니다. 물론 편집위원장을 맡은 권성준 교수의 노고가 가장 컸지요. 당연히 편집위원회의 주된 고민은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학회지가 살아나니까. 그때 주효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가 전공의들 연구 논문을 모집하는 것이었어요.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외과학회에 우리 위암학회지도 실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나씩 취함으로써 조금씩 논문 모집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회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등재 학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SCIE 같은 곳은 등재를 심사할 때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율이나 인용 지수도 보거든요. 투고된 논문을 다 받아주는 학술지는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투고되는 논문이 많아야 거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하니까 학

회에서 학술상을 제정해서 상을 받은 연구는 꼭 학회지에 신도록 하는 등 좋은 연구 논문을 게재할 유인들을 자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외과학 회지보다 먼저 등재지도 되고 IF도 높게 받았습니

교수님께서 2011년에 제1부회장, 2012년에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학회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던 시기로 생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제 9회 IGCC의 유치와 개최가 제일 주목받았는데요. 같은시기 학회 내부의 변화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제가 2009년에 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한위암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것도 그때였습니다. 2011년에 발간된 위암 교과서의 제목이 『위암과 위장관 질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암이라는 단일 질환을 다루는 학회라는 점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암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면서부터 예정되었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초에 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같은 산하 연구회가 시작된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 이사장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장이 회무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회지를 영문학술지로 변경하고 질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졌지요.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일본 위암학회의 대민 공개강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시민 강좌를 개최, 위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검진의 중요성이나 수술 후의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회장 임기 중에 특별히 주목하셨던 학회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때 위암학회 학술지의 PubMed, SCOPUS 등재에 상당히 좀 고무되었었습니다. PubMed나 SCOPUS에 등재되는 것은 결국 SCIE 등재를 향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을 향해 학회지의 질이 충실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또 학술대회 기간 중 연수강좌를 시행하는 데 신경을 꽤 썼습니다. 학회에서 연구 결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추계학술대회는 외과학회 통합으로 치러지니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강화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전공의 연수강좌도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혼자 수술하는 것이 아니니 수술실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나 수술 후 관리에 대한 간호사 교육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위암연구회 시절을 포함해서 학회 발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꼽자면?

저는 학회지를 만들고 발전시킨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학회지의 발전이 우리 학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학회지의 창간은 대한의학회에 가입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학회지를 창간해서 쪽 발행해 온 것이 아니라 회원학회가 된 이후에도 학술지로서의 질, 그러니까 학술적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KINGCA의 개최 역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높은 치료 성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일본을 앞서간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웠는데, 과감하게 국제학술대회를 직접 개최하면서 위암의 아카데미 리더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장관외과학회의 발족이 대한위암학회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위암학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은 무엇인가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격려해 주는 것이 자문위원의 역할이겠지요. 제가 2009년에 제기했던 질문, 그러니까 대한위암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2013년 회장 강연을 할 때 다시 한번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강연을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나라 위암의 발생의 절대적인 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암의 발생에서 위암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이 예전보다 줄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위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니 여전히 수술의 비중이 컸지만, 내시경적 치료나 항암화학요법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암학회의 회원 구성은 여전히 외과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대한외과학회 산하에서 시작한 학회이기는 하지만, 다학제적인 성격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했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 초창기부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장관외과학회라는 외과 중심의 학회가 발족한 현재는 더더욱 다학제적 면모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다학제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외과학회에 속한 세부전문학회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대한위암학회는 ‘외과와 관련된 세부전문과학회’였는데, 이제는 그 방향성을 신중하게 재고하고 모학회 및 산하 연구회 관계 등을 새롭게 정립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4장

아시아의 리더, KGCA (2012~2016)



●

2010년을 전후해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은 국내외 의료계에서 모두 강조되기 시작했다. 다학제적 접근이 국가 의료 정책의 차원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로 인해 위암의 전체적인 생존율이 향상되었음에도 2004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국내 위암의 5년 생존율은 63.1% 수준으로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2010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암 정책사업의 하나로 ‘위암표준진료권고안 개발위원회’ 발족을 주관했다. 이 개발위원회는 대한위암학회를 포함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암학회, 대한핵의학회 등에서 추천한 20인의 다학제 기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해당 위원회에서 2012년에 발표한 위암표준진료권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위암은 조기 검진 및 치료 술기의 발달로 인해 북미나 유럽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지만 체계적 진단과 치료를 포괄하는 국내 진료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대한위암학회는 일찍이 2004년에 다학제 진료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었다. 아울러 2010년대 초에는 학회 이사진을 소화기내과, 병리과, 종양내과 등 다양한 전공 연구자로 구성하고자 했고, 학술대회 운영 면에서도 다학제를 유념해 프로그램을 구상하도록 했다.¹ 실제로 2012년 3월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위암학회 춘계 학술대회 첫째 날과 둘째 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초의학 분야의 연제발표가 심포지엄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13년 4월에 개최된 춘계 학술대회에서도 둘째 날 오후에 진행되었던 교육 심포지엄의 주제는 ‘위내시경의 다학제적 접근’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단 수술 중 내시경 사용뿐 아니라 내시경 삽입법부터 조직검사에 관한 발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²

¹ 2011년 1월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의록

²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의·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교육의 차원이기도 했지만, 위암의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내시경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가는 시대적 경향, 그리고 수술 중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세분화하는 문제 등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2012년 대한위암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심포지엄①

Symposium I : Synchronous and metachronous cancer	
좌장: 이상호(고신대), 박종재(고려대) 지정토론자: 이항락(한양대)	
1. Metachronous lesion after ESD	박선영(전남대)
2. CT colonography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임준석(연세대)
3. MALT lymphoma and gastric adenocarcinoma	이선영(건국대)
4. Esophageal cancer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and gastric cancer after esophageal cancer surgery	김상균(서울대)
*2012년 2월 회의록 발췌	

2013년 대한위암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심포지엄②

Symposium II: 위내시경의 다학제적 접근	
클라벨 홀 좌장: 김 성(성균관대의대), 정훈용(울산의대)	
내시경 교육시스템과 위내시경 삽입 TIP	이준행(성균관대의대)
내시경 조직검사: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결과 해석의 주의점	박종재(고려의대)
수술장 내 및 수술 후 위내시경	송교영(가톨릭의대)
*2013년 3월 회의록 발췌	

2014년에 제정·발간된 『위암 가이드』라인 역시 다학제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국내외의 의학적 흐름을 반영, 위암의 병리학적 평가와 진단, 치료에 대한 유관학회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었다. 이처럼 다학제는 대한위암학회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지향했던 바이지만, 2010년대로 접어들어 이후의 다학제 논의는 위암이라는 질환의 역학 변화와 세부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립이라는 흐름 속에서 단일 장기 및 단일 질환 학회로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있었다.

2010년대 초반 학회는 시대에 따른 질환 발생률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논의했다. 위암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비만이나 위식도 역류 같은 양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3년부터는 세부전문의 인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한위암학회는 새로운 제도의 관리 감독 주체로서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2010년대 초의 의학적 추세 및 제도적 변화는 이후 대한위암학회 산하에 다양한 연구회들이 창립되는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2010년대 초 대한위암학회 앞에 놓인 과제는 임상 영역에서의 발전을 위해 장차 학술적 영역에서 위암 연구가 더욱 진일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위암 발생률이 높고 그 치료술에서도 앞서 있는 한국이 그러한 연구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대한위암학회는 주축 임원진이 국제위암학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주요 회원국이었으며, 한국 의학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기대도 상당히 높았다. 이에 국내외 의학계는 2011년 제9회 IGCC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대한위암학회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다.

대한위암학회에서는 2010년 1월에 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해 학회의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조직 개편의 핵심은 분과위원회 신설과 이사장제도의 시행이었다. 우선 학회가 국내외 보건의료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맞는 학회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로 윤리, 연구, 의료심사위원회 신설이 결정되었다. 이사장제도의 경우 앞서 2005년에도 도입이 건의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학회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안이었다. 세부전문의 인증제도의 시행이나 국제 학술대회 유치를 비롯한 국제 교류의 확대, 위암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편찬, 보험수가 제정에 대한 견해 조정 등등 학회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임원진의 역할 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회는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로서 임기 2년의 이사장제도 시행을 결정, 2011년 4월 김동현 제7대 회장과 목영재 초대 이사장이 취임했다.

목영재 초대 이사장 재임기(2011~2013, 김동현 제7대 회장/유완식 제8대 회장)에는 산하 연구회 관리 규정 신설과 다학제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학회지 JGC의 학술적 인지도 향상과 일본 및 중국과의 교류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조현 제2대 이사장 재임기(2013~2015, 양두현 제9대 회장/권성준 제10대 회장)에는 국제학술대회 KINGCA의 개최를 전격적으로 추진,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학회의 역량을 투입했다. 아울러 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미션과 비전도 새롭게 마련했다. 양한광 제3대 이사장 재임기(2015~2017, 박승만 제11대 회장/최승호 제12대 회장)에는 학술대회의 영역을 확장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KINGCA Week 2016 기간에 제6회 아시아·태평양 위식도암 학술대회(Asia Pacific GastroEsophageal Cancer Congress, 이하 APGCC)를 공동개최했다. 또 국내에서는 위장관외과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위장관 분야의 학술적 내실을 다지는 장(場)을 제공했다.

1. Journal of Gastric Cancer의 성장과 발전

대한위암학회는 2010년 학회지를 영문학술지 Journal of Gastric Cancer(이하 JGC로 표기)로 변경하고 PubMed Central과 같은 해외 저널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추진, 이를 실현한 바 있었다. 영문학술지로의 변경은 신중한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사안이었고, 학회에서도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변경을 실행했다. 이에 학회지 전체가 완전히 영문으로 전환된 것은 2013년부터였다.

이사회에서는 영문학술지로의 변경을 결정함과 동시에 장차 SCOPUS와 KCI, SCIE 등재까지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2012년 9월 이제 막 영문학술지로 변경한 JGC는 SCOPUS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학회에서는 한상욱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학술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PubMed와 SCOPUS 등재는 해외 투고율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는 점에서 향후 JGC가 학술적으로 성장하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

JGC가 국내외에서 학술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고율과 인용지수를 한층 끌어올려야 했으며, 편집진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³ 이에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에서는 학회지 업무를 전문성 있게 소화할 수 있는 에디터의 고용이라든지, 투고를 활성화하고 인용지수를 높이는 방안, 학회지에 투고한

연구를 대상으로 최다인용 학술상의 제정 및 시상 등 학회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학회는 JGC의 학술적 인지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연구 활동도 고취하는 차원에서 2012년 12월에 대한위암학회 우수 연구자상을 신설했다. 이는 종래 학회에서 학술지와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상하던 최다논문게재상과 우수논문상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학술상이었다. 우수 연구자상은 JGC를 인용한 연구, 그중에서도 영향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에게 수여하기로 결정되었다.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제정한 대한위암학회 우수 연구자상의 수상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우수 연구자상 제정 외에도 투고 논문의 질을 확보하고 투고 및 편집 과정에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 표절 방지 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꾀했으며, 지역 편집인과 해외 reviewer를 추가하는 등 장차 SCI(E) 등재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EBSCO, 2014년에는 KCI 등재지가 된 것에 이어 마침내 2017년에는 JGC가 SCIE에 등재되었다.

Title: Journal of Gastric Cancer ISSN / E-ISSN: 2093-582X / 2093-5641
 Publisher: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The title mentioned above has been evaluated for inclusion in Scopus by the 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 (CSAB). The review of this title is now complete and the CSAB has advised that the title will be accepted for inclusion in Scopus. For your information, the reviewer comments are copied below: This is a well presented and speciality focussed journal in English. Manuscript flow is not high and the academic contribution is presently limited, but it merits inclusion in SCOPUS with the prospect of a widening readership and authorship. If necessary, our Source Collection Management department will contact the publisher in order to set up the content feed for Scopus. The title will be loaded in Scopus as soon as we have access to the title and the content has been processed for indexing. At this moment, there is no further action required from your end.

Yours sincerely, Scopus Title Evaluation Support titlesuggestion@scopus.com

JGC의 SCOPUS 등재 수락을 알리는 메일(2012년 9월 회의록 발췌)

대한위암학회 우수 연구자상

제 4 조 (자격)

- ① 본 학술상의 수여자격은 대한위암학회 정회원 및 평생회원에 한한다.
- ②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권호를 부여받은 국내외 SCI(E) 등재 학술지에 Journal of Gastric Cancer 의 논문을 인용한 원저논문을 게재한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 중 게재 편 수 및 학술지의 영향지수(IF)를 고려해 선정한다.
- ④ 매년 1월 대한 위암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 Journal of Gastric Cancer 를 인용한 논문에 대한 접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일차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⑤ 최근 2년간 Journal of Gastric Cancer 에 제1 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있어야 한다.
- ⑥ 동일한 논문으로 두 명의 저자가 신청할 수 없다.

대한위암학회 우수 연구자상 관련 규정(2012년 11월 회의록 발췌)

³ The Journal of Gastric Cancer was rejected in March 2012 due to low citation activity. You may submit the journal to us for evaluation again in March 2015- '2012년 Thomson Reuters decision'(2014년 8월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의록 발췌)

⁴ 2012년 12월 상임이사회 회의록

Dear Jin-Jo Kim,
 Thank you for your message. Clarivate Analytics has formally accepted the Journal of Gastric Cancer into SCIE. We continue to include the journal in SCIE.

Journal of Gastric Cancer content from 2015 forward will be indexed in SCIE. The journal's issues published from 2005-2014 will be indexed in ESCI.

Please retain this e-mail as formal notification of our editorial decisions.

Best regards,
 Matt Rice
 Publisher Liaison

SCIE 등재 확정, 소급 적용 및 Impact factor 부여 시기



Journal of Gastric Cancer SCI(E) 등재

SCI(E) 등재는 학회가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인 프로젝트였다. 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SCI(E) 진입을 위해 JGC에 원저 논문을 투고하고자 했고, 유관학회에도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으로 JGC 투고 논문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JGC citation에 대한 우수 연구자상의 내용도 인용 횟수에 따라 수 상하는 것으로 변경해 IF를 높이고자 했다. 2015에 제정한 JGC 우수심사자상 역시 학회지에 대한 회원 들의 관심과 기여, 그리고 수준 높은 Review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다. 한상욱 편집위원장(2011~2013)은 우수 연구자상 신설을 추진해 학술지 투고와 인용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형우진 편집위원 장(2013~2017)은 SCI(E) 등재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회원들에게 JGC의 인용을 독려하는 한편, 투고 되는 원고의 변동 추이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해외 투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2015~2016년 무렵에는 JGC의 해외 투고가 상당히 증대되었는데, 당시 편집위원회에서는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기 보다는 투고 논문의 상당수가 증례연구라는 점에 착안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해외 SCI(E) 저널들

이 점차 증례연구 게재율을 낮추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이에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CI(E) 저널들의 기준에 따라 JGC역시 증례연구 비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학회 지의 발행 그 자체에 안주하기보다는 SCI(E) 등재 기준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JGC에 민감하게 적 용함으로써 평가 기준에 도달하려는 노력 끝에 SCI(E) 등재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학회는 2001년 계간지로 대한위암학회지를 창간한 이래로 투고 편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도 겪어 보았고, 번역 및 편집에 어려움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편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회지를 발전 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이끌어갔다. 영문학술지로의 변경을 결정한 이후에는 학술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과 이사회 인맥을 동원해 해외 reviewer를 섭외하고, Editorial 주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는 학회지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었다.

2. 위장관 연구의 허브

주지하듯이 2010년대 초반까지 대한위암학회 산하 연구회로는 2005년에 발족한 KCLASS와 2006년에 활 동을 시작해 2008년 무렵 정식 산하 연구회로 등록된 GIST 연구회와 2010년에 발족한 KARS가 있었다. 이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하 연구회는 대개 회원들이 형성한 자발적인 연구 모임에서 시작되어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구체적인 착수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학회의 승인 아래 산하 연구회 라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산하 연구회는 조직 형성의 특성상 시대의 의학적 요구, 즉 시의성을 담 보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학술 발전과 더불어 차세대 연구 인력의 학회 참여를 유도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2010년대의 특징이라면 위암이라는 단일 질 환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는 산하 연구회 발족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대한위암학회는 위암이라는 단 일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연구하자는 공감대 위에서 창립했지만, 2010년대 초·중반 무렵에 이르러서는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이 양성 질환을 포함해 위장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의 보건 의료 환경 및 한국인의 생활 습관 변화로 위장관 질환의 발병 양상이 달라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 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 무렵 위식도역류 질환의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하는 연구 모임이 결성되었 다. 국내에서 위식도역류는 수술보다는 약물 복용에 의한 치료가 일반적인 질환이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약물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추세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케이스와 술기를 연구

해 표준화된 치료법을 확립하자는 것이 해당 모임의 목적이었다. 물론 연구 모임이 형성되는 과정과 동기는 비교적 다양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모임 구성원의 다수가 학회 회원인 경우도 있었지만,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하는 모임도 있었다. 산하 연구회를 결성하는 것에 있어 구성원의 견해와 연구의 방향성이 일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회원 간의 연구 모임이 조직되었다고 해서 모두 산하 연구회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산하 연구회가 학회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학술적 영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했다. 이에 학회에서는 정식으로 산하 연구회를 승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재검토했고, 그에 따라 2012년 3월 산하 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을 정식으로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학회가 회칙 개정을 통해 산하 연구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정식으로 마련되자, 실제로 몇몇 소규모 연구 모임들이 산하 연구회 신청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산하 연구회 설치에 관

대한위암학회 산하연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대한위암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해 기본 지침을 정해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업무)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 3 조 (설립 절차)

설립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3개월 이내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접수 서류

1.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2. 연구회 회칙 (정관)
3. 회원구성 현황
4. 최근 2년 동안의 학술 활동 자료
5. 추천서 (본회 이사 중 5인 이상의 추천)

대한위암학회 우수 연구자상 관련 규정(2012년 11월 회의록 발췌)



대한위암학회 산하 위장관외과연구회 발족식

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가장 먼저 등록된 곳은 대한외과위내시경연구회였다(2012).이어서 2013년 12월에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가 심사 서류를 제출했는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학회는 위장관외과 연구회 발족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이에 위장관외과연구회가 포괄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학회는 추후 연관성이 있는 산하 연구회 간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각 산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양성 질환을 다루는 산하 연구회 발족은 위장관외과의 주된 영역이 위암 수술에 해당하는 시대에서 다양한 질환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시대적 변화에 다다랐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위암의 치료에 있어 수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임은 분명하나, 내시경 치료의 영역이 확장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위장관 질환에 관한 연구가 위암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의료 선진들에서 다양한 위장관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발전해 왔듯이, 대한위암학회는 2010년대에 양성 질환을 다루는 산하 연구회를 발족함으로써 위장관 분야의 의학 발전에 초석을 놓는 역할을 했다. 또 2010년대 중·후반에도 대한외과위내시경연구회(2017),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KOQUSS, 2019), 축소포트 위장관수술 연구회(REDUSS, 2019) 등을 발족, 학회의 연구 분야를 '위장관 외과' 영역에서 요구되는 분야로까지 확장했다.⁵ 학회는 2017년부터 이들 산하 연구회와 후보연구회를 아우르는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

⁵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KOQUSS, 2018), 축소포트 위장관수술 연구회(REDUSS)는 2016년에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후보연구회로 인준받았으며, 2019년에 심사를 거쳐 정식 산하 연구회로 승격되었다.



제1회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

대회를 개최, 다양한 위장관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⁶ 특히 2019년까지 세 차례 개최된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가 대한위장관외과학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2000년대 중·후반 시작된 KLASS의 다기관 공동연구 역시 국내외의 학술적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0년대에는 위암에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을 비교하는 3상 연구(KLASS 01, 02), 2, 3기 위암에서 수술 후 보조 화학요법에 관한 연구(CLASSIC), 4기 위암에서 수술적 절제의 효용성에 관한 한-일 공동연구(REGATTA) 등이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일본 JCOG와 대한위암학회의 한·일 공동연구(KGCA-01: REGATTA trial) 결과가 2015년 미국 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되면서 이목을 끌었다.⁷ 이러한 다기관 임상연구는 논란이 되는 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학계에서 대한위암학회의 학술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학회의 역할이 국내·국제 학술대회의 개최를 넘어 공동연구를 지원·협력하는 학술적 허브로 변화, 성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⁶ 국제화를 비롯한 외형적인 성장 외에도 학회 내실화라는 본연의 임무와 다학제화 등의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많은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선 위장관 연관학회와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장관외과 통합 학술대회 TFT 운영을 활성화해 준비할 것.(2017년 4월 28일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 회의록)

⁷ Fujitani K, Yang HK, Mizusawa J, Kim YW, Terashima M, Han SU, et al. Gastrectomy plus chemotherapy versus chemotherapy alone for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a single non-curable factor (REGATTA): a phase 3,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Oncol* 2016;17:309-318.

3. 새로운 도전과 도약, KINGCA Week

대한위암학회는 창립 이래 2회의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위암 분야에서 일본과 더불어 명실공히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올라서 있었다. 특히 위암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는 국내 의료진이 해외로 나가 연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술기를 배우러 한국에 방문하는 추세가 나타난 지 오래였다. 연구에서도 다기관 임상연구를 주도해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는 등, 선도적인 위치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상과 달리 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는 규모와 형식 면에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다. 창립 초기부터 춘계와 추계로 나뉘어 연 2회 개최하던 학술대회 중 추계가 외과학회 통합 학술대회로 치러지게 되면서 학술대회를 통한 깊이 있는 교류의 기회가 사실상 줄어들었고, 이것이 신규 회원의 유입 감소로 이어진 측면도 있었다. 추계 심포지엄이나 연수강좌의 개최는 축소된 학술 교류의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이기도 했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학회 발전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동력이 되지 못했다. 이에 그동안 대한위암학회가 거둬 온 대외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차 더욱 경쟁력 있는 학회로의 성장은 지체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일각에서 형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위암학회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학술 교류의 장을 국내외 학계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견해는 일견 타당했다.

정기 학술대회를 국제화하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 11월이었다. 기존의 학술대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국제학술대회의 형식과 기준에 대한 정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인정 심사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참가자가 150명 이상이거나,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를 제외한 보건의료전문 참가자의 국적 구성이 5개국 이상일 것, 그리고 대회 기간이 2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처음부터 이상의 조건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학회가 정체되어 가고 있는 사정,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시기적 조건을 고려해 2014년 춘계 학술대회부터 국제학술대회로의 전면 전환을 시도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학회는 곧 학술대회 국제화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대행사 선정을 비롯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무엇보다도 국제학술대회 인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한국에 체류 중인 visiting fellow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고, 대외 홍보에도 힘써야 했다. 이에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작이 시작되었고, 임원들은 2013년 IGCC에서 제작 리플릿을 배포하고, 초청 연자를 섭외하는 등의 구체적인 홍보 활동 방안도 세웠다. 국제학술대회명은 KINGCA Week(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로 결정되었다. 또 국제위원회에서는 국제학술대회 기간 앞뒤로 참가자들이 국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국제화에 대한 CEO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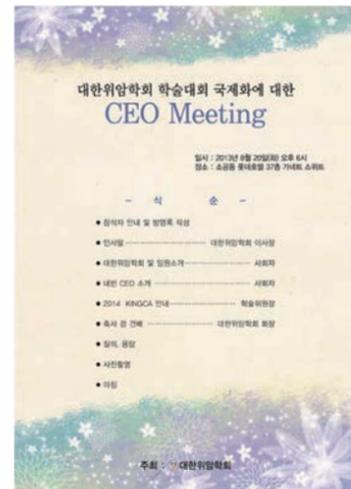
일시 : 2013년 8월 20일(화) 오후 6시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37층 가네트 스위트 | 주최 : 대한위암학회



KINGCA Week CEO Meeting(2013년 8월 20일)

내 기관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Site visiting program)을 실시하기 위해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2013년 8월에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INGCA 스폰서십을 위한 CEO 미팅을 개최, 1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4년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대회의 규모와 장소, 내용과 진행 절차 등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독려했다.⁸

KINGCA Week 2014의 개최 장소는 종래의 정기학술대회 순환 개최 순서에 따라 대전컨벤션센터로 정해졌다. 개최 기간은 3일로, 이 기간 동안 대전컨벤션센터의 컨퍼런스룸 3개 호실을 모두 사용하는 규모로 계획했다. 또 국제학술대회에 걸맞게 영어 세션을 확대하자는 견해에 따라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초청 연자는 10인 내외로 선정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학술대회인 만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국적의 연구자를 연



CEO Meeting 프로그램

⁸ CEO 미팅 참여 업체 및 참석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림바이오텍(1), 메디파인코퍼레이션(1), 박스터코리아(1), 보령제약(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1), 세종메디칼(1), 셀트리온제약(2), 에이취브라더스(1), 인투이티브서지칼(2), 일성신약(2), 제일약품(1), 코비디엔코리아(1), 한국노바티스(2), 한국릴리(2),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2), 한국화이자(1), 한미약품(1)

자로 섭외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2013년 11월 10인의 연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음으로써 초청 연자 섭외가 완료되었다. KINGCA Week 2014의 초청 연자는 아래와 같다.

해외연자 초청 수락 현황

국가	초청 수락	이름
중국	11월 11일	Jiafu Ji
	11월 5일	Yihong Sun
	10월 23일	Li Guoxin
	10월 29일	Zhu Zheng-Gang
싱가포르	10월 30일	Jimmy So
	10월 25일	Ichiro Uyama
일본	10월 24일	Masanori Terashima
	11월 7일	Takeshi Aikou
	10월 30일	Bruce Schirmer
미국	10월 23일	Raul J. Rosenthal

KINGCA Week 2014 초청 연자 명단(2013년 11월 회의록 발췌)

학술대회의 주요 테마인 공식 슬로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학회에서는 ‘장차 대한위암학회가 위암 연구의 리더로 올라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슬로건을 정하고자 했다. 이어 ‘Lead the World of Gastric Cancer’와 ‘New Era in Management of Gastric Cancer’가 대항사로부터 제시되었으나 논의 끝에 ‘Together we make the difference’가 KINGCA Week 2014의 공식 슬로건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KINGCA Week 2014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국제학술대회를 부분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2개국에서 93명의 외국인이 참가했으며 각 세션의 주제와 연자 선정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학회에서 발표된 초록은 총 160편이었으며, 등록 참가자는 총 540명에 달했다. 프로그램 중에서는 국내외 위암 치료의 권위자와 직접 만나서 질의할 수 있는 Meet the Professor의 인기가 좋았다.⁹ 학술대회 기간 앞뒤로 마련한 Site

⁹ KINGCA Week 2014의 MTP에서는 노성훈, 김형호, 형우진, Uyama, Terashima, Toyonaga, Rosenthal, Schirmer 교수 등이 참가자와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KINGCA Week 2014

Visiting Program은 첫 시행인 만큼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자의 호응이 좋았으므로 향후 더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

대한위암학회는 2014년 KINGCA를 새로운 도약의 기점으로 인식했다. KINGCA Week 2014 준비에 한창이던 2014년 1월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KINGCA Week 2014 팸플릿 표지

대한위암학회 미션 / 비전 공모 안내

우리 학회는 1993년 창립한 대한위암연구회의 업적을 계승해 1996년 대한위암학회로 발족했습니다. 201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34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2001년 대한위암학회지를 창간한 이래 51호 학술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연구력과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도전 정신의 저력을 바탕으로 국제위암학회를 유치해 1999년 제3차 IGCC, 2011년 제9차 IG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의 학술단체로 발돋움해 전 세계 위암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위암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는 우리 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업을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해 일차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대한위암학회의 미션과 비전은 KINGCA Week 2014 학술대회에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6일
대한위암학회 윤리위원장 민영돈
이사장 박조현
회장 양두현

대한위암학회 미션 & 비전 공모 안내문(2014년 1월 회의록 발췌)

KINGCA 개최를 계기로 학회의 미션과 비전, 강령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KINGCA가 단지 대한위암학회의 역량을 국내외에 선보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2010년대 초반부터 고민해 왔던 학회의 미래에 대한 지향을 담은 큰 도전이었음을 의미한다. 공모와 회의를 거쳐 KINGCA Week 2014 메인 행사에서 선포한 대한위암학회의 비전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의 수행, 국제 학계에서 학술적 권위의 강화, 다학제 진료지침의 수립, 전문의의 육성, 그리고 사회활동에의 참여 등 향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겨 있었다. 이는 학회와 구성원들이 변화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 결과였다.

학회는 KINGCA Week 2014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토대로 KINGCA Week 2015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개최 장소는 제주도 중문 롯데호텔로 결정되었으며, 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역민을 위한 시민 건강강좌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하기로 했다.¹⁰ 2014년 하반기에는 KINGCA Week 2015 개최

¹⁰

KINGCA 기간 중(2015년 4월 1일) 제주대학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시민 건강강좌에서는 송현주, 박조현, 정인호 교수가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위암의 진단과 내시경 치료,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대한위암학회 2014년도 우수상

를 위한 TF팀이 꾸려졌고, 학회 장소에 대한 답사 및 섭외도 추진되었다. 학술대회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학회 기간 중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도 최초로 도입되었다. 2015년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KINGCA Week 2015의 슬로건은

‘Together, we can make it better’였다. 총 551명이 참가자로 등록된 가운데 18개국에서 78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연달아 KINGCA를 개최한 경험은 학회의 학술적 자산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및 기타 동아시아 국가와의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위암학회에서는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위암학회가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 2014년도 우수상을 수여했다.

KINGCA Week이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KINGCA Week 2016은 제6회 APGCC와 공동으로 개최됨에 따라 학술대회 규모의 확대와 주제의 다양화, 참석자의 최대화를 꾀할 수 있었다. KINGCA Week 2016에는 총 23개국에서 353명이 구연과 포스터, 비디오 발표자로 참가했으며, 프로그램에 ‘Future Innovation in Gastric Cancer Treatment’라는 주제의 심포지엄도 추가되었다. 학회장인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총 12개의 심포지움, 2개의 포럼, 3개의 교육 세션, 5개의 비디오 세션, 6개의 교수와의 만남(Meet the Professor)을 포함해 내시경 세션, 혁신 세션(Innovation Session)과 간호사 세션에서 152명의 석학을 초청해 다양한 형태의 초청 강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수술 전 1기 위암을 대상으로 시행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비교연구(KLASS-01) 결과와, 국소진행위암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KLASS-02)에서도 합병증에 관한 복강경과 개복 수술에서의 비교연구가 화제를 모았다. 또 ‘Beyond Asia’와 ‘Asia, Let’s go together’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두 개의 포럼에서는 위암의 연구와 진료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를 토론했다.

11

고(故) 김진복 교수 기념 강연에서는 미국 오레곤병원의 Lee Swanstom 박사가 ‘What is the role of the surgeon innovator in 2016?’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그해 고(故) 민진식 교수 기념 강연에서는 일본 고고시마대학의 Takashi Aikou 교수가 ‘Carcinoma of Esophago-Gastric Junction—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대한위암학회 회장인 가톨릭대학교 박승만 교수의 회장 강연이 ‘What should stomach cancer surgeon do to prepare for the futur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아울러 학회는 참가자들이 개최 기간 중 자유롭게 ‘다국적(multinational), 다기관(multi-center) 연구자 모임’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과 플랫폼을 제공해 KINGCA가 공동연구를 기획, 추진하는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했다.¹¹

국제학술대회 KINGCA의 성공적인 안착은 위암 연구에 있어서 대한위암학회가 명실공히 아시아 지역의 학술적 리더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개최 기간 중 새로운 토픽에 관한 다기관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는 그동안 학회와 구성원들에게 KCLASS trial과 같은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는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술적으로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었던 일본 위암학회에서도 KINGCA를 성공으로 이끈 대한위암학회의 역량에 놀라워했으며, 자국 학술대회에도 KINGCA의 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IGCA의 역할을 의식해서 KINGCA는 아시아 지역의 학술 교류에 초점을 맞췄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의 참가율도 상승했다. KINGCA가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구성원들이 복강경과 로봇수술에 착수하면서 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임상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학술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학계가 대한위암학회와 KINGCA에 높은 관심과 신뢰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 5일(토)
- 장소 : 양재동 The-K Hotel
- 20 years of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 (대한위암학회 20주년 기념 세션, 90분)
- 좌장 : 손수상 (계명대), 박조현 (가톨릭대)
- Past 20 years and future of KGCA - 양한광 (서울의대 / KGCA 이사장)
- Message from JGCA - Wataru Yasui (Hiroshima Univ., Japan)
- Message from IGCA & CGCA - Jiafu Ji (Peking Univ, China)
- KGCA as a multi-disciplinary society - how to improve it? - 김열홍 (고려의대 / KGCA 부회장)

2016년 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대한위암학회 20주년 기념 세션(2016년 10월 회의록 발췌)

2016년은 대한위암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했다. 봄에 이미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학회는 조출한 축하의 의미로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에 대한위암학회 20주년 기념 세션을

준비했다.

제3대 회장을 지낸 손수상 교수와 학회의 첫 KINGCA를 기획했던 박조현 제2대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한위암학회의 20년 역사를 돌아보는 양한광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일본 위암학회와 국제위암학회의 축사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열홍 교수가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여러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언했다.

위암의 기재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소규모 모임에서 외과학회 산하 연구회 시절을 짧게 거친 후 1996년에 정식 학회로 창립하기까지 태동기의 대한위암학회는 진단 및 치료의 전 과정에서 앞서가고 있었던 일본 의학을 습득하고, 그것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학회 창립 초기에는 위암의 치료 술기와 연구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오면서 교류의 폭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전산위원회를 통해 국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연구의 밑바탕을 축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와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수술적 치료가 크게 발전했고, 복강경 수술의 도입과 발전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본다면 KINGCA의 성공적인 안착에 이르기까지 대한위암학회가 이룩한 학술적 성과는 1980년대 후반 태동기에서부터 쌓아온 발자취에 더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앞선 인식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터뷰⑧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할 시점

박조현(제2대 이사장)

교수님께서 위암 수술을 주력 분야로 결정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가톨릭의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1986년 무렵에는 대한외과학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외과학은 학술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세부 전공을 가져야만 한다는, 이른바 전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요. 가톨릭 의과대학 내부에도 가톨릭위암연구회라고 주니어들 중심의 스터디 그룹이 있었고요. 외과학교실에서도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저는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장서서 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좀 특이했던 점이라면 당시 우리 병원 외과에 내시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김인철 교수님께서 내시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교실 자체적으로 내시경을 구입해서 배웠지요. 마침 제가 위 내시경을 많이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위가 저의 세부전공이 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를 정하는데 스승이신 김인철 교수님의 영향이 컸다는 말씀이신데, 수술의 측면에서도 스승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군요?

그렇지요. 외과는 기본적으로 도제식 교육이니까요. 내 스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수술의 기본적인 테

크닉은 모두 김인철 교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0년대에 한창 수술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도 진행성 위암 치료의 핵심은 수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많이 발전한 시기라고는 하지만, 위암에 대한 항암 치료의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지요. 저는 와이드 리섹션, 즉 수술 부위를 넓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큰 수술을 어떻게 하면 합병증 없이 해낼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했지요. 집도의의 능력만으로 합병증 발생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넓은 부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외과의마다 집중력을 놓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스승이신 김인철 교수님께서도 절대로 중간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저 역시 한숨도 돌릴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더군요.

교수님께서 미국 브라운 의과대학 암센터(1993~1995)에서 연수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그곳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989년에 제 세부전공이 위로 결정이 되었는데, 수술에 있어서는 확실히 일본이 앞서 있기는 했습니다. 일본으로 연수를 많이들 갔지요. 제가 브라운으로 갔던 것은 종양학, 즉 암세포에 관한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구는 의과대학의 한 축이거든요. 브라운 암센터에 있을 때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암세포의 복막 전이 문제였습니다. 암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CD44라는 세포 접착 물질을 연구하는 랩에 참여했지요. 귀국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아 외과학교실에 랩을 세팅해서 5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4~5년 정도 지나면서 임상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외과의는 줄어들고, 그러니 수술은 많아졌지요. 랩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런 점이 참 아쉬웠는데, 제가 2014년에 주임교수가 되면서 교실에 다시 랩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건이 2000년대 무렵보다는 다소 좋아져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위암학회에 참여하신 시기는 미국 연수를 다녀오신 이후부터였군요?

그렇지요. 제가 1995년 2월에 귀국했는데, 곧이어 4월에 일본 외과학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귀국할 무렵에 제가 브라운 의과대학 스폰서 교수한테 그곳에서 연구한 CD44에 대한 논문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마침 일본 외과학회에서 그것이 채택되어서 발표하러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일본 외과학회에는 아예 CD44에 대한 별도 세션이 있더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해 온 주제니까, 그 세션에 가서 발표도 듣고 질문도 하고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김진복 교수님께서 와 계시더군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귀국하고 학회 일을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대한위암학회-처음에는 대한위암연구회였지요-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셨는데, 특히 2010년에 발표하신 서울성모병원과 뉴욕 메모리얼슬로온케터링 암센터의 위암 치료 성적에 대한 비교 연구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연구는 메모리얼슬로온 쪽에서 먼저 제의해 왔습니다. 그때 송교영 교수가 메모리얼슬로온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Vivian E. Strong이라는 여의사가 송교수를 통해 치료 성정을 비교하는 공동연구를 제안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데이터를 다 미국으로 보내주고, 그곳에서 분석한 결과를 Annals of Surgery에 게재했습니다.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 병원이 81%, 메모리얼슬로온이 58%였습니다. 각 병기에서의 생존율도 비교했는데, 모두 우리가 높았어요. 우리나라 위암 진단 및 치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사실 그 무렵, 그러니까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은 일본보다 좋았습니다. 근래 몇 년 전부터는 전체 암 치료 성적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을 했죠.

2000년 상임이사제도가 채택되면서 보험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당시 보험분과위원회에서 가장 주력했던 업무는 무엇이였습니까?

보험위원회 업무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수가를 정할 당시 외과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위암 수술에 대한 수가는 수술 시간, 참여하는 사람, 소모품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우리가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특히 수술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해버리니까, 시간도 중요한 요소인데 시간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지 못했었습니다. 환자한테는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것에만 골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위암 수술에 대한 수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버렸지요. 더구나 상대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가가 정해져 버리니까, 한번 결정된 수가를 올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보험위원회에서는 그런 평가 요소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을 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2013년에 대한위암학회의 두 번째 이사장이 되시고, 2014년에 제1회 KINGCA가 개최됩니다. **춘계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려는 계획은 언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제가 2013년 4월에 이사장에 선임이 되었는데, 그 직전 1월 즈음 중국 베이징대학에 초청 강연을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특수한 몇 군데 병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무엇인가 전파해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요. 게다가 중국은 모집단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초청 강연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중국의 현대 의학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위암의 아카데미 리더십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우리 위암학회가 나름 침체기였습니다. 학회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우리는 개원을 하는 과도 아니라서 개원의 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학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귀국해서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에 선임되고,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반대가 훨씬 많더군요. 학회 재정 상황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우리가 국제학회 경험이 풍부한 편도 아니었고, 언어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고 상임이사회에 역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밀어붙였지요. 다만 모든 것을 단번에 변경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장소는 이전부터 춘계 학술대회 개최지로 정해진 대전에서 그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밀어붙인 첫 번째 KINGCA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참가 인원만 약 400명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좋았던 아이디어라면, 당시 각 병원에 해외 연수생이 많았는데 그들이 학회에 와서 세션을 듣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학회 기간 중에 실제로 케이스를 볼 수 있도록 site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연수생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영어를 잘 쓰지 않으니,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적절한 연수지였거든요. 게다가 학회 기간 중에 site 방문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니까 연수지로서의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KINGCA를 와서 보고 영어 학술대회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더군요. 그 이후부터 일본 위암학회에서 영어 세션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상당히 보수적인 곳인데 말이지요.

또 하나 좋았던 아이디어는 학회 기간 중에 국제공동연구팀을 위한 미팅을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팅 장소 등을 지원해 주니까 참여자가 아무래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새로운 토픽에 관한 연구팀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연구 자체가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2015년 두 번째 KINGCA를 개최했습니다. IGCC와 달리 매년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까? 또 제1회 KINGCA 때와 다르게 하고 싶었던 점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국제학술대회니까 일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행사를 고용하기 시작해 매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제1회 KINGCA가 비교적 성공하기는 했어도 개최지가 대전이라는 지역적 약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냈었으니까 다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이기도 했고. 두 번째 KINGCA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구현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개최지를 제주로 정하면서 KINGCA의 콘셉트도 완전히 자리가 잡혔고. 그래도 초창기라서 그때는 사실상 학회 업무의 메인인 KINGCA일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위암 치료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이미 상당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KCLASS Trial을 시행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강경 치료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한국에서 내놓기 시작했고, 복강경에 관한 전향적인 연구들이 계속 생산되었지요. 조기 위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 FDA가 인증을 늦게 해줬거든요. 결국 일본에서는 로봇 수술 연수를 받으려고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것들이 KINGCA를 성공으로 이끈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리더십이 다소 불분명했었는데, KINGCA는 그동안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그 리더십을 전면에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IGCC를 의식해서 지역(regional)을 강조했었는데, 점차 동아시아 외의 지역에서도 KINGCA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실 때 대한위장관외과연구회, 위식도역류질환술연구회 등의 산하 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암학회가 단일 질환, 단일 기관에 대한 학회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의아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위암은 한국, 일본에서는 흔한 질병이지만 조기 진단의 발달로 진행성 위암의 모수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런 고민은 사실 201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 성모병원 강당에서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발대식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학회로 발전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국제적으로는 위암학회의 모학회로서 위장관외과학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위암이 워낙 많다 보니 그 관계가 뒤바뀐 것이지요. 대한위암학회에서는 2010년대부터 산하 연구회 형태로 위장관 질환 분야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질환의 패턴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질환에 집중하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중앙외과학회, 소화기학회 같은 다기관 학회의 회장도 지내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대한위암학회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학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대한위암학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회의 임원들이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우리가 2014년에 KINGCA를 개최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한위장관외과학회가 창립되었고, 한정된 자원에서 힘의 분산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 역할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면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이 분명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에 외과가 앞서야겠지요. 수술만 잘 해내면 된다는 자세로 수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암은 여전히 외과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야거든요. 위암의 하이브리드 트리트먼트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내시경과 복강경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절제술에 대한 고민도 더 해야겠지요. 이를테면 말기 위암은 거의 항암 치료에 말기는 추세인데, 외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과이다 보니 외과에서 위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⑨



국제적인 리더십과 같은 대한위암학회의 중요한 자산은 학회의 성과가 발판

양한광(제3대 이사장)

먼저 외과, 그중에서도 위암을 세부 전문 분야로 선택하신 계기나 과정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처럼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흔한 질병이지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대학원 과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같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전문 의로서의 진로는 그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당시 과장님이셨던 김진복 교수님이셨거든요. 의학도로서 외과를 선택한 것은 그 이전부터였습니다. 제가 본가가 부산인데, 장기려 교수님과 가까운 이웃이었거든요. 방학 때면 본가에 가서 장기려 교수님을 도와드리고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기려 교수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정착되기 전부터 청십자병원을 세워서 의료봉사를 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의사로서 저는 제 아버님과 장기려 교수님, 그리고 김진복 교수님 이렇게 세 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1990년대 초 대한위암연구회가 창립될 당시 미국에서 연수 중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도 미국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논문도 많이 발표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미국 연수는 기본적으로 종양학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약 3년 동안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있었고, 1997년에 또 그곳을 갔었습니다. 외과도 암이라는 것 그 세포의 기전에 대해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상에서 근치적인 수술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세밀한 결정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절제하는가에 환자의 회복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의과대학의 교수라면 후속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제가 연구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후학을 길러내겠습니까?

미국 연수와 달리 일본 연수는 임상에서의 술기를 위한 연수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본 연수를 많이들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1995년 일본에서 2주간 내시경 트레이닝을 위한 연수에 참여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일본 연수는 제11회 WHO Training Course of Endoscopy/Surgery for Gastric Cancer에 참여해서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게이오 의과대학에 가서 연수받는 것이었지요.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발판으로 KINGCA 마스터 클래스를 기획하기도 했었지요. 그때 내시경을 위한 연수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 있었습니까.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아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화기 내시경을 다루시는 선생님들을 호출해서 부탁했거든요. 수많은 환자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프로세스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연수에서는 내시경술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이 1년처럼 느껴졌을 정도로. 당시 김진복 교수님께서 저를 게이오 의과대학의 기타지마 교수님께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사실 전 교수가 된 후에도 스승이 필요할 줄은 몰랐는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연을 맺은 이후로 학술적으로 정말 제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국제학회 발표자로 추천해 주시고, 학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셨지요.

대한위암학회에서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2000년부터 정보전산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때 전국 단위의 조사 사업들이 연달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추진되었던 것인지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국내 현황을 파악하자는 학회 차원의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학회에서 기재규약안도 만들고 했지만, 기관마다 다른 부분들이 완전히 좁혀졌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점들을 드러내서 공유해야 표준화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록 사업, 진료 현황, 데이터 관리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가 모이고 학회가 5년 주기로 계속 조사하면

해당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2004년에 시행했던 복강경 위 수술 현황조사는 그 시점에서의 데이터보다는 말 그대로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강경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워낙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어서 조사해 봤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항암요법에 대한 설문도 시행했습니다. 위암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조기 진단과 수술입니다. 그런데 병기가 2, 3기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으니까 항암 치료도 하거든요. 항암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구체적인 투약 요법도 각기 다르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2005년에 발족한 산하 연구회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연구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이 연구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국내 간담체외과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막 시행했을 시기여서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암 수술은 근치적인 절제가 중요한데, 술기만 익힌다면 복강경이 그런 면에서 장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병변이 자세하게 보이고, 그러니 수술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병원에서 복강경 초청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물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2001년 무렵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동물실험 워크숍을 시작했는데, 구성원들이 무척 적극적이었어요. 이렇게 젊은 의학자들이 더 좋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치료에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더 조직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당시 모임에서는 제가 시니어여서 후배들이 이끌어준다는 마음으로 나섰지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 연구회 발족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회장을 지내신 손수상, 조용관 교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지요. 연구회를 발족하면서 복강경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연구를 오랜 기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KLASS 01, 02, 03 등이지요. KLASS 연구는 연배나 지위보다 기여도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회가 시작될 때 그룹 내에서 제가 시니어였는데, 소속 병원이나 학교와 무관하게 후배들이 두루 참여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학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2015년 이사장에 취임하셨는데,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KINGCA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으셨는지요?

박조현 이사장님 시절에 우리 학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KINGCA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은 했었습니다. 다만 KINGCA의 규모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국내외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참가하게끔 말이지요. 그래야 더 널리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KINGCA를 제6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위식도암학회(APGCC)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그것이 우리 학회와 KINGCA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아이디어도 그런 맥락에서 기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학회 기간 전후로 해외 참석자들에게 국내 대형병원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위암에 대한 임상 경험이 적은 나라에서도 참여 동기가 부여되거든요. 전국의 회원 병원에게 사전에 호스트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게는 방문을 희망하는 병원을 몇 군데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신청자에게도 좋은 기회지만, 유수의 병원들도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연수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서로에게 윈-윈인 셈이지요. 2016년 KINGCA Week 참가자가 최대 규모였으니까 성공적인 학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등록 인원만 670명에 달했으니까요. 우리가 주관하는 국제학회에서 KLASS의 전형적인 다기관 임상연구가 주목을 받고, 새로운 다기관 임상연구도 제안하는 등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성과가 컸습니다.

2016년 KINGCA Week의 슬로건은 ‘Asia, Let’s go together!’였고, 2017년에는 ‘Leading the Future’였습니다. 이 같은 슬로건은 대한위암학회가 학술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서울대학교병원 홍보실장을 하면서 프로모션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슬로건을 효과적으로 쓰는 법이랄까요? 그런데 우리 학회가 국제적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결국 임상연구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는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학계의 연구가 1세대는 개별 개인 위주, 개별 기관 위주로 시행되었다면, 2세대부터는 다기관 공동 연구를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 파워가 커지는 것이니까요. KLASS 01은 대한위암학회의 첫 대규모 공동연구였습니다. KLASS-01과 KLASS-02가 각각 1기 위암과 국소진행성 위암에 대한 연구였다면, REGATTA은 4기 위암에 대한 한·일 공동연구였습니다. 4기 위암에는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었지요. 이것은 국제 다기관 공동연구의 결과이므로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회 차원에서도 산하 연구회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산하 연구회는 젊은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역할과 기능이 있거든요. 그들로 해금 산하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회 업무를 경험하고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학회에 산하 연구회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학회 구성원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렇지만 KLASS가 시행한 대규모 임

상연구가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산하 연구회를 활성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현재 대한위암학회의 국제적인 리더십은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학회는 국제위암학회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김진복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저 역시 국제위암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한위암학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중요 국가인 일본, 한국, 브라질 정도는 항상 각국 위암학회의 대표자가 국제위암학회 이사회에 배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학술적으로도 2014년부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학회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시행된 논문 임팩트 팩터에 관한 조사에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연구가 최상위권을 기록했어요. ‘위 절제’라는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면 인용지수 상위 100개 연구 중 26개가 한국 연구자의 논문이에요. 일본은 여전히 위암에 관한 한 저변이 넓은 나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학술 교류도 활발했지요. 한·일 조인트 세미나를 통해 복강경 수술 교류도 했었고, 영문 교과서도 같이 편찬했어요. 중국은 모수가 많고 교류에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우리나라로 연수도 많이 보내고. 중국 쪽 학회는 우리 임상연구를 차용, CLASS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연수생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술기량 디자인을 중국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2006년부터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CLASS 한·중·일 심포지엄을 꾸준히 개최해 왔는데, 위암 분야에서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 한·중·일이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대한위암학회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위암이라는 질병의 역학이 변화했기 때문인데, 어떤 활동이 앞으로 학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현재 우리 학회의 다학제위원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과의 중심의 모임이었던 것은 맞아요. 김진복 교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랬고 과거부터 시도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학회 차원에서 그에 대한 인식이 더 확고해졌다고 봐야겠지요. 비만대사, 역류성식도 질환과 같은 양성 질환 연구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두 가지 활동이 모두 향후 학술적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학회의 지속과 확장에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리더십과 같은 현재 대한위암학회의 중요한 자산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리더십은 위암이라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우리 학회가 쌓은 성과를 발판으로 한 자산이니까요.

제5장

대한위암학회의 현재와 미래 (2017~)



대한위암학회는 2016년 한국 궤궤에 의뢰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이는 학회 조직 및 사업에 관한 회원들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학회의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회원들은 국제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발굴을 위한 학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해당 설문에서 회원들이 관심을 표명한 학회의 주요한 이슈는 위장관 분야로의 확장과 다학제, 연구회 개설과 운영,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지역 참여, 후진 양성 등이었다. 이는 산하 연구회와 위원회 등과 같은 학회 조직이 더 넓은 지역과 분야, 그리고 세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확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에 학회는 회원들의 호평을 받은 국제화 및 새로운 분야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제4대 이문수 이사장 재임기(2017~2019, 제13대 김성 회장/제14대 김병식 회장)에 대한위암학회는 위암 교과서 개정판 편찬과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제작, 그리고 대국민 홍보사업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위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은 학회가 창립 초기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들로 교육과 임상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정은 이를 활용하는 회원들에 대한 일차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학회가 국제화에서 전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던 만큼 KINGCA Week의 호스트라는 이점을 살려 학술 교류의 폭을 한·중·일을 넘어 유럽과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의 발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학회 내부적인 이슈로만 매몰되지 않도록 2017년부터 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를 개최, 국내의 여러 위장관 관련 학회와 연구회의 통합을 이끌면서 새로운 학술적 지평을 여는 초석을 제공했다.

제5대 배재문 이사장 재임기(2019~2021, 제15대 민영돈 회장/제16대 정호영 회장)에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진 대한위암학회 사업을 점검하고, 학회의 미래 발전 계획을 확립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에 각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세워서 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학회의 미션과 비전에 담긴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고민했다. 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위에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회원과 함께하는 학회, 미래를 준비하는 학회, 새로움이 있는

학회'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과 의료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역별 회원 간담회와 전국 위암센터장 회의 개최를 추진했다. 현장과의 소통이 곧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회원의 참여와 소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2017년 무렵부터 검토되었던 대한위암학회 앱 개발과 홈페이지 개편이 학회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한위암학회는 조직의 외형적인 성장과 확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꾸준히 미래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다학제 지향과 KINGCA 및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의 개최에서도 드러나듯이 대한위암학회는 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적인 장(場)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이에 대한의학회에서는 대한위암학회가 국내외의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2019년 우수학회로 선정하기도 했다. 학회가 국내외 의학계의 시대적 변화와 후속 세대의 요구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의학 연구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개방적인 조직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위장관외과 연관 통합 학술대회를 거쳐 2020년 대한위장관외과학회의 창립에까지 이르는 흐름도 주도할 수 있었다.



2019년도 대한의학회 우수학회 선정

2014년 첫 KINGCA Week 개최를 맞이해 선포한 대한위암학회의 미션은 '위암과 위장관 질환에 대한 학술 및 사회 활동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추구함으로써 환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대한위암학회의 미션과 비전에는 학회의 현재와 미래가 함축되어 있다. 이에 2014년에 선포했던 5가지 미션을 중심으로 학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1. 세계를 선도하는 위암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다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해외 학계와의 교류를 중시했다. 이는 1980년대에 앞선 술기를 익히기 위한 목적의 일본 연수가 활성화되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초대 회장인 김진복 교수는 대한외과학회의 연구 지원을 받아 위암의 기재규약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하던 시절에 이미 위암 수술의 권위자로 해외 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었다. 대한위암학회의 창립 배경 역시 제3회 IGCC 서울 대회를 유치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학회와 구성원들은 2000년대까지 위암에 관련된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성장·발전했다. 주지하듯이 2014년 KINGCA의 개최를 계기로 학회

가 국제적 학술 교류를 주관하는 호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수술적 치료 방법의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다기관 임상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KINGCA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대한위암학회는 학회의 근간이 되는 위암의 기초 및 이행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수술 분야의 임상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임상과 기초, 이행연구의 부족함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학회에서는 연구위원회가 주관해 2018년부터 기획 및 자유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연구지원사업은 Korea Gastric Cancer의 약자를 따서 'KGC 연구'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기획과제 주제는 학회에서 결정했는데, 다학제 학회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첫 연구지원사업에는 8개 기관에서 총 10개의 계획서(기획과제 6, 자유과제 4)가 접수되었다. 당시 학회의 연구지원사업 공고 및 공모 과제 당선작은 아래와 같다.



대한위암학회 연구지원 사업 공고



2018년도 연구지원사업 선정자 발표

2018년도 대한위암학회 연구 공모 과제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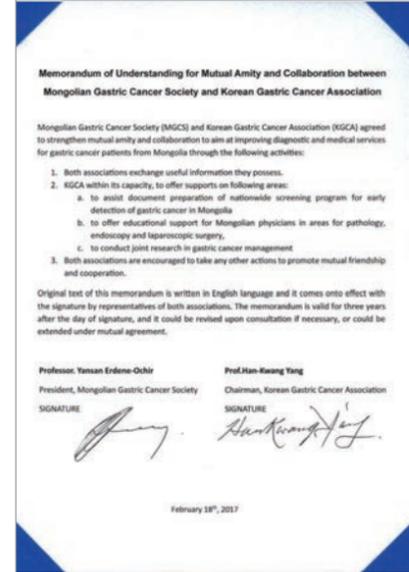
과제 구분	책임연구자명	연구과제명
기획연구	민재석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광범위 위절제 수술을 받은 2, 3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인 S-1 단독 요법과 XELOX 요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다기관 코호트 연구
	이한홍 / 가톨릭의대	위암 환자에서 위 절제술 후 내시경적 관찰
자유연구	지예섭 / 단국대의대	복막 전이나 원격 림프절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위암 환자에서 복막 내 Paclitaxel과 경구 TS-1 및 정맥 내 OXaloplatin 병용요법에 대한 다기관, 공개라벨, 제1, 2상 연구

또 후보연구회 규정을 새로 설립해 산하 연구회의 결성까지 도달하지 못한 단계라도 후보연구회로 등록해 연구 활동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후보연구회 규정의 신설은 학회 구성원들의 기초 및 임상 연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 소규모 연구 모임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형성되는 만큼 시의성을 담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에 처음으로 신청이 승인된 후보연구회는 위암 복막 전이 연구회((Perioperative Intra-Peritoneal & Systemic Chemotherapy for Gastric Cancer, PIPS-GC)와 대한 식도암 및 위식도 경계부암 연구회였다.

국제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몽골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사업을 주관, 몽골위암학회가 창립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한위암학회의 국제 사업 중 하나로 한·몽 공동 심포지엄은 몽골의 위암 치료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매년 대한위암학회 이사진을 중심으로 몽골을 방문해, 공동 심포지엄 개최, 매스컴을 통한 위암 홍보, 학회 간 상호 발전을 위한 MOU 체결, 공동연구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¹

2017년 2월 18일 1회 행사는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호텔에서 시행되었고 양한광 이사장, 김형호 국제이사, 라선영 홍보이사, 김성근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몽골 측의 대표자는 몽골 국립암센터 Jigjidsuren Chinburen 원장, 몽골 위암연구회 회장인 Yansan Erdene-Ochir, 위암 전문의인 Enkh-Amgalan 선생 등이었다.

2018년 6월 23일 2회 행사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양한광, 김형호, 이준행, 박성수, 이혁준 교수가 참석했다. 특히 2회 행사 때는 한·몽 위암학회 조인트 미팅을 통해 몽골 위암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토의, 다기관 임상연구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2팀으로 나누어 위암 홍보 관련 방송 인터뷰도 진행했다. 2019년 9월 13~14일 3회 행사는 울란바토르 인터메드 병원(Inermed Hospital)에서 개최되었으며 배재문 이사장, 류근원 학술이사, 류민희, 이종열 특임이사, 이혁준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3회 때는 특히 위암 술기 hands-on 시간을 추가해 몽골 위암 환자에서 내시경초음파 시범도 시행했



대한위암학회 & 몽골위암협회 협력 MOU



몽골위암학회 창립 기념회

다. 매년 20회 이상의 강의에 1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했는데, 강의의 절반은 한국 측 연자가 위암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나머지 절반은 몽골 측 연자가 소속 병원의 위암 진료 및 연구의 현황 등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몽 위암 심포지엄은 KINGCA 개최와 더불어 대한위암학회의 대표적인 국제 교류 활동이다. 이를 계기로 몽골위암학회가 창립되는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대한위암학회 역시 개발도상국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 교류하는 노하우를 획득했다. 또, 위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 위암의 최신 치료 등을 홍보함으로써 몽골 사회에서 위암 전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가 크다. 대한위암학회는 KINGCA를 통해 몽골 외의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이와 같은 교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대한위암학회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국제적 권위를 강화하다

2017년 Journal of Gastric Cancer가 SIC(E)에 등재됨에 따라 향후 목표는 다학제 학회로서의 정체성을 학술지에 투영하는 것, 그리고 인용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김진조 편집위원장은 우선 JGC의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JGC 논문 중 인용이 가능한 논문의 주제별 목록을 작성해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타 학술지에 투고 시 적절하게 활



JGC 홍보 부스(2018 KINGCA Week)

¹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다.

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학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내과, 소화기내과, 병리과의 reviewer 및 부편집장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편집진도 추가했다. 또 해외 편집진과 유관학회에 JGC 2017년도 Impact Factor를 알리는 홍보 메일을 발송하고, KINGCA 개최 기간에는 JGC 부스를 설치해 SCI(E) 등재 학술지로서 JGC를 해외 학계에 홍보했다.

또 2019년에는 JGC의 투고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JGC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첫 번째 JGC 심포지엄은 2020년 1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투고부터 게재 승낙, 그리고 발간예까지 이르는 JGC의 심사 및 편집 과정에 대한 소개와 투고자를 위한 몇 가지 교육이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는 SIC(E) 학술지로서 JGC의 발전을 주제로 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발 표	발표자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Opening Remark	배재문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14:10 ~ 14:20	축 사	한상욱 (Editor-in-Chief)
14:20 ~ 14:40	JGC 및 편집위원회 소개	송교영 (대한위암학회 편집위원장)
14:40 ~ 15:00	투고에서 게재 승낙까지	허 훈 (대한위암학회 부편집위원장)
15:00 ~ 15:20	JGC의 발간 정책	이한홍 (대한위암학회 편집간사)
15:20 ~ 15:40	Coffee Break	
15:40 ~ 16:10	의학 통계 리뷰 고려사항	안형진 (고려대학교 의학통계)
16:10 ~ 16:50	의학 영어논문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이미경 (Editage)
16:50 ~ 17:10	의학 논문에서의 연구 윤리	맹치훈 (대한위암학회 부편집위원장) (경희대학교 중앙내과)
	Brain storming discussion for JGC	
17:10 ~ 17:50	좌장 : 송교영 (대한위암학회 편집위원장)	
	토론 : 대한위암학회 편집위원	
17:50 ~ 18:00	Closing Remark	민영돈 (대한위암학회 회장)
18:00 ~	사진 촬영 및 만찬	

2020년 Journal of Gastric Cancer Symposium

해외 학계에서 대한위암학회의 학술적 위상이 높아지는 데 KINGCA의 성공적인 개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KINGCA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Back to the Basic!'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2020년에는 4개의 특강, 5개 교육 세션, 4개의 비디오 심포지엄, 12개의 분과별 심포지엄 등이 진행되었다. COVID-19로 인한 Pandemic에도 불구하고 127명의 초청 연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사전 등록 인원 377명 중 해외 등록자도 71명에 달했다.

KINGCA는 주최 측과 참가자 모두가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장이었다. 이에 학회는 개최 일정에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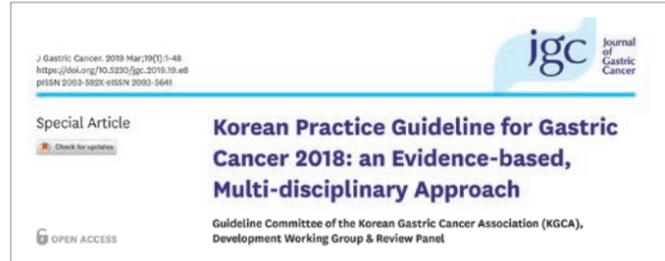
춰 참가자들에게 국내 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KINGCA Gastric Cancer Master Class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특히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기관을 방문한 후 참가자들이 모여서 수술 및 내시경 실습 기회를 제공(Wrap-up Meeting),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KINGCA 기간 중에는 일본 위암학회와의 보드 미팅을 비롯해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 참가자들과의 미팅도 추진했다. 학회는 주최 측으로서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해 직접 한·중·일 위암 진료 현황 조사와 같은 다국적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 KINGCA가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독일외과학회와 구성한 Joint Session을 KINGCA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해외 학계와의 교류가 KINGCA라는 단일 통로 속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한위암학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국제위암학회(IGCA)의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회 차원에서도 IGCA가 주관하는 다국가 연구프로그램(TNM staging project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비록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환경이 제한되고 있지만, 학회는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등을 통해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소화하면서 해외 학계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3. 위암과 위장관 질환에 대한 근거 중심의 다학제 진료 지침을 수립하다

대한위암학회는 그동안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을 수립해 왔으며, 다학제가 그 핵심이었다. 학회는 2017년 4월에 이문수 이사장의 발의로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했다. 이에 다학제 진료지침을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유관학회에 참여를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었다.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유관학회 및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TFT 총괄 (2명)	류근원	국립암센터	대한소화기학회 (7명)	김찬규	국립암센터
	박영석 (간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민병훈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대한위암학회 (8명)	권오경	질곡경북대학교병원		송호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한홍	서울성모병원		신운건	한림대의대 강동성심병원
	공성호	서울대학교병원		이상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정오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장재영	경희대의대 경희대학교병원
	손태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정혜경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허훈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대한중앙내과 학회 (10명)	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
	지예섭	단국대학교 병원		심신진	가천의대 길병원 혈액종양내과
	윤홍만	국립암센터		오상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준미	인하대학교병원	심병용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백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대영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영철	국립암센터	한혜숙		충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혜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동희		강북삼성병원	
대한방사선종양 학회 (2명)	유정일	삼성서울병원		김영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지외규	서울대학교병원		맹지훈	경희의료원
				황인규	중앙대학교병원
			최미영	보건의료연구본부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1명)		



2019년 1월호 JGC에 게재된 대한위암학회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작 TFT는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학, 방사선종양, 병리과, 그리고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TFT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 작성의 형식과 기준을 결정했으며, 학회는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2018년 12월에는 JGC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투고했고, 2019년 2월에는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인쇄본이 제작되었다.

가이드라인 TFT의 제작 원칙은 'Evidence Based, Multi-disciplinary'였다. 이에 따라 치료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재하는 치료의 방법에는 다학제 합의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했다. 또 형식에 있어서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에 주안점을 뒀다. 임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순서도를 제시하고, 각 질문-답변에 대한 설명을



2018년 9월 위암 교과서 개정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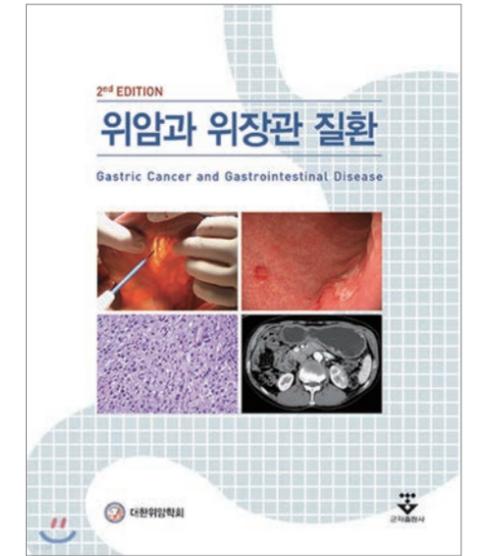
위암 교과서 개정판 워크숍 프로그램

*2018년 11월 회의록 발췌

시간	내용	발표자
14:30~14:35	개회사	정재호 대한위암학회 편찬사업위원회 위원장
14:35~14:40	격려사	이문수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14:40~14:45	축사	김병식 대한위암학회 회장
14:40~15:00	경과 보고	정재호 대한위암학회 편찬사업위원회 위원장
15:00~16:00	출판 절차 및 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	이상훈 군자출판사
16:00~16:20	Coffee Break	
16:20~16:30	위암과 위장관 질환 초판 편찬의 경험	진성호 대한위암학회 편찬사업위원회 위원
16:30~16:40	외과학 교과서 개정 편찬의 경험	손명원 대한외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간사
16:40~17:00	기타 논의사항	최윤영 대한위암학회 편찬사업위원회 간사
17:00~	식사	

배치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결정 근거 기준을 부록으로 구성함으로써 명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편찬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위암 교과서 『위암과 위장관 질환』의 개정판 편찬을 준비했다. 위암 교과서 개정판에는 외과, 소화기내과, 병리과, 종양, 영상의학, 방사선종양학, 해부학, 예방의학, 의생명공학, 가정의학, 핵의학 등의 분야에서 185명의 저자가 참여했다. 2018년 9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위암 교과서 개정판 워크숍에서는 참고문헌과 원고분량, 그리고 공동 집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편찬위원회에서는 용어 및 번호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작성 지침과 템플릿, 인덱스 등을 집필진에게 제공했고, 각 섹션별로 코디네이터를 정해 저자들 간에 내용과 분량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소통 방안도 모색했다. 2년에 걸친 작업 끝에 위암과 위장관 질환 개정판이 2019년 9월 출간되었다. 개정판에는 앞서 제작이 완료된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학회에서는 개정판 교과서를 홍보하기 위해 전체 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학술 행사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도 기획했다. 교과서 편찬위원회는 곧이어 대한외과학회로부터 『외과 수술 아틀라스』 개정판 작업에도 참여 요청을 받아 위장관 수술 분야의 집필진과 목차 구성에도 착수했다.



위암 교과서 2019년도 개정판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과 위암 교과서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 즉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료지침이라면 전국의 위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등록사업은 앞으로의 연구 및 발전된 진료지침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정보전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데이터 수집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2019년 11월부터 과거에 진행했던 등록사업의 항목을 검토한 후 조사 일정과 등록 항목을 각 기관에 공지했다.

위암 데이터 전국 조사는 2020년 1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 6월까지 수집이 완료되었다. 전국 62개의 병원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위암에 관한 총 56개 항목(수술 관련 39개, 병리 관련 17개)의 정보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합 및 오류 확인 작업 등을 거친 후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산하 연구회 축소포트연구회와 아산병원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현재는 KINGCA Week 2021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9월호 JGC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학회는 2001년에 처음 전국 위암등록사업을 시행하면서 1995년과 1999년 위암 관련 전국 데



전국 위암 치료 데이터 조사 참여 독려 및 담당자 선정 요청 메일(2020년 1월)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서류 제공(2020년 1월)

이터를 수집한 바 있었으며, 이후 2004년과 2009년, 2014년 데이터도 차례로 수집했다. 전국 조사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통계는 그동안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교과서를 비롯해 연구와 교육에 두루 활용되었다. 학회는 2017년 이전부터 전향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상해 왔는데, 이것의 전 단계로서 후향적 데이터를 이용한 전자 증례기록지(Electronic Case Report Form, ECRF)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한 바 있다. 오늘날 국립암센터-각 암 학회 데이터, 국가 공공데이터 연계형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암 종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대한위암학회의 전국 조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한위암학회 전국 레지스트리 구축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17년부터 개최된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는 근거 중심의 다학제 진료 지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학술대회는 2개 학회와 8개 연구회가 모여 위장관외과의 미래 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지만², 내용적 측면에서는 단지 수술적 치료과 결과만이 아니라 치료 방식에 대한 근거, 가이드라인이 이미 갖춰져 질환 예방에서 수술 후 관리까지의 치료 경과, 예후를 평가하는 진료 범위까지 다루고자 했다. 따라서 상부 위장관 수술뿐 아니라, 위내시경이나 항암 치료 등에 관한 세션을 통해 진료과의 장벽을 넘어서는 환자 중심의 진단 및 치료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다학제 진료 지침 수립을 위한 대한위암학회의 노력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록사업은 물론이고 학술적 영역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4.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으로 신뢰받는 전문의를 육성하다

대한위암학회는 대한외과학회가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제도의 시행을 준비함에 따라 시험과 교육, 수련을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시수련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³ 시험 일정은 대한외과학회에서 주관하지만, 교육 연수와 시험문제 출제, 신규 자격증 취득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연수 교육기관 지정 등은 대한위암학회에서 담당하는 업무였기 때문이다.

고시수련위원회의 역할은 세부전문의 시험 출제를 위한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개설·관리하는 것이었다. 문제은행은 2017년 무렵까지 100개가 확보되었고, 2년에 걸쳐 300개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또 2020년부터는 시험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2017년에 시작된 위암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분과전문의 인증제도와 관련해 교육 및 수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학회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이를 주관하는 대한외과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과 갱신을 위한 교육 및 시험과 선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시수련위원회가 특히 주력한 것은 위장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에서 필수 요건이 된 신입 전임의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위내시경·복강경 술기 워크숍을 준비해 교육과정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학회는 2015년에 처음 위내시경·복강경 술기 워크숍을 계획해 진행한 이래 분과전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대상자들은 학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이나 산하 연구회 KCLASS의 워크숍에 참가해 복강경 술기의 이론과 실습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고시수련회가 직접 해당 교육 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일각에서 복강경 수술의 인증평가제도를 추진하자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대한외과학회 및 유관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었다. 대한위암학회 역시 유관학회로서 해당 논의에 참여했는데, 인증제도의 취지 자체는 타당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현시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였다. 아울러 2018년에 외과 전공의 수련·교육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019년에는 분과전문의 수련 과정(전임의 수련)을 1년에서 2년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같은 흐름은

²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에 참여한 학회 및 연구회는 대한위암학회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식도암-위식도경계부암연구회(KEJCS), 대한외과위내시경연구회,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KARS), 위암환자 삶의 질 연구회(KOQUSS), 외과종양포럼(SOF), 축소포트수술연구회(REDUSS), 2차병원외과 복강경수술연구회(KLSCH) 등이다.

³ 대한외과학회 세부전문의 인증제도는 간담체외과, 소아외과,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등 4개의 분과에서 이후 유방외과, 혈관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등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차 복강경 교육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와 수요가 일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있어 대한위암학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위장관 질환의 예방 및 재발을 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다

위암 진단과 치료에 관한 대한위암학회의 대국민 홍보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뤄져 왔다. 첫째는 위 건강을 콘텐츠로 하는 방송 출연이나 자문에 임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위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책자 등 홍보물의 발행이었다. 2017년 4월 이문수 제4대 이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학회는 의학 전문가 집단으로서 위암 연구의 발전을 이끌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위암이 여전히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암종 질환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책임 또한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학술 중심의 전문적인 학회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위암과 위장관 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에도 주력하자는 안이 결의되었다.

이에 홍보위원회와 기획, 총무위원회가 협력해, '위(胃)하자 주간' 제정, 홍보물 제작, 건강강좌 개최

등을 계획했다.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위암 Q&A Book 제작이었다. 『위암 궁금합니다-Q&A Book』은 2018년 여름에 시험적으로 처음 발간, 각 기관과 회원들에게 배부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배치하도록 했다.

또 2018년 10월에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대한암학회와 공동으로 암 환자 초청 토크 콘서트 '톡투 위암'을 개최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혁준 국제이사와 김찬영 홍보이사(이상 외과), 류창범 교수(소화기내과), 라선영 교수(종양내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 서울을 비롯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대국민 위암 강좌 일정을



『위암 궁금합니다-Q&A Book』 발간 및 홍보



대한암학회·대한위암학회와 함께하는 토크 위암 토크 콘서트

2018년 10월 '톡투 위암'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50~14:00	식전 행사	리셉션 등록 및 고민 공유 이벤트 진행
14:00~14:10	개회사	대한암학회 이사장 정현철
14:10~15:20	1부. 위암 전문의 강연 & 환자 사례 발표	
14:10~14:25	위암 진단과 검진	유창범 교수(순창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14:25~14:40	위암 수술적 치료	김찬영 교수(전북대학교병원 외과)
14:40~14:55	수술 후 영양 관리	이혁준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외과)
14:55~15:05	위암환자 공감 사례 발표	김점동 환우
15:05~15:20	현명하게 항암 치료 이겨내기	라선영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
15:20~16:50	2부. 토크위암	
15:20~16:50	패널 토론 및 Q&A	유창범 교수, 김찬영 교수, 이혁준 교수, 라선영 교수, 김점동 환우
16:50	폐회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이문수

파악해 대한위암학회가 해당 행사를 후원하고, 직접 홈페이지에 대국민 강좌 배너와 일정을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후원함으로써 학회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 방법과 노하우를 익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는 TV나 라디오 외에서 유튜브, 팟캐스트와 같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장기생존자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같은 이벤트 주최라든지, 학회가 직접 대국민강좌를 주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현재 COVID-19의 영향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학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가 보다 활성화되는 흐름 속에서 위암 웹진 발행, 그리고 대한위암학회 유튜브 채널 개설, '위암 앓의 달'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위암학회의 새로운 돌파구는 다학제 수용

배재문(제5대 이사장)



대한위암학회 참여 이후 교수님의 초창기 활동에 대해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1993년 연구회가 창립되었을 때는 회원이 아니었고, 이후 1996년 학회가 창립되면서 회원으로 가입 했었습니다. 2000년에 학회 조직이 재편되면서 홍보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홍보위원회라면 그때 당시에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했었는데,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레터 제작 같은 것도 홍보위원회에서 담당했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올릴 만한 아이디어도 짜고 했었지요. 회원들의 홈페이지 이용률을 확인해서 상도 주고, 학회 소식 많이 전달한 기자에게 시상하는 언론상도 제정했었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서 학회 운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종인 교수님께서 학회장이 되셨을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때 홍보위원장을 하게 되면서 상임이사가 되었지요. 노성훈 회장님 재임 시절까지 4년간 홍보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제도 발의에 의견을 보냈었지요. 2011년 목영재 이사장님 시절에는 학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학술위원장일 때 연수강좌를 시작했었어요. 학술대회를 개최해도 맨날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고 새로 유입되는 회원도 없고, 회원 명단에는 있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는 유명회원도 많았거든요. 더구나 추계 학술대회는 외과학회 통합으로 치러졌으니까요. 회원들도

연수강좌처럼 실질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회에서 제공해 줘야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박조현 이사장님 시절에는 총무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좀 현실성 없는 회원 명단을 한번 정리했었지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회비 납부에 관한 것도 일일이 대조해서 체크하고. 회원 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 새로 유입되는 인원이 중요하니까요.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일보다는 운영 측면에서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회 운영상의 내실이라면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는데, 특별한 방침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학회가 KCLASS 같은 산하 연구회를 발족해서 지원도 하고, 회원 수도 많고 겉으로는 그럴 것처럼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재정이 풍족한 학회는 아니었습니다. 노성훈 회장님 때 제9회 IGCC를 개최하면서 적자를 조금 면한 정도였으니까요.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재정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학술대회를 치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폰서를 구하는 일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외과회가 다수인 학회라서 그런 것을 할 줄 몰랐다가보다 굳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니 어찌겠습니까? 학회에는 스폰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바깥에서 스폰서도 구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청한 것이지요. 그렇게 필요한 조치들을 좀 취한 뒤에야 학회 재정이 약간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도 없었는데 제9회 IGCC를 치르면서 남긴 수익금으로 사무실을 구했던 것이고요. 우리 학회의 운영과 재정 전반이 그나마 정리된 것이 목영재 이사장님께서 책임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박조현 이사장님 시절에는 총무위원장으로 KINGCA 구상과 준비, 그리고 개최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셨을 텐데, 학회 내부에 반대 때문에 초반에는 설득이 좀 필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득 하셨나요?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고 설득했지요. 당시에 그런 정도의 시도가 없었으면 우리 학회가 정말 침체기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회의 재정은 한번 정리가 된 상황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새로운 회원의 유입이나 발전의 동력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KINGCA 같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학회가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했고,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KINGCA 개최를 준비하면서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PCO 대행사도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따져서 선정했고,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회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KINGCA가 잘 되면서 산하 연구회에 연구비 지원도 할 수 있었고,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회의실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 회의실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2019년에 발표된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은 이전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그 가이드라인은 전임 이사장 때부터 작업했던 것입니다. 담당 구성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인용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논문이나 데이터의 활용률이 높지는 않은데, 데이터적인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우리가 전국 단위 조사를 시행해도 모이는 데이터가 2만 건 정도라면, 전국 위암 발생률은 3만 건일 정도니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제정했었던 것보다 국내 의료 현장을, 특히 변화한 의료 현장을 더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원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와 같은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절차가 또 꽤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9년 버전은 그것까지 받은 가이드라인은 아니었습니다. 대한의학회 인준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이드라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만큼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암 환자의 영양 및 대사 연구와 임상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변화들도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는지요?

위암 환자의 영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옛날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뒤늦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 아직도 자체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더불어 환자 영양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긴 했었는데, 관련 연구가 지속되지 않았던 점은 상당히 아쉽지요. 우리 학회에서도 그에 대한 조직적인 차원의 관심이 부족했고,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현재 영양학회에서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을부터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가 연수강좌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기 시작했습니

다. 위장관외과 학술대회의 별도 개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근래 위암 수술 건수가 점차 줄어드니까 양성 질환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행사도 독립시켰습니다. 재정까지 잘라서 주면서. 대한위암학회는 어쨌든 단일 질환에 대한 다학제 학회를 지향하는데, 외과외과가 많다고 해서 위장관외과의 양성 질환 분야를 내부에만 묶어 놓는다면 이는 다학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내부 출혈이나 분산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학회가 기꺼이 새로운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가 과거에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세대교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장할 자리가 없었어요. 이사장제도를 제안하면서 상임이사도 3회 이상 연달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대교체가 안 되니까. 재정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를 유입할 동인이 없어요. 그래서 산하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성장했다 싶으면 적절할 때 독립도 지원하고요.

다학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다학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까요?

어느 조직이든 up과 down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학회를 만든 취지와 자산은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처음부터 다학제가 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리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게다가 김진복 교수님께서 직접 항암을 시도하셔서 배척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회원 비율만 놓고 본다면 내과를 비롯한 다른 계열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정작 적극적인 참여 인원은 외과 중심입니다. 대한외과학회에서 출발한 우리의 태생적인 성격이 아직 극복되지 않았음을 뜻하지요. 대한외과학회에서 출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잘 지키되 앞으로는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근래에는 혈액종양내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들도 꽤 나왔습니다. 이제 학회라는 조직의 개념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학회 운영 조직보다는 연구회 중심의 학술 활동이 장려되어야 하고요. 각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내시경 분야도 수용하고, 항암 분야도 수용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활동을 통해 다학제 단일 질환이라는 학회의 정체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이전부터 외과외과로서 로봇 수술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겠지요. 특히 다음 세대는 로봇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

복과 복강경, 로봇 세 가지를 모두 하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기의 사용을 익히고, 그것을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임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래도 외과의로써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순천향대 고(故)박경규 교수님께서 복강경 수술을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위암 수술은 개복이 정통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복강경 기기의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강경 수술이 널리 시행되죠. 로봇 수술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을 위해 기기를 세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요즘은 단기간 내에 기술이 좋아지니까 점점 세팅 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에 COVID-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있었습니다. COVID-19 사태가 학회 운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요? 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와 같은 새로운 채널의 이용이 활발해진 것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학회 역시도 COVID-19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학회 업무 논의를 위한 대면 회의조차도 하기 어려우니까요. 구성원 대부분이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니까 더욱 어려웠지요. 학회라는 조직은 구성원들끼리의 동료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해 그것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각자 공부하면 학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요. 우스갯소리로 회원들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중지되니까 사실 학회를 운영하는 임원으로서의 편한 점도 있지만, 학회 홍보가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COVID-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총회, 온라인 상임이사회도 유효하다는 것을 회칙에 넣었지요. 이는 어디까지나 학회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학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이 같은 채널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하니까요.

지난 25년간 대한위암학회의 역사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국제화였습니다. KINGCA. 2010년대에 KINGCA가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각 산하 연구회에 연구비도 지원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 KINGCA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 학술지도 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회지 발전에 헌신하신 우리 학회 편집위원들의 노고가 가장 컸지만, SCIE 등재에도 KINGCA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요. KINGCA 이외에도 다른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때 배수의 진을 치는 도전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학회는 유명무실한 곳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암 진단의 발전으로 환자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위암 환자의 고령화는 임상연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위암학회의 새로운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그 돌파구는 바로 다학제에 있습니다. 내시경, 항암 분야 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학회 중심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태생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생각을 개방적으로 가져야 하겠지요. 이는 상임이사회와 회원들이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아울러 환자 수가 줄고 고령화되는 문제는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위암의 수술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이니까요.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처럼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쪽에서 좀 더 많이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병원과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학회만 해도 지역 순회를 하기는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연구회 모임이나 학술 행사 등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는 어느 학회나 겪는 문제이지요.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 의료기관과 인프라를 포함하는 연구와 학술 행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2006 대한위암학회
21회 춘계 학술대
진북 교수 추모 학술대

• 일자: 2006년 4월 14일(금)
• 장소: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1989~2021

대한위암학회 25년사
부록

1. 대한위암학회 미션·비전
2. 대한위암학회 회칙
3. 조직 & 임원
4. 산하 연구회
5. 로고 변천
6. 학술지 변천
7.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8. 학술상 수상자 명단
9. 회원 통계
10. 회원 명부
11. 위암 관련 전국 통계

1 대한위암학회 미션·비전·윤리강령

미션

- 대한위암학회는 위암과 위장관 질환에 대한 학술 및 사회 활동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추구함으로써 환우의 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비전

- 세계를 선도하는 위암의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한다.
- 대한위암학회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국제적 권위를 강화한다.
- 위암과 위장관 질환에 대한 근거 중심의 다학제 진료 지침을 수립한다.
-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으로 신뢰받는 전문의를 육성한다.
- 위장관 질환의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윤리 강령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시술을 행하도록 노력한다.
- 회원은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비밀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 회원은 환자의 질병 상태와 예후, 수행하려는 시술의 효과와 위험성, 진료비 등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회원은 부당한 연구와 교육 훈련을 통해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의료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 회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회원은 연구 결과를 의료인과 환자에게 제공하고 진료와 치유에 활용하도록 한다.
- 회원은 동료 회원의 행위를 비방하지 않으나, 동료회원이 의학적, 윤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것을 알리고 바로잡는다.
- 회원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환자를 위한 의료 정보 제공 이외 목적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2021년 2월

2 대한위암학회 회칙

개정	1993년 11월 6일	2012년 3월 23일
	1996년 11월 9일	2017년 3월 24일
	2000년 4월 22일	2018년 4월 28일
	2002년 4월 27일	2020년 5월 11일
	2004년 4월 24일	2020년 8월 4일
	2008년 4월 11일	2021년 3월 25일
	2010년 4월 23일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위암학회(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대한위암 연구회의 업적을 계승하여 위암 및 위장관질환에 관한 학술활동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 집담회와 강연회 등 학술활동
 - 학술지 발간
 -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 위암취급규약의 제·개정 및 이행
 - 국내·외 위암 연관 학회와의 협력

- 위암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 수집
- 회원 상호간의 친목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학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 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전문의 및 연구원
- 평생회원: 본회의 정회원으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준 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간호사, 의료관련종사자

제 6 조 (입회)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징계)

- 3년 간 연차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및 3년 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자격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회원이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 명
- 부회장: 2 명 (제1 부회장, 제2 부회장)

- 이사장: 1명
- 감사: 2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순서는 제 1 부회장, 제 2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총회 다음날로부터 1년 전후의 총회 당일까지로 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총회 다음날로부터 2년 전후의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감사의 경우 2인의 임기가 1년씩 교차하도록 한다.
-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단임으로 한다.
- 예외적인 상황 (비상 상황) 의 경우 회칙 제11장 40조를 따른다.

제 13 조 (명예회장)

본 회에 명예회장 1 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 추천과 이사회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원활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 15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 1 회 회장이 학술대회 때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정기총회는 15 일 전, 임시총회는 7 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과 관련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제 17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총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 18 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 19 조 (이사회 종류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1 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 5분의1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은 정기이사회 10일 전, 임시이사회는 5일 전까지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변경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총회준비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이사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 의결사항 기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 2 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 23 조 (상임이사회 구성)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4조 (상임이사)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중임 포함 3회까지 선출될 수 있다.
단, 학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수는 해당 전체 상임이사 수의 사분의 일 이하로 한다.
- 편집·보험위원회 상임이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상임이사회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이사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의 집행
- 임원의 추천
- 위원회의 설치

제 26 조 (상임이사회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상임이사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7 조(기록)

- 상임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 상임이사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위원회

제 28 조 (위원회의 종류)

본 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고시수련위원회, 국제위원회, 기획위원회, 다학제위원회, 보험위원회, 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찬사업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둔다.

제 29 조 (위원회의 구성)

- 이사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10 명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제외)

제 30 조 (위원회의 기능)

-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고시수련위원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교육, 수련에 관한 업무
- 국제위원회: 국제학술교류와 학술활동
- 기획위원회: 본회의 운영과 사업기획
- 다학제위원회: 다학제 업무
- 보험위원회: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연구위원회: 학회의 연구지원 및 관리
- 윤리위원회: 회원 및 회무의 윤리에 관한 사항
- 의료심사위원회: 의료분쟁심사 및 진료행위관련 안전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
- 재무위원회: 재무의 관리, 운영 및 회계
- 정보전산위원회: 학회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총무위원회: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업무
-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관련된 업무
- 편찬사업위원회: 학회 편찬에 관한 업무
-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의 준비 및 진행
- 홍보위원회: 학회운영에 필요한 섭외 및 홍보활동

제8장 특임이사

제 31 조 (특임이사)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특임이사를 선임한다.
- 특임이 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중임 포함 3회까지 선출될 수 있다

제 32 조 (특임이사의 기능)

특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불특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9장 재정

제 33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연회비
- 보조금
- 기부금
- 연구비
- 기타 수입금

제 3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일부터 같은 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 35 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국

제 38 조 (사무국)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 39 조 (회칙 개정)

-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정회원 20 명 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총회에서 이사장의 제안설명 후에 토론 없이 표결하며, 참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비상 상황 시 학회 운용)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학술대회 개최를 포함한 학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는 아래 조항들을 허용한다.

- 이사장이 학회 회무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학회사무실의 운영과 학술대회의 개최, 취소, 연기 등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는 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순으로 대행하며, 가능한 빨리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다.
- 각종 대면 회의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 상기의 상황으로 집행된 업무는, 사후에 이사회와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다.
- 상기의 상황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총회까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제 12 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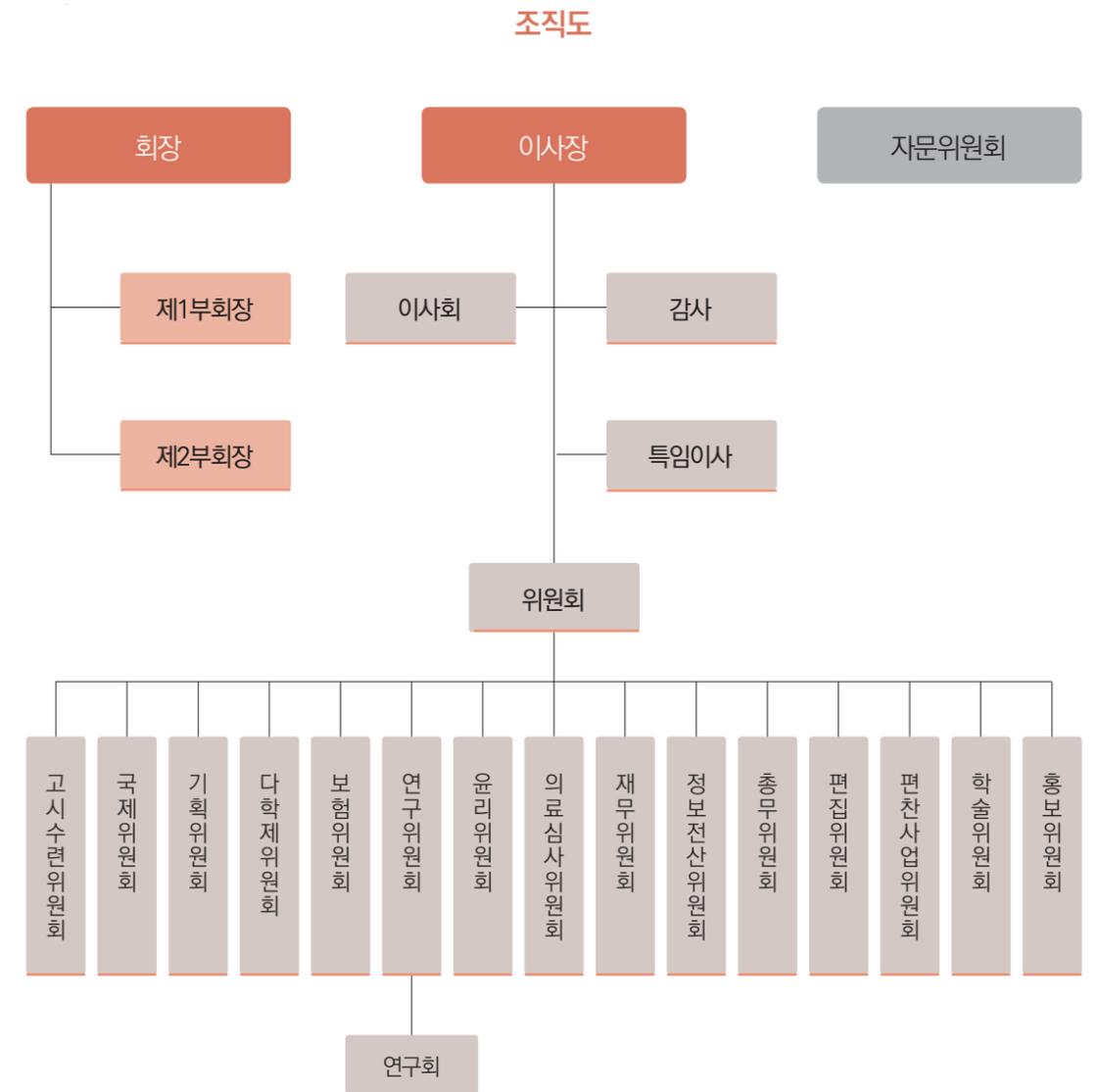
제 3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회칙 개정 이전에 진행된 비상상황은 개정 회칙에 준하여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직 & 임원



역대 임원진 명단

연도	직책	이름	소속	과명
1996년 11월~ 2000년 4월	회장	김진복	인제대학교병원	외과
	부회장	민진식	고려대학교병원	외과
2000년 4월~ 2003년 4월	명예회장	김진복	인제대학교병원	외과
	회장	민진식	연세대학교병원	외과
2003년 4월~ 2005년 4월	부회장	손수상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외과
	명예회장	김진복	인제대학교병원	외과
2005년 4월~ 2007년 3월	회장	손수상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외과
	부회장	조용관	아주대학교병원	외과
2007년 4월~ 2009년 3월	명예회장	김진복	인제대학교병원	외과
	자문위원	손수상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외과
2009년 4월~ 2011년 3월	회장	조용관	아주대학교병원	외과
	제1부회장	이종인	원자력병원	외과
2011년 4월~ 2012년 4월	제2부회장	유종선	전남대학교병원	내과
	회장	이종인	원자력병원	외과
2012년 4월~ 2013년 4월	제1부회장	노성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외과
	제2부회장	김재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내과
2013년 4월~ 2014년 4월	회장	노성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외과
	제1부회장	김동현	부산대학교병원	외과
2014년 5월~ 2015년 4월	제2부회장	방영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회장	김동현	부산대학교병원	외과
2015년 4월~ 2016년 4월	제1부회장	유완식	경북대학교병원	외과
	제2부회장	정현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중앙내과
2016년 4월~ 2017년 3월	이사장	목영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외과
	회장	유완식	경북대학교병원	외과
2017년 4월~ 2018년 4월	제1부회장	양두현	전북대학교병원	외과
	제2부회장	박종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2018년 4월~ 2019년 4월	이사장	목영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외과

연도	직책	이름	소속	과명
2013년 5월~ 2014년 4월	회장	양두현	전북대학교병원	외과
	제1부회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2014년 5월~ 2015년 4월	제2부회장	김재규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사장	박조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2015년 4월~ 2016년 4월	회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제1부회장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외과
2016년 4월~ 2017년 3월	제2부회장	이용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사장	박조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2017년 4월~ 2018년 4월	회장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외과
	제1부회장	최승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2018년 4월~ 2019년 4월	제2부회장	정훈용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사장	양한광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2019년 4월~ 2020년 4월	회장	최승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제1부회장	김 성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외과
2020년 4월~ 2021년 3월	제2부회장	김열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이사장	양한광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2021년 4월~ 2022년 4월	회장	김 성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외과
	제1부회장	김병식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외과
2022년 4월~ 2023년 4월	제2부회장	김우호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
	이사장	이문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외과
2023년 4월~ 2024년 4월	회장	김병식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외과
	제1부회장	민영돈	조선대학교병원	외과
2024년 4월~ 2025년 4월	제2부회장	김준미	인하대학교병원	병리과
	이사장	이문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외과
2025년 4월~ 2026년 4월	회장	민영돈	조선대학교병원	외과
	제1부회장	정호영	경북대학교병원	외과
2026년 4월~ 2027년 4월	제2부회장	라선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중앙내과
	이사장	배재문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외과

4 산하 연구회

1.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Korean Laparoendoscopic Gastrointestinal Surgery Study Group, KLASS)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orean Laparoendoscopic Gastrointestinal Surgery Study Group, KLASS)는 복강경 위장관수술을 연구 개발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5년 창립되었다.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는 2004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작된 위암집담회(Gastric Cancer Conference)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복강경 위 수술에 관심이 있는 의사 20여 명이 학문 교류 및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규모 학술집담회를 서울의대에서 가졌다. 총 5회의 위암집담회의 모임 이후 구성원들은 보다 조직적인 연구회로의 발전을 위해 대한위암학회 산하 복강경위장관연구회 준비모임을 2004년 11월 3일 결성했다. 이에 위암집담회는 2005년 3월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발기인: 김민찬, 김영우, 김형호, 류승완, 민영돈, 양한광, 이혁준, 조규석, 최승호, 한상욱, 형우진). 2005년 3월 26일에는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orean Laparoscopic Gastrointestinal Surgery Study Group, KLASS)의 공식 명칭으로 대한위암학회의 정식 연구회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창립총회(1대 회장: 양한광(서울의대) 및 제1회 정기학술대회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후 연 2회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며, 폭넓은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KLASS를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새로운 술기들이 개발되거나 표준화되었고, 교육을 통해 회원들 간에 널리 공유되어왔다. 또한 이 기술들이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인 1과제 원칙으로 선발된 책임연구자들은 KLASS-01을 효시로 다양한 전향적 다기관 3상 연구를 기획해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유수의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왔다. 본 연구회는 2021년 현재까지 12개의 KLASS 연구과제가 기획되었고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회의 핵심 가치인 창의적 역동성, 다양성, 탁월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학회인 대한위암학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직 위	이름	근무처명
회 장	형우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총 무	손태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총무간사	김유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감 사	이주호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자문위원	김 욱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김형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영규	전남의대 화순병원
	양한광	서울대학교병원
	최승호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
연구위원장	김민찬	동아대학교병원
재무위원장	김진조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학술위원장	이혁준	서울대학교병원
홍보위원장	류승완	계명대학교병원

직 위	이름	근무처명
운영위원	권오경	경북대학교병원
	김종원	중앙대학교병원
	김찬영	전북대학교병원
	김형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류근원	국립암센터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박성수	고려의대 안암병원
	송교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안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유문원	서울아산병원
	이상억	건양대학교병원
	이상일	충남대학교병원
	이준호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상호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허 훈	아주대학교병원

2.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

(Korean Quality of Life in Stomach Cancer Patients Study Group, KOQUSS)

조기 위암의 증가로 인한 생존율 향상 및 최소 침습 및 기능 보존 위암 수술의 확대 등으로 위절제술 후 위암 환자 삶의 질 평가는 그 임상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위암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 평가 방법은 최근까지도 서양에서 개발한 EORTC 등에만 의존해 왔다. 하지만 EORTC 설문지는 위암 자체로 인한 삶의 질 변화 측정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암 외과들이 관심 있는 위절제술 후 삶의 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암 수술 후 위암 환자들의 임상 상황을 고려한 삶의 질 도구 개발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대한위암학회 회원들이 모여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Korean Quality of life in Stomach cancer patients Study group, KOQUSS)'가 발족하게 되었다.

KOQUSS는 2016년 1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견희홀에서 창립 총회 및 1차 워크숍을 개최한 이래 2016년 5월 21일 서울아산병원, 10월 22일 창원경상대병원

그리고 2017년 5월 22일 아주대병원에서 2, 3, 4차 워크숍을 개최해 위암 환자들에 대한 삶의 질 도구 개발의 방법론, 타 질환에서의 개발 경험 등을 연구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후 매년 2회의 정기 학회를 단독 또는 위암학회 행사와 연계해 개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는 4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단독으로 개최했다.

또한 2016년 2월 22일 위암 환자 삶의 질 도구 개발을 위한 TFT를 시작해 2017년 1월까지 매달 연구회의를 열어 위절제 후 증상을 중심으로 한 설문 문항을 도출 및 정리했다. 이후 이렇게 개발한 설문지의 수정 및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친 대규모 다기관 임상연구를 시행했다. 즉 1차 파일럿 연구(11개 기관 465명 대상), 2차 파일럿 연구(13개 기

직 위	이름	근무처
회 장	이혁준	서울대학교병원
간 사	엄방울	국립암센터
운영위원	허 훈	아주대학교병원
	민재석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권오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형일	연세이대 세브란스병원
	정상호	경상대학교병원
	유문원	서울아산병원
	손영길	계명대학교병원
	이인섭	서울아산병원
	정도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중엽	인하대학교병원
안혜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이 슌	서울의료원	



관 499명 대상), 그리고 최종 검증 연구(12개 기관 413명 대상)를 통해 총 40문항으로 이뤄진 KOQUSS-40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했고, 그 결과를 2021년 CRT 저널에 최종 보고했다.

2021년부터는 대한위암학회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최종 개발된 KOQUSS-40 설문지를 다양한 위암 수술 방법에 따른 수술 후 삶의 질 변화를 비교하는 다기관 전향적 관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KOQUSS-40 설문지를 영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번역해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외과의, 종양내과, 통계전문가, 설문지 개발 전문가 등 총 58명이며, 회장은 서울의대 이혁준 교수가, 총무는 아주의대 허훈(2016~201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민재석(2018~2019), 국립암센터 엄방울(2020~현재) 교수가 순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회의 비전은 '위암 환자들을 위한 객관적 삶의 질 측정 및 이를 이용한 세계적 수준의 임상연구 성과 달성'이며, 위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 있는 모든 임상주의 참여가 가능하다.

3. 축소포트 위장관수술 연구회

(Reduced Port Gastrointestinal Surgery Study Group, REDUSS)

축소포트 위장관수술은 복강경/로봇 수술에서 환자에게 가해지는 상처의 크기 또는 숫자를 줄여 환자에게 가해지는 수술적 침습도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 복강경 및 로봇 수술에 비해 수술 술기적인 부분이 다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수술 술기의 표준화, 보급, 임상연구, 그리고 축소포트 위장관수술에 적합한 수술 기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에 창립되었다. 2016~2018년까지는 대한위암학회 산하 후보연구회로 활발히 활동했고, 활동성과 장래성 그리고 회원들의 관심도를 인정받아 2019년 1월 대한위암학회 산하 정식연구회로 전환되었다.

축소포트 위장관수술 연구회의 비전은 환자의 상처를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무상처 수술(scarless surgery)을 지향하는데 있으며 미용적인 면뿐 아니라 수술 후 통증을 최소화해, 조기 회복 프로그램과 병행해 무통증 수술(painless surgery)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수술 기구 및 기법들도 개발해 수술 기구의 국산화도 도모하고자 한다.

축소포트 위장관수술 연구회에서는 연 3~4회 정도의 집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축소포트 수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무한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회로 거듭날 것이다.



1st REDUSS conference in SNUH 8 Aug 2016



2st REDUSS conference in SNUH 18 Aug 2017

직 위	이름	근무처
회 장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간 사	안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운영위원	김형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윤석	서울대학교병원
	이창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한홍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4. 기타 산하연구회

연구회명(국문)	연구회명(영문)	대한위암학회 산하연구회승인년도	연구회 소속 회원 이관년도	연구회 해산년도
대한위식도역류질환 수술연구회	Korean Anti-Reflux Surgery Study Group(KARS)	2014년 5월 16일	2020년	2021년
대한외과위내시경연구회	Korean Surgical Endoscopy Study Group(KSESG)	2017년 2월 14일	2020년	2021년

5 로고의 변천



대한위암연구회 로고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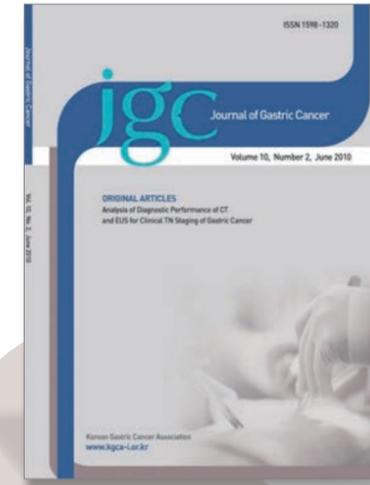


대한위암학회 로고
(2007)

6 학회지 변천



대한위암학회지 (2007)



jgc (2010)



jgc (2017)

7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1993년 11월 6일, 제1회 대한위암연구회 학술집담회

롯데호텔(잠실) 3층 Jade



1. Prognostic Factors & Clinical Review in Advanced Gastric Cancer: 한양대학교 일반외과 권성준(14분)
2. 위암기재규약에 의한 슬후 5년 생존율: 국립의료원 일반외과 조용관(7분) / 서울대학교 일반외과 유환영(7분) / 고려대학교 일반외과 목영재(7분)
3. WHO-CC-Gastric Cancer 보고: 경북대학교 일반외과 유완식(15분)

1994년 5월 13일, 제2회 대한위암연구회 학술집담회

경주 현대호텔

1994년 7월 29일, 대한위암연구회 제3회 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1994년 11월 5일, 대한위암연구회 제4회 학술대회

롯데호텔(잠실) 3층 Emerald

1995년 5월 12일, 대한위암연구회 제5회 학술대회

경주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1995년 11월 4일, 대한위암연구회 제6회 학술대회

롯데호텔(잠실) 지하1층 Sapphire

1996년 9월 9일, The Joint Conference of 9th Seoul International Cancer Symposium and 7th Annual Congress of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Gastric Cancer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1996년 9월 9~12일,

WHO-Collaborating Center for Gastric Cancer - 12th International Seminar and 6th General Assembly(세계보건기구 위암공동연구회 제12차 위암국제회의 및 6차 총회)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1996년 11월 9일, 대한위암연구회 제8회 학술대회

롯데호텔(잠실) 3층 Emerald

1997년 11월 8일, 대한위암학회 제9회 학술대회

롯데호텔(잠실) 3층 Emerald

1999년 4월 27~30일, 3rd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제3회 국제위암학회)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1:30 - 1:40	개회사	회장 김진복
1:40 - 2:20	SESSION I	좌장: 김세민
1. Helicobacter pylori and gastric cance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경인식
2. Proliferative activity in gastric cancer and its clinical usefulness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진
3. Autocrine growth factor as a possible cancer treatment targe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양한광
4. Laparoscopic staging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송선교
2:20	기념사진촬영	회원전원참석요망
2:25 - 2:35	COFFEE BREAK	
2:35 - 3:30	SESSION II	좌장: 민건식
1. Intraperitoneal 5-FU and MMC as adjuvants to resectable gastric cancer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유완식
2. Treatment of malignant gastric lymphoma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조홍관
3. Splenectomy for treatment of gastric cancer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권성준
4. Ideal treatment for preventing recurrence after curative resection		원자력병원 이종인
5. Standard lymph node dissection (VIDEO)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건식
3:30 - 4:00	총회	

대한위암연구회 제8회 학술대회 일정표

2000년 4월 22일, 대한위암학회 제10회 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안 내 문

2000년 새해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제3차 국제위암학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유관학회들의 종합학술대회로 추진중인 관계로 대한위암학회에서는 추계학술대회를 서울에서 학술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있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2월 18일
대한위암학회 회장 김진복

학 회 안 내

제 목 : 2000년도 대한위암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00년 4월 22일(토) 08:30 - 15:45
장 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홀
연수기간 : 3 일
신청주소 : 152-70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0 코대식대주식 구로병원 일관외과내 대한위암학회 사무실
전화: 02-818-6876 팩스 02-887-0815

등록비: 증식 예방
사전등록시한: 4월 10일까지 (초록마감: 3월 31일)
전주식 및 개원식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전공식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등록계좌: 은행명: 한빛은행 구로분동 지점
계좌번호: 115-105717-02-004
예금주: 최영재

2000년도 대한위암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2000. 4. 22 (토)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홀

08:30-09:00	등록	
09:00-10:00	우수자유연제 발표	
10:00-10:10	주식	
10:10-11:25	심포지움 I : 조기위암의 치료	좌장: 권세진 (고려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위암의 근치적 수술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절제술 조기위암의 복장경적 절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성훈 (연세의대) 심창섭 (순천향의대) 왕한광 (서울의대)
11:25-12:00	최장강연	좌장: 민진식 (연세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암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권진복 (인제의대)
12:00-12:30	총회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포스터발표 (포스터 전시 09:00 - 15:45)	
14:30-15:45	심포지움 II: 위암연구의 최신경향	좌장: 이동진 (원자력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GF-binding protein in cancer Management for peritoneal dissemination of gastric cancer Helicobacter pylori induced gastric carcinogene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두현 (경북의대) 유완식 (경북의대) 황기택 (아주의대)

2000년도 대한위암학회 추계학술대회 등록신청서

2000년도 대한위암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성명: _____ 근무처: _____ 직위: _____ 전남도의립대학의 ()
전남대학교 ()

연락처: 우편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의사면허번호: _____

등록일: _____ 일 입금은행: _____ 은행 _____ 지점 _____

사전등록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초록마감: 3월 31일).
사전등록시 신청인의 성명을 필히 기입하시고, 위의 송금계좌로 입금시켜 주십시오.
입금후 본 신청서를 입금증사본과 함께 상기된 바의 fax 또는 우편으로 학회사무실로 보내주시고,
숙박안내: 롯데호텔(소공동)에 4월 21일 30방 예약되어 있으며, 가격은 270,000원에서 30% DC된 189,000원 (불사료, 세글빙도)입니다. 객실예약은 개별적으로 직전하십시오. 호텔 담당자: 배혜훈 과장 02-759-7530
팩스 02-752-8602

제10회 학술대회 일정표

2001년 4월 14일, 대한위암학회 제11회 추계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3층 Sapphire Ballroom

2001년도 제11회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일정표

4월 14일 (토)	Hall A	Hall B
08:30 - 09:00	등록	
09:00 - 10:20	일반연제 발표	포스터 전시
10:20 - 10:30	Coffee Break	
10:30 - 12:00	일반연제 발표	
12:00 - 12:30	총회	
12:30 - 13:30	점심	
13:30 - 15:00		포스터 발표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6:30	심포지움	
16:30 - 17:00	말기 암환자를 위한 supportive care	Cocktail Party

심포지움 15:10 - 16:30	Hall A	좌 장 : 손수식 · 하우송
--------------------	--------	-----------------

말기 암환자를 위한 supportive care

1. Medical pain control	김시영 (경희의대 내과)
2. Interventional pain control	김영수 (한양의대 신경외과)
3. Gastrointestinal care	김영홍 (고려의대 내과)
4. Hospice care	염정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제11회 학술대회 일정표

2001년도 대한위암학회 제 11회 추계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일시: 2001년 4월 14일 (토요일)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사파이어 홀

1) 등록 현황

등록구분	회원	비회원	기타	합계	
사전등록-간담회-개원식	59	14	13	1	88
사전등록-간담회			27	6	33
현장등록-간담회-개원식	13	9	1	1	25
현장등록-간담회			2	1	3
합계	74	23	26	1	124

2) 오찬 현황

발표형식	대역명칭	음식명칭	합계
구 연	15	2	17
포스터	18	2	20
합계	33	4	37

3) 심포지움 <말기 암환자를 위한 supportive care>

1. Medical pain control	김시영 (경희의대 내과)
2. Interventional pain control	김영수 (한양대 신경외과)
3. Gastrointestinal care	김영홍 (고려의대 내과)
4. Hospice care	염정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제11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01년 11월 2일, 대한위암학회 제12회 추계학술대회(대한외과학회 통합학술대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Grand Ballroom III

2001년 대한위암학회 제 11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01년 11월 2일 (토)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08:30 - 09:30	등록
09:00 - 10:20	일반연제 I
10:30 - 12:00	일반연제 II
12:00 - 12:30	총회
12:30 - 13:30	점심
13:30 - 15:00	포스터
15:10 - 16:30	심포지움

말기 암환자를 위한 supportive care

Medical pain control	김시영 (경희의대)
Interventional pain control	김영수 (한양의대)
Gastrointestinal care	김영홍 (고려의대)
Hospice care	염정환 (일산병원)

주 관 대 한 위 암 학 회

제12회 학술대회 포스터

2001년도 대한위암학회 제 12회 추계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일시: 2001년 11월 2일 (토요일)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 Section III

등록 현황:

발표형식	발표수
구 연	22
포스터	46
총회 발표	11
합계	79

대한외과학회에서 접수

과학자 Lechnow의 연구
제목: Current trends in the treatment of gastric cancer in Japan
장소: Takashi Akita, M.D., Tohok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apan

제12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심포지움 <The Future of Gastric Cancer Research in Post-genomic Era>

- 기능유전학 (Functional Genomics)과 DNA 마이크로어레이 (Microarray)
 - 만성염 (간염, 만성 B형간염)
- Cancer and Proteomics-What can you do with mass spectrometry
 - 김동진 (강남대 생명과학부)
- Clinicopathologic Study를 위한 Tissue array
 - 김우호 (서울의대)
- Clinical implication of functional genomics in cancer
 - 노재길 (연세의대)

통합학술대회본문:

- 최종 위암 예방학술대회 (2001년 11월 2일)에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간담회와 점심식사 후 2시간 동안 발표도 진행되었습니다.
- 앞으로 통합학술대회가 계속 되리니 이번 한 곳에 모든 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포스터 전시가 너무 많은 것을 우려하여 전시시간은 사전 확인하였습니다.
- 만성 B형간염을 많이 앓고 있는 환자도 있을 수 있는 관계에서 이번 회의도 많은 참석자를 위한 것입니다.

기간: 2001년 11월 2일 오후 6시 ~ 9시
장소: 서울 종로구 서울대 학생회관
주최: 한국위암학회

2002년 4월 27~30일, 대한위암학회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3층 Sapphire Ballroom



제13회 학술대회 포스터

2002년도 대한위암학회 제13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일시: 2002년 4월 27일 (토요일)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3층 Sapphire Ballroom

1) 참석 현황

목적구분	회원	비회원	합계
시간등록-전문의-대학의	70	16	86
시간등록-전문의	41	5	46
시간등록-간호사-대학의	14	2	16
시간등록-간호사	15	2	17
비등록-대학의	2	1	3
비등록-간호사	1	1	2
합계	143	23	166

2) 소회 현황

발표형식	대학원생	일반회원	합계
포스터	37	3	40

3) 심포지엄 1 H. pylori and Gastric Cancer

1. Diagnosis of H. pylori infection
2. Pathogenesis of inflammation in H. pylori infection
3. H. pylori infection and MALT lymphoma
4. H. pylori infection and Gastric Adenocarcinoma
5. Guideline for H. pylori eradication

4) 심포지엄 2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Patients

1. Preoperative Evaluation and Anesthesia
2. Appropriate Operation Extent
3. Postoperative Care & Nutritional Support
4. Chemotherapy
5. Clinicopathologic Features and Treatment Results

제13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02년 10월 19일, 대한위암학회 제14회 추계학술대회

부산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제14회 학술대회 일정표

2002년도 대한위암학회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일시: 2002년 10월 19일 (토요일)
장소: 부산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1) 참석 현황

목적구분	회원	비회원	합계
시간등록-전문의-대학의	10	1	11
시간등록-전문의	20	4	24
시간등록-간호사-대학의	1	1	2
시간등록-간호사	1	1	2
비등록-대학의	2	1	3
비등록-간호사	1	1	2
합계	36	10	46

2) 소회 현황

발표형식	대학원생	일반회원	합계
포스터	40	3	43
간사	2	2	4

3) 심포지엄 1 Hereditary Gastric Cancer (상위암 유전질환)

1. Hereditary Gastric Cancer (상위암 유전질환)
2. Hereditary Gastric Cancer (상위암 유전질환)
3. Hereditary Gastric Cancer (상위암 유전질환)
4. Hereditary Gastric Cancer (상위암 유전질환)

4) 심포지엄 2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Patients

1.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Patients
2.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Patients
3.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Patients
4.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Patients

5) Luncheon Seminar: Yuhda (CapReBio) in advanced gastric cancer

제14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제14회 학술대회 포스터

2003년 4월 19일, 대한위암학회 제15회 춘계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3층 Sapphire Ballroom



제15회 학술대회 포스터

2003년도 대한위암학회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일시: 2003년 4월 19일 (토요일)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1) 참석 현황

목적구분	회원	비회원	합계
시간등록-전문의-대학의	14	15	29
시간등록-전문의-간호사-대학의	15	4	19
시간등록-간호사	46	2	48
비등록-대학의	14	4	18
비등록-간호사	2	1	3
합계	95	26	121

2) 소회 현황

발표형식	대학원생	일반회원	합계
포스터	34	3	37
간사	1	1	2
합계	35	4	39

3) 심포지엄 1 Japanes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Treatment

1. Japanes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Treatment
2. Japanes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Treatment
3. Japanes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Treatment
4. Japanes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Treatment

4) Luncheon Seminar: Yuhda (CapReBio) in advanced gastric cancer

제15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03년 11월 7일, 대한위암학회 제16회 추계학술대회(대한외과학회 통합학술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Grand Ballroom III

대한위암학회

2003년 11월 7일 (주요일)

시간	내용
오전 8:00 ~ 8:30	등록
8:30 ~ 9:30	일일연제 I
9:30 ~ 10:15	일일연제 II
10:15 ~ 10:30	Coffee Break
10:30 ~ 11:30	일일연제 III
11:30 ~ 12:15	중점강연 (Dr. Kawanishi)
오후 12:15 ~ 1:30	Luncheon Seminar
1:30 ~ 3:30	포스터 발표 및 전시
3:30 ~ 5:30	Coffee Break
5:30 ~ 6:30	심포지엄

제16회 학술대회 일정표

2003년도 대한위암학회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일시: 2003년 11월 7일 (주요일)
장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Grand Ballroom III

1) 참석 현황

목적구분	회원	비회원	합계
시간등록-전문의-대학의	14	1	15
시간등록-전문의-간호사-대학의	45	1	46
시간등록-간호사	13	1	14
비등록-대학의	30	0	30
비등록-간호사	0	0	0
합계	102	2	104

2) 소회 현황

발표형식	대학원생	일반회원	합계
포스터	14	1	15
간사	45	1	46
합계	59	2	61

3) 심포지엄 1 The working role of Laparoscopy in the staging and treatment of gastric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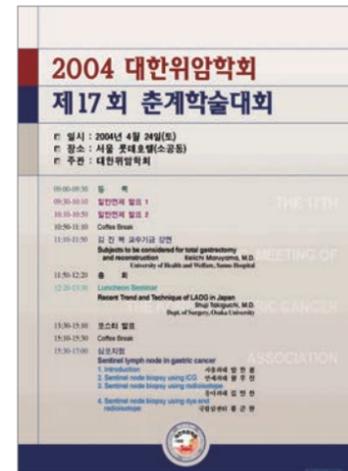
1. The working role of Laparoscopy in the staging and treatment of gastric cancer
2. The working role of Laparoscopy in the staging and treatment of gastric cancer
3. The working role of Laparoscopy in the staging and treatment of gastric cancer
4. The working role of Laparoscopy in the staging and treatment of gastric cancer

4) Luncheon Seminar: Yuhda (CapReBio) in advanced gastric cancer

제16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04년 4월 24일, 대한위암학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3층 Sapphire Ballroom



제17회 학술대회 포스터, 일정표

2004년도 대한위암학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

일시: 2004년 4월 24일 (토요일)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3층 사파이어

1) 등록현황

등록구분	회원	가족	비회원	합계	
사전등록-전일차-내국인	68	12	25	3	121
사전등록-전일차-외국인	20		13	1	36
사전등록-간담차			57	1	58
사전등록-간담차			27		27
소계	104	12	110	4	242
합계			125		

2) 조별현황

발표항목	대차명칭	출발명칭	합계
상기 발표			8
포스터발표	49	3	52
전시(발표)	17		17
소계	74	3	77

3) 초청연계 필수개념 초청강연

Subjects to be considered for total gastrectomy and reconstruction
Kaiichi Manyama, M.D.,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Sanno Hospital, Tokyo

4) 심포지엄: Sentinel lymph node in gastric cancer

1. Introduction
2. Sentinel node biopsy using ICG
3. Sentinel node biopsy using radiolabelled
4. Sentinel node biopsy using dye and radiolabelled

5) Luncheon Seminar: Recent Trend and Technique of LADG in Japan
Shuji Takiguchi, M.D., Department of Surgery, Osaka University, J & J, Korea (Eunikon Endo)

제17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05년 4월 9일, 대한위암학회 제19회 춘계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2005년 제19회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일정표

시각	내용	장소
08:30 - 09:00	등록	PMH A
09:00 - 09:40	일반연계 발표 I	PMH B
09:40 - 10:20	일반연계 발표 II	
10:20 - 10:40	Coffee Break	
10:40 - 11:20	특별 강연: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for Early Stage Gastric Cancer Kaiichi Manyama, M.D.,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ic Surgery, Graduate School of Science, Kansai University, Japan	포스터 전시
11:20 - 11:50	특별 강연: 위암의 현재와 미래 Sun Young Park, M.D.,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1:50 - 12:20	총회	
12:20 - 13:30	Luncheon Seminar: Surgery of Gastric Cancer and Post-GLMCC Sylvie Bonnel, M.D., Institut Gustave-Roussy, France	포스터 발표
13:30 - 15:00	Coffee Break	
15:00 - 15:20	Coffee Break	
15:20 - 16:00	일반연계 발표 III	포스터 전시
16:00 - 16:40	일반연계 발표 IV	

제19회 학술대회 일정표

The 19th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PROGRAM

08:30 - 09:00 Registration
09:00 - 09:40 Free Paper I
09:40 - 10:20 Free Paper II
10:20 - 10:40 Coffee Break

10:40 - 11:20 Professor Jin Pak, M.D. Lecture
Chair: Sun Young Park (President, KSGCA)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for Early Stage Gastric Cancer
Kaiichi Manyama (Kansai University, Japan)

11:20 - 11:50 Presidential Lecture
Chair: Sun Young Park (Vice President, KSGCA)
Gastric Cancer Surgery: Present and Future
Sun Young Park (President, KSGCA)

11:50 - 12:20 General Assembly
12:20 - 13:30 Luncheon Seminar
Chair: Sun Young Park (Korea University)
Surgery of Gastric Cancer and Post-GLMCC
Sylvie Bonnel (Institut Gustave-Roussy, France)

13:30 - 15:00 Poster Presentation
15:00 - 15:20 Coffee Break
15:20 - 16:00 Free Paper III
16:00 - 16:40 Free Paper IV

2005년도 대한위암학회 제19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

일시: 2005년 4월 9일 (토요일)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2층 크리스탈 볼룸

1) 등록현황

등록구분	회원	가족	비회원	합계	
사전등록-전일차-내국인	75	11	35	1	121
사전등록-전일차-외국인	14	3	7	2	27
사전등록-간담차			36	7	43
사전등록-간담차			24	2	26
소계	89	14	95	17	215
합계			115		

2) 조별현황

발표항목	대차명칭	출발명칭	합계
상기 발표			15
포스터발표	36	1	36
전시(발표)	8		8
소계	50	1	51

3) 강연 연계 필수개념 초청강연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for early stage gastric cancer
Kaiichi Manyama, M.D., Dept. of Gastroenterologic Surgery, Kansai Univ, Japan

4) 특별 강연

위암의 현재와 미래
Sun Young Park

5) Luncheon Seminar: Surgery of Gastric Cancer and Post-GLMCC
Sylvie Bonnel (Institut Gustave-Roussy, France)
한국노벨연구소

제19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04년 11월 20일, 대한위암학회 제18회 추계학술대회

호텔 인터불고(대구)

2004년 제18회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일정표

시각	내용	HALL CAMELIA	CAMELIA
08:30 - 09:00	등록		
09:00 - 09:50	일반연계 I		
09:50 - 10:40	일반연계 II		
10:40 - 11:00	Coffee Break		
11:00 - 11:45	특별 강연: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 of Gastric Cancer Treatment in Japan Hideo Baba, M.D., Department of Surgery and Science,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s, Kyushu University, Japan		포스터 전시
11:45 - 12:00	간담회		
12:00 - 13:00	Luncheon Seminar: A Step Forward to the Treatment of Gastric Cancer Yoshio Sakawa, M.D., Department of Surgery,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포스터 발표
13:00 - 15:00	Coffee Break		
15:00 - 17:00	심포지엄: Standardization of Reporting System for Gastric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1. Endoscopic Diagnosis & Treatment 2. Pathologic Diagnosis 3. Surgical Treatment 4. Pathologic Diagnosis 5. Chemotherapeutic Treatment	경북대학교 충청대학교 고신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스터 전시

제18회 학술대회 일정표

2004년도 대한위암학회 제18회 추계학술대회 결산보고

일시: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장소: 호텔 인터불고 (대구) 1층 플라자 및 케멜리아

1) 등록현황

등록구분	회원	가족	비회원	합계	
사전등록-전일차-내국인	75	15	14	3	107
사전등록-전일차-외국인	7	2	18	3	28
사전등록-간담차			17	1	18
사전등록-간담차			22		22
간담회	3		3		6
간담회-간담차			7		7
소계	85	17	73	7	182
합계			83		

2) 조별현황

발표항목	대차명칭	출발명칭	가타	합계
구연				10
포스터 발표	36	4	1	41
포스터 전시	3	2		5
소계	45	6	1	52

제18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3) 초청강연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 of Gastric Cancer Treatment in Japan
Hideo Baba, M.D., Dept. of Surgery and Science,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s, Kyushu University, Kyushu, Japan

4) 심포지엄

Standardization of Reporting System for Gastric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1. Endoscopic Diagnosis and Treatment
2. Pathologic Diagnosis
3. Surgical Treatment
4. Pathologic Diagnosis
5. Chemotherapeutic Treatment

5) Luncheon Seminar: A Step Forward to the Treatment of Gastric Cancer
Yoshio Sakawa, M.D., Department of Surgery,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eio University

2005년 10월 27일, 대한위암학회 제20회 추계학술대회(대한외과학회 통합학술대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Grand Ballroom III

2005년 제20회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일정표

시각	내용	Grand Ball Room III	Camelia & Lotus
08:00 - 09:30	등록		
09:30 - 09:50	일반연계 I		
09:50 - 10:10	일반연계 II		
10:10 - 10:30	Coffee Break		
10:30 - 11:10	일반연계 III		
11:10 - 11:50	일반연계 IV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40	특별 강연: Recent Clinical Studies on Gastric Cancer in Japan Hisashi Furukawa, Sakai City Hospital		포스터 전시
13:40 - 14:10	포스터 발표 I		
14:10 - 14:40	포스터 발표 II		
14:40 - 15:10	포스터 발표 III		
15:10 - 15:40	포스터 발표 IV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7:40	심포지엄: 재발성 위암의 치료 (Treatment of Recurrent Gastric Cancers) 1. 내시경적 치료 2. 수술적 치료 3. 항암화학치료 4. 방사선치료		경동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양근대학교 임도루

제20회 학술대회 일정표



제20회 학술대회 단체사진

2006년 4월 14일, 대한위암학회 제21회 춘계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제21회 학술대회 포스터, 일정표

2006년도 대한위암학회 제21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

일자: 2006년 4월 14일 (금요일)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1) 등록현황

등록구분	등록료		등록		합계
	기본	대외인원	기본	대외인원	
전체	3	0	1	0	3
일반등록	0	0	0	0	0
비정규등록	0	0	0	0	0
비정규등록-간접	3	15	4	84	14
간접	0	0	0	0	0
간접등록-간접	0	0	0	0	0
간접등록-간접	0	0	0	0	0
간접등록-간접	0	0	0	0	0
합계	3	15	12	104	19

2) 등록비용

등록구분	등록료	합계
Primary	8	8
Mid-presentation	28	28
Poster	44	44
Total	72	72

제21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외국 참석 교수 초청 초청안
Change of Philosophy - From Adjuvant to Neoadjuvant Therapy in Gastric Cancer
J.S. Dewant - Technical University, Germany

4) 심포지엄

심포지엄	시간	주최	주최자
1	09:00-09:30	주최	대한위암학회
2	09:30-10:00	주최	대한위암학회
3	10:00-10:30	주최	대한위암학회
4	10:30-11:00	주최	대한위암학회

5) Luncheon Seminar
주최: 대한위암학회
주최자: 김진복 교수

2006년 10월 14일, 대한위암학회 제22회 춘계학술대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2회 학술대회 포스터, 일정표

2006년도 대한위암학회 제22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

일자: 2006년 10월 14일 (토요일)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광주광역시 동구 자갈치)

1) 등록현황

등록구분	등록료	등록	합계
전체	11	24	35
일반등록	0	0	0
비정규등록	17	24	41
비정규등록-간접	0	0	0
비정규등록-간접	0	0	0
합계	17	24	41

2) 등록비용

등록구분	등록료	합계
Primary	8	8
Mid-presentation	28	28
Poster	44	44
Total	72	72

3) 초청연사

4) 심포지엄

제22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4) 심포지엄

심포지엄 (1) 수송 후 합병증 예방 (09:00-10:30)

1.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2.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3.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4.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5.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6.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7.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8. Gastric cancer: a global health problem

심포지엄 (2) Adenocarcinoma in the Gastric (15:20-16:50)

1. Overview of Gastric Adenocarcinoma
2. Etiology of Gastric Adenocarcinoma in Gastric Adenocarcinoma
3. Histopathology of Adenocarcinoma in Gastric Adenocarcinoma
4. Adenocarcinoma in Gastric Adenocarcinoma

5) 심포지엄 (3) Gastric Cancer in Japan: Past, Present and Future

6) 심포지엄 (4) Gastric Cancer in Japan: Past, Present and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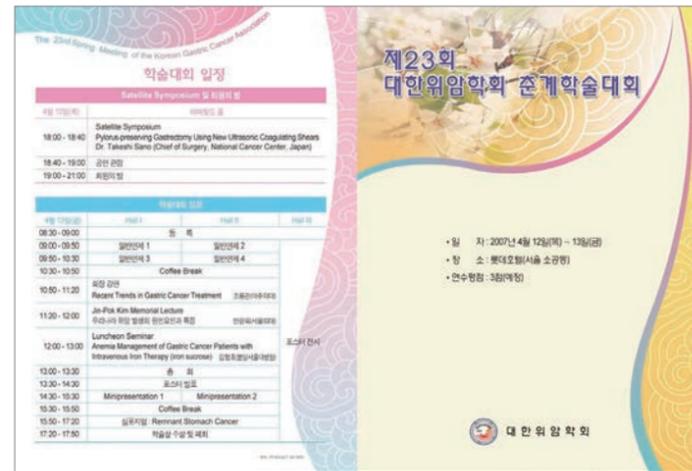
제21회 학술대회



제22회 학술대회 단체사진

2007년 4월 13일, 대한위암학회 제23회 춘계학술대회

롯데호텔(소공동) 2층 Crystal Ballroom



제23회 학술대회 포스터, 일정표

2007년도 대한위암학회 제23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

일시: 2007년 4월 13일 (금요일)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1) 참석현황

종목구분	대한 위암학회	일본 위암학회	합계
연락(초대대상)	3	1	4
간담회(초대대상)	10	1	11
간담회(초대대상) 및 복합회	10	1	11
간담회(초대대상) 및 복합회	1	1	2
합계	24	4	28

2) 조목현황

발표명목	횟수
Plenary	13
Mini presentation	28
Poster	38
Video	5
Total	77

3) 30분 간격 교수개교 초청강연

4) 심포지엄

5) Luncheon Seminar

제23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07년 11월 8일, 대한위암학회 제24회 추계학술대회(대한외과학회 통합학술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제24회 학술대회 단체사진



제23회 학술대회 단체사진

2008년 4월 11~12일, 대한위암학회 제25회 춘계학술대회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25회 학술대회 포스터, 일정표

2008년도 대한위암학회 제25회 춘계학술대회 결산보고

일시: 2008년 4월 11일 (금요일) - 12일 (토요일)
장소: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2층 그랜드볼룸

1) 참석현황

종목구분	대한 위암학회	일본 위암학회	합계
연락(초대대상)	3	1	4
간담회(초대대상)	10	1	11
간담회(초대대상) 및 복합회	10	1	11
간담회(초대대상) 및 복합회	1	1	2
합계	24	4	28

2) 조목현황

발표명목	횟수
Plenary	18
Mini presentation	18
Poster	47
Total	77

3) 30분 간격 교수개교 초청강연

4) 심포지엄

5) Luncheon Seminar

제25회 학술대회 결산보고서

2011년 4월 20일, 대한위암학회 제31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COEX Grand Ballroom

2011년 제31회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일정표	
09:30-09:00	등록
09:00-09:30	Symposium I: 위암 생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Shared Care Model 위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관성, 일관성, 일관성: 위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관성, 일관성, 일관성
09:30-10:45	Symposium II: What Do I Do in These Specific Cases? Peritoneal Gastric Cancer Treatment of Chinese Patients after Gastrectomy Metastatic Gastric Cancer: What to Do? Esophageal Cancer: What to Do?
10:45-11:30	Coffee Break
11:30-11:45	회장 인사말
11:45-12:30	점심
12:30-13:30	Lunch Symposium 위암의 진단과 치료
13:30-14:00	Symposium III 위암의 진단과 치료
14:00-15:00	Symposium IV: What Do I Do in These Specific Cases? Peritoneal Gastric Cancer Treatment of Chinese Patients after Gastrectomy Metastatic Gastric Cancer: What to Do? Esophageal Cancer: What to Do?
15:00	Adjourn

Satellite Symposium	
13:30-14:30	How to Screen High-Risk Cancer Patients 위암의 진단과 치료
14:30-15:15	Coffee Break
15:15-16:15	위암의 진단과 치료

학회장 안내도

제31회 학술대회 일정표



제31회 학술대회 단체사진

2011년 4월 20~23일, 9th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제9회 국제위암학회)

서울 COEX Convention hall

2011년 10월 7~8일, 대한위암학회 제32회 추계학술대회

롯데호텔(부산) Grand Ballroom

2011년 대한위암학회 제32회 추계학술대회	
09:30-10:00	등록
10:00-10:30	회장 인사말
10:30-11:00	점심
11:00-11:30	회장 인사말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13:00-13:30	점심
13:30-14:00	점심
14:00-14:30	점심
14:30-15:00	점심
15:00-15:30	점심
15:30-16:00	점심
16:00-16:30	점심
16:30-17:00	점심
17:00-17:30	점심
17:30-18:00	점심
18:00-18:30	점심
18:30-19:00	점심
19:00-19:30	점심
19:30-20:00	점심
20:00-20:30	점심
20:30-21:00	점심
21:00-21:30	점심
21:30-22:00	점심
22:00-22:30	점심
22:30-23:00	점심
23:00-23:30	점심
23:30-00:00	점심
00:00-00:30	점심
00:30-01:00	점심
01:00-01:30	점심
01:30-02:00	점심
02:00-02:30	점심
02:30-03:00	점심
03:00-03:30	점심
03:30-04:00	점심
04:00-04:30	점심
04:30-05:00	점심
05:00-05:30	점심
05:30-06:00	점심
06:00-06:30	점심
06:30-07:00	점심
07:00-07:30	점심
07:30-08:00	점심
08:00-08:30	점심
08:30-09:00	점심
09:00-09:30	점심
09:30-10:00	점심
10:00-10:30	점심
10:30-11:00	점심
11:00-11:30	점심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13:00-13:30	점심
13:30-14:00	점심
14:00-14:30	점심
14:30-15:00	점심
15:00-15:30	점심
15:30-16:00	점심
16:00-16:30	점심
16:30-17:00	점심
17:00-17:30	점심
17:30-18:00	점심
18:00-18:30	점심
18:30-19:00	점심
19:00-19:30	점심
19:30-20:00	점심
20:00-20:30	점심
20:30-21:00	점심
21:00-21:30	점심
21:30-22:00	점심
22:00-22:30	점심
22:30-23:00	점심
23:00-23:30	점심
23:30-00:00	점심
00:00-00:30	점심
00:30-01:00	점심
01:00-01:30	점심
01:30-02:00	점심
02:00-02:30	점심
02:30-03:00	점심
03:00-03:30	점심
03:30-04:00	점심
04:00-04:30	점심
04:30-05:00	점심
05:00-05:30	점심
05:30-06:00	점심
06:00-06:30	점심
06:30-07:00	점심
07:00-07:30	점심
07:30-08:00	점심
08:00-08:30	점심
08:30-09:00	점심
09:00-09:30	점심
09:30-10:00	점심
10:00-10:30	점심
10:30-11:00	점심
11:00-11:30	점심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13:00-13:30	점심
13:30-14:00	점심
14:00-14:30	점심
14:30-15:00	점심
15:00-15:30	점심
15:30-16:00	점심
16:00-16:30	점심
16:30-17:00	점심
17:00-17:30	점심
17:30-18:00	점심
18:00-18:30	점심
18:30-19:00	점심
19:00-19:30	점심
19:30-20:00	점심
20:00-20:30	점심
20:30-21:00	점심
21:00-21:30	점심
21:30-22:00	점심
22:00-22:30	점심
22:30-23:00	점심
23:00-23:30	점심
23:30-00:00	점심
00:00-00:30	점심
00:30-01:00	점심
01:00-01:30	점심
01:30-02:00	점심
02:00-02:30	점심
02:30-03:00	점심
03:00-03:30	점심
03:30-04:00	점심
04:00-04:30	점심
04:30-05:00	점심
05:00-05:30	점심
05:30-06:00	점심
06:00-06:30	점심
06:30-07:00	점심
07:00-07:30	점심
07:30-08:00	점심
08:00-08:30	점심
08:30-09:00	점심
09:00-09:30	점심
09:30-10:00	점심
10:00-10:30	점심
10:30-11:00	점심
11:00-11:30	점심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13:00-13:30	점심
13:30-14:00	점심
14:00-14:30	점심
14:30-15:00	점심
15:00-15:30	점심
15:30-16:00	점심
16:00-16:30	점심
16:30-17:00	점심
17:00-17:30	점심
17:30-18:00	점심
18:00-18:30	점심
18:30-19:00	점심
19:00-19:30	점심
19:30-20:00	점심
20:00-20:30	점심
20:30-21:00	점심
21:00-21:30	점심
21:30-22:00	점심
22:00-22:30	점심
22:30-23:00	점심
23:00-23:30	점심
23:30-00:00	점심
00:00-00:30	점심
00:30-01:00	점심
01:00-01:30	점심
01:30-02:00	점심
02:00-02:30	점심
02:30-03:00	점심
03:00-03:30	점심
03:30-04:00	점심
04:00-04:30	점심
04:30-05:00	점심
05:00-05:30	점심
05:30-06:00	점심
06:00-06:30	점심
06:30-07:00	점심
07:00-07:30	점심
07:30-08:00	점심
08:00-08:30	점심
08:30-09:00	점심
09:00-09:30	점심
09:30-10:00	점심
10:00-10:30	점심
10:30-11:00	점심
11:00-11:30	점심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13:00-13:30	점심
13:30-14:00	점심
14:00-14:30	점심
14:30-15:00	점심
15:00-15:30	점심
15:30-16:00	점심
16:00-16:30	점심
16:30-17:00	점심
17:00-17:30	점심
17:30-18:00	점심
18:00-18:30	점심
18:30-19:00	점심
19:00-19:30	점심
19:30-20:00	점심
20:00-20:30	점심
20:30-21:00	점심
21:00-21:30	점심
21:30-22:00	점심
22:00-22:30	점심
22:30-23:00	점심
23:00-23:30	점심
23:30-00:00	점심
00:00-00:30	점심
00:30-01:00	점심
01:00-01:30	점심
01:30-02:00	점심
02:00-02:30	점심
02:30-03:00	점심
03:00-03:30	점심
03:30-04:00	점심
04:00-04:30	점심
04:30-05:00	점심
05:00-05:30	점심
05:30-06:00	점심
06:00-06:30	점심
06:30-07:00	점심
07:00-07:30	점심
07:30-08:00	점심
08:00-08:30	점심
08:30-09:00	점심
09:00-09:30	점심
09:30-10:00	점심
10:00-10:30	점심
10:30-11:00	점심
11:00-11:30	점심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13:00-13:30	점심
13:30-14:00	점심
14:00-14:30	점심
14:30-15:00	점심
15:00-15:30	점심
15:30-16:00	점심
16:00-16:30	점심
16:30-17:00	점심
17:00-17:30	점심
17:30-18:00	점심
18:00-18:30	점심
18:30-19:00	점심
19:00-19:30	점심
19:30-20:00	점심
20:00-20:30	점심
20:30-21:00	점심
21:00-21:30	점심
21:30-22:00	점심
22:00-22:30	점심
22:30-23:00	점심
23:00-23:30	점심
23:30-00:00	점심
00:00-00:30	점심
00:30-01:00	점심
01:00-01:30	점심
01:30-02:00	점심
02:00-02:30	점심
02:30-03:00	점심
03:00-03:30	점심
03:30-04:00	점심
04:00-04:30	점심
04:30-05:00	점심
05:00-05:30	점심
05:30-06:00	점심
06:00-06:30	점심
06:30-07:00	점심
07:00-07:30	점심
07:30-08:00	점심
08:00-08:30	점심
08:30-09:00	점심
09:00-09:30	점심
09:30-10:00	점심
10:00-10:30	점심
10:30-11:00	점심
11:00-11:30	점심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13:00-13:30	점심
13:30-14:00	점심
14:00-14:30	점심
14:30-15:00	점심
15:00-15:30	점심
15:30-16:00	점심
16:00-16:30	점심
16:30-17:00	점심
17:00-17:30	점심
17:30-18:00	점심
18:00-18:30	점심
18:30-19:00	점심
19:00-19:30	점심
19:30-20:00	점심
20:00-20:30	점심
20:30-21:00	점심
21:00-21:30	점심
21:30-22:00	점심
22:00-22:30	점심
22:30-23:00	점심
23:00-23:30	점심
23:30-00:00	점심
00:00-00:30	점심
00:30-01:00	점심
01:00-01:30	점심
01:30-02:00	점심
02:00-02:30	점심
02:30-03:00	점심
03:00-03:30	점심
03:30-04:00	점심
04:00-04:30	점심
04:30-05:00	점심
05:00-05:30	점심
05:30-06:00	점심
06:00-06:30	점심
06:30-07:00	점심
07:00-07:30	점심
07:30-08:00	점심
08:00-08:30	점심
08:30-09:00	점심
09:00-09:30	점심
09:30-10:00	점심
10:00-10:30	점심
10:30-11:00	점심
11:00-11:30	점심
11:30-12:00	점심
12:00-12:30	점심
12:30-13:00	점심

2012년 3월 22~24일, 2012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및 제33회 학술대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년 대한위암학회 제33회 학술대회	
PROGRAM	
<p>• 일시 2012년 3월 22(화)~24(목) •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p>	
[2012. 3. 22. (Tue)]	
18:00-18:30	Subtitle Symposium (Presby to Surgery, Dr. Hwang) 18:30-19:30
19:30-20:30	19:30-20:30
20:30-21:30	20:30-21:30
21:30-22:30	21:30-22:30
22:30-23:30	22:30-23:30
23:30-24:30	23:30-24:30
[2012. 3. 23. (Wed)]	
08:30-09:30	08:30-09:30
09:30-10:30	09:30-10:30
10:30-11:30	10:30-11:30
11:30-12:30	11:30-12:30
12:30-13:30	12:30-13:30
13:30-14:30	13:30-14:30
14:30-15:30	14:30-15:30
15:30-16:30	15:30-16:30
16:30-17:30	16:30-17:30
17:30-18:30	17:30-18:30
18:30-19:30	18:30-19:30
19:30-20:30	19:30-20:30
20:30-21:30	20:30-21:30
21:30-22:30	21:30-22:30
22:30-23:30	22:30-23:30
23:30-24:30	23:30-24:30
[2012. 3. 24. (Thu)]	
08:30-09:30	08:30-09:30
09:30-10:30	09:30-10:30
10:30-11:30	10:30-11:30
11:30-12:30	11:30-12:30
12:30-13:30	12:30-13:30
13:30-14:30	13:30-14:30
14:30-15:30	14:30-15:30
15:30-16:30	15:30-16:30
16:30-17:30	16:30-17:30
17:30-18:30	17:30-18:30
18:30-19:30	18:30-19:30
19:30-20:30	19:30-20:30
20:30-21:30	20:30-21:30
21:30-22:30	21:30-22:30
22:30-23:30	22:30-23:30
23:30-24:30	23:30-24:30

제33회 학술대회 일정표



제33회 학술대회 단체사진

2013년 4월 24~27일, 2013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및 제34회 학술대회
 호텔 인터불고(대구)

2013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PROGRAM	
<p>• 일시 2013년 4월 24(수)~27(토) • 장소 호텔 인터불고(대구)</p>	
[2013. 4. 24. (Wed)]	
09:30-10:00	09:30-10:00
10:00-11:20	10:00-11:20
11:20-11:50	11:20-11:50
11:50-12:00	11:50-12:00
12:00-12:30	12:00-12:30
12:30-13:00	12:30-13:00
13:00-14:00	13:00-14:00
14:00-14:30	14:00-14:30
14:30-15:00	14:30-15:00
15:00-15:30	15:00-15:30
15:30-16:00	15:30-16:00
16:00-16:30	16:00-16:30
16:30-17:00	16:30-17:00
17:00-17:30	17:00-17:30
17:30-18:00	17:30-18:00
18:00-18:30	18:00-18:30
18:30-19:00	18:30-19:00
19:00-19:30	19:00-19:30
19:30-20:00	19:30-20:00
20:00-20:30	20:00-20:30
20:30-21:00	20:30-21:00
21:00-21:30	21:00-21:30
21:30-22:00	21:30-22:00
22:00-22:30	22:00-22:30
22:30-23:00	22:30-23:00
23:00-23:30	23:00-23:30
23:30-24:00	23:30-24:00

제34회 연수강좌 일정표

2013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PROGRAM	
<p>• 일시 2013년 4월 24(수)~27(토) • 장소 호텔 인터불고(대구)</p>	
[2013. 4. 25. (Thu)]	
09:30-10:00	09:30-10:00
10:00-11:20	10:00-11:20
11:20-11:50	11:20-11:50
11:50-12:00	11:50-12:00
12:00-12:30	12:00-12:30
12:30-13:00	12:30-13:00
13:00-14:00	13:00-14:00
14:00-14:30	14:00-14:30
14:30-15:00	14:30-15:00
15:00-15:30	15:00-15:30
15:30-16:00	15:30-16:00
16:00-16:30	16:00-16:30
16:30-17:00	16:30-17:00
17:00-17:30	17:00-17:30
17:30-18:00	17:30-18:00
18:00-18:30	18:00-18:30
18:30-19:00	18:30-19:00
19:00-19:30	19:00-19:30
19:30-20:00	19:30-20:00
20:00-20:30	20:00-20:30
20:30-21:00	20:30-21:00
21:00-21:30	21:00-21:30
21:30-22:00	21:30-22:00
22:00-22:30	22:00-22:30
22:30-23:00	22:30-23:00
23:00-23:30	23:00-23:30
23:30-24:00	23:30-24:00

제34회 학술대회 일정표

2013년 대한위암학회 제34회 학술대회	
PROGRAM	
<p>• 일시 2013년 4월 24(수)~27(토) • 장소 호텔 인터불고(대구)</p>	
[2013. 4. 25. (Thu)]	
09:30-10:00	09:30-10:00
10:00-11:20	10:00-11:20
11:20-11:50	11:20-11:50
11:50-12:00	11:50-12:00
12:00-12:30	12:00-12:30
12:30-13:00	12:30-13:00
13:00-14:00	13:00-14:00
14:00-14:30	14:00-14:30
14:30-15:00	14:30-15:00
15:00-15:30	15:00-15:30
15:30-16:00	15:30-16:00
16:00-16:30	16:00-16:30
16:30-17:00	16:30-17:00
17:00-17:30	17:00-17:30
17:30-18:00	17:30-18:00
18:00-18:30	18:00-18:30
18:30-19:00	18:30-19:00
19:00-19:30	19:00-19:30
19:30-20:00	19:30-20:00
20:00-20:30	20:00-20:30
20:30-21:00	20:30-21:00
21:00-21:30	21:00-21:30
21:30-22:00	21:30-22:00
22:00-22:30	22:00-22:30
22:30-23:00	22:30-23:00
23:00-23:30	23:00-23:30
23:30-24:00	23:30-24:00

2014년 5월 15~17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4(KINGCA Week 2014)
대전컨벤션센터

KINGCA2014		
Overview		
Title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4 (KINGCA week 2014)	
Date	May 15-17, 2014	
Theme	Together we can make the difference	
Venue	Daejeon Convention Center, Daejeon, Korea	
Participants	533 participants from 23 countries	
Hosted By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Organized By	KINGCA week 2014 Organizing Committee	
Official Language	English	
Organizing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man	Cho Hyu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President	Choi Myun Hwang	Chonb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Vice President	Sung Joon Moon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cretary General	Lee Moon Ba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cientific Committee Chair	Sang-Uk Han	A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inance Committee Chair	Moon-Boo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blic Relations Committee Chair	Seung Sohn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Registration Committee Chair	Yong 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hibition Committee Chair	Hyung-Min Cho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Education Committee Chair	Jeong-Hwan Yook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Publication Committee Chair	Woo Jin Hyu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Language Committee Chair	Young-Dae Min	Chon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ocial Program Committee Chair	Ho-Young Chang	Keimyu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wards Committee Chair	Young-Woo Kim	National Cancer Center

Overview and Committee

Invited Speakers

Keynote Speakers

- Takashi Akao (Yamaguch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Yung-Jin Bang (Yonse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Choi Hyu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Speakers of Symposium & Educational Session & Meet The Professor

- Jin-Ho Kim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wang Ho-Kim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James B. Tito (National Cancer Center)
- Woo Jin Hyung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 Seung-Uk Han (A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Yoon-Boo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Seung Sohn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Yong 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yung-Min Cho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 Jeong-Hwan Yook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 Woo Jin Hyu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Young-Dae Min (Chon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Ho-Young Chang (Keimyu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Young-Woo Kim (National Cancer Center)

Invited Speakers



포스터

2016년 4월 21~23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6(KINGCA Week 2016) & 6th Asia-Pacific Gastroesophageal Cancer Congress(6th APGCC) 롯데호텔(서울)

KINGCA2016		
Overview		
Title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6 (KINGCA week 2016) & 6th Asia-Pacific Gastroesophageal Cancer Congress (6th APGCC)	
Date	April 21-23, 2016	
Theme	Asia, Let's go together!	
Venue	Lotte Hotel Seoul	
Participants	733 participants from 23 countries	
Hosted By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Organized By	KINGCA week 2016 Organizing Committee	
Official Language	English	
Organizing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man	Yoon-Boo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esident	Seung-Uk Han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Vice President	Seung Ho Choi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uditor	Lee Moon Ba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Chair	Sang-Uk Han	A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inance Committee Chair	Moon-Boo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blication Committee Chair	Woo Jin Hyu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gistration Committee Chair	Yong 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hibition Committee Chair	Hyung-Min Cho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Education Committee Chair	Jeong-Hwan Yook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Language Committee Chair	Young-Dae Min	Chon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ocial Program Committee Chair	Ho-Young Chang	Keimyu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wards Committee Chair	Young-Woo Kim	National Cancer Center

Overview and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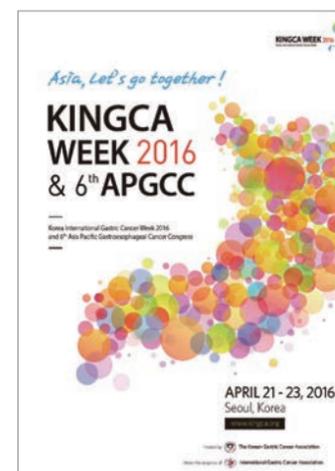
NAMED LECTURE

JF KIM MEMORIAL LECTURE

JY KIM MEMORIAL LECTURE

PRESIDENTIAL LECTURE

Named Lecture



포스터

2015년 4월 2~4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5(KINGCA Week 2015)
롯데호텔(제주)

KINGCA2015		
Overview		
Title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5 (KINGCA week 2015)	
Date	April 2-4, 2015	
Theme	Together, we can make it better	
Venue	Lotte Hotel Jeju, Korea	
Participants	551 participants from 18 countries	
Hosted By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Organized By	KINGCA week 2015 Organizing Committee	
Official Language	English	
Organizing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man	Cho Hyu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President	Sung Joon Moon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Vice President	Seung-Ma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cretary General	Yong Chan Le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cientific Committee Chair	Lee Moon Ba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inance Committee Chair	Sang-Uk Han	A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blic Relations Committee Chair	Moon-Boo Lee	Soon Chon 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gistration Committee Chair	Seung Sohn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hibition Committee Chair	Yong Il Kim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ducation Committee Chair	Hyung-Min Cho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Publication Committee Chair	Jeong-Hwan Yook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Language Committee Chair	Woo Jin Hyu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verview and Committee

Liaison Committee	
Chair	Young-Dae Min, Chon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Ho-Young Ch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ber	Yong Chan Lee, National Cancer Center
Member	Woo Jin H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Seung-Uk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Yong Chan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Member	Seung Soh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Hyung-Min Choi,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	Sang-Uk Han	A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ber	Jong Wan Kim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Seok-Ton Kang	A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ber	Joong-Mook Kim	Yonse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ber	Hyung-U Kim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Sung-Soo Park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Jun Heu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ber	Jun Ho Le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ber	Sun Young Lee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Hyuk-Jo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Woo Jin Hyu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mber	Tae Yo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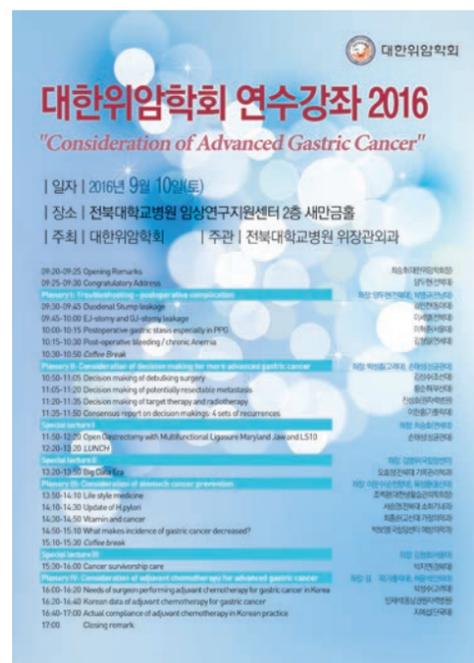


포스터



KINGCA Week 2016 & 6th APGCC 단체사진

2016년 9월 10일, 2016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



2016년 연수강좌 프로그램



2016년 연수강좌 단체사진

2017년 3월 23-25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7(KINGCA Week 2017)
부산 벡스코

KINGCA2017

Overview

Title	The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7 (KINGCA week 2017)
Date	March 23 - 25, 2017
Course	IBICC, Basic
Theme	Leading the Future
Programs	Named Lecture, Symposium, Video Symposium, Educational Session, Oral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Luncheon Symposium, Exhibition, Welcome Reception, Gala Dinner
Host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Official Language	English

Organizing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man	Man-Kwang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esident	Seung-Ho Choi	Ho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Vice President	Lu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oon-Hong Kim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uditor	Jae-Moon Ba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Lung-Gil Han	Kyungpoo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Chair	Ilsook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Exhibition Committee Chair	Woo-Jin Cho	Ho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inance Committee Chair	Moon-Suk Lee	Soo-Chun 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gistration Committee Chair	Dong-Wook Shim	Haj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ternational Committee Chair	Hyung-M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blic Relations Committee Chair	Sun-Hyung Hwa	Honam Cancer Center
Intelligence Committee Chair	Young-Wook Kim	National Cancer Center

Overview and Committee

NAMED LECTURE

JP KIM MEMORIAL LECTURE

JS KIM MEMORIAL LECTURE

PRESIDENTIAL LECTURE

Named Lecture



포스터



KINGCA Week 2017 단체사진

2017년 11월 19일, 2017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서울드래곤시티 용산, 컨벤션타워 5층



2017년 연수강좌 포스터

11월 19일 <2017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08:00-09:00	총회	
09:00-10:20	Symposium 1 (복소로봇위장관수술 연구회: REDUSS) Why are reduced ports surgery?	좌장: 김형호 (서울대), 이준호 (강남대)
	REDUSS 연구회 소개: "REDUSS" Vision, Mission, and Values	김상훈 (서울대)
	How I Do It: "Art of state in reduced ports gastroscopy"	이준호 (강남대)
	What we will develop: "Current development of new special devices for RPS."	이정현 (고려대)
	Current evidence & planned clinical trial: "Current status and evidence of reduced ports gastroscopy, what clinical trial do we need?"	서길석 (서울대)
	Discussion	
10:20-10:40	Coffee Break	
10:40-12:00	Symposium 2 (대한위내시경연구회: KSEISG) New consideration with surgeon endoscopy	좌장: 박승만 (가톨릭), 이복준 (서울대)
	KSEISG 연구회 소개: Mission and vision of Korean Surgical Endoscopy Study Group	홍교정 (가톨릭)
	Preoperative endoscopic finding for Surgeon: "What do we need more?"	김문환 (연세대)
	Endoscopic application of ICG for NIR image in gastric cancer surgery: When, Where, and How much?	이준 (연세대)
	Post-gastroscopy endoscopy: Knack and pitfall	정현수 (서울대)
	Endoscopic finding of GI anastomosis and its complication: Surgeon's view	김정현 (가톨릭)
	Discussion	
12:00-13:00	Lunch	
13:00-14:20	Symposium 3 (대한위장암연구회: KLAASS) KLAASS 연구회 소개: 핵심 주제: KLAASS의 역사·과거와 현재, 미래 Current KLAASS studies KLAASS 연구의 추진 일정	좌장: 최승호 (연세대), 김병식 (울산대) 김영호 (서울대) 김정일 (연세대) 손상훈 (연세대)
14:20-14:40	Coffee Break	
14:40-16:00	Symposium 4 (대한식도암및위식도경계부종연구회: KEJCS) Esophageal and Junctional Cancer Surgery as a Part of Foregut Surgery (위장관과 영역으로서의 식도암 및 위식도경계부종 수술)	좌장: 박주현 (가톨릭), 김동현 (부산대)
	KEJCS 연구회 소개	김진호 (가톨릭)
	Why upper GI surgeons in Korea have to be interested in esophageal cancer surgery?	안동규 (연세대)
	Trends of increasing incidence of esophagogastric junction cancer and its management in Korea	박영석 (서울대)
	My experience of minimal invasive esophagectomy	이준현 (가톨릭)
	My experience in esophageal cancer patients	권오경 (연세대)
16:00-16:20	폐회식	이훈수 (순천향대)

2017년 연수강좌 프로그램

2018년 4월 26~28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8(KINGCA Week 2018)

그랜드워커힐 서울

KINGCA2018		
Overview		
Title	The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8 (KINGCA week 2018)	
Date	April 26 ~ 28, 2018	
Name	Educational course: Gastric cancer	
Theme	SHARE the BEST	
Programs	Presidential Lecture, Named Lecture, Symposium, Video Symposium, Educational Session, History and Mission, History / Residents, Q&A, Panel, Chair / Panel Presentation, Meet the Professor, Research Group Meeting, Luncheon Symposium, Exhibition, Opening / Closing Ceremony, Welcome Reception, Gala Dinner	
Host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Official Language	English	
Organizing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man	Woo-Goo Lee	Son Chul Hyu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esident	Su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Vice President	Byung-uk Kim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Woo-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uditor	Hyung-m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thics Committee Chair	Sang-ik Han	A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Honoree Committee Chair	Min-Chan Kim	Dong-A University Hospit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	Saung-an Ryo	Kangnung University Dongan Medical Center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Chair	Jeon-ye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dical Affairs and Investigator	Seung-Woob Ry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Overview and Committee



Named L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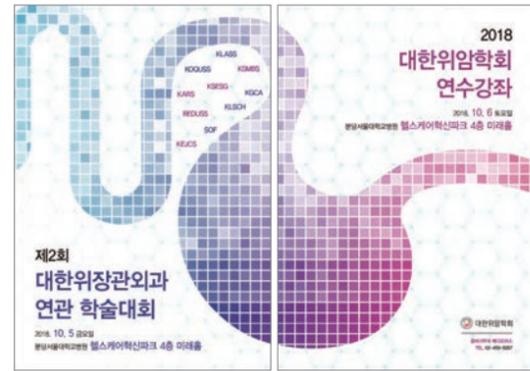


포스터



KINGCA Week 2018 단체사진

2018년 10월 6일, 2018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



2018년 연수강좌 포스터

2018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2018년 10월 6일(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			
시간	주제	강사	주최
08:30 - 09:00	Registration		
09:00 - 10:30	Historical key papers in the field of mine	Saoung-organizer, 송고영	가톨릭의대
	Recent KEY papers in KCLASS study	김정호	가톨릭의대
	Three year follow up result between LDH vs LRYGB	김종민	가톨릭의대
	KEY papers in understanding GSI cancer treatment	김종민	가톨릭의대
	Predictive factors for outcomes in LAIS patients	김종민	가톨릭의대
	KEY papers for minimally invasive endoscopy	김종민	가톨릭의대
	Adjuvant S-1 Versus XELOX after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Which one should we choose for QOL evaluation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JCOG1201 or FJ-SAS	김종민	가톨릭의대
	Coffee break		
10:30 - 12:20	전립선암이 반드시 말아야 하는 최첨단 치료의 수술법	Saoung-organizer, 김진호	가톨릭의대
	Laparoscopic Roux-y gastric bypass	김진호	가톨릭의대
	Sleeve gastrectomy	박정민	서울의대
	Laparoscopic total gastrectomy with D2 LND M20 LND or splenectomy	홍민우	연세대의대
	Partial fundoplication as a primary Antireflux procedure	서정민	고려대의대
	Laparoscopic Heller's myotomy with Dor fundoplication	김종민	고려대의대
	Laparoscopic paraesophageal hernia repair with Toupet fundoplication	김종민	가톨릭의대
	Laparoscopic GEJ cancer surgery	김종민	가톨릭의대
	Mediastinal LND in thoracoscopic esophagectomy	김종민	가톨릭의대
	Basic technique of diagnostic endoscopy and biopsy	김종민	가톨릭의대
	Basic technique of diagnostic endoscopy and biopsy	김종민	가톨릭의대
	Advanced endoscopic intervention	김종민	가톨릭의대
	Mediastinal dissection	이재성	대구경북대병원
	Peptic ulcer surgery	김종민	가톨릭의대
	HBP procedures	김종민	가톨릭의대
12:20 - 12:30	Lunchtime session		
12:30 - 13:20	ES	김종민	가톨릭의대
13:20 - 14:30	Are you VEG surgeon? What you have to know	Saoung-organizer, 김진호	가톨릭의대
	최고수술 치료의 최신 연구 동향	김종민	가톨릭의대
	최고수술 치료의 최신 연구 동향	김종민	가톨릭의대
	최고수술 치료의 최신 연구 동향	김종민	가톨릭의대
	최고수술 치료의 최신 연구 동향	김종민	가톨릭의대
14:30 - 15:20	Coffee break		
15:20 - 15:3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5:30 - 16: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6:00 - 17:30	Let's start inguinal hernia surgery	Saoung-organizer, 김진호	가톨릭의대
	How can't start inguinal hernia surgery	김종민	가톨릭의대
	Open hernia surgery	김종민	가톨릭의대
	Laparoscopic hernia surgery (TEP, TAR)	김종민	가톨릭의대
	Management of complications after hernia surgery	김종민	가톨릭의대
17:30 -	시상 및 강연 후행		

2018년 연수강좌 프로그램



2018년 연수강좌, 이문수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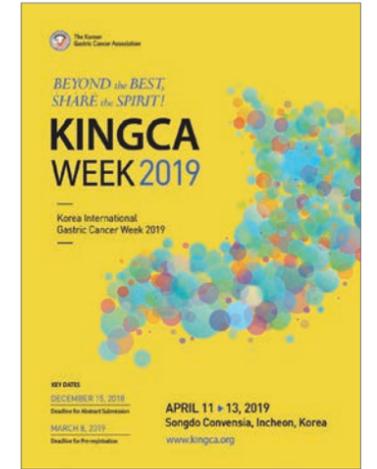
2019년 4월 11~13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9(KINGCA Week 2019)
송도컨벤시아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man	Moon-Soo Lee	Sيون Cha 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esident	Byung-Sik Kim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Vice President	Hyung-Dun M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uditor	Joan-Nae Kim	Sill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yung-Min Kim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Ethics Committee Chair	Seung-Juhn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inance Committee Chair	Min-Chan Kim	Dong-A University Hospit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	Seungwan Rye	Kyungpook University Daegu Medical Center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Chair	Hyuk-Joon Lee	Sa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dical Affairs and Investigation	Seung-Inchul Ry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Overview and Committee



Named Lecture



포스터



KINGCA Week 2019 단체사진

2019년 10월 11일, 2019년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

12:40-13:20	등록	
13:25-13:30	개회사	배재문 대한위암학회 회장
Update of my field		
Update of my field		
Role of surgical metabolism & nutrition society in Korea		
Evolution of bariatric surgeon's role		
13:30-15:30	Surgeon's competency of salvage therapy for recurrent or metastatic gastric cancer	오성진 연세의료대
Survival results of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KCLASS 02 vs CLASS 01		
Oncologic safety and benefit of laparoscopic gastrectomy after chemotherapy (KCLASS 08)		
15:30-15:50	Coffee break	
초청 강연		
15:50-16:00	초청 강연	최창 배재문 삼양의료대
외과교수 33년의 소회		
Video session		
Video session		
16:00-17:30	Sleeve Gastrectomy	김상현 순천향의료대
KCLASS- ICG based lymph node dissection in gastric cancer surgery		
Laparoscopic repair for incisional hernia		
KARS: Laparoscopic anti-reflux surgery after POEM and ARES		
17:30-	폐회사	배재문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2019년 연수강좌 프로그램



2019년 연수강좌 단체사진

2020년 8월 3-5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20(KINGCA Week 2020)
롯데호텔(서울), Virtual conference

KINGCA2020		
Overview		
Title	The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20 (KINGCA week 2020)	
Date	August 3-5, 2020	
Topic	Lotto Hotel Seoul, Korea	
Theme	BACK TO THE BASIC!	
Programs	Presidential Lecture, Named Lecture, Symposium, Video Symposium, Educational Session, History and Honor (Hall of Honor), Quiz, Festival, Quiz / Poster Presentation, Meet the Professor, Research Group Meeting, Luncheon Symposium, Exhibition, Opening / Closing Ceremony, Welcome Reception, Gala Dinner	
Host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Official Language	English	
Organizing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President	Hyung-Chul Kim	Chonju Univ.
Vice President	Ho-Young Chung	Sungkyunkwan National Univ.
Chairman, Board of Directors	Seon-Young Mye	Seoul Natl Univ.
Chairman, Board of Directors	Seon-Young Mye	Sungkyunkwan University
Auditor	Jong-Hoon Kim	Alps University
Training and Evaluation Committee Chair	Seung-Joo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Chair	Jong-Hoon Kim	Korea University
Planning Committee Chair	Hyuk-Do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ltidisciplinary Committee Chair	Shi You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Insurance Committee Chair	Jong-Hoon Kim	National Cancer Center
Research Committee Chair	Sung-Jin Kim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Medical Science
Medical Affairs and Investigation Committee Chair	Seung-Jo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Affairs and Investigation Committee Chair	Wook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inance Committee Chair	Changyoung Kim	Jewon National University
Finance Committee Chair	Jo-Hyoung Su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verview and Committee

NAMED LECTURE	
10:00 Memorial Lecture	
Speaker	Chair
Yong-Dae Park	Seung-Joon Lee
Yong-Dae Park	Seung-Joon Lee
11:00 Memorial Lecture	
Speaker	Chair
Hyun-Chul Chung	Seung-Dae Park
Presidential Lecture	
Speaker	Chair
Seung-Dae Park	Seung-Dae Park
Primary Lectures	
Speaker	Chair
Seung-Dae Park	Seung-Dae Park

Named Lecture



포스터



KINGCA Week 2020 단체사진

2021년 2월 20일, 2021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바르미 호텔 인터볼고 대구



2021년 연수강좌 포스터

2021 대한위암학회 연수강좌		일자 · 2021. 2. 20(Sat)	장소 · 바르미 호텔 인터볼고 대구
08:20-09:00	등록		
09:00-09:05	개회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배재문	영문환자
09:05-09:10	축사	대한위암학회 회장 정호영	공석
09:10-10:20	Era of COVID19	김상문, 이진희, 전태환, 유승환	공석
09:10-09:30	COVID 19 의 과거, 현재, 미래	이진희	공석
09:30-09:50	COVID 19 감염 혹은 위암 환자의 수술시 주의점	최성일	공석
09:50-10:10	학회 발표를 위한 위암 및 동맹성 암의 자료 만들기	정 오	공석
10:10-10:20	Discussion	이승수	공석
10:20-10:40	Coffee break		
10:40-12:15	Fluorescence guided surgery	황우진, 이학준, 권오경	공석
10:40-11:00	Benefits of fluorescence guided surgery for gastric cancer	권오경	공석
11:00-11:20	Cancer-Specific NIR imaging	공성호	공석
11:20-11:40	ICG-navigated basin dissection under near infrared image	이현우	공석
11:40-12:00	Image guided surgery	김원국	공석
12:00-12:15	Discussion	민재석	공석
12:15-13:15	Lunch		
13:15-14:25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연구	배재문, 정호영	공석
13:15-13:35	미분화 조기위암의 치료에서 내시경 절제술과 위절제술의 비교평가 연구	최성일	공석
13:35-13:55	진행성 위암환자에서 최적 보조항암화학요법 연구	정대연	공석
13:55-14:15	근거리 위절제술을 시행한 진행성 위암환자에서 추적관찰 주기에 따른 생존율 비교 및 삶의 질, 영양상태 추적관찰을 위한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	유근환	공석
14:15-14:25	Discussion	이경희	공석
14:25-14:45	Coffee break		
14:45-15:55	Endoscopy for UGI surgery	서병조, 송교영, 김진영	공석
14:45-15:05	Preoperative endoscopy	박종민	공석
15:05-15:25	Intraoperative endoscopy	김태환	공석
15:25-15:45	Postoperative endoscopy	서호석	공석
15:45-15:55	Discussion	지예섭, 박신우, 이주영	공석
15:55-16:00	폐회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배재문	영문환자

2021년 연수강좌 프로그램



2021년 연수강좌 단체사진

2021년 9월 30일~10월 2일,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21(KINGCA Week 2021)

Virtual conference

KINGCA 2021		
Overview		
Title	The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21(KINGCA week 2021)	
Date	September 30 - October 2, 2021	
Venue	Virtual conference	
Theme	Make our Dreams come True in a MultiDisciplinary Team!	
Programs	Opening/Closing Ceremony, Plenary Lecture, Symposium, JS Min Memorial Lecture, JS Min Memorial Lecture, Oral Presentation, Multidisciplinary Team, Education Session, Nurse Session, Video Symposium Session, Luncheon Symposium, Presidential Lecture, General Assembly, The Quarter-Century History of KSCA by White Book, Nationwide Survey of Gastric Cancer in 2019, KSCA-JOCA Board Meeting, The 1st KSCA-JOCA joint session	
Host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Website	www.kingca.org	
Official Language	English	
Organization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man	Jae-Moon Bae	Sungkyunkwan University
President	Ho-young Chu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Vice President	Jeong Hwan Yook	University of Ulsan
Auditor	Ji Ju Choi	National Cancer Center
	Bae-sung Sohn	Sungkyunkwan University
	Seong-Hyeon Park	Korea University
Ethics Committee Chair	Wook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inance Committee Chair	Ji-Young Su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Committee Chair	Seung-Wan Ryu	Kimyung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Chair	Hyuk-jo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Affairs and Investigation Committee Chair	Chan-young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Insurance Committee Chair	Sungho Jin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Multidisciplinary Committee Chair	Jong Yeul Lee	National Cancer Center
Planning Committee Chair	Do Joong Park	National Cancer Center
Public Relations Committee Chair	Oh Jeo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and Editorial Service Committee Chair	Ajo young So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Committee Chair / Special Duty Committee	Tae Yong Je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cientific Committee Chair	Keun Won Ryu	National Cancer Center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Chair	Jae-Ho Chaeng	Yonsei University
Training and Examination committee Chair	Jong-Han Kim	Korea University
Special Duty Committee	Min-Hee Ryu	University of Ulsan
Secretary General	Min-Geu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Deputy Secretary General	Dong-Seok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Position	Name	Affiliation
Chair	Keun Won Ryu	National Cancer Center
Members	Hong Man Yoon	National Cancer Center
	Seong-Ho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Ho Koo	Sungkyunkwan University
	Dong Jin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eom Su Kim	University of Ulsan
	Sungsoo Kim	Jju National University
	Jong-Han Kim	Korea University
	Joon Sung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HI Hoon Maeng	Kyung Hee University
	Jae-Seok Min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Joong-Min Park	Chung-Ang University
	Chan Hyuk Park	Hanyang University
	An Na Se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il Son	Yonsei University
	Sang-hoo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Ji Yeong An	Sungkyunkwan University
	Seung Soo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Named Lecture

<p>JP KIM Memorial Lecture</p>  <p>Han-Kwang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p>	<p>JS Min Memorial Lecture</p>  <p>Won Ki Kang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p>
<p>Presidential Lecture</p>  <p>Ho-young Chu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p>	<p>Plenary Lecture</p>  <p>Sang-Uk Han Ajou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p>

8 역대 학술상 정리

종양학술상(2002~2020)

연도	학술상	수상자	소속
2002	제1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권성준	한양의대
		노성훈	연세의대
		박원상	가톨릭의대
2003	제2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박경규	순천향의대
		유완식	경북의대
		최석렬	동아의대
2004	제3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김희철	울산의대
		김영진	전남의대
		목영재	고려의대
2005	제4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김병식	울산의대
		김진조	가톨릭의대
		이상호	고신의대
2006	제5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박조현	가톨릭의대
		권성준	한양의대
		전해명	가톨릭의대
2007	제6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이문수	순천향의대
		송선교	영남의대
		진형민	가톨릭의대

연도	학술상	수상자	소속
2008	제7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김병식	울산의대
		양두현	전북의대
		신동규	서울의료원
2009	제8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윤효영	충북의대
		김종석	고려의대
		박영규	전남의대
2010	제9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진성호	한국원자력병원
		양한광	서울의대
		김형호	서울의대
2011	제10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권성준	한양의대
		김병식	울산의대
		형우진	연세의대
2012	제11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정재호	연세의대
		정 오	전남의대
		채현동	대구가톨릭의대
2013	제12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유완식	경북의대
		박원상	가톨릭의대
		정인호	제주의대
2014	제13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	박원상	가톨릭의대
		박성흠	고려의대
		권성준	한양의대
2015	제14회 종양학술상	이문수	순천향의대
		김 욱	가톨릭의대
		허 훈	아주의대
2016	제15회 종양학술상	김지현	연세의대
		김진조	가톨릭의대
		박도중	서울의대

연도	학술상	수상자	소속
2017	제16회 중앙학술상	허 선	한림의대
		최일주	국립암센터
2017	제16회 중앙학술상	손상용	아주의대
		박성수	고려의대
2018	대한위암학회 중앙학술상	류근원	국립암센터
		김인환	대구가톨릭의대
2019	대한위암학회 중앙학술상	민재석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재호	연세의대
		지예섭	단국의대
2020	대한위암학회 중앙학술상	손태일	연세의대
		이혁준	서울의대
		한혜숙	충북의대

최다논문게재상(2006~2020)

연도	학술상	수상자	소속
2006	제1회 한국존슨앤존슨 최다논문게재상	권성준	한양의대
		김 성	성균관의대
		박원상	가톨릭의대
2007	제2회 한국존슨앤존슨 최다논문게재상	권성준	한양의대
		김 성	성균관의대
		양두현	전북의대
2008	제3회 한국존슨앤존슨 최다논문게재상	전해명	가톨릭의대
		전해명	가톨릭의대
		김병식	울산의대
2009	제4회 한국존슨앤존슨 최다논문게재상	박승만	가톨릭의대
		박영규	전남의대
		김병식	울산의대
		김 욱	가톨릭의대
		양한광	서울의대
2010	제5회 최다논문게재상	이종인	원자력병원
		전해명	가톨릭의대
		권성준	한양의대
2011	제6회 최다논문게재상	김종석	고려의대
		배재문	성균관의대
		권성준	한양의대
2012	제7회 최다논문게재상	형우진	연세의대
		한상욱	아주의대
		허 훈	아주의대
		형우진	연세의대
		권성준	한양의대

연도	학술상	수상자	소속
2013	제8회 최다논문게재상	이준호	성균관의대
		권성준	한양의대
		윤기영	고신의대
2014	제9회 최다논문게재상	형우진	연세의대
		김영우	국립암센터
		양한광	서울의대
2015	제10회 최다논문게재상	박지연	순천향의대
		이한홍	가톨릭의대
		정 오	전남의대
2016	제11회 최다논문게재상	유완식	경북의대
		이문수	순천향의대
		김형호	서울의대
2017	제12회 최다논문게재상	이문수	순천향의대
		김민규	한양의대
		손태성	성균관의대
2018	제13회 최다논문게재상	유완식	경북의대
		서경원	고신의대
		김 욱	가톨릭의대
2019	제14회 최다논문게재상	정 오	전남의대
		서호석	가톨릭의대
		김형호	서울의대
2020	제15회 최다논문게재상	정 오	전남의대
		엄방울	국립암센터

우수연구자상(2012~2017)

제1회(2012)

수상자 없음

제2회(2013)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정 오	전남의대	Surg Endosc 2012/26/12 3418-3425	Short term surgical outcomes and operative risks of laparoscopic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rcinoma	정 오	박영규
박성수	고려의대	Surg Endosc 2012 Jan;26(1) 60-67	Rapid adaptation of robot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by experienced laparoscopic surgeons.	박성수	형우진
		J Am Coll Surg 2012;215(6) 831-840	Deciding laparoscopic approaches for wedge resection in gastric submucosal tumors: a suggestive flow chart using three major determinants.	이충호	박성수

제3회(2014)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허 훈	아주의대	Am J Surg 2013/205/1 45-51	Trends and outcomes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gastric cancer: 750 consecutive cases in seven years at a single center	허 훈	한상욱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허훈	아주의대	Int J Oncol 2013/42/1 44-54	Expression of pyruvate dehydrogenase kinase-1 in gastric cancer as a potential therapeutic target	허훈	한상욱
		Surg Endosc 2013/27/11 4367-70	Efficacy of intraoperative gastroscopy for tumor localization in totally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for cancer in the middle third of the stomach	Xuan Yi	허훈
김영우	국립암센터	Eur J Surg Oncol 2013/39/12 1407-1414	Role of bursectomy for advanced gastric cancer: Result of a case-control study from a large volume hospital	엄방울	김영우
		Surgery 2013/155/3 408-416	Improved survival after adding dissection of the superior mesenteric vein lymph node (14v) to standard D2 gastrectomy for advanced distal gastric cancer	엄방울	김영우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2013/22/10 1805-1812	Association of smoking history with cancer recurrence and survival in stage III-IV male gastric cancer patients.	김영우	최일주
최일주	국립암센터	Aliment Pharmacol Ther 2013/38/10 1292-1302	Staging of intestinal- and diffuse-type gastric cancers with the OLGA and OLGIM staging systems	조수정	최일주
		Aliment Pharmacol Ther 2013/38/5 4774-89	Randomised clinical trial: the effects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on glandular atrophy and intestinal metaplasia after sub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조수정	최일주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2013/22/10 1805-1812	Association of smoking history with cancer recurrence and survival in stage III-IV male gastric cancer patients.	김영우	최일주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김욱	가톨릭의대	Surgery 2013/153/5 611-8	Clinical experience of 528 laparoscopic gastrectomies on gastric cancer in a single institution	이준현	김욱
		J Korean Surg Soc 2013/84/5 281-6	Afferent loop obstruction following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with Billroth-II gastrojejunostomy	김동진	김욱
박성수	고려의대	Ann Surg Oncol 2013/20/4 1258-1265	Robot versus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cancer by an experienced surgeon: comparisons of surgery, complications, and surgical stress.	현명한	박성수
		Br J Surg 2013/100/12 1566-1578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obotic surgery compared with conventional laparoscopic and open resections for gastric carcinoma.	현명한	박성수
정오	전남의대	J Am Coll Surg 2013/216/2 184-191	Comparison of short-term surgical outcomes between laparoscopic and open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rcinoma: case-control stud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정오	박영규
		Surg Endosc 2013/27/8 2792-2800	A Propensity score-matching case-control comparative study of laparoscopic and open extended(D2) lymph node dissection for distal gastric carcinoma	Xue-Fen Zhao	정오
류근원	국립암센터	Surg Endosc 2013/27/9 3247-3253	The risk factors for lymph node metastasis in early gastric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endoscopic resection: is the minimal lymph node dissection applicable?	박지연	류근원
형우진	연세의대	Ann Surg 2013/258/6 964-969	Method of Reconstruction Governs Iron Metabolism After Gastrectomy for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이중호	형우진

제4회(2015)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형우진	연세의대	Gut Liver 2014;8(3): 229-236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gastric cancer treat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손태일	형우진
		Surg Endosc 2014;28(8): 2452-2458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remnant gastric cancer: a comparison with open surgery.	권인규	
		Surg Endosc 2014;28(9): 2606-2615	Robotic spleen-preserving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laparoscopic procedure.	손태일	
		Ann Surg Oncol 2014;21(3): 899-907	Anatomic extent of metastatic lymph nodes: still important for gastric cancer prognosis.	손태일	
최일주	국립암센터	Helicobacter 2014;19(3): 194-201	The Association Between Helicobacter pylori Status and Incidence of Metachronous Gastric Cancer After Endoscopic Resection of Early Gastric Cancer	김영일	최일주
		Helicobacter 2014;19(2): 81-89	OLGA and OLGIM Stage Distribution According to Age and Helicobacter pylori Status in the Korean Population	남지형	
허훈	아주의대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2014;29(9): 1671-1677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ncer according to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status	곽희원	
		J Am Coll Surg 2014;219(3): e29-37	Laparoscopy-Assisted Endoscopic Full-Thickness Resection with Basin Lymphadenectomy Based on Sentinel Lymph Nodes for Early Gastric Cancer	허훈	허훈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허훈	아주의대	Plos One 2014;9(6): e98581	Quantitative Measurement of Organic Acids in Tissues from Gastric Cancer Patients Indicates Increased Glucose Metabolism in Gastric Cancer	허훈	한상욱
김민찬	동아의대	World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2014;12(97): 1-6	Is the rat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following laparoscopy-assisted gastrectomy higher in elderly patients than in younger patients?	김기한	김민찬
		Medicine 2014;93(28): 1-7	How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Gastric Cancer in Korea?: A Viewpoint From Korean Prospective Clinical Trials	김기한	
이준호	성균관대의대	Ann Surg Oncol 2014;21(4): 1115-1122	A body shape index has a good correlation with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gastric cancer surgery	엄방울	이준호
		Eur J Surg Oncol 2014;40(12): 1771-1776	Tumor differentiation is not a risk factor for lymph node metastasis in elderly patients with early gastric cancer	이준호	박영규
김영우	국립암센터	Gut and Liver 2015;9(2):174-180	Cost Comparison between Surgical Treatments an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in Patients with Early Gastric Cancer in Korea	김영우, 김연희	설상용
		Surgery 2014;155(3): 408-416	Improved survival after adding dissection of the superior mesenteric vein lymph node (14v) to standard D2 gastrectomy for advanced distal gastric cancer	엄방울, 주정남	김영우
정오	전남의대	Ann Surg Oncol 2014;21(9): 2994-3001	Risk factors and learning curve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morbidity of laparoscopic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rcinoma.	정오	류성엽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김민규	한양의대	Surgical Endoscopy 2014;28(5): 1563-1570	Comparison of the outcomes for laparoscopic gastrectomy performed	김민규	권성준
박원상	가톨릭의대	Oncotarget 2014;5(22): 11695-11708	Gastrokine 1 induces senescence and apoptosis through regulating telomere length in gastric cancer	윤정환	박원상
이한홍	가톨릭의대	British Journal of Surgery 2014;101(5): 518-522	Relevance of hepatoduodenal ligament lymph nodes in resectional surgery for gastric cancer	이수림	이한홍
류근원	국립암센터	World J Surg 2014;38(2): 439-446	Prognostic impact of microscopic tumor involved resection margin in advanced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gastric resection	우정우	류근원

제5회(2016)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형우진	연세의대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2015;112:271-278	Robot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손태일	형우진
		Surgical Endoscopy 2015;29:3251-3260	Robotic distal subtotal gastrectomy with D2 lymphadenectomy for gastric cancer patients with high body mass index: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laparoscopic distal subtotal gastrectomy with D2 lymphadenectomy	손태일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Surgical Endoscopy 2015;29:2321-2330	Minimally invasive surgery as a treatment option for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comparison with open surgery for patients 80 years and older	권인규	
형우진	연세의대	Journal of Gastrointestinal Surgery 2015;19:313-318	Usefulness of Laparoscopic Side-to-Side Duodenojejunostomy for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Located at the Duodenojejunal Junction	Eiji Tanaka	
		Gastric Cancer 2015;18(4):683-690	Preoperative smoking cessation can reduc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gastric cancer surgery	정국현	배재문
배재문	성균관대의대	Eur J Surg Oncol 2015;41(3):339-345	Clinical significance of skip lymph node metastasis in gastric cancer patients	김대훈	
		Ann Surg Oncol 2015;22(6): 1806-1812	Optimal submucosal invasion of early gastric cancer for endoscopic resection	엄방울	류근원, 국명철
엄방울	국립암센터	PLoS One 2015;10(2): e0119671	Survival nomogram for curatively resected Korean gastric cancer patients: multicenter retrospective analysis with external validation	엄방울	류근원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2015;46:2431-2438	High-mobility-group A2 overexpression provokes a poor prognosis of gastric cancer through the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이준현	이한홍
이한홍	가톨릭의대	Annals of Surgical Oncology 2015;22: S786-S793	Usefulness of Two-Dimensional Values Measured Using Preoperative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in Predicting Lymph Node Metastasis of Gastric Cancer	이수림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 목	제1저자	책임저자
김민규	한양의대	Surg Laparosc Endosc Percutan Tech 2015;25(4):331-336	Laparoscopic Surgery for Perforated Duodenal Ulcer Disease: Analysis of 70 Consecutive Cases From a Single Surgeon	김민규	김민규
김진조	가톨릭의대	Surgical Endoscopy 2015;29(9):2545-2552	Delta-shaped anastomosis, a good substitute for conventional Billroth I technique with comparable long-term functional outcome in totally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이한홍	김진조
박지연	순천향의대	World Journal of Surgery 2015;39(7):1789-1797	Robot-assisted gastrectomy for early gastric cancer: is it beneficial in viscerally obese patients compared to laparoscopic gastrectomy?	박지연	류근원
정호영	경북의대	Annals of Surgery 2015;261(6):1131-1137	Long-term Shifting Patterns in Quality of Life After Distal Subtotal Gastrectomy: Preoperative- and Healthy-based Interpretations	이승수	정호영
허 훈	아주의대	BMC cancer 2015;15:355	Efficacy of laparoscopic subtotal gastrectomy with D2 lymphadenectomy for locally advanced gastric cancer: the protocol of the KLASS-02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허 훈	한상욱
김찬규	국립암센터	Endoscopy 2015;47(12):1171-1174	Nonexposure endolaparoscopic full-thickness resection with simple suturing technique	김찬규	김찬규

제6회(2017)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 목	제1저자	책임저자
		Gastric Cancer 2016;19(4):1125-1134	Robotic gastrectomy for elderly gastric cancer patients: comparisons with robotic gastrectomy in younger patients and laparoscopic gastrectomy in the elderly	손태일 Naoki Okumura	
손태일	연세의대	Gastric Cancer 2016;19(3):951-960	Liver-directed treatments for liver metastasis from gastric adenocarcinoma: comparison between liver resection and radiofrequency ablation	손태일 Ali Guner	형우진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16;22(2):727-735	Laparoscopic gastric cancer surgery: Current evidence and future perspectives.	손태일	
		Surgical oncology 2016 Sep;25(3):139-146	Practical intraoperative pathologic evaluation of sentinel lymph nodes during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in gastric cancer patients - Proposal of the pathologic protocol for the upcoming SENORITA trial	박지연	국명철
박지연	경북의대	BMC cancer 2016 May 31;16:340 (online 학술지임)	Assessment of laparoscopic stomach preserving surgery with sentinel basin dissection versus standard gastrectomy with lymphadenectomy in early gastric cancer-A multicenter randomized phase III clinical trial (SENIORITA trial) protocol	박지연	남병호
		Medicine (Baltimore) 2016;95(49):e5490	Does the interval of screening endoscopy affect survival in gastric cancer patients?: A cross-sectional study	김지은	
배재문	성균관 의대	Gastrointest Endosc 2016;83(5):896-901	The risk of lymph node metastases in 3951 surgically resected mucosal gastric cancers: implications for endoscopic resection	최강국	배재문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이준호	성균관 의대	Gastric Cancer 2016;19:860-868	Lymph node metastasis risk according to the depth of invasion in early gastric cancers confined to the mucosal layer	이준호	최일주
		Surg Laparosc Edosc Percutan Tech 2016;26: e132-e136	Comparison of reduced port totally laparoscopic-assisted total gastrectomy and conventional laparoscopic-assisted total gastrectomy	김한별	이준호
이한홍	가톨릭 의대	J Laparoendosc Adv Surg Tech A 2016;26(7):531- 535	Short-Term Outcomes of Three-Port Totally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in the Treatment of Gastric Cancer: Comparison with a Four-Port Approach Using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서호석	이한홍
		Int J Surg 2016;May(29): 118-122	Is the 5-ports approach necessary in laparoscopic gastrectomy? Feasibility of reduced-port totally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the treatment of gastric cancer: A Prospective Cohort Study	서호석	
공성호	서울의대	Surg Endosc 2016;30(4): 1683-1691	Novel method for hybrid endo-laparoscopic full-thickness gastric resection using laparoscopic transgastric suture passer device	공성호	Michele Diana
김 욱	가톨릭 의대	Anticancer research 2016;36(9): 4753-4758	Laparoscopy-assisted Proximal Gastrectomy with Double Tract Anastomosis Is Beneficial for Vitamin B12 and Iron Absorption	김동진	김 욱
이혁준	서울의대	Ann Surg 2016;263(1):28- 35	Decreased Morbidity of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Compared With Open Distal Gastrectomy for Stage I Gastric Cancer: Short-term Outcomes From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KLASS-01)	김 욱	이혁준
정 오	전남의대	Surg Endosc 2016;30(8): 3559-3566	Early experience of duet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using three abdominal ports for gastric carcinoma	정 오	류성엽

이름	소속	게재 정보	제목	제1저자	책임저자
정호영	경북의대	Annals of Surgery 2016;263(4): 738-744	Long-Term Quality of Life after Distal Subtotal and Total Gastrectomy: Symptom- and Behavior-Oriented Consequences	이승수	정호영

우수심사자상(2015~2020)

연도	학술상	소속	수상자
2015	제1회 우수심사자상	가톨릭의대	이한홍
		을지의대	손태일
2016	제2회 우수심사자상	한양의대	이주희
		인제의대	오성진
2017	제3회 우수심사자상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한양의대	김민규
		가톨릭의대	김동진
2018	제4회 우수심사자상	아주의대	손상용
		서울의대	한동석
		고려의대	김종한
2019	제5회 우수심사자상	한국원자력의학원	진성호
		중앙의대	김종원
		중앙의대	박종민
2020	제6회 우수심사자상	고신의대	서경원
		아주의대	허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민재석
		연세의대	김형일

학술대회 수상자(2003~2020)

2003년 제1회 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박도중	서울의대	Tumor suppressor gene expression
이지영	고신외대	인체 위암세포 (AGS)의 증식에 미치는 Curcumin의 억제효과
김준억	연세의대	New patient care protocol for gastric cancer surgery applying randomized prospective trial results
백용해	성균관의대	Detectability of gastric cancer using CT virtual gastrography and gastroscopy

2004년 제2회 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정재호	연세의대	The Role of Whole-Bod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With 18-fluorodeoxyglucose in Recurrent Gastric Cancer
김용진	울산대학교	장막침윤이 없는 위암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 화학 요법에 대한 전향적 연구-최종보고
허 훈	가톨릭의대	위암에서의 조직학적 특징에 따른 혈청 soluble E-cadherin 농도 분석
박승배	성균관의대	위암조직에서 Cyclin G2 발현의 의미
박원철	원광의대	위암에서 MTHFR 유전자 다형성(polymorphism)
김형주	한양의대	Siewert 분류에 의한 협의의 분문부 위암(type II)과 분문하 위암(type III)의 검토

2005년 제4회 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한상욱	아주의대	Suppression of Helicobacter Pylori-induced Angiogenesis by Gastric Proton Pump Inhibitor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류우상	고려의대	위선암 환자에서 MSI 발현율과 FHIT, E-cadherin, p53, Smad4 유전자의 LOH 분석
홍성권	성균관의대	2기 위암환자의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항암,방사선 요법의 의의
송창수	연세의대	Laparoscopy Assisted Total Gas-trectomy-Initial Experience of 19 Cases

2006년 제6회 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도영우	국립암센터	Surgical Treatment Experience of Post EMR Patients	구연
손태일	연세의대	Robot-assisted distal subtotal gastrectomy using da Vinci system; Initial Experience of 10 case	구연
김지훈	고려의대	개복 위부분절제술에 경험이 풍부한 술자의 복강경 보조하 원위부 위절제술의 learning curve.	구연
김민국	삼성서울병원	4기 조기 위암	포스터
강태영	동아의대	술 전 CT 병기 T2N0M0 환자는 복강경 위암 수술이 가능한가?	포스터
임명구	가톨릭의대	DNA methylation of multiple genes in gastric cancer	포스터
채현동	대구가톨릭의대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 후 비타민 B12 결핍과 치료	포스터
손선향	경상의대	조기위암의 복강경 보조 및 개복 원위부 위절제술(Billroth I)의 비교	포스터

2006년 제7회 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안지영	성균관의대	Methylation of p16(INK4A) and p57(KIP2) in gastric MALT lymphomas	구연
조성진	고신외대	위악성종양으로 인한 위출구폐쇄환자에게 시행한 고식적인 목적의 스텐트 시술과 위공장 우회술의 비교	구연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김중환	고려의대	Clinical Significance of Lymph Node Micrometastasis and E-cadherin Expression in pN0 Gastric Cancer	구연
최병관	전남의대	복강경 보조 위아전절제술 후 창상견인기를 이용한 복강 내 위-십이지장 문합술	구연
정형중	국립암센터	Laparoscopy-Assisted Total Gastrectomy with D2 lymph node dissection in Early Gastric Cancer	포스터
하태경	한양의대	위암환자에서 위절제술시 절제연 거리의 임상적 중요성	포스터
유문원	서울의대	수술 전 내시경 진단 상 조기위암이었으나 수술 후 진행위암으로 보고된 환자들의 임상병리학적 특징	포스터
박성훈	경북대학교	위암에서 과체중이 가지는 의의	포스터
김택현	가톨릭의대	위암의 수술전 병기 설정에서 내시경초음파와 전산화 단층촬영의 역할	포스터

2007년 제8회 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최원혁	연세의대	Indication of Segmental Gastrectomy with modified D1+b dissection in EGC	구연
유문원	서울의대	The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gastric cancer patients with 30-days postoperative mortality	구연
오성용	동아대학교	Preoperative level of VEGF and IL-6 are associated with lymph node invasion and stage in gastric cancer	구연
정형중	국립암센터	A phase II clinical trial of 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with D2 lymph node dissection for gastric cancer patients	구연
이희재	순천향의대	복강경 보조 하 위 절제 환자의 장기적인 '삶의 질'평가	포스터
박종익	원자력병원	Prognosis of early gastric cancer after curative surgery	포스터
하태경	성균관의대	위암환자의 재발유형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특성	포스터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태창원	계명대의대	Clinical evalu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outcome in gastric cancer involving muscularis and subserosal layer	포스터
강상윤	영남의대	Prognosis factors of advanced gastric cancer patients without lymph node metastasis	포스터

2008년 제10회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김찬영	전북의대	N stage should be adjusted by ratio of metastatic and examined lymph node	구연
김세원	영남의대	절제불능 혹은 전이성 위암환자에서 신보강화학요법의 효과	구연
박종민	고려의대	Postoperative alteration of serum DNA methylation profile of cancer-related genes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Correlation with curative potential	구연
김 범	경희의대	TIG1 (Tazarotene-induced gene 1) 유전자와 위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구연
김호균	전남의대	식도-위 경계부위 주위에 생긴 양성 종양의 복강경 절제술	포스터
정귀애	순천향의대	상부위암의 복강경 보조 위전절제술에서 Downstream 림프절 절제술의 유용성	포스터
박지호	경상의대	돼지 모델에서의 위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위한 Hybrid minimal invasive technique	포스터
한재현	가톨릭의대	위암 환자에서 E-cadherin과 claudin의 단백질 발현과의 상관관계	포스터

2009년 제12회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김찬영	전북의대	같은 병기 내에서 수술 전 CEA, CA19-9, CA72-4의 예후 인자로서의 의의	구연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민재석	원자력병원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복강내 미세전이 진단을 위한 복강 세척액 ThinPrep® 세포진 검사의 임상적 의의	구연
손영길	계명대	Laparoscopy-assisted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A Single-Surgeon Experience with 179 Consecutive Patients	구연
문형환	고신대	비만을 동반한 조기위암환자에서 두병의 동시 치료	구연
조윤정	가톨릭대	Clinical Significance Of Vegf-C, Cox-2 Expression In Submucosally Invading Gastric Carcinoma Patients	포스터
김 찬	연세대	Clinical implication of adrenal insufficiency in advanced gastric cancer	포스터
이승수	경북대	위암 환자의 위 절제범위에 따른 삶의 질	포스터
배정민	영남대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후 추가적인 위절제술의 적응증 분석	포스터
이지호	부산대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of the stomach : a single institution experience for 3 years	포스터

2010년 제14회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신철민	서울대	Intrafamilial Aggregation of Gastric Cancer: A Comprehensive Approach with Environmental Factors, Helicobacter pylori Virulence Factors and Genetic Susceptibility	구연
최현호	연세대	당뇨가 동반된 위암환자의 수술 후 당뇨호전에 관련된 인자	구연
안지용	울산대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for early gastric cancer : Comparison clinical outcomes between absolute indication group and expanded indication group	구연
조병훈	가톨릭대	Gastric leptomenigeal carcinomatosis: Single institutie retrospective analysis of 9 cases	포스터
윤홍만	국립암센터	Is There Any Role of Robot-Assisted Surgery Over Laparoscopic Surgery for Gastric Cancer?	포스터
김태균	아주대	Surgical outcomes and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remnant gastric cancers in the patients underwent distal gastrectomy	포스터

2010년 제15회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Obama K	연세대	Does Preoperative nutritional status affect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gastric cancer surgery?	구연
서윤석	서울대	Should adenocarcinoma of esophagogastric junction (AEG) be classified as esophageal cancer?	구연
심정호	가톨릭대	Association of central obesity and body mass index as a risk factor for gastric cancer surgery ; Retrospective analysis in a single institution.	구연
안재봉	한양대	Borrmann 4형 위암의 진단시 점막절제술에 대한 검토	포스터
박광국	고신대	조기위암의 근치적 위절제술에서 수술 술식에 따라 체질량 지수와 체형이 림프절 절제에 미치는 상관 관계	포스터
이세열	전북대학교	위암의 술 전 CEA, CA19-9, CA72-4의 cut-off ratio와 combination scoring에 따른 예후 예측	포스터

2012년 제17회 사노피-아벤티스 우수논문 발표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안상훈	서울대	Precise pathologic examination decreases the false-negative rate of sentinel lymph node biopsy in gastric cancer.	구연
김동진	가톨릭대	Comparison Total versus Partial Omentectomy during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Serosa Negative Advanced Gastric Cancer	구연
정우철	고려대	Epidermal growth factor and Estrogen receptor α, β effects on proliferation of a human gastric cancer cell lines	구연
심정호	가톨릭대	Clinical significance of incidental colonic 18F-FDG uptake on PET-CT images in patients with gastric adenocarcinoma	구연
이인섭	울산대	Predictive Factors related to Lymph Node Metastasis in Submucosal Gastric Cancer: Reassessment of the Extended Criteria for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구연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서경원	고신의대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hepatoid adenocarcinoma of the stomach	구연
정 오	전남의대	Developing predicting model for postoperative complication after laparoscopic gastrectomy	구연
안창욱	아주의대	Comparison of surgical outcomes between Billroth-I and Roux en Y reconstruction using circular staplers: Results from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포스터
김유민	연세의대	The effect of gastric cancer surgery on type 2 DM in gastric cancer patients: Short-term outcome analysis after gastrectomy	포스터
안준영	가톨릭의대	Clinical significance of baseline elevation of plasma d-dimer in gastric cancer patients	포스터

2013년 제18회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우수논문 발표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정재호	연세의대	In Vitro Tumor Metabolic Microenvironment – selected Gastric Cancer Cells Phenocopy Cancer Stem Cell Behavior	구연
서윤석	서울의대	LN Metastasis and Recurrence Pattern for Adenocarcinoma of Esophagogastric Junction and Upper Gastric Cancer	구연
이주희	서울의대	Laparoscopic Limited Gastrectomy with Sentinel Node Navigation for Gastric Cancer	구연
Saeed Alshomimi	연세의대	Can We Apply the Same Indication of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for Primary Gastric Cancer to Remnant Gastric Cancer?	구연
변철수	연세의대	Comparison of Billroth-I and Roux en Y Reconstruction Using Circular Staplers after Distal Sub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구연
김윤경	아주의대	The Impact of Screening Test on Gastric Cancer Treatment: Comparison of 2011 to 2006	구연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Session
진성호	원자력의학원	Intraperitoneal Radioimmunotherapy for Gastric Cancer – PET Imaging and Biodistribution Studies of ⁶⁴ Cu – DOTA – cetuximab in Subcutaneous and Malignant Ascites Model; Preliminary Results	구연
박지연	국립암센터	Unique Patterns and Proper Management of Post-gastrectomy Bleeding for Gastric Cancer	포스터
정도현	서울의대	Risk Factor of Delayed Gastric Emptying after Laparoscopic Gastric Surgery	포스터
박수진	경북의대	Differences in the Postoperative Two Year Quality of Life after Subtotal Gastrectomy and Total Gastrectomy	포스터

2014년 제19회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우수논문 발표상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Oh Jeong	Chonnam National Univ.	Efficacy of single-dose antimicrobial prophylaxis for preventing surgical site infection in radical gastrectomy for gastric carcinoma
Ji-Ho Park	Gyeongsang National Univ.	Noble method for intraoperative tumor localization during laparoscopic gastric local resection: Endoscopic submucosal cutting and light transmission
Sang-Hoon Ahn	Seoul National Univ.	The short-term outcomes of conventional and pure single-incision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for early gastric cancer
Dong Jin Kim	The Catholic Univ.	Comparison of major postoperative complications between laparoscopic distal and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using the Clavien-Dindo classification
In Gyu Kwon	Keimyung Univ.	Should we dissect splenic hilar lymph nodes during total gastrectomy for proximal gastric cancer?
Bang Wool Eom	National Cancer Center	External validation of an eastern Asian nomogram for survival prediction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in a European patient cohort
Ji Yeon Park	Soonchunhyang Univ.	Improved remnant gastric function after uncut ROUX-EN-Y reconstruction following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Yong Hoon Kim	Yonsei Univ.	Risk factors for residual tumors in completely resected gastric epithelial neoplasia after endoscopic resection
Jun Hee Lee	Sungkyunkwan Univ.	Discrepancy 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diagnosis of early gastric cancer and its impact on choice of initial treatment
Cheul Su Byun	Ajou Univ.	Laparoscopic gastropexy and splenopexy for gastric volvulus associated with wandering spleen in pediatric patient

KINGCA Week 2014 Best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Yan-feng Hu	Southern Medical Univ.	Modified dual-ports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with lymph node dissection for gastric cancer: Initial experience from a single center
Masatoshi Nakagawa	Tokyo Medical Dental Univ.	Laparoscopic double tract reconstruction for proximal gastrectomy: its procedure and short-term results

KINGCA Week 2014 Best Poster Award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Cheng-chia Tsou	National Yang Ming Univ.	Overexpressed MIR-376 promotes gastric cancer progression and circulatory level of MIR-376 could be a potential marker for gastric carcinoma
Ji Eon Go	Dong-A Univ.	Effect of VFABMI and VFA to the number of retrieved LN and operation time in Laparoscopy Assisted Distal Gastrectomy (LADG): 4 Subgroups analysis in each gender
Shuangxi Li	Beijing Cancer Hosp.	Retrospective study of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locally advanced gastroesophageal junction adenocarcinoma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Chang In Choi	Pusan National Univ.	Various features of laparoscopic tailored resections for gastric submucosal tumor; single institution's results
Moon-Won Yoo	Univ. of Ulsan	Comparison of 5-year survival and liver function of early gastric cancer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between open and laparoscopic or 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Ja Yeon Kim	National Cancer Center	Eastern Asian and European gastric cancer patients – not so different anymore! Results from a propensity score matched analysis of patient outcomes of specialized centers in Korea and Germany
In Cho	International ST. Mary's Hosp.	Feasibility and effects of individualized physical exercise program on quality of life for early gastric cancer patients undergoing minimally invasive gastrectomy: A pilot study
Do Hyun Jung	Seoul National Univ.	The learning curve associated with laparoscopic total gastrectomy
Chang-Hyun Kim	The Catholic Univ.	A comparison of outcomes of 3 reconstruction methods after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Sang-Yong Son	Seoul National Univ.	Spleen-preserving lymphadenectomy versus splenectomy in laparoscopic total gastrectomy for advanced gastric cancer

KINGCA Week 2015 Best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Zhanlong Shen	Peking Univ.	The difference of the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urvival of gastric cancer between China and Korea and effect of lymph nodes harvested on survival of gastric cancer
Sangjeong Ahn	Sungkyunkwan Univ.	Intratumoral heterogeneity and biopsy numbers affecting Her2 overexpression: experience in a single institute with comparison to surgical specimens
Hyoung-Il Kim	Yonsei Univ.	Multicenter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robotic versus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gastric adenocarcinoma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Jun Haeng Lee	Sungkyunkwan Univ.	Survival benefit of additional surgery after noncurative endoscopic resection of early gastric cancer
Oh Kyoung Kwon	Kyungpook National Univ.	The impact of baselin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n the early recurrence (< 2 years) after curative surgery for gastric cancer.
Ji-Ho Park	Seoul National Univ.	Postoperative organ failure and in-hospital mortality after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Sang-Yong Son	Seoul National Univ.	Nutritional status after laparoscopic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for gastric cancer
Hoon Hur	Ajou Univ.	Novel discoidin domain receptor1 inhibitor, 7rh benzamide, alleviates the tumor growth, migration and invasiveness via suppression of collagen signal in gastric cancers
Bang Wool Eom	National Cancer Center	Optimal submucosal invasion of early gastric cancer for endoscopic resection
Young-II Kim	National Cancer Center	Lymph node metastasis risk according to the depth of invasion in early gastric cancers confined to mucosal layer

KINGCA Week 2015 Best Poster Award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Cheul Su Byun	Ajou Univ.	The risk factors for operative complications in elderly patients during totally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In Gyu Kwon	Keimyung Univ.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and worry of cancer recurrence between endoscopic and surgical treatment for early gastric cancer
Jee Eun Choi	National Cancer Center	Detection of submucosal invasion or lymphovascular invasion according to section intervals in early gastric cancer
Jieun Kim	Sungkyunkwan Univ.	Reduced port laparoscopic assisted distal gastrectomy with D2 lymphadenectomy for gastric cancer ; technical point of view
Jimin Min	Seoul National Univ.	Gastric carcinogenesis of miR-222/221 transgenic mouse

Presenter	Affiliation	Presentation Title
Ju-Hee Lee	Hanyang Univ.	Prognostic impact of preoperative endoscopic finding in gastric cancer patients
Jungwook Suh	Dankook Univ.	Laparoscopic truncal vagotomy and gatrojejunostomy for pyloric stenosis
Olga Kim	The Catholic Univ.	Gastrokine 1 inhibits gastrin-induced cell proliferation
Sang Hyuk Seo	Yonsei Univ.	Determination of proximal resection margin based on tumor characteristics in gastric cancer
Sang-Hoon Ahn	Seoul National Univ.	Solo single-incision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using a laparoscopic scope holder: comparative study with single-incision distal gastrectomy for early gastric cancer.
Seonmi Hwangbo	Kyungpook National Univ.	Prognostic value of postoperative tumor marker conversion in gastric cancer
Seung Hyun Lim	Yonsei Univ.	Prognostic nutritional index predicts short-term surgical outcome in gastric cancer
Si-Hak Lee	Pusan National Univ.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durations of adjuvant chemotherapy with its effects on overall survival and relapse free survival in stage II or III gastric cancer
Taeil Son	Eulji Univ.	Comparison of short-term operative outcomes of initial experiences of laparoscopic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among surgeons in different time period and specialized training.
Yeon-Ju Huh	Seoul National Univ.	Lymph node metastasis in mucosal gastric cancer: reappraisal of expanding indication for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Yung Hun You	CHA Univ.	Beginner surgeon's initial experience of distal gastrectomy with minimally invasive approach

KINGCA Week 2016 Best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Abstrct No.	Nationality
Tae Ha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VS01-01	Korea
Sang-Hoo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VS01-09	Korea

Presenter	Affiliation	Abstract No.	Nationality
Sang-Yong Son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OP01-03	Korea
Joong-Min Park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P02-07	Korea
In-Hwan Ki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OP03-03	Korea
Jeong-Hwa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P04-02	Korea
Daniel Reim	Technical University Munich	OP04-03	Germany
Jin Won Lee	Seoul St. Mary's Hospital	OP04-04	Korea
Asim Shabbir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P04-05	Singapore
Kuniaki Aridome	Saiseikai Sendai Hospital	OP04-06	Japan
In Seob Le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OP04-07	Korea
Jung Sun Ye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OP04-09	Korea
Hyoung-Il Kim	Severance Hospital	OP05-03	Korea
Chan Gyoo Kim	National Cancer Center	OP06-03	Korea
Yoon Young Choi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OP07-01	Korea
Yoshiki Taniguchi	Osaka University	OP08-02	Japan
Yeon-Ju Huh	Seoul National University	OP09-08	Korea
Daniel Reim	Technical University Munich	OP10-02	Germany

KINGCA Week 2016 Best Poster Award

Presenter	Affiliation	Abstract No.	Nationality
Zhanlong Shen	Peking University People's Hospital	PD1-5	China
Won Sang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D2-7	Korea
Sung Chan Kang	Hanyang University Hospital	PD3-1	Korea
Sung-Ho Jin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PD4-5	Korea
Sang-Ho Je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D5-1	Korea

Presenter	Affiliation	Abstract No.	Nationality
Taeil S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D6-3	Korea
Su-Ann Lui	National of University Hospital	PD7-5	Singapore
Su Mi Kim	Samsung Medical Center	PD8-2	Korea
Da Hyun Lyu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PD9-4	Korea
Keun Won Ryu	National Cancer Center	PD10-3	Korea
Hemasutha Kannessan	General Surgery Hospital Sungai Buloh, Ministry of Health	PD11-1	Malaysia
Do Hyun Jung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D12-3	Korea
Pei-Shih Hung	National Yang-Ming University Hospital	PD13-4	Taiwan
In Seob Lee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D14-6	Korea
Chang Hyun Kim	Incheon St. Mary's Hospital	PD15-5	Korea
Hyun Seung Kim	Haeunda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D16-5	Korea
Jae Seok Min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PD17-3	Korea
Sang-Yong Son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D18-1	Korea
Han Sin Boo	Penang General Hospital	PD19-6	Malaysia
Hye Seong Ahn	SNU-SMG Boramae Medical Center	PD20-3	Korea
Jung Hwan Lee	National Cancer Center	PD21-3	Korea

KINGCA Week 2017 Best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Ji Yeo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Seong-Ho K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Zhouqiao Wu	Peking University Cancer Hospital and Institute	China
Young Suk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Jae Seok Min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Cancer Center	Korea
Yukio Maezawa	Kanagawa Cancer Center	Japan
Sunpyo Lee	University of Ulsan	Korea
Hong Man Yoon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Hoon Hur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Sang Il Choi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Joo Young Cho	Cha Bundang Medical Center	Korea
Xingyu Feng	Guangdong General Hospital	China
In Seob Lee	Asan Medical Center	Korea
Jong Won Kim	Gangnam Severance Hospital	Korea
Jong-Ho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Dong Jin Park	Ulsan University Hospital	Korea
Dong Jin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Jae-Moon Bae	Samsung Medical Center	Korea
Joong-Min Park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Korea
Zifeng Yang	Guangdong General Hospital	China
Tae Ha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Su Mi Kim	Samsung Medical Center	Korea
Dongbaek Kang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Korea
Beom Su Kim	Asan Medical Center	Korea

KINGCA Week 2017 Best Poster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Jaeun Lee	Yonsei University	Korea
Kyong Hwa J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Ho Seok Se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Ye Seob Jee	Dankook University Hospital	Korea
Dayna Wei Wei Yo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Madhusudhanan Devanathan	Esoindia	India
Myoung Won Son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Korea
Oh Jeo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Ho-Jung Shin	Ajou University Hospital	Korea
Byunghyuk Y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Takanobu Yamada	Kanagawa Cancer Center	Japan
Ji Yeo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Sang-Yong Son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KINGCA Week 2017 Travel Grant

Nationality	Name	Affiliation	Grant
China	Jie Chen	Fudan University Shanghai Cancer Center	\$500
China	Xingyu Feng	Guangdong General Hospital, Guangdong Academy of Medical Sciences	\$500
China	Zifeng Yang	Guangdong General Hospital, Guangdong Academy of Medical Science	\$500

Nationality	Name	Affiliation	Grant
India	Balakumaran Sathyamoorthy	Madras Medical College	\$500
India	Madhusudhanan Devanathan	St Isabel Hospital, Chennai	\$500
India	Mohammed Nishar	Chengalpattu Medical College	\$500
India	Rajendran Vellaisamy	Eso India	\$500
India	Sankar Narayanan	Sri Ramachandra University	\$500
India	Shankar Narayanan	Sri Ramachandra University	\$500
Mongolia	Erkhembayar Enkhbat	National Cancer Center Mongolia	\$500
Mongolia	Tuvshin Bayasgalan	National Cancer Center Mongolia	\$500
Russia	Olga Ilina	University of Malaya Medical Centre	\$500
Singapore	Dayna Wei Wei Yo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entre	\$500
Singapore	Guowei Kim	Services Hospital Lahore	\$500
total			\$7,000

KINGCA Week 2018 Best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Tae Han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Sang Yun Kim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Hyuk-Jo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Sang-Woong Lee	Osaka Medical College Hospital	Japan
Mengya Yu	Guangdong General Hospital	China
Wei Wang	Guangdong Provincial Hospital of Chinese Medicine	China
Seung Yong Shi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Oh Jeo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Hoon Hur	Ajou University	Korea
Yakun Wang	Peking University Cancer Hospital	China
Minah Cho	Yonsei University	Korea
Rene Ronson 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Seong-Ho K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on Young Choi	Yonsei University	Korea
Myoung Won Son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Korea
Bang Wool Eom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Taeil Son	Yonsei University	Korea
You Na Kim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In-Hwan Kim	Daegu Catholic University	Korea
Hao Xu	The First Affiliated Hospital of Nanjing Medical University	China
Yunni Jeong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Kazuyoshi Yamamoto	Osaka International Cancer Institute	Japan
Hasan Ali	Shaukat Khanum Cancer Hospital	Pakistan
Sang-Ho Je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Emma Gertsen	University Medical Center Utrecht	Netherlands
Junhun Cho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Beom Su Kim	University of Ulsan	Korea
Chae Dong Lim	Soon Chun Hyang University	Korea
Sang-Hoo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Edmund Orlina	Yonsei Severance Hospital	Korea

KINGCA Week 2018 Best Poster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Shinichi Umeda	Nagoy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Japan
Jiwon Ko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Amy Kim	University of Ulsan	Korea
Nicholas Syn	University Surgical Cluster	Singapore
Sang-Yong Son	Ajou University	Korea
Hugo Santos-Sousa	São João Medical Center	Portugal
Byunghyuk Y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lgok Hospital	Korea
Batsaikhan Bat-Erdene	MNUMS	Mongolia
Anindita De	Research Scholar	India
Geum Jong Song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Korea
Jan Andrew Bueno	University of Santo Tomas Hospital	Philippines
Visvarath Varadarajan	Sri Ramachandra University	India
Chang In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Takuma Ohashi	Cancer Institute Hospital	Japan
Jae Seok Min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Korea
Ki Bum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Sho Sato	Yokohama City University	Japan
Siaw Hui Ha	Penang Hospital Malaysia	Malaysia
Kelvin Voon	Penang Hospital	Malaysia
Hui Ying Khoo	Ministry of health	Malaysia
Chang Min Lee	Korea University	Korea
Jung Hwan Lee	Inha University Hospital	Korea

KINGCA Week 2018 Travel Grant

Nationality	Name	Affiliation	Grant
Canada	Yunni Jeong	University of Toronto	\$500
China	Mengsha Tong	National Center for Protein Sciences	\$500
China	Wenwen Huang	Peking University Cancer Hospital & Institute	\$500
China	Xiaotian NI	National Center for Protein Sciences	\$500
China	Run-Cong Nie	Sun Yat-sen University Cancer Center	\$500
China	Xuechao Liu	Sun Yat-sen University Cancer Center	\$500
India	Kalayarasan Raja	JIPMER	\$500
India	Gaurav Das	Cancer Institute (Wia)	\$500
India	Anindita De	JSS college of Pharmacy	\$500
India	Sathasivam Subramani	Madras medical college	\$500
Japan	Tatsuto Nishigori	Kyoto University	\$500
Japan	Yoshiaki Shoji	Cancer Institute Hospital, Japanese Foundation for Cancer Research	\$500
Japan	Kenta Iguchi	Yokohama City University Medical Center	\$500
Malaysia	Hui Ying Khoo	Penang Hospital	\$500
Malaysia	Puteri Atiqah Syaqla Mohd Sharif	Sarawak General Hospital	\$500
Malaysia	Kelvin Voon	Penang Hospital	\$500
Mongolia	Bayasgalan Luvsandagva	Ulaanbaatar Songdo Hospital	\$500
Mongolia	Batsaikhan Bat-Erdene	Mnums	\$500
Nepal	bishnu kandel	TU Teaching hospital	\$500
Netherlands	Emma Gertsen	University Medical Center Utrecht	\$500
Pakistan	Hasan Ali	Shaukat Khanum memorial Cancer Hospital and Research Centre	\$500

Nationality	Name	Affiliation	Grant
Philippines	Jan Andrew Bueno	University of Santo Tomas Hospital	\$500
Philippines	Rene Ronson Ang	Cebu Doctors' University Hospital	\$500
Portugal	Hugo Santos-Sousa	University of Porto	\$500
Russia	Olga Ilina	Clinical Hospital #1 Medsi	\$500
Egypt	Anas Saad	Ain Shams University	\$500
total			\$13,000

KINGCA Week 2019 Best Plenary Oral Presentation Award

Ranking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First	Hoon Hur	Ajou Univeristy School of Medicine	Korea
Second	Kyoung-Yun 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Vladimir Khomiakov	P .A. Herzen Moscow Research Oncological Institute	Russia
Third	Seong-Ho K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In Seob Le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Korea
	Kyung Won Seo	Kosin University	Korea
Third	Menglin Nie	Peking University Cancer Hospital	China
	Jian-Xian Lin	Fujian Medical University Union Hospital	China
	Hong Jin Yo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KINGCA Week 2019 Best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Shin-Ho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Taeil S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Jung Ho Park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Sa-Hong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Bang Wool Eom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Young Suk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Sang-Yong Son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Kyo Young So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Tao Fu	Beijing Cancer Hospital	China
Joong-Min Park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Daniel Reim	Klinikum Rechts der Isar, TUM School of Medicine	Germany
Won Jun Seo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Yong Min N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Korea
Chang Seok Ko	Asan Medical Center	Korea
Jong-Ho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Young Min Kim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ang-Hoo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Ji-Ho Par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KINGCA Week 2019 Best Poster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Yoon Young Choi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Korea
Tomoyuki Wakahara	Yodogawa Christian Hospital	Japan
Hyun Tae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Jae Seok Min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Korea
Guoming Chen	Sun Yat-Sen University Cancer Center	China

KINGCA Week 2019 Travel Grant

Nationality	Name	Affiliation	Grant
China	Biao Fan	Peking University Cancer Hospital & Institute	\$500
China	Guoming Chen	Sun Yat-sen University Cancer Center	\$500
China	Hongyue Jiang	Zhongshan Hospital, Fudan University	\$500
China	Jian-Xian Lin	Fujian Medical University Union Hospital	\$500
China	Yun Li	Jinling Hospital, Nanjing University	\$500
China	Tao Fu	Peking University Cancer Hospital	\$500
China	Tianzhou Liu	The Second Hospital of Jilin University	\$500
China	Xinzu Chen	West China Hospital, Sichuan University	\$500
China	Xuechao Liu	Sun Yat-sen University Cancer Center	\$500
China	Zhiming Ma	The second hospital of Jilin university	\$500
Hong Kong	Bofei Li	University of Hong Kong	\$500
India	Balaji Jayaraman	Kims, Tamilnadu Dr.M.G.R Medical University	\$500
India	Dilip Kumar Pulluru Rajasekhar	Kims, Tamilnadu Dr.M.G.R Medical University	\$500
India	Supreeth Kumar Reddy Kunnuru	Narayana Medical College	\$500
Mongolia	Altantugs Lodoitogmid	General Hospital	\$500
Mongolia	Bayasgalan Luvsandagva	UB Songdo Hospital	\$500
Mongolia	Demberel Baasanjav	Central military hospital	\$500
Mongolia	Nyambayar Oyunchimeg	MNUMS	\$500
Mongolia	Odbaatar Myagmar	Intermed Hospital of Mongolia	\$500
Mongolia	Tseren-yudon Shirchinjav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500
Mongolia	Tungalag Byambadorj	Intermed Hospital of Mongolia	\$500

Nationality	Name	Affiliation	Grant
Nepal	Punyaram Kharbuja	Bhaktapur Cancer Hospital	\$500
Philippines	Bernice Navarro	St. Luke's Medical Center-Global City	\$500
Russia	Vladimir Khomiakov	P.A. HSRzeii Moscow Rcsarcldi Oncological	\$500
Singapore	Chia Hui Tai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ngapore	\$500
Singapore	Prabhu Nesargikar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500
Singapore	Xuan Gleaves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500
total			\$13,500

KINGCA Week 2020 Best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Sung Eun Oh	Sungkyunkwan Univ.	Korea
Xiangqian Su	Peking Univ. Cancer Hosp. & Institute	China
Sejin Lee	Yonsei Univ.	Korea
Yoon Jung Oh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Hoon Hur	Ajou Univ.	Korea
Shin-Hoo Park	Seoul National Univ. Hosp.	Korea
Taeheon Lee	Sungkyunkwan Univ.	Korea
Chul Kyu Roh	Yonsei Univ.	Korea
Hong Jin Yoon	Yonsei Univ.	Korea
Ji-Hyeon Park	Seoul National Univ. Hosp.	Korea
Kyung Ho Pak	Hallym Univ.	Korea
Shin Hee Lee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You Jeong Heo	Sungkyunkwan Univ.	Korea
In Gyu Kwon	Yonsei Univ.	Korea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Ki Bum Park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Yoon Ju Jung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Sung Eun Oh	Sungkyunkwan Univ.	Korea
Abdulrahman Albakheet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Amy Kim	Korea Univ.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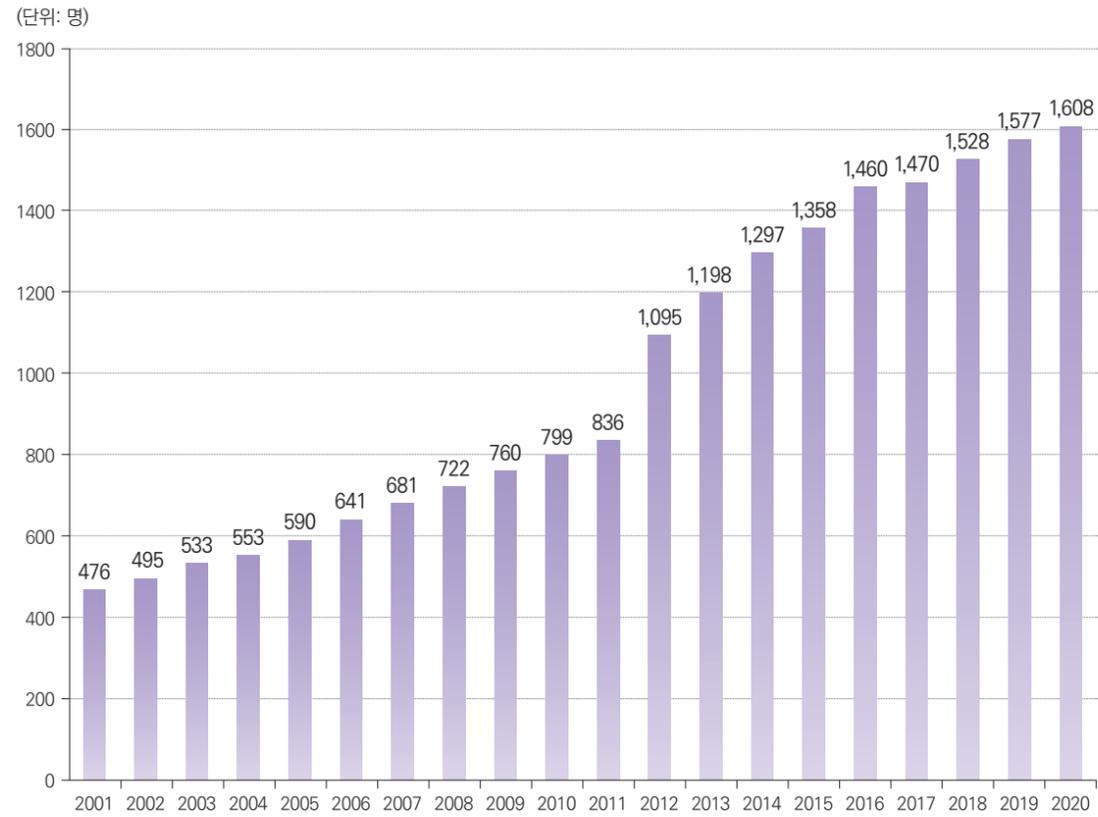
KINGCA Week 2020 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Jung Hwan Yoon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Dong-Hyuck Ba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orea
Dae Young Zang	Hallym Univ.	Korea
Jong Hwan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orea
You Jeong Heo	Sungkyunkwan Univ.	Korea
David Hyunjoong Kim	Univ. of British Columbia	Canada
Sanghyeok Park	Seoul National Univ. Bundang Hosp.	Korea
Sang-Yong Son	Ajou Univ.	Korea
Chul Hyo Jeon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In Gyu Kwon	Yonsei Univ.	Korea
Shin-Hoo Park	Seoul National Univ. Hosp.	Korea
Sangchul Yun	Soonchunhyang Univ.	Korea
Ji-Hyeon Park	Seoul National Univ. Hosp.	Korea
Oh Jeong	Chonnam National Univ.	Korea
Sojung Kim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Presenter	Affiliation	Nationality
Sang-Ho Jeong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Jin Ha Chun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rea
Kyeong-Won Ryu	Sungkyunkwan Univ.	Korea
Kavin Chakravarthy	Rajiv Gandhi Government General Hosp.	India
Tae-Han Kim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Chang Seok Ko	Univ. of Ulsan	Korea
Avinash D Suresh	Sri Ramachandra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SRIHER)	India
Ji Eun Na	Sungkyunkwan Univ.	Korea
Jung Hwan Lee	Inha Univ.	Korea
Young-II Kim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Dong-Hoe Koo	Sungkyunkwan Univ.	Korea

9 회원 통계

대한위암학회 총회원 수



출처: 상임이사회 회익록

10 회원 명부

정회원, 2021년 8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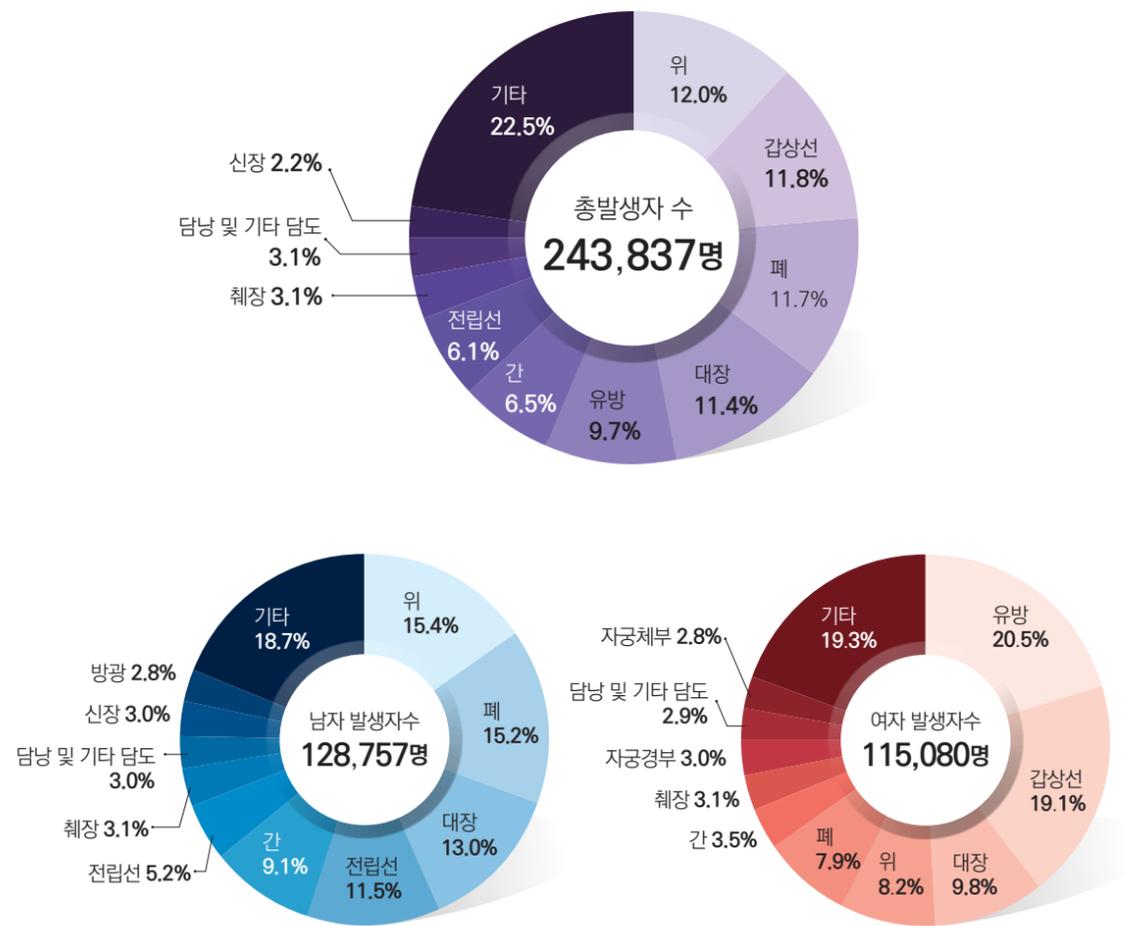
강길호	강동백	강동연	강명원	강상윤	강석윤	강소현	강욱호	강유나	강윤구	강지훈	강현진	강형근
강혜진	고경훈	고대경	고수중	고원진	고윤호	고정현	고종현	고창석	고창석	공상기	공성찬	공성호
공충식	공필성	곽윤진	구기범	구동희	구철	국명철	권성준	권수인	권오경	권용환	권인규	권혁찬
금융섭	기세국	기현정	길태환	김가희	김갑배	김갑중	김강성	김경래	김경미	김경민	김경태	김경환
김곤홍	김광용	김광하	김광희	김규열	김규중	김기한	김기현	김기호	김나영	김남규	김대성	김대현
김대한	김대훈	김도하	김도훈	김동욱	김동의	김동준	김동진	김동헌	김동환	김명호	김민규	김민정
김민찬	김범수	김병석	김병수	김병식	김보석	김부성	김빛나리	김사라	김사영	김사홍	김상국	김상균
김상운	김상진	김상현	김선필	김성	김성곤	김성근	김성수	김성수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환
김성환	김성후	김세룡	김세원	김세진	김소정	김수미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승남	김승주	김시영
김신곤	김신혁	김아미	김열홍	김영식	김영우	김영일	김영진	김영철	김옥란	김완수	김완식	김용배
김용석	김용수	김용일	김용진	김용호	김우호	김욱	김원곤	김유경	김유나	김유민	김유석	김윤홍
김은영	김익수	김인환	김일명	김자연	김재광	김재규	김재선	김재왕	김재준	김재훈	김정구	김종대
김종석	김종원	김종준	김종한	김준미	김준성	김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봉
김진영	김진원	김진조	김찬규	김찬영	김찬용	김창현	김철우	김충배	김치호	김태균	김태봉	김태용
김태한	김태현	김태환	김택현	김평수	김학진	김한수	김한수	김해성	김해영	김현일	김형길	김형수
김형일	김형주	김형호	김호균	김호연	김홍	김홍주	김희원	김희성	나건형	나희경	남명진	남윤환
노건호	노경빈	노병선	노상영	노성훈	노승무	노재경	노재형	노준양	노철규	노태호	도영우	도인규
라기혁	라선영	류근원	류민희	류병운	류성엽	류승완	류승지	류영근	류훈	맹치훈	명대성	목영재
목우균	문덕진	문한림	문현중	문희석	민병훈	민사홍	민영돈	민영일	민재석	민현식	박경태	박경호
박기범	박기범	박기호	박낙순	박대근	박도중	박동균	박동진	박민재	박민정	박상곤	박상우	박성길

박성수	박성훈	박성흠	박세혁	박세훈	박숙련	박승만	박승배	박신혜	박신후	박영규	박영석	박용선
박용은	박용진	박용환	박우배	박원상	박원종	박원철	박유환	박재균	박재명	박재준	박정훈	박조현
박종민	박종익	박종재	박종훈	박종민	박지연	박지현	박지호	박지훈	박진현	박찬국	박찬욱	박찬일
박찬혁	박창균	박호철	박홍기	박효원	박효준	방호윤	방희재	배병조	배상호	배성준	배재문	배정민
백광호	백상현	백승언	백용해	변재영	변철수	복진현	서경원	서병선	서병조	서상혁	서수지	서안나
서용준	서원준	서윤석	서인수	서정은	서종덕	서해현	서형민	서호석	선장원	설지영	성관수	소설
손명원	손병호	손상용	손수상	손영길	손우현	손태성	손태일	손해정	송가원	송교영	송근암	송근영
송금종	송락종	송민상	송봉일	송선교	송성환	송순영	송시영	송영진	송재원	송정호	송창수	송향미
신동규	신동우	신루미	신범식	신상현	신석환	신숙희	신언성	신연명	신종태	신준호	신철민	신현백
신혜아	신호정	심결	심문섭	심선진	심정호	심찬섭	심창식	심호식	안경호	안대호	안병권	안상정
안상훈	안수민	안영재	안재봉	안지영	안지용	안창욱	안혜성	안홍석	양대현	양동휘	양두현	양송이
양시준	양웅석	양유성	양윤수	양준영	양한광	양현승	양호철	양효준	엄두섭	엄방울	엄상수	여민경
여진연	오병렬	오상철	오상훈	오성수	오성은	오성일	오성진	오세열	오세욱	오수혁	오승영	오승종
오우진	오윤정	오정아	오혜정	우인숙	원용준	유문원	유병은	유병혁	유승훈	유영선	유완식	유재영
유종선	유준식	유한모	유항중	유환영	육정환	윤기영	윤미진	윤상일	윤상진	윤상철	윤석호	윤세욱
윤영호	윤종만	윤종혁	윤지훈	윤형선	윤호근	윤호영	윤홍만	윤효영	이강행	이경구	이경영	이근욱
이길연	이대성	이동수	이동우	이명수	이명재	이문수	이문수	이문희	이병언	이병욱	이봉화	이상길
이상림	이상억	이상인	이상일	이상준	이상혁	이상호	이상훈	이선경	이선영	이선표	이세열	이세진
이솔	이수민	이승도	이승범	이승수	이승우	이시학	이연재	이영석	이영준	이용찬	이용현	이우용
이운기	이원섭	이원재	이윤택	이은주	이인규	이인섭	이재정	이재환	이재훈	이정균	이정선	이정연

이정훈	이정훈	이종명	이종서	이종석	이종열	이종인	이종태	이종훈	이주현	이주호	이주희	이준행
이준현	이준호	이종호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원	이진혁	이창민	이채윤	이총식	이태훈	이하예민
이한홍	이해완	이향란	이현영	이혁	이혁준	이현석	이혜경	이혜란	이혜승	이혜정	이호원	이효원
이효준	이희은	임광일	임근우	임도훈	임만섭	임명훈	임상우	임석아	임승현	임정택	임준석	임진호
임진홍	임채선	임효근	장대영	장민호	장석원	장연수	장영광	장용웅	장유진	장은숙	장일성	장재천
장정문	장진석	장태수	전경모	전경화	전성우	전시열	전시열	전철효	전태용	전해명	전홍재	전후완
전훈재	정갑중	정국현	정귀애	정규병	정대영	정덕환	정도현	정문기	정미란	정민규	정병욱	정상영
정상호	정성아	정순재	정영일	정오	정우진	정원석	정원제	정윤아	정윤주	정윤삼	정의철	정인호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종길	정준모	정준환	정중기	정지윤	정진호	정창욱	정현	정현재	정현철
정형중	정혜연	정혜원	정호영	정훈용	정희철	조국현	조규석	조동훈	조동휘	조민아	조부관	조성일
조성진	조수정	조용관	조원영	조익행	조인	조장호	조장환	조주영	조준민	조준식	조준형	조지웅
조지훈	조태용	조현진	조형원	주문경	주상언	주영은	주재환	주홍재	지경천	지성배	지에섭	지훈상
진성호	진윤태	진형민	차성재	채경래	채현동	천정우	천종률	최강국	최경운	최경진	최경현	최규완
최기돈	최동욱	최문기	최민규	최병수	최병인	최서희	최석렬	최성일	최성호	최성호	최성희	최세림
최승호	최승호	최승휘	최아름	최용환	최원범	최원영	최원용	최원진	최원혁	최유신	최윤백	최윤영
최은혜	최일주	최재호	최정식	최종상	최종호	최지윤	최정인	최천규	최철용	최치훈	최필조	최황
태창원	하광일	하동엽	하륜경	하만호	하우송	하종원	하창윤	하태경	하태권	하태순	한구용	한기빈
한동석	한민수	한상문	한상욱	한성원	한세웅	한승호	한원호	한준구	한혜숙	함기백	허건웅	허경열
허연주	허윤석	허진석	허훈	형우진	홍부환	홍성권	홍수진	홍영선	홍원선	홍인철	홍정훈	황보선미
황성근	황성호	황순휘	황윤선	황의강	황인규	황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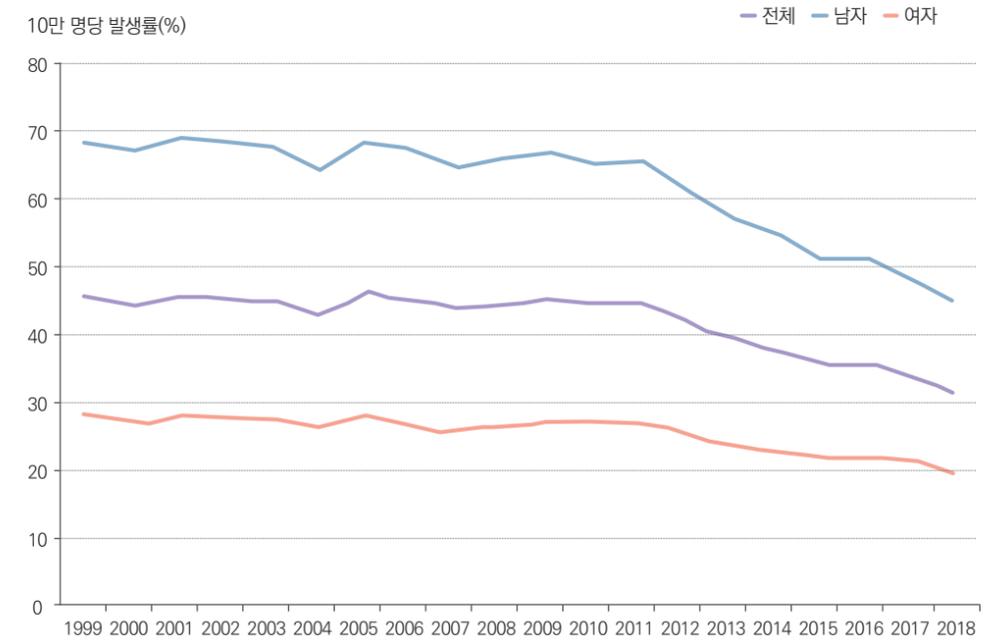
11 위암 관련 전국 통계

2018년 주요 암종 발생분율



출처: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

1998~2018년 위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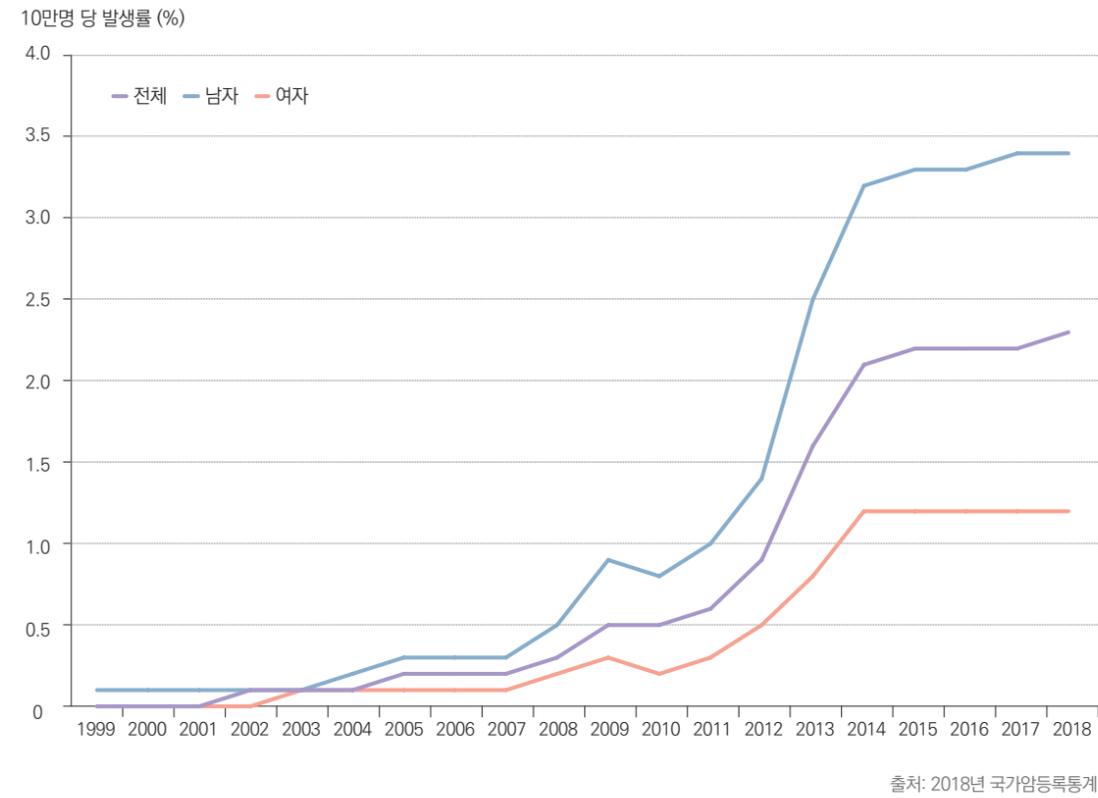
연령표준화발생률: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구분	발생기간	최근 추이	
		연간% 변화율	연간% 변화율
전체	2011~2018년	-4.6*	남자(-5.0*)
			여자(-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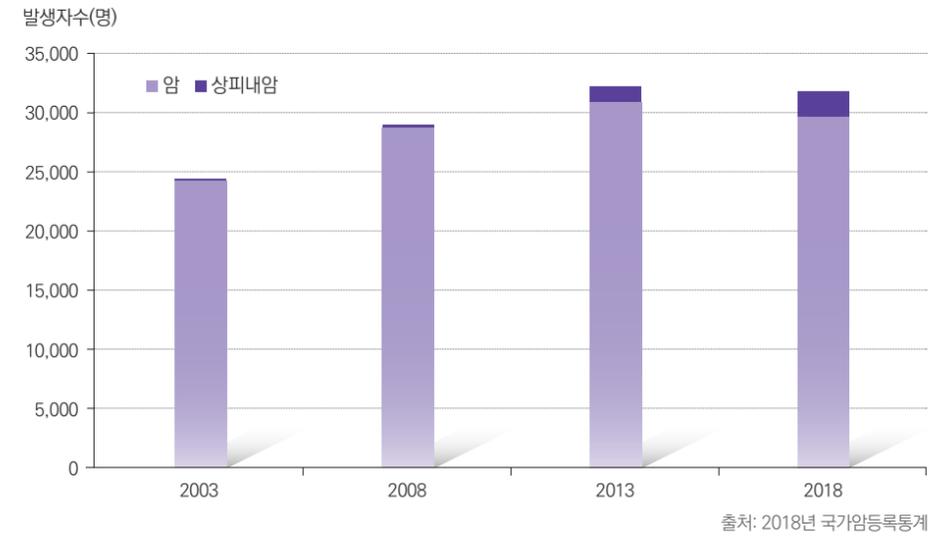
* p < 0.05

출처: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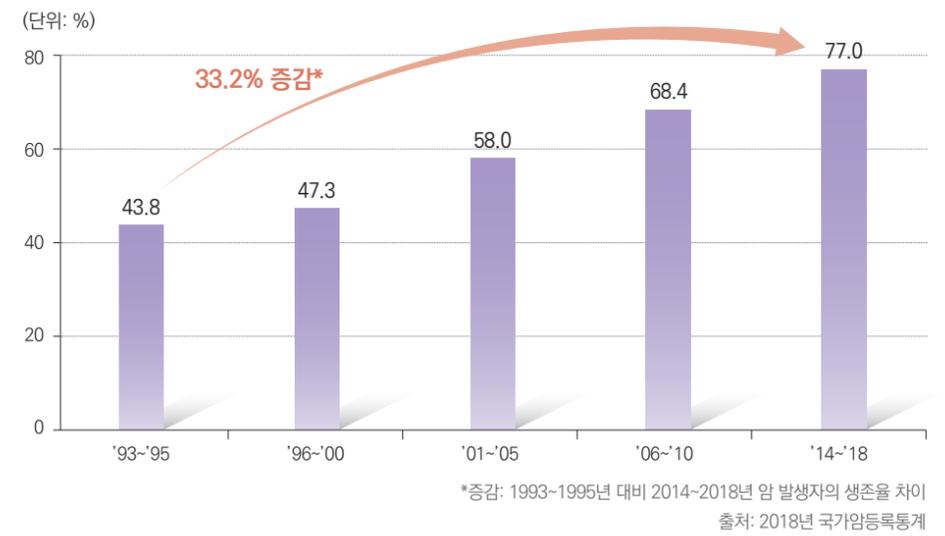
1999~2018년 위상피내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위암 및 위상피내암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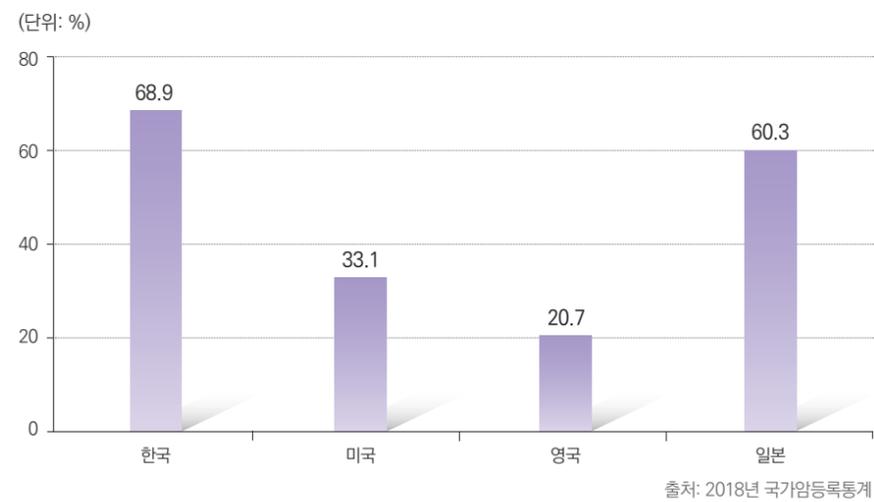
위암 5년 생존율 추이



위암 요약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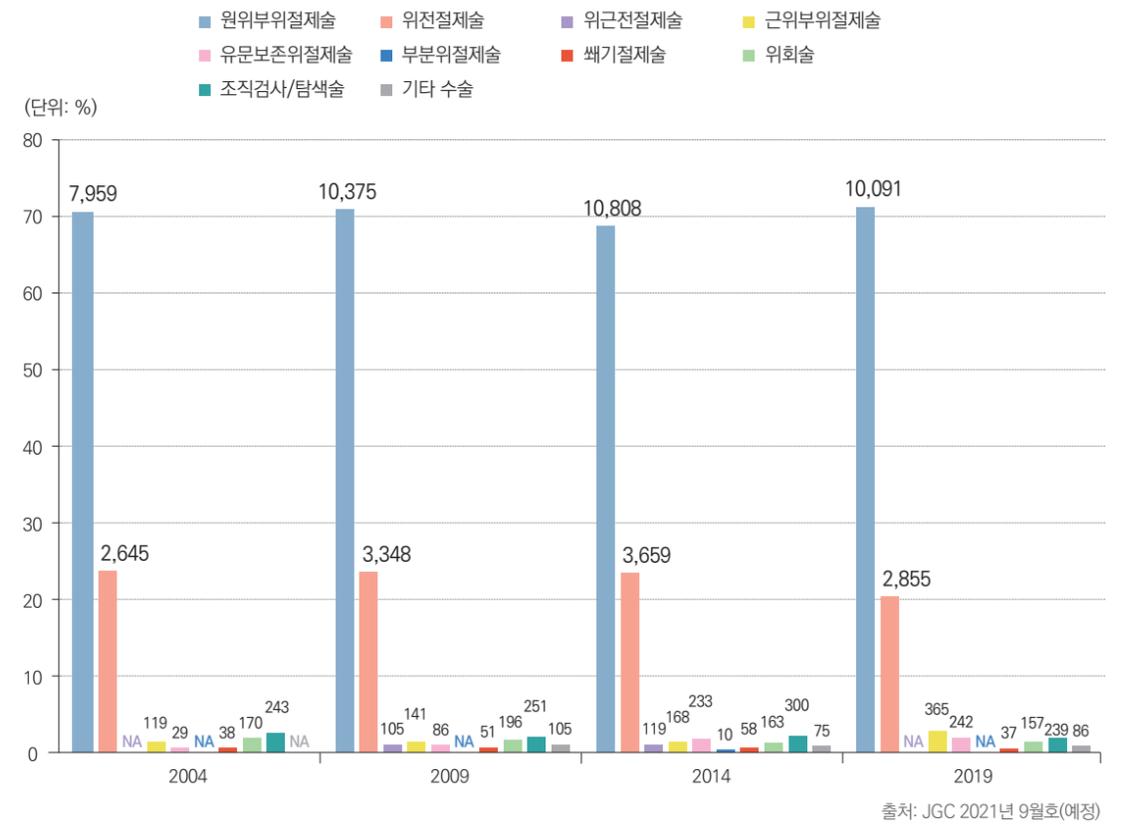


위암 5년 생존율 국제 비교(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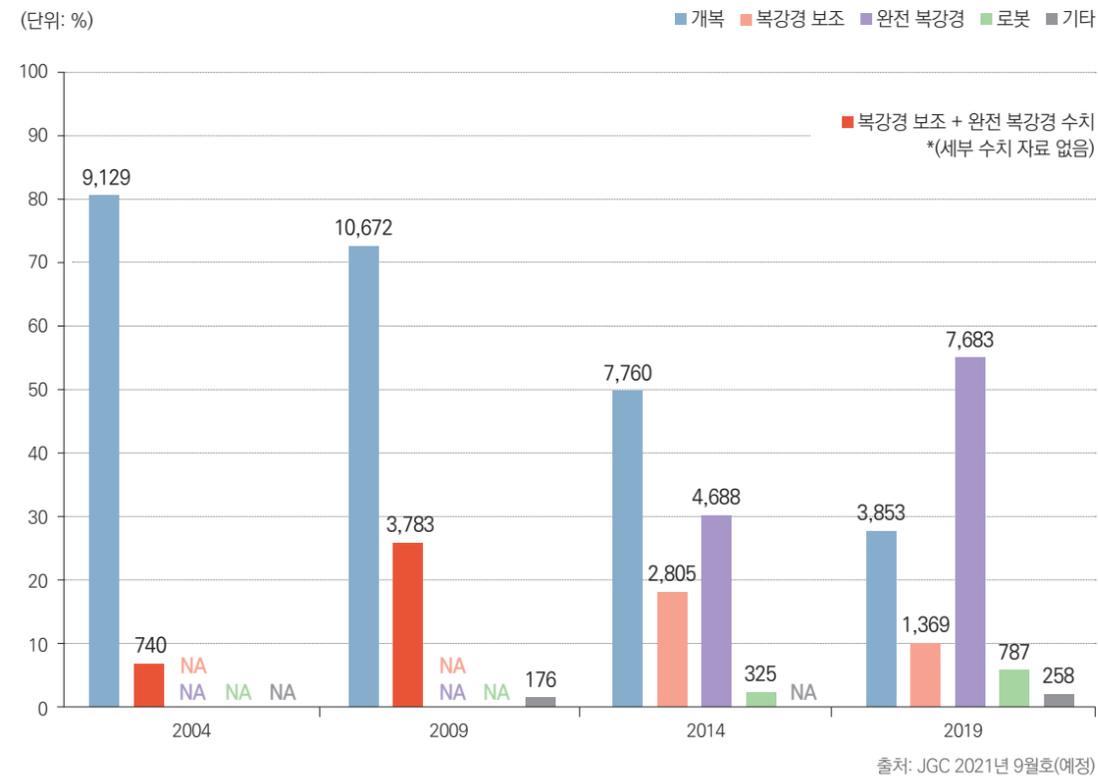


위암 수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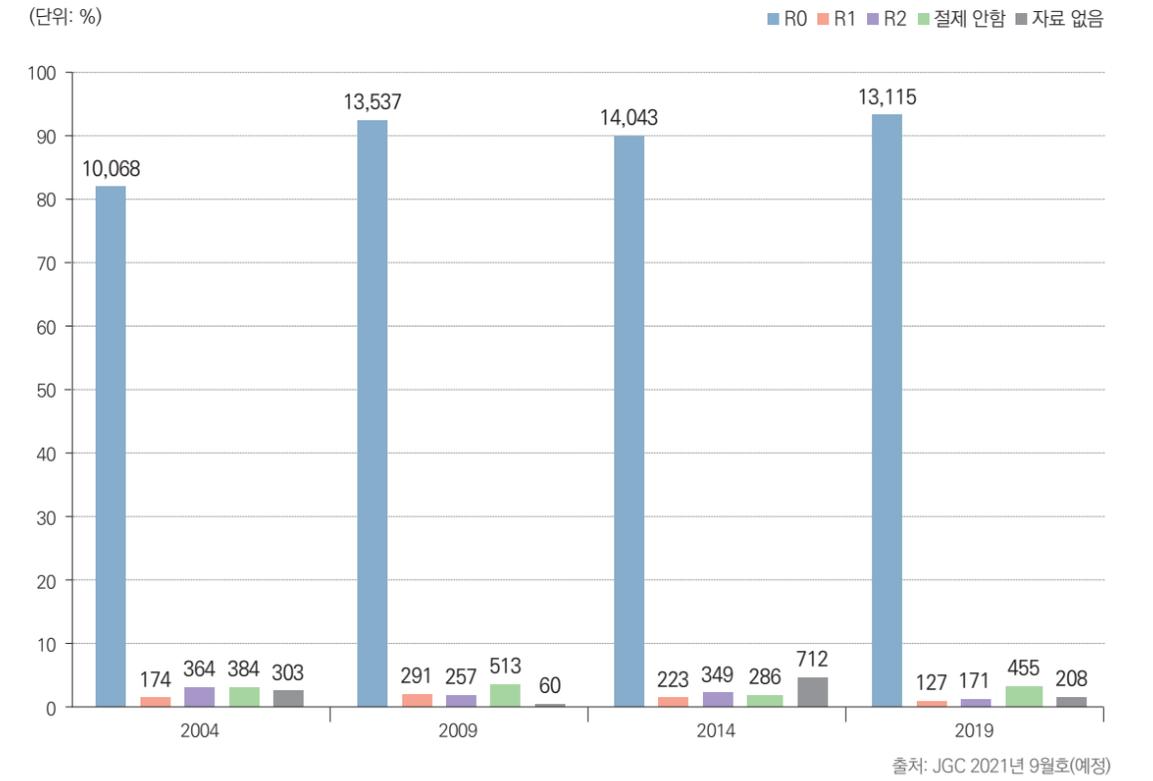
1. 수술 방법 별 추이



2. 접근 방법별 추이



3. 근치 여부별 추이



胃癌研究

1993.11.6



1. 국내·국제 학술대회
2. 임원 및 이사회
3. 기타



1996~2021

대한위암학회 25년사
화보

1. 국내·국제 학술대회



대한위암연구회 제3회 학술대회(서울 롯데호텔, 1994.7.29, 이종인 교수 제공)



WHO-CC for Gastric Cancer(서울 롯데호텔, 1996.9.9-12, 목영재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제9회 학술대회(서울 롯데월드호텔, 1997.11.8, 박조현 교수 제공)



제3회 IGCC(서울 롯데호텔, 1999.4.27-30, 목영재 교수 제공)



국내·국제 학술대회



대한위암학회 제15회 춘계학술대회(서울 롯데호텔, 2003.4.19, 손수상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제16회 추계학술대회(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003.11.7, 박조현 교수 제공)



제 5회 IGCC(이탈리아 로마, 2003.5.4~7, 서병조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서울 롯데호텔, 2004.4.24, 손수상 교수 제공)

국내·국제 학술대회



대한위암학회 제19회 춘계학술대회(서울 롯데호텔, 2005.4.9, 박조현 교수 제공)



제7회 IGCC(브라질 상파울루, 2007.5.9~12, 지경천, 목영재 교수 제공)



국내·국제 학술대회



대한위암학회 제25회 춘계학술대회(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008.4.11~12, 김성근 교수 제공)



제8회 IGCC(폴란드 크라쿠프, 2009.6.10~13, 박경호 교수 제공)



국내·국제 학술대회



2009 제 81회 JGCA(일본 교토, 2009.5.7~8, 손수상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제29회 춘계학술대회(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010.4.23~24, 김성근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제33회 학술대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3.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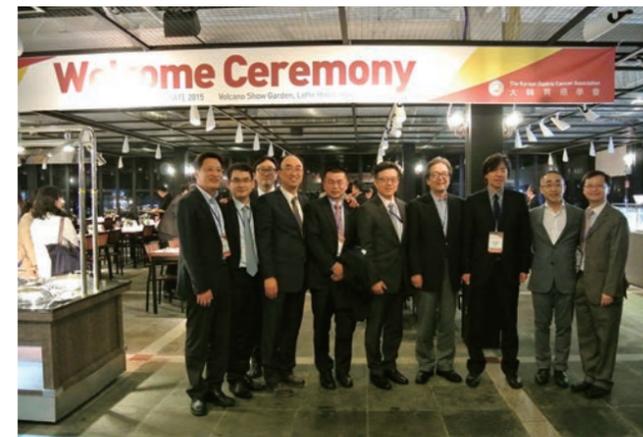
국내·국제 학술대회



대한위암학회 제34회 학술대회(대구 인터불고호텔, 2013.4.24~27, 배정민, 박조현 교수 제공)



KINGCA Week 2015(제주 롯데호텔, 2015.4.2~4)



KINGCA Week 2014(대전 컨벤션센터, 2014.5.15~17, 박조현 교수 제공)



제86회 JGCA(일본 요코하마, 2014.3.20~22, 박조현 교수 제공)

국내·국제 학술대회



KINGCA Week 2016(서울 롯데호텔, 2016.4.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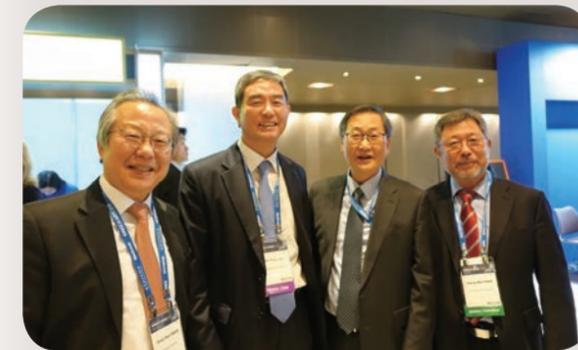
국내·국제 학술대회



KINGCA Week 2017(부산 벡스코, 2017.3.23-25)



KINGCA Week 2018(서울 그랜드위커행호텔, 2018.4.26-28)



국내·국제 학술대회



KINGCA Week 2019(송도 컨벤시아, 2019.4.11~13)



국내·국제 학술대회



KINGCA Week 2019(송도 컨벤시아, 2019.4.11~13)



국내·국제 학술대회



KINGCA Week 2020(서울 롯데호텔, 2020.8.3-5)



2. 임원 및 이사회



대한위암학회 임원(2001, 손수상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임원(2005)



임원 워크숍(부산 롯데호텔, 2011.10.6, 박조현 교수 제공)



상임이사회(2011.4.12)

임원 및 이사회



상임이사회(2012.2.21)



상임이사회(2013.1.15)



임원 및 상임이사 워크숍(2013.7.12-13, 박조현 교수 제공)

임원 및 이사회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2016.4.2)



정기이사회(2018.4.3)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2016.4.2)



임원 및 이사회



정기이사회(2019.3.18)



정기이사회(2020.7.3)



3. 기타



제3회 서울국제암심포지움(제주 신라호텔, 1990.7.28, 이종인 교수 제공)



김진복 교수 위암교과서 및 자서전(목영재 교수 제공)



KLASS 제5차 학술대회(대구 계명대, 2007.3.10, 손수상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회원카드											
성명	한	문	영	문	성명	한	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입회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입회일		년	월	일
의사양치번호	연회비		년	월	일	의사양치번호	연회비		년	월	일
전화번호	직업	직위	직위	직위	전화번호	직업	직위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출생	출생	출생	출생	출생	출생	출생	출생	출생	출생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대한위암학회 회원카드(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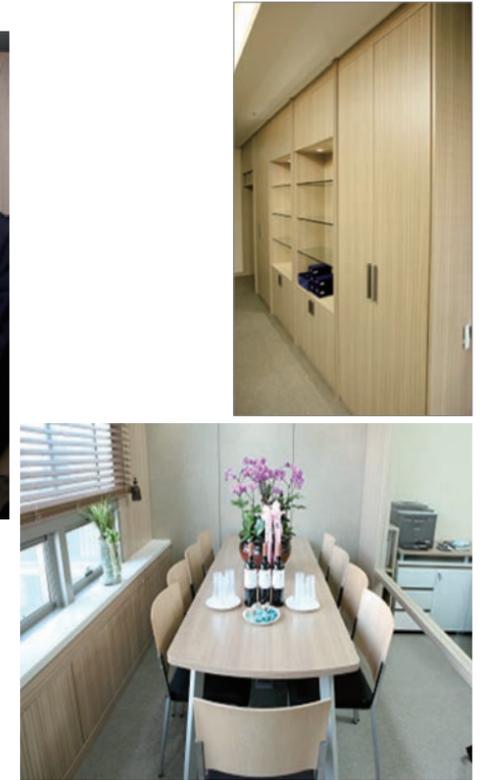
기타



KLASS 워크숍(서울대병원, 2007.6.2, 손수상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사무실 오픈(2011.6.14, 목영재 교수 제공)



REGATTA trial 워크숍(2009.2.18, 박조현 교수 제공)

대한 위 암 학 회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110-999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92(산문로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616호
Tel. 02-730-3760 / Fax. 02-730-3763 / E-mail. kgca@kgca-1.or.kr

문서번호 : 대위학 제 2014-018 호
시행일자 : 2014. 04. 28
수 신 :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제 목 : 림프절 정소술의 상대가치점수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건의

대한외과학회 정 상설 이사장님께,

어느새 매서운 추위를 떨치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는가 싶더니 봄꽃과 개나리가 한꺼번에 개화할 정도로 꽤 이른 초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는 만큼 우리 외과의 환로도 화창하게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위암학회에서는 이번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 중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림프절 절제술 상대가치 점수체계로 생각하게 될만한 점이 있음을 엄중하게 지적하며 모회인 대한외과학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암수술을 시행하는 산학 분과학회에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대한외과학회가 주도적으로 원칙을 세워 해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학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대한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이 학내에 다다랐습니다. 상대가치점수 체계는 2000년도 도입되어 2001년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2008년 제1차 개정을 거쳐 약 2년 전부터 제2차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2차 개정 작업의 주요 핵심은 전공의 지원 기피 대상이 상회되고 있는 외과계열 진료비 수가의 현실화, 위암에진 행위 업무량 서열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파되었던 고되고 어려운 눈의와 과정 속에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에 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인 점검 과정에 와 있습니다.

[문제점]
위암으로 위절제술과 함께 꼭 진행되어야 하는 림프절 정소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지나친 저평가의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위암 외에도 림프절 정소술 시행하여야 하는 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부인과암 등 합

2차 상대가치개정 외과건의문(2014, 박조현 교수 제공)



위암대국민 건강강좌(제주대병원, 2015.4.1, 김성근 교수 제공)

기타



대한위암학회 몽골방문(2017.2, 김성근 교수 제공)



자문위원단 사전보고 모임(2017.3.14, 박조현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회의실 개소식(2017.3.6, 김성근 교수 제공)



특투 위암 토크콘서트(페럼타워홀, 2018.10.12, 김성근 교수 제공)

기타



대한위암학회 후원 건강강좌(여의도성모병원, 2018.5.24, 김성근 교수 제공)



KARS 학술대회(대전컨벤션센터, 2018.6.9, 김성근 교수 제공)



KOQUSS 심포지움(서울대병원, 2019.5.25, 김성근 교수 제공)

대한위암학회 연표

1989~2021



- 1989년 10월 대한외과학회 산하 위암연구회 모임 시작(장소: 연희동 석란 한정식)
- 1993년 7월 위암의 기재규약 공청회(장소: 서울대병원 지하A강당)
 - 11월 대한위암연구회 창립(초대 회장 김진복), 제1회 대한위암연구회 학술집담회(장소: 잠실 롯데호텔 3층 Jade)
- 1996년 9월 세계보건기구 위암공동연구회 제12차 위암국제회의 및 6차 총회 개최(WHO-Collaborating Center for Gastric Cancer - 12th International Seminar and 6th General Assembly)
 - 11월 대한위암학회 발족(초대 회장 김진복), 제9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위암연구회 정기 학술대회 회차 계승)
- 1999년 4월 제3회 국제위암학회(3rd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 개최(장소: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2000년 4월 제2대 회장 민진식 취임
- 2001년 3월 대한위암학회지 제1권 제1호 창간, 전국위암등록사업 시작
- 2003년 3월 전국 위암진료현황에 관한 조사
 - 4월 제3대 회장 손수상 취임
 - 10월 전국 위암 환자 데이터 관리에 관한 설문 조사
- 2004년 2월 전국 복강경 위수술 현황조사
 - 3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인준
 - 9월 위암 환자의 항암요법에 관한 조사
- 2005년 3월 산하 연구회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창립,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발간
 - 5월 제4대 회장 조용관 취임
- 2006년 1월 KLASS 01 trial 시작
- 2007년 4월 제5대 이종인 회장 취임
- 2008년 10월 대한위암학회 추계 심포지엄 시작
- 2009년 4월 제6대 회장 노성훈 취임
- 2010년 9월 대한위암학회지 영문학술지로 변경 (Journal of Gastric Cancer)
- 2011년 1월 위암 교과서 『위암과 위장관 질환』 발간
 - 4월 제9회 국제위암학회(9th IGCC) 개최(장소: 서울 COEX 그랜드볼룸), 제7대 회장 김동헌 취임/제1대 이사장 목영재 취임
 - 6월 대한위암학회 사무실 개소
 - 11월 Journal of Gastric Cancer Pubmed & PMC 등재
- 2012년 4월 제8대 회장 유완식 취임
- 2012년 6월 Journal of Gastric Cancer SCOPUS 등재
 - 8월 대한외과위내시경연구회 산하 연구회 승인
 - 11월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제도 시행(위장관 분과 교육, 관리, 감독)
- 2013년 5월 제9대 회장 양두현 취임 / 제2대 이사장 박조현 취임
 - 12월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산하 연구회 승인
- 2014년 5월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14 개최(장소: 대전 컨벤션센터), 제10대 회장 권성준 취임, 대한위암학회 미션·비전 선포
- 2015년 3월 대한의학회 2014년도 우수상 수상
 - 4월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15 개최(장소: 제주 롯데호텔), 제11대 회장 박승만 취임 / 제3대 이사장 양한광 취임
- 2016년 4월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16 개최(장소: 서울 롯데호텔), 제12대 회장 최승호 취임
- 2017년 2월 대한위암학회-몽골위암연구회 협력 MOU 체결, 대한외과위내시경연구회 산하 연구회 승인
 - 3월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17(장소: 부산 Bexco), Journal of Gastric Cancer-SCI(E) 등재
 - 4월 제13대 회장 김성 취임 / 제4대 이사장 이문수 취임
 - 11월 제1회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 개최(장소: 서울드래곤시티 용산 컨벤션타워 5층)
- 2018년 2월 대한위암학회 연구지원 사업 공모
 - 4월 KINGCA Week 2018(장소: 서울 워커히 호텔), 제14대 회장 김병식 취임
 - 6월 몽골위암학회 창립, 한-몽 위암학회 Joint Meeting, 위암 궁금합니다-Q&A Book 발간
 - 10월 대한위암학회·대한위암학회 공동 개최 암환자 초청 토크 콘서트 '톡투 위암'(장소: 서울 페럼타워홀)
 - 제2회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 개최(장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
- 2019년 1월 위암 환자 삶의 질 연구회(KOQUSS) 산하 연구회 승인, 축소포트 위장관수술 연구회(REDUSS) 산하 연구회 승인
 - 2월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발간
 - 3월 대한의학회 2019년도 우수학회 선정
 - 4월 KINGCA Week 2019(장소: 송도 컨벤시아), 제15대 회장 민영돈 취임 / 제5대 이사장 배재문 취임
 - 9월 위암 교과서 『위암과 위장관 질환』 개정판 발간
 - 10월 제3회 대한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 및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창립 총회(삼성서울병원, 초대 이문수 회장 추대)
- 2020년 1월 전국 위암 치료 데이터 조사
 - 8월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0 개최(장소: 서울 롯데호텔), 제16대 회장 정호영 취임
- 2021년 6월 Journal of Gastric Cancer-Impact Factor 3.720으로 상승

편찬 후기

‘도전과 성취의 사반세기’ 『대한위암학회 25년사』를 펴내며…

기록, 과거의 교훈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힘.

기억의 흔적들을 모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심정으로 우리 학회가 걸어온 시간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문자로 직조하는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차대한 임무에 편찬위원들 한 명 한 명이 느꼈을 중압감도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야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내쉬는 흔들리는 호흡은 지난 시간의 긴장의 해소와 성취의 희열이 모두 담긴 안도이자 평가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긴장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현 임원진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배재문 이사장님이 학회 내실화 작업의 역점 사업으로 학회 25년사를 정리하자고 하셨을 때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과업이지만 부족함이 많은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일이었기에… 하지만 ‘팁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학회 편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상현, 김성근, 김인환, 박경호, 이중호, 조인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지면을 빌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편찬 관련 모든 굵은일을 온전히 담당해 준 박경호 간사님의 노고에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찬위원들의 땀과 시간으로 발굴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탁월한 글솜씨로 촘촘히 엮어주신 배민재 선생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편집으로 훌륭한 25년사가 나오는 데 도움을 주신 디자인아이 송영주 실장님께서도 모든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역사서 편찬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았지만, 모든 위원님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상임이사님들,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귀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회원님들의 배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우리 학회의 기록을 남기는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편찬 사업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사료를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되, 술이부작의 원칙을 지키



편찬 회의 중(2020.10.27)

고자 했습니다. 백서 형식의 역사서로서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대명제와 전문성을 위해 의학관련 학회 백서 제작의 경험 역량이 탁월한 집필자를 모셨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록문서와 학회의 방대한 회의록과 자료들을 찾아 모두 검토하는 지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25년사의 뼈대를 잡고 학회의 창립과 발전의 현장에 계셨던 역대 학회장, 이사장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개인의 기억 정보가 공통된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 맥락에서 기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참여하는 편찬 사업이 되고자 학회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록물과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회원분들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우리 학회 회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첫 번째 역사서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의 시간을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것의 불완전함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인쇄가 아닌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활자화를 통해 향후 불완전한 기록을 온전한 역사로 바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여 시간을 돌이켜 보며 편찬위원회에 신뢰와 지원으로 격려해 주신 배재문 이사장님과 정호영 회장님, 그리고 민영돈 전임 회장님 그리고 언제나 믿음과 배려로 함께해 주신 학회 상임이사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전과 성취의 사반세기’ 마지막 장은 우리 학회 미래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2021년 9월

편찬사업위원장 정재호

편찬사업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간 사: 박경호

위 원: 김상현, 김성근, 김인환, 이중호, 조 인



정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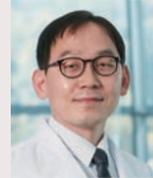
박경호



김상현



김성근



이중호



조 인

대한위암학회 25년사(1996~2021) 도전과 성취의 사반세기

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발행인 | 배재문

발행처 | 대한위암학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616호

전 화 | 02-730-3760

홈페이지 | www.kgca-i.or.kr

디자인·편집 | 디자인아이

ISBN 979-11-85391-28-1



대한위암학회



9 791185 391281
ISBN 979-11-85391-28-1

95510
(PDF)